

北韓調査研究一金日成

金 日 成 研 究 論 叢



國 土 統 一 院

이 論叢은 金日成 研究 資料로 活用하기
爲하여 關係된 研究 論文을 蒐集하여 수록
한 것입니다.

1976年 12月 日

刊行責任：調查研究室 補佐官
崔 炳 輔

國土統一院 調查研究室

總 目 次

金日成(金聖柱)의 正体	1
調查研究室	
金日成言行變化過程分析	109
調查研究室	
金日成選集修正過程分析	169
趙 在 瓊	
金日成政治行態의 分析	245
李 聖 根	
金日成 (本名 金聖柱) 研究	307
白 尙 昌	
金日成 및 周邊人物들의 言動과 對南挑發	399
調查研究室	

金日成(金聖柱)의 正体

研究執筆責任：調査研究室(1973)

目 次

序 論	3
第 1 部	愛国志士 金日成將軍論	11
第 2 部	抗日 빨치산 金日成將軍論	55
第 3 部	金聖柱의 正体	98
結 論	107

序 論

背 景 (I)

(金日成將軍에 關한 認識變遷)

日帝時의 金日成將軍象

- 1910年代부터
- 祖國의 光復을 위하여
- 白頭山 韓滿國境, 滿洲 시베리아에서
- 白馬를 타고 山野를 누비는 名騎手이며
- 縮地法과 威身術로 神出鬼沒하는 神人이며
- 日本陸士出身의 名將이며
- 到處에서 日本軍을 殲滅하는 百戰百勝의 老將으로서



〈 抗日愛國獨立志士의 象徴이며 民族의 希望 〉

8.15 直後

金日成將軍으로

登場한 金聖柱象

- 33세의 애송이
- 蘇聯軍下級將校(大尉級)
- 共產主義者
- 無識者



〈 假字金日成 蘇聯의 走拘 〉

오늘의 傾向

- 愛國志士 金日成將軍象 ————— 消滅
- 假字金日成論 ————— 衰退
- 金聖柱의 金日成將軍論 ————— 現實化傾向

原因分析

- 時間의 흐름
- 世代의 交替
- 金聖柱에 對한 北韓의 宣傳強化
- 우리의 無關心
- 金日成將軍에 關한 研究 및 啓蒙의 不足

背景 II
金日成研究現況

※基準 絶対論◎(1.5点)
肯定論○(1.0")
可能論△(0.5")
否定論×(0.0")

主張別 論者	(1) 金日成將軍論		(2) 抗日빨기산金日成論			出 処 (論 点)
	実在論	伝説論 (造作論)	金聖柱 同一人論	多数金日成論 同名異人論	(1)과(2)의 同一人論	
北 韓	×	×	◎	×	△	○ 金日成伝 (金聖柱偶像化)
韓 載 德	○	×	○	×	×	○ 金日成을告發한다 (金の脆弱点暴露)
徐 大 肅 (美国)	×	○	○	×	×	○ 韓国共産主義運動 (韓国側批判)
共産圏問題 研 究 所	○	×	○	×	×	○ 金日成과金聖柱 (金伝의 虚構性)
玉 城 素 (日本)	×	○	△	△	×	○ 金日成思想과行動 (金伝批判)
李 英 命	○	×	×	○	×	○ 論文講義 (金聖柱仮字論)
強 度	3	2	5	1.5	0.5	
順 位	2	3	1	4	5	

分 析

- (1) 金聖柱와 抗日빨지산 金日成의 同一人論이 第1位로 優勢한 理由는 基本資料不足과 北韓宣傳의 積極性 때문인 것 같다.
- (2) 金日成將軍의 實存論이 第2位이나 李命英教授以外的 他論者 들은 伝說的인 推象論만 主張할 뿐 그의 科學的根拠를 提 示하지 못하여 第3國人들의 造作說을 誘發하고 있는 形便 이다.
- (3) 李教授의 抗日빨지산 金日成의 多數論은 國策上 바람직한 것이나 資料未備와 지나친 金聖柱無視論 때문에 疑惑을 받 을 念慮가 있다.
- (4) 金日成將軍과 金聖柱의 同一人論은 最下位인 바 이것은 金 日成將軍說의 傳統的 潛在力에 對한 北韓의 挑戰迴避 및 消極的宣傳에 基因된 것 같다.

評 価

- (1) 共히 決定的資料의 欠陥 때문에 雜多한 主張을 發生케 하고 있다.
- (2) 그럼에도 不拘하고 愛國志士 金日成將軍에 對한 傳統的이미지 때문에 金日成論은 아직도 多數層의 好奇心을 刺戟하는 것 같다.
- (3) 이와같은 研究欠陥과 多數層의 好奇心에 便乘한 北韓은 金日 成將軍의 神話的 愛國鬪爭象과 抗日빨지산 金日成들의 反日鬪 爭実績을 金聖柱의 것으로 巧妙히 配合하여 金聖柱의 民族的 英雄化 및 統一指導者化에 注力하고 있는바 昨今의 諸傾向으 로 보아 그 影響을 決코 無視할 수 없을 것으로 評價된다.

判 断

- (1) 北韓의 金聖柱, 金日成論과 그것이 統一問題에 거칠 影響을 重視하고
- (2) 그의 対応策講究가 要望된다.

金聖柱의 金日成化를
위한 北韓의 最近策動

- (1) 愛国志士金日成將軍 및 關聯資料의 湮滅工作強化
- (2) 金聖柱의 金日成將軍化의 既定事實化 (北의 主体思想의 基調化)
- (3) 韓國指導層에 對한 謀略中傷의 強化

〈南北指導層의 經歷對比를 暗暗裡에 誘導〉

北韓의 底意

金聖柱의 民族的英雄化 韓國指導層에 對한 不信思想提高

〈北의 統一主導權掌握印象浮刻〉

北의 策動放置時의
問 題 點

- 金聖柱의 金日成化를 現實化
- 愛國志士金日成將軍의 功積 消滅
- 民族史의 歪曲
- 民族精神의 損傷
- 韓國指導層에 對한 이미지惡化



〈우리의 統一主導權에 惡影響招來〉

研究內容 및
目 的

- 金日成將軍 및 金聖柱資料蒐集과 既研究內容을 檢討



- 金日成將軍과 金聖柱의 無關性을 立證
- 抗日빨지산 金日成과 金聖柱의 關係를 糾明
- 金聖柱의 詐欺漢的 反民族的 正體를 把握

研究目的

○ 独立志士金日成將軍의 愛國像 復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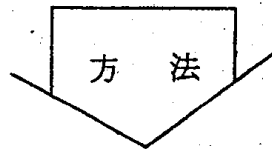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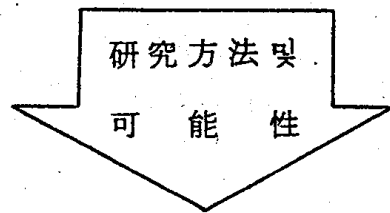
民族의 슬기와 愛國心鼓吹



金聖柱의 偶像化粉碎



統一運動에 이어 韓國主導權強化에 寄與



○ 北韓이 主張하는 金聖柱의 金日成号稱時期인 1931年을 基準
으로 設定



第 1 部	第 2 部	第 3 部
○ 1931年以前の金日成將軍資料를 発掘 ↓ 金日成將軍의 実在說形成 ↓ 金日成將軍과 金聖柱의 無関說立証	○ 1931年以後의 金聖柱以外の 金日成資料蒐集 ↓ 他金日成說形成 ↓ 金聖柱의 盜名說立証	○ 在滿時節의 金聖柱行跡調査 ↓ 金聖柱의 罪惡相把握 ↓ 金聖柱의 非人道的 反民族的正体立証



○ 金聖柱의 金日成化 民族的英雄化策動粉碎可能
↓
〈研究内容의 活用方案은 別途提示為計임〉

第一部 愛国志士 金日成將軍論

愛国志士金日成將軍과 金聖柱의 無関論

(1930年以前의 金日成說)

1. 前提 및 假定

前 提

〈成柱를 日成으로 号称하게된 経緯〉

「金日成이란 이름은 將軍이 五家子一帶에서 活動할 때에 同志들이 지어준 것이다. 一同志들은 처음에는 將軍을 一星 또는 한별이라고 불렀다.」

(白峰著 金日成伝 P.96)

※ 同金日成伝에는 金聖柱가 五家子에 있었을 때는 1930年가을 부터 1931年初까지로 되어 있다. (同 P.92)

条 件

○ 1931年以前에 金聖柱以外の 金日成將軍이 實在했을 경우

可 能 性

○ 金聖柱는 金日成將軍과 無關할 것이다.

2. 金日成將軍의
伝說的存在論

가. 徐大肅著
韓國共產主義運動
1918~1948
① 美國

主 張	参 考
<p>(1) 今世紀의 初頭부터 韓國에서는, 日本 帝國主義와 勇敢히 싸워서 韓國人들의 期待와 尊敬을 한몸에 모은, 金日成이라는 이름의 愛國的 民族英雄의 이름이 伝해졌다.</p> <p>(2) 그러나 이 伝說의 金日成正體는 一切 判明되지 않았다.</p> <p>(8) 解放과 分裂以前의 南韓에서 이 문제에 對해서 다음 세 가지 說이 나타났다.</p>	<p>① 著者 徐教授는 現在 「하와이」 大學에 勤務하고 있으며 上掲書는 그가 美國의 休스頓大學助教授로 在職時에 學位論文으로 쓴 것으로서 1967年 프리스톤大學 出版部로 부터 커넬비아 東亞細亞研究所 研究叢書 가운데 한冊으로</p>

主 張	参 考
<p>첫째 1950년에 나타난 것으로서 伝說의 金은 日本陸軍大學을 卒業, 韓國 獨立運動에 投身 1922年 滿洲에서 死亡하였다는 것이고</p>	<p>發刊된 것이라고 한다.</p>
<p>둘째 1956년에 發表된 것으로서 伝說上의 金은 함경남도 端川에서 1888년에 出生한 愛國者로서 滿洲에서 抗日鬪爭, 1926년에 死亡했다는 것이며</p>	<p>② 正義府는 1925年 11月 滿洲奉天省東遼道, 吉林省 南部에, 組織華甸에 義成華義 (學長 崔東오) 設立, 軍事部委員長 李青天.</p>
<p>셋째 1961년에 主唱된 것으로서 金은 1920年代에 南滿洲에 있었던 民族鬪爭機關正義府에② 所屬되어 1931년에 病死하였다는 것이다.</p> <p>이 說에서는 다시 이 金日成伝說의 後繼者가 있었는데 그도 1937년에 死亡하였다고 한다.</p>	

<p>(4) 이것들은 立証되지 않았을 뿐더러 各已 相치되어 오히려 金은 單純한 伝說에 不過하다는 事實을 強力히 시사하고 있다.</p> <p>(5) 이 伝說들은 確實한 証拠가 없기 때문에 北韓의 指導者를 謀略하기 위해 造作된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疑問을 남겨 하였다. (P.257)</p> <p>(6) 위와 같은 說(세 가지說)과는 別途로 金日成伝說은 明白히 實在하였는데 다만 그것이 同一人物이 아닌 몇 사람의 民族主義者 및 共產主義者가 計劃적으로 金日成의 이름을 使用한데서 그 伝說이 만들어진 것이다.</p>	<p>※ 此項은 韓國實情을 모르는 主張이다.</p>
---	------------------------------

徐教授가 調査한

金 日 成 들

區別	實在年度	出 處	人 物 內 容	參 考
1	1928 年	日本外務省文書中 〈國際共產大學卒 業生歸鮮에 關한 件〉	○ 第 1 次朝鮮共產青 年同盟에서 쿠도 베 (모스크바의 極東	

区別	实在年度	出 处	人 物 内 容	参 考
2	1930 年	○ 日本外務省文 書中〈國際共產 大學卒業生歸鮮 에 関한 件〉	<p>勤勞者共產大學)에 보낸 21 名의 留學 生中에 “金日星” 이란 人物이 있었 다. 이 者는 慶 北金泉出身인 金鍾 洙〈別名라스토킹〉 이다. 그는 1928 年에〈크트베〉를 卒業 朝鮮에 돌아 와 第 4 次朝鮮共產 黨活動에 參加하였다</p> <p>○ 朝鮮의 指導的雜 誌인 〈海星〉〈第 1 線〉等에〈金日成〉 으로 署名한 몇줄 의 論文이 들어있 다. 이 論文은 한 결 같이 主題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는 그 의 共產主義運動에 関한 回想文이 섞 여있다.</p> <p>이 人物의 이름은 金慶洙로서 第 2 次 共產黨事件의 連累</p>	※ 前年度 서울 에서 갔었던 當時의 文人 座談會에서 拳 論된바에 依하 면 이 者는 水原高農出身으 로서 抗日武裝 鬪爭의 經歷이 없었다고 한다. (李命英教授)

區別	實在年度	出 處	人 物 內 容	參 考
3	1926 年	京城地方法院檢事 局思想部〈秘密結 社朝鮮共產黨 및 共產青年會事件檢 査의 件〉 P. 82	○ 第 4 次朝鮮共產黨 結成時의 M.L 黨 文書中에 同北京支 部 幹部名單에 〈金一成〉이란 人物이었다.	※ 金俊, 金昌順 共著 韓國共產 主義運動史(3) P. 273 參照
4	1926 年	日本外務省文書件 〈朝鮮共產黨 및 共產青年會事件檢 査의 件〉〈在哈爾 濱 總領事館 同 杜 丹 江 및 柱木斯分館〉	○ 그뒤에 〈金日成〉 이란 人物이 朝鮮 共產青年同盟을 위 한 〈革命〉이란 雜誌를 編輯發行한 일이 있다.	
5		日本外務省文書 〈間島地方에 있 어서의 共產黨運 動狀況〉	○ 間島에 있어서의 第 1 次 共產黨事件後 에 押収한 文書中 에 〈金日成〉이란 人物이 延吉縣의 작은 共產黨大衆團	※ 金聖柱는 1930 年에 金日 成으로 改名 (金伝 P.)

区別	実在年度	出 処	人 物 内 容	参 考
6	1927 年	日本外務省文書中 〈最近全鮮治安維持法違反確定判決集〉	<p>体〈修養会〉의 教育部長으로 일한 것이 나타나 있다 이 団体の 長은 李仁秀이다.</p> <p>○ 第1次共産党事件 後 朝鮮共産党 滿洲總局은 北滿団体の 組織部長 金運漢은 裁判中 陳述에서 그가 처음 1926 年에 滿洲共産主義運動에 参加하였을때 部長 姜華仁에 依하여 〈아첸〉地方에 派遣되어 거기서 朝鮮共産主義青年同盟員〈金日成〉의 協力を 받았다. 그는 1927 年 1 月부터 3 月까지 2 個月間 〈金日成〉과 함께 共産主義를 宣傳하였다.</p>	※ 〈아첸〉

区 別	実在年度	出 処	人 物 内 容	参 考
7	1920 年頃	日本陸海軍文書 〈中 聯合定伝部 의 活動〉	○ 滿洲 및 蘇聯沿 、海州地方에서 이미 〈金一声〉(30 歲 程度)의 人物이 있었는데 當時中国 服을 입고 1927 年 12 月 27 日 朝鮮 元山에 潛入하였다. 이 者는 1927 年 12 月 1 日에서 24 日사이에 〈이만〉 에서 열린 朝鮮人 共產主義者들의 小 委員會結果〈이만〉 에서 朝鮮에 潛入 키로 되었다.	
8	1930	日本外務省文書 〈在吉林總領事館 및 敦化分館〉	○ 滿洲共產主義者크 럽의 機關誌〈赤旗〉 1930 年 7 月号에 金日成의 죽음을 哀悼하는 論文이 掲載되어 있다.	※ 7 과 8 이 同 一人인 것 같 다 (徐教授)

區別	實在年度	出 處	人 物 內 容	參 考
9	1930	日本外務省文書 〈第4次間島共產 黨事件判決〉思想 月報第2卷4号	○ 間島 第4次共產 黨事件(5.30事件) 때 〈金一成〉이라 는 人物이 暴徒中 의 한共產主義크럼 을 引率 龍井市街 를 破壞하였다.	

現金日成과의
關係에 對한
主 張

- (1) 現金日成은 이 假名을 使用한 많은 革命家中의 한 사람이다.
몇가지 假名을 使用하는 것은 當時革命家들의 常習이었다.
- (2) 그러나 現金日成은 이들 9名속에 끼어 있지 않다. 9번째
의 金日成과 時期的으로 合致되나 現金日成은 間島暴動에 參
加한 것을 否定한다.

評 価

- (1) 徐教授는 至今까지의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資料를 發掘整理하였기 때문에 今後の 金日成 研究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2) 그리고 問題를 科学的 資料에 依拠 客觀적으로 풀어 보자고 努力한 것도 事實이다.
- (3) 그러나 科学的資料의 未洽으로 金日成將軍의 實在를 否認하는 듯한 主張을 내세운 것은 매우 遺憾이다.
- (4) 特히 上記(세가지 金日成傳説)이 韓國側의 對金聖柱謀略用 印象 云云은 再考해야 할 것이다.
- (5) 後述하겠지만 그가 지난번 的國時 1972年 李命英教授에게 自身の 研究不足을 是認한 것으로 전해지는 바 事實이라면 多幸한 일이라고 하겠다.

意 見

- 徐教授와 같은 速斷이 民族的利益에 미칠 影響을 考慮.
金日成研究와 그의 올바른 啓蒙이 크게 要請된다.

나. 城 素 者
 金日成의 思想과 行動
 (日 本)

主 張	参 考
<p>(1) 戰後北朝鮮에 金日成이 華麗하게 登場하였을때 朝鮮의 共產主義者들 속에서 「저자가 果然 진짜 金日成일까」 하는 疑問이 한동안 宏壯하였다. (P.180)</p> <p>(2) 1945年8月の 日本敗戰으로 金日成(現)가 朝鮮民衆앞에 나타나기 以前の 그의 經歷에 대해서는 몇가지 수수께끼가 나 들고 있다.</p> <p>그 첫째는 金日成(現)이 朝鮮民衆사이에서 傳統的으로 伝해진 <金日成將軍>과는 別途의 사람이란 点이다.</p> <p>그 두번째 問題는 그의 滿洲에서의 革命運動이 어떤 組織가운데서 行하여 졌는가 하는 点이다.</p> <p>그 셋째는 朝鮮民衆사이에 오래前부터 伝해진 <金日成將軍>의 實在的인 問題이다.</p>	<p>① 著者 玉城素(다마끼 모도이)은 1926年生 日本 第二高等学校中退 맑스主義者이며 이著書<金日成의 思想과 行動>은 東京<코리아> 評論社(發行者) 金三奎)가 1968年5月25日에 發行된 것이다.</p>

主 張	参 考
<p>(3) 金聖柱가 金日成으로 改名했다는 事實은 叙述^②上에는 없으므로 当時 朝鮮 人民사이에 宣傳된, 「金日成將軍」이라는 伝說的 이름과 金聖柱라는 實在의 人物이 어느사이에 어데서 重合되고만 것이다.</p> <p>(4) 내가 들은 一說에 依하면 이때보다 훨씬 以前부터 實存의 金日成將軍을 받드는 朝鮮人빨치산 部隊가 滿洲에서 活動하고 있었으며 朝鮮人 武裝鬭爭을 象徴하는 것으로 民衆들이 받아들였다.</p> <p>(5) 이 部隊에서는 本隊의 所在를 갖추고 金日成의 神出鬼沒 이디지를 投射하기 위해 그의 모든 本隊에 金日成 部隊라고 稱하게 하고 모든 部隊長에게 金日成으로 行動할 것을 許容하였다.</p> <p>(6) 이 傳統이 繼承되었기 때문에 金成柱도 아무런 抵抗없이 金日成를 한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 說에는 確証이 없으나 그러한 이야기다.</p> <p>今後 滿洲에서의 朝鮮人빨치산史의 一</p>	<p>② 當時까지 北韓의 著書들은 金聖柱가 金日成으로 改名한 年代를 밝히지 않았다.</p>

環으로 研究할만한 일이다.

(7) 現在의 金日成이 解放以前에 韓國人民들 속에서 伝說的으로 伝播되어 온 民族的 英雄 金日成과는 別個의 人物 일 것이란 말은 여러번 들었으며 韓國關係의 文献에서도 散見되었다.

(8) 그러나 日本에서 活字化된 諸資料에 關한限 別人說을 뒷받침 한것은 兎見치 못했다.

(9) 金日成의 別人說을 確認하기 위하여는 中國의 東北地方에서의 解放運動史 朝鮮語에 依한 民族運動, 社會主義運動 關係資料, 日本의 警察, 朝鮮總督府, 滿鉄等等의 原史料에 關해 精査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그러한 條件이 具備되지 않은 現在의 日本에선 그것이 不可能한 일로 생각된다. (上掲書 P. 48)

(10) 그러나 徐教授의 研究(上記5行)는 至今까지의 金日成 이름에 關한 여러가지 疑問에 對하여 現在까지는 가장 周到한 回答으로 된다고 생각한다. (上掲書 P. 52)

評 価

- (1) 著作은 共産主義者이면서도 問題의 意識과 處理에 正確과 公平을 期하려고 努力하였다.
- (2) 그러나 그自身の 實吐대로 資料의 欠乏이 問題의 核心이긴 하나 徐教授의 立張에 同調的인 것은 納得이 가지 않는다.

意 見

第3国人이며 共産主義者인 著者의 反金聖柱의 態度 및 金日成 將軍에의 關心이 至大한 것 金日成 將軍의 實存論이 科学化될 경우 이는 反金聖柱의 政治心理戰 效果를 크게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3. 金日成將軍의
實存論

가. 韓載德著
<金日成을告發한다>

主 張	参 考
<p>(1)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民族의 民族的英雄으로서 모두가 우러러 받드는 진짜 金日成將軍은 洪範圖, 金佐鎭將軍^①같은 어른들의 戰支로서 모두가 相當한 年輩였다. (P.103)</p>	<p>※ ① 洪範圖, 金佐鎭將軍이 滿洲에서 獨立鬪爭을 하던 때는 1910 ~ 20年代였다.</p>
<p>(2) 그는 1930年^②쯤에 큰 뜻을 이루지 못한채 異國땅에서 한 많은 一生을 마쳤다.</p>	<p>② 大体로 平安道地方에서는 金日成將軍의 死亡時期를 1930年 또는 1981年으로 推測하고 있다.</p>
<p>(3) 滿洲地方倒廻에서 이 金日成將軍의 英名을 盜用하는 사람들이 統出하였다.</p>	<p>③ 韓氏는 8.15直後 평양 民報 編輯局長 在職時 紙上에 最初로 金聖柱에게 金日成 將軍의 称号</p>

主 張	参 考
<p>(4) 其中에 最後까지 남아 이름을 남긴 者가 金聖柱인 金日成이다.</p> <p>(5) 金聖柱가 언제부터 그 이름을 濫用하게 되었는지는 자기들 스스로 밝히지 못한 것인데 ~50年生日 記念文献에는 그것이 그가 유격대를 組織하는 初期부터 있었던 듯이 모호한 소리를 하고 있다. ③④</p>	<p>를 붙인 사람으로 自 處하고 있다.</p> <p>④ 韓氏는 韓國으로 帰順 (1959), 韓國에서는 金日成 研究에 着手한 最初의 사람이다.</p>

나. 共産圈問題研究所編
〈金日成과 金聖柱〉

主 張	参 考
<p>(1) 解放初期 平南人民政治委員會에 参席 ① 했던 李宗鉉氏가 金日成을 보고</p>	<p>① 当時 朝鮮民主黨幹部 越南後 農林長官 및</p>

主 張	参 考
<p>[우리는 벌써 10^②年前에 金日成 將軍이 이世上을 떠났다는 말을 듣고 몇몇 同志들끼리 몰래 모여서 追悼 祭사까지 지냈는데 이제 살아 돌아온 金將軍을 눈앞에 보게되니 그때 올렸던 祭酒는 이 자리에서 찾아야 하겠는데]하고 빈정대자 金聖柱는 얼굴을 바꾸며 몹시 唐慌하였다고 한다. (p. 11)</p> <p>(2) 五家子一帶^③ 있을때니까 1931年으로 되어 있다. 그때 19^④歲의 少年을 두고 <一星>이가 미흡하여 <日成>이라고 불러 받들지 않으면 안되었다는 說은 額面대로 받아들일 余地는 者는 없다.</p> <p>(3) 더우기 1931年 즈음은 老將軍이 功名을 뒤로 世上을 버렸다는 說이 나돌고 있을때라는 點에 비추어 聖柱→一星→日成論을 捏造된 것임이 分明하다.</p>	<p>国会議員을 지냈음</p> <p>② 當時 1945年이니까 平安道 一帶에서 金日成將軍 死亡年代를 1930年으로 보고 있다.</p> <p>③ 五家子는 滿洲吉林省에 있음</p> <p>④ 31年이면 16歲가 된다는 說도 있다는 事實에 우선 留意하기 바람</p>

〈가〉와 〈나〉의
評 價

- (1) 韓載德氏의 研究에는 學術的 根拠가 不足한것이 欠陷이다.
그가 平安道地方에 流布된 金日成 將軍說을 収録한 事實은 資料로서 採択할 價値가 있을 것이다.
- (2) 그리고 韓氏는 8.15 以後 北韓에서 現金日成一黨과 接觸하면서 得聞한 內容들도 伝해 주고 있는데 그 亦是 參考資料가 될것같다.
- (3) 그러나 科學的 根拠의 不足과 誹講的 主張은 徐教授와 같은 인테리들의 誤解를 받을 念慮가 있다.

意 見

- (1) 學者들의 研究着手로 推象的이며 誹講的 宣傳方式이 通하던 時代는 지나간것 같다.
- (2) 今後 學術的 方法이 土臺가 될 政治心理戰的 資料開發研究가 要望된다.

①
다. 李命英教授의
主 張

主 張	参 考
<p>(1) 日帝時 金日成이라는 이름의 抗日 闘士는 數없이 많다.</p> <p>(2) 그러나 其中 우리民族의 伝說에 符合되는 진짜 金日成 將軍은 1888年 함남 端川水下面黃谷里 金斗天의 次男(金昌希)와 1911年(旧韓末時) 日本陸士 第23期 共科出身 金光瑞(一名 金声天) 等 두 사람이다.</p> <p>(3) 金昌希는 1907年 反日義 將으로 起義하여 端川 五峰山, 檢德山, 白頭山, 滿洲地方에서 巧妙한 戰術로 抗日武装闘争을 하다가 1926年에 戰死하였다.</p> <p>(4) 金光瑞^②는 1919. 3.1 運動에 民族的 衝擊을 받고 當時 그가 勤務하던 日本軍(東京市)에 長期 休暇届를 提出 서울에 돌아왔다가</p>	<p>① 李命英教授는 우리나라 에서 金日成論을 學術的으로 研究하는 唯一한 學者이다. ></p> <p>李教授의 金日成關係論文에는 東滿의 風雲兒 吳成崙(月刊中央 1973.7.号)과 「在滿韓人祖国 光復會」 研究(成均館大學校論文 集第十七輯)이 있다.</p> <p>② 그는 白馬를 타고 다녔다고 한다.</p>

主 張	参 考
<p>다시 滿洲로 가서 新興軍官學校 軍事教官으로 後進들의 養成과 抗日鬪爭中 用務次 시베리아에 出張 그곳에서 赤軍과 協力하여 日本軍을 大破하였다. 그러나 그는 共產主義者들과 뜻이 맞지 않아 1925年頃 시베리아 <우리지보스톡>을 떠났는데 其後 行方이 不明해졌다.</p> <p>(5) 金昌希와 金光瑞의 鬪爭이 합쳐 金日成將軍 이미지를 形成한것 같다.</p> <p>(6) 평양의 金日成은 金日成將軍 時節에는 젓먹이거나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程度의 사람이다.③</p>	<p>③ 金昌希說과 金光瑞說에 關해서는 資料를 補充하여 다시 紹介하겠다.</p> <p>③ 具體的 內容은 本稿 第二部에서 다시 紹介될 것임.</p>

評 価

- (1) 上記内容은 至今까지의 어느 金日成將軍 實在說보다도 具体性을 재고 있으며 李教授는 學術的 根拠提示에 努力하고 있다.
- (2) 그러나 그의 主張은 主로 함경도 地方에서 流布된 金日成將軍說에 依拠한 感이 없지 않다.
- (3) 그리고 金光瑞의 金日成將軍說은 자칫하면 金昌希의 說을 弱화시킬 念慮가 있다.

意 見

- (1) 既往에 多數人の 金日成將軍 이미지 形成論을 主張하려면 金光瑞 以外에도 平安道地方에서 流布되는 金日成將軍說 (1931年 病死者 및 同繼承者)까지도 包含해서 綜合 整理함이 좋을것같다.

4. 其他文献 및 国伝
속의 金日成將軍資料
(1931年以前分)

区分	出現年代	根 拠	内 容	参 考
1	1910	○ 韓南端川一帶의 口伝 및 文献①	○ 金日成將軍은 端川郡 水下面 黃谷里自寬村 居住 金斗天의 次男 金昌希	① 뒤 에 具體的 資料提示学 · 計劃
2	"	○ 金承学編 韓國獨立史 下卷 (p.89) (1969.9. 發行)	○ 金日成 ○ 4222 (1889) 年 에 端川에서 出生 ○ 4259 (丁末 1907) 年 에 起義 ○ 白頭山中心으로 抗日 鬪爭 ○ 4259 (丙寅 1926) 年 에 戰果를 거두고 沒	* 同書에는 滿洲에 根拠를 둔 抗日鬪士들 의 端川地方에 서의 活動記錄 이 많이 나온 다.
3	"	○ 韓國獨立運動 史編纂委員會 編	○ 金日成將軍은 端川人 ○ 1907年 軍隊解散後 起義	

区分	出現年代	根 拠	内 容	参 考
		<p>獨立運動史 (第1卷) 〈抗日義兵史 p. 635〉 (教育圖書出版社刊)</p>	<p>抗日鬪爭展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국시까지 白頭山中 心으로 日軍과 數十次 激戰 ○ 日人들의 간담을 서 늘하게 하였음 ○ 1926 (丙寅)에 순국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朝鮮日報 〈人 脈〉 (1969.8.25字)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金一成 (? ~ 1926) ○ 抗日鬪士 ○ 白頭山에서 〈게릴라〉 로 有名 	
5	19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28.6.1字 總督府警務局 長앞 함경남도 警 告文 〈함남警秘 第127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22년에 金日成 一党이 ○ 滿洲間島省内에 根拠 地를 두고 ○ 朝鮮内に 潛入 ○ 抗日鬪爭을 위한 軍 資金調達① 	<p>① 端川軍資金 事件과 年 代 一致</p> <p>※ 1, 2, 3, 4, 5가 同一人</p>
6	19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24.2.24 每日新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自称義龍軍의 馬賊化 ○ 大韓義軍府^① 忠勇軍의 한部隊 金日成의 ~ 	<p>① 義軍府는 1922年 滿 洲 (항인현</p>

区分	出現年代	根拠	内容	参考
				<p>小雅河口에서 統義府로부터 離脱한 團體로 서 主로 国内 襲撃</p> <p>※ 端川人과의 關係要檢討</p>
7	1920	<p>○ 玉城素著 〈上掲書 p.180〉</p>	<p>○ 내가 在日朝鮮人으로부터 傳聞한 말로서는</p> <p>○ 金日成將軍의 이름은 滿洲에서는 1910年代부터 傳여왔으며</p> <p>○ 그이름이 一躍有名해진것은 1929年當時의 反日部隊의 一方의 英雄이었던 金佐鎮을 殺害했을때였으며</p> <p>○ 其後 얼마안되어</p>	<p>※ 所謂 金佐鎮將軍殺害者로서의 金日成說이다.</p> <p>※ 李命英教授는 同金日成은 北滿洲 〈아성〉 地区 位置의 高麗 共產青年會幹部 〈金一星〉으로 推測</p> <p>※ 金承學編</p>

区 分	出 現 年 代	根 拠	内 容	参 考
			金日成의 存在는 一 時不明이었다.	獨立史에서는 金佐鎭殺害者 는 朴이라고 (p.) ① 蘇聯逃走?
8	1920	○ 金鍾範著 (解放前의 朝鮮事情)	○ 金日成將軍 ○ 日本陸士出身	○ 李教授는 同 主張을 金光 瑞로 推測
9	1930	○ 金承學編 上掲書(p.395)	○ 1932年 滿洲事變 以後 事態 不利하 게 되자 ○ 南滿洲의 獨立軍은 大体로 네가지 길 로 分散되었다. 첫째 : 殉國派 (梁世 鳳) 둘째 : 南中國行 (李 青天, 洪震,	

区分	出現年	根拠	内容	参考
	1930	○ 徐教授 上掲書	<p>吳光鮮)</p> <p>셋째 : 蘇聯行 (金日成)</p> <p>넷째 : 降服派</p> <p>○ 1931年 南滿洲 正義府所属 金日成 死</p> <p>○ 承名者, 金日成은 1937년에 死亡</p>	※ 9의 金日成 과 同一人 아 닐까?

評 価

(1) 上記 10件中 重複된 人物을 勘案하면

端川人 金昌希, 日本陸士出身 金光瑞, 南滿에서 死亡한 正義
府所屬人 및 同承名者 그리고 金佐鎮將軍 殺害 嫌疑者 等
計 5名의 金日成이 存在한다.

(2) 特히 함경남도道警 公文과 毎日新報는 金日成實在說을 立証
하는 좋은 資料가 될것이다.

(3) 그리고 上記 (5), (6), (9), (10)에 關한 資料補充과 權威있
는 考証을 거친다면 (1), (2), (3), (4)의 端川人 金昌希와의
어떤 聯關性이 發見될 可能性도 없지 않을 것이다.

意 見

資料의 繼續發掘과 權威있는 考証이 要望된다.

5. 綜合分析

金日成總數
(1931以前分)

○ 徐教授 集計分 (全員共產主義者)	9名
○ 其他 文獻에 나타난 分	5名
	計 14名

其 中
思想別數

○ 共產主義者 (金聖柱 不包含)	10名
○ 民族主義者 (金昌希, 金光瑞, 正義府, 義軍府所屬)	3名
○ 不明者 (承名者 = 蘇聯行說者)	1名
	計 14名

金日成將軍象
該 當 者

基 準	民族主義者	1910年代 活 動 者	参 考
共產主義者	×	×	(※1)
民族主義者	○	△ 1名 (※1)	金光瑞는 1919年에 渡滿하였으나
不 明 者	△	×	金昌希의 이미지 形 成에 寄与 -

該 当 者

端川人 金昌希說이 가장 有力

意 見

金昌希說의 重点的 研究가 要望된다.

6. 小 結 論

(金日成將軍의 實在与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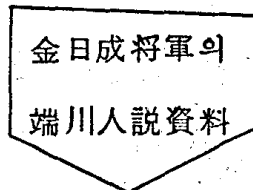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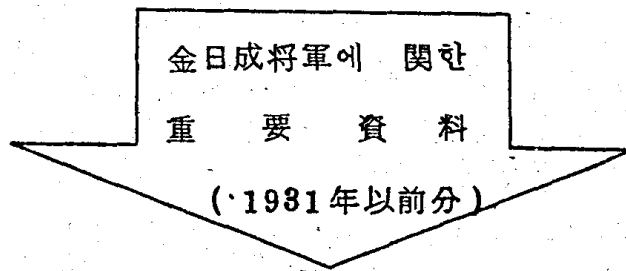
- (1) 金聖柱가 <一星> 또는 <日成>으로 改名한 時期(1981) 以前에도 數 많은 抗日獨立鬪士 金日成이 存在하였음이 確認 된다.
- (2) 따라서 金聖柱와 金日成將軍의 無關說은 一応 成立되는 셈 이다.
- (3) 그러나 이 數 많은 <金日成>들의 活動相이 民族的 希望像 으로 昇華되어 하나의 <金日成將軍이미지>를 形成한 感이 없지 않다.

問 題 點

- (1) 따라서 金昌希와 같은 實在의 人物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金日成將軍說은 默殺되거나 하나의 神話로만 받어지는 傾向이 있다.
- (2) 그리고 金日成將軍의 두가지 이미지 (抗日獨立志士의 像徵的 이미지와 神話說的 이미지)는 北韓으로 하여금 民族 正史를 捏造하여 <金聖柱를 金日成將軍化>할 수 있게한 根本要因 가운데 하나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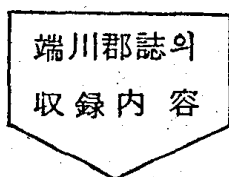
對 策

- (1) 이런 問題들이 우리의 無關心과 研究不足 및 旧態依然한 金聖柱 批判論에 基因된다고 判斷되므로
- (2) 金日成將軍說의 가장 有力한 人物인 <金昌希>에 關한 資料補充과 權威있는 考証 및 學術的 方法에 依한 統一心理戰的 開發에 注力한다면
- (3) 北韓의 赤化統一心理戰的 金聖柱 偶像化政策은 큰 打擊을 받을 것이다.



○ 上掲 諸文献

- (1) 韓国独立史 (金声学編)
- (2) 韓国独立運動史 (獨立運動史編纂委員會編)
- (3) 朝鮮日報 (人脈)
- (4) 民族의 別들 (柳麟著)
- (5) 端川郡誌 (端川郡誌編纂委員會編)
- (6) 端川出身者들의 証言 (追加分)



要 点 別	内 容	参 考
証 人 및 伝 記	(1) 徐春植 (金一成將軍 目見者) (77歲 現在서울居住 同鄉人)	※其他 多数 端川人 証言聽取 可能

要 点 別	内 容	参 考
	<p>(2) 秦承烈 (金將軍目見者) (72歲 現在 서울居住 1922年 端川署員)</p> <p>(3) 함국衡 <金將軍出身面長 > (69歲 現서울居住 延專卒)</p> <p>(4) 金淳彦 (60歲 金將軍同鄉人 現서울居住)</p> <p>(5) 金声翰 <現東亞日報理事 > (豊山郡出身 = 端川隣接)</p> <p>(6) 유동섭 할머니 <金將軍親戚 > (78歲 現在 서울居住)</p> <p>(7) 柳麟 <民族의 별들 著者 > (不明 金將軍後見人 自称)</p> <p>(8) 其他 端川人들</p>	<p>※ 함氏 : 1917年 祖父가 金將軍에 보낼 軍資金을 내는것을 보았다고 함</p> <p>※ 出身面 <水下面 > 青年會智育部長兼 体育部長</p>
2. 將軍의 基本狀況	<p>(1) 本名 : 金昌希 (1889年 8月生)</p> <p>(2) 家族狀況 : 父 金斗天 <旧韓末 함북 隱城郡守 > 母 薛氏 兄 昌元 弟 昌道</p> <p>(3) 出生地 : 함南端川郡水下面黃谷里自寬 村 <火田民密落 ></p> <p>(4) 宗教 : 天道教</p>	<p>※ 証人 < 7 > 은 出生年을 1896年 으로 主張 < 7歲差異 ></p> <p>※ 奧地 陰山 端川邑에서 約 90km 地点</p>

要 点 別	内 容	参 考
	<p>(5) 人相 및 特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氣骨이 長大, 거적눈 비슷 長身<關羽, 張飛型> ○ 힘이 壯士 ○ 行動機敏, 亂暴 ○ 武術<검술, 유도, 사술>非凡 ○ 雄弁, 說得力, 統率力이 非常 ○ 變性術<日本憲兵命倉의 말> <p>(6) 学 歷</p> <p>① 故鄉의 漢文書堂</p> <p>② 1912年 端川一進小学卒業說 <証人 7 ></p> <p>③ 서울培材学堂 卒業說<証人 7 ></p> <p>④ 国民会獨立軍官学校卒業說 <証人 7 > (証人 7 柳氏가 推薦 主張)</p> <p>※ 閔島省 安函県松風落月所在 <証人 7 ></p>	<p>大韓獨立軍黃谷 鍊成所所在地 <後述></p> <p>※ 命倉金將軍写真 保有說</p> <p>※ 9歲時 隱城으로 率家說</p> <p>※(6)項 除外 他項一致</p>
3. 改名時期	<p>(1) 1907年 起義時 <金一成>으로 (証人 1号)</p> <p>(2) 1924年頃 修道時 <김일성>으로 (証人 7号)</p>	<p>※ 証人 7号 主張 대로라면 1924 年以前에도 다 른 <金一成> 이 存在한 것</p>


要 点 別	内 容	参 考
		<p>으로 된다. 그러나 証人은 金日成 單一人說을 主張한다.</p>
<p>4. 起義時期 및 地点 ○ 甲說 (証人 1号外)</p>	<p>(1) 1907年 義兵將으로 (2) 端川五峰山→檢德山</p>	<p>※ 五峰山 : 洪範圖將軍의 戰勝地로 有名 ※ 檢德山 〈白頭山, 茂山, 滿洲의 長白, 撫松, 和竜峯에 連結되는 險山〉 ※ 〈가마귀동지〉事件以後 白頭山으로 根拠移動〈証人 4号〉</p>
<p>○ 乙說〈証人 7号〉</p>	<p>(1) 1919 上記 獨立軍官學校卒業 〈 3個月 修學〉後 露領으로부터 武器 彈藥 密輸責任者</p>	
<p>5. 被逮說 〈 甲說〉 (証人 2号 = 秦承烈)</p>	<p>(1) 1922.8 (陰頃) (2) 端川警察署 留置場에 収監 (3) 収監中 故鄉〈黃谷里〉親戚 할머니의 私食差入을 証人이 周旋 (4) 証人이 監視當番時 用便機會</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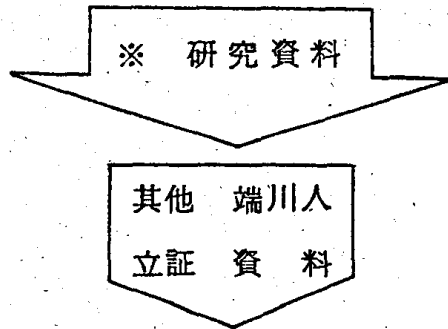
要 点 別	内 容	参 考
	利用 脱獄 (8.14 日) ※ 証人 이 勤務 했던 첫해의 秋夕前日 이므로 잊지않고 있다는 것임 (5) 当時 35 歲 可量 < 1889 年 生 임을 立証)	
乙說 (証人 7 号)	(1) 1921. 11 (2) 父家에서 一泊中 被逮 竜井 日本 総領事館 警察로 押送 (3) 父家 함흥市中 荷里로 移住 (4) 齊藤 実 總督 直屬 機密 囑託 < 金상植 > 과 交渉 < 歸順 免放 > 父家로 歸還	※ 1921 年 父家 間島省 八道溝로 移住 (7 号) ※ 甲乙說 時間 비 슷함
6. 一時就 業說 (証人 7)	(1) 1922. 8 父親 金斗天 (当時 56 歲) 의 請으로 (2) 証人 經營의 木材, 木炭 事業場 (함흥 郡 朝陽面) 에 就業 (3) 1923. 4 証人 出張中 行方 不明	※ 함남 警秘 第 127 号 內容과 다름 ※ 1 年後 便紙 < 兄님 미안, 10 年後 相逢을 約束 >
7. 入山修 道說 (証 人 7)	(1) 江原道 三陟 및 釈王寺 附近에서 藏身術 工夫 (2) 이중 薛麟氏의 入蘇 (日帝時) 同行 懷柔 拒否 < 工夫 中斷 不可, 滿洲를 獨 立 鬪爭의 基地化 主張 >	※ 說話속의 (藏身 術) 을 뒷받침 ※ 薛氏 = 本名 寬建 = 6.25 前 建國 大事務 處長

要 点 別	内 容	参 考
		= 6.25時 越北 = 8.15直後 平壤 서 金日成 面会 했더니 다른 사 람
8. 再入滿 (証人 7号)	(1) 1928頃 再入滿 武力團組織 (團員 精選) (2) 始初本拠地 < 旺清県雙河鎮, 남북 마당 > (3) 民弊 및 敵의 奇襲防止策으로 軍隊의 集結 및 同一地点에서의 3日以上 駐屯 回避 (4) 戰術 < 遊擊戰 神出鬼沒 >	※ 1926年 死亡說 否認 ※ 金將軍 入滿以前 에 父家 滿洲 東京城 < 동이허 >로 移住
9. 重要戰鬪 및 事業 甲 說 (証人 7号)	(1) 活動舞台 < 撫松, 滿揚, 長白県, 安島 > 等地에서 遊擊戰과 宣傳 事業 兼行 実施 (2) 主根拠地 < 白頭山, 松花江流域 > (3) 主要戰鬪 ① 1935.5 旺清大慌講市 占領. (日警에 警備電話로 < 너희들 이 나를 만나려면 이곳에 오 라 >고 威脅電話)	※ 金伝内容과 비슷 (1), (2), (3)

要 点 別	内 容	参 考
	<p>② 함북 은성, 鍾城, 雄基 等地 頻繁히 奇襲</p> <p>③ 祖国光復会組織 < 東滿洲와 南滿洲의 遊擊隊 連結 > 10大綱領 宣布</p> <p>④ 司令官으로 就任</p> <p>⑤ 1937年 11月 平北滋城郡管轄沿岸駐在所를 襲擊</p> <p>1938. 11月 普天보 進擊 (當時 42歲)</p> <p>○ < 나는 端川郡水下面黃谷리에 사는 金斗天氏의 次男, 이름은 昌希이다 > 라고 演說</p> <p>○ 當時 住民들 証言 < 約 40歲 > 程度</p> <p>(4) 竜井 英口徳病院에 2週間 入院 退院時 韓人醫師 看護員 集합시켜 놓고 < 내가 김일이니 日本領事館에 申告하라 > 고 一刑事隊가 뒤를 따랐으나 因忽不見</p> <p>※ 當時 珍斷名簿 金昌旭 (40歲) 으로 記錄, 人相, 体軀 꼭 같더라는 証言이 있었다고</p>	<p>※ ④와 ⑤의 年 代를 립</p> <p>※ 1941年 3月 29日 午後 4時 < 証人 7号 > 端川警察에 被逮 拘留時 同監房에서 < 金斗天 > 再會, 金日 < 故郷에 왔다가 일성行方을</p>

要 点 別	内 容	参 考
		대라고 2週前부터 収監되었으며 自己 도 일성의 行方은 모른다 >고
乙說 (証人4 号) (金淳彦 60歲)	<p>(1) 1916.20 金佐鎮, 洪範 將軍 등이 青山里와 鳳오洞에서 日軍을 大敗시킨 얼마後 事勢不得으로 露領으로 넘어갈 때</p> <p>(2) 昌希는 入蘇拒否, 同調者糾合 長白山 에 根拠地 構築</p> <p>(3) 其後에도 四分五裂된 獨立軍의 團結 위해 昌希는 自己가 바로 <김일성> 임을 밝히고 民族陣營勢力을 糾合<祖 國光復會>를 組織, 抗日遊擊戰 展開</p> <p>(4) 特히 各 行動隊長에게 <김일성>稱 号 賦与 心理戰 展開</p>	
10. 死亡時 期	(1) 1937年 將軍은 側近으로 浸透한 북은 테러에 의해 暗殺(証人4号)	※他証人들은 不言 及
11. 思 想	<p>(1) 宗教: 天道教의 家庭</p> <p>(2) 金佐鎮 洪範將軍들의 入蘇時 同行 拒否</p> <p>(3) 이종 薛麟 入蘇時의 同行拒否 오히 려 薛氏 入蘇를 挽留</p>	

要 点 別	内 容	参 考
	(4) 共産主義테로에 被殺說  反共 民族主義者였음이 立証됨	



事 件 및 証 言	内 容	参 考
1. 端川自立 團 事 件 <端川郡誌 p.134 ~ 135 >	(1) 1915.5 秘密結社 (團長 方周翼) (2) 端川中心, 利原, 北青, 城津, 吉州, 豊山, 甲山 等地에 組織 獨立運動資金 募集機關 金將軍支援 (3) 黃谷里所在 <光復青年鍊成所=大韓 獨立軍에서 教官 配置>의 支援 (4) 日官憲에 발각되어 被逮者 數 10 名 露領逃避者 200 餘名	※金承學編 獨立運動史上卷 p.408 参照 <鍊成所>란 術語 나타남 ※被逮者 方周 翼 金將軍 고 모의 長男

要 点 別	内 容	参 考
2. 独立軍 資金事件	<p>(1) 1922. 10下旬</p> <p>(2) 黄谷리에 拠点을 둔 16名이 軍資金 確保 및 團員 確保 工 作中</p> <p>(3) 沈河翊(51), 白能수(44), 李卓根(60) 등의 密告로</p> <p>(4) 團員 金道彬이 被逮</p> <p>(5) 独立軍 密告者를 射殺, 火刑 까마귀둥지 水葬</p> <p>(6) 独立軍協力者, 朴承혁外 300餘 名 被逮 投獄</p> <p>(7) 全團員 不得已 滿洲로 撤軍時 長白県 富興洞<朴昌成>家에 投 宿中 倭兵 交戰 主人被殺</p> <p>(8) 後日 朴承혁 陳述에 依하면 當時 独立軍 引率者는 <金一成 =金昌希>將軍이었다.</p> <p>※ 1922年 光復軍總營이 統義府로 廢合時 統義府宣傳隊員에 金昌희 라고 있다.</p> <p>얼마後에 同宣傳局長으로 되었다 (上掲 独立史 p.363 参照)</p> <p>① ②</p>	<p>※ 上記 함남警秘 第127号 公文과 有 關聯視</p> <p>※ 金承學編< 独立運動 史 > (上) p.358 과 類似 < 當時 南滿의 独 立運動統一戰線인 光復軍司令部員 16 名, 端川郡水下面黃 谷里根拠 郡内同志 千餘名 糾合 管内 倭敵 一掃計劃 推 進中 白, 李 등의 密告로 挫折 > 로 記錄</p> <p>※ 金日成將軍 (南滿의 金日成) 은 金一成 將軍과 同一人說 成立可能</p> <p>※ 光復軍總營副官 金昌희 = 金昌希 ?</p>

要 点 別	内 容	参 考
		<p>①金昌熙=金昌希? <变性, 雄弁, 說得力 非凡說과 有関?) 慎중한 考証과 資料 補充이 要望된다. ②独立運動史編纂委編 「韓國独立運動史」 <五>의 p.980 参照</p>
<p>3. 黄谷里 住民慘變 事件<金日 成將軍 欽 迎住民 慘 殺事件></p>	<p>(1) 1924年 發生 (2) 金昌希가 独立軍部隊長이 되어 오래만에 寄郷(隊員19名) (3) 住民들 大잔치<돼지잡고 국수 놀러> (4) 數日間 当地에 駐屯中 倭軍擊破 (5) 住民事情 考慮 作戰上後退 (6) 其後 <古城憲兵隊=虛川江 發電 所 第二号 發電所 所在地=現在> 金丙根 外 10名을 銃殺 (7) 물밭덕(火田民村)의 30餘 家口 燒却, 婦女子 30餘名 斃</p>	<p>※當時 金將軍 目見 者=<証人1号>= 徐春植 ※上掲 郡誌 p.135 ※金丙根=金將軍의 어릴때 親友 ※當時 古城憲兵隊 取調官=命倉上等兵 이 金丙根에게 写</p>

要 点 別	内 容	参 考
	(8) 総督府警務局 同地域 (要警戒地区 化, 報道管制, 함口令, 禁足令下達, 警 察駐在所 新設)	提示 < 金昌希 = 金一成 = 匪賊頭 目 = 変性無常한 者 > 라고 < 当時通訳 朴 竜鎮發說 >, 証 人 4 号의 証言 >
4. 端川襲撃 事件	(1) 1927年 < 朝鮮革命軍 > 에서 端川 의 敵機關을 비롯하여 平北各方面에 서 勇敢한 鬪爭을 展開하였다. ※ 韓國獨立運動史 < 五 > 에는 上記 < 朝鮮革命軍 > (吉林省伊通県) 은 同軍第 9 地帶로 되어 있으며 隊長 李鍾落은 同一하다. (p. 733)	① 韓國獨立史 p. 386 < 朝鮮革命 軍 > 이 1926 年에 吉林省 伊通県을 中心 으로 組織될때 의 名單에 金 聖柱와 金伝에 나오는 車光수 가 끼어 있다 는것이 注目된 다. 当時 金 聖柱 14, 5 歲
5. 月 波	(1) 新民府軍政署 < 金佐鎮 > 將軍을 中心 으로한 獨立軍 1929. 10. 北滿寧安 県山市站에 < 韓國總聯合會 > 를 組織	※ 洪泰植著, 韓國 共產主義運動研 究와 批判 < 解

要 点 別	内 容	参 考
6. 金昌道	<p>한바 여기에는 <金月波>도 参加했다.</p> <p>(2) 金昌希 葳身術教育者 = 月波 ?</p> <p>(1) 新興軍官学校 卒業者 (1915 ~ 1920) 名單에 <金昌道>가 있다.</p> <p>(2) 証言에 依하면 金昌希의 弟에 <金昌道>라고 있는데 그의 家族行方에서 <昌道>에는 言及이 없다.</p> <p>(3) 長男인 <昌元>이만 집에두고 昌道는 金昌希를 따라 獨立運動에 參加하지 않았을까 ?</p>	<p>放前線 > p.472</p> <p>※ 金昌希 死亡說 (1926) 以後</p> <p>※ 金홍學編 獨立運動史 p.353</p>
7. 金斗天	<p>(1) 1935.3.31 吉林共助會 關係者 <金斗千></p> <p>(2) 南京軍官学校와 氣脈을 통한 新韓獨立黨 檢挙時 被逮</p> <p>※ 金日成將軍 起義後 金斗天一家는 間島로 移住</p>	<p>※ 金斗天 = 金斗千 ?</p> <p>※ 日本外交文書 < SP. 205-5 >의 < 9308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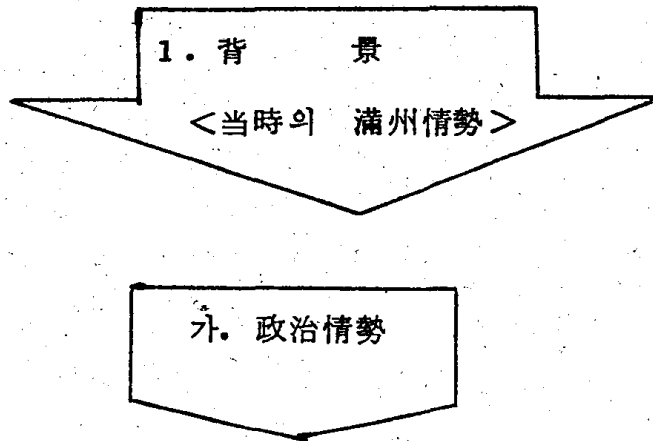
問 題 点

- (1) 上記 資料 (証言 및 文献 間) 에는 金日成將軍의 變化無雙한 變性에도 基因되겠지만 生年, 死亡年度 및 學歷 等 基礎点에 相馳되는 것이 있다.
- (2) 金昌希의 弟 金昌道의 承名關係가 아닐까?

- (1) 보다 広範한 資料蒐集과 徹底한 考證이 要望된다.
- (2) 特히 昌希의 < 1926年 死亡說과 1931年頃の 死亡說 > 朝鮮 革命軍의 1926年 死亡說과 1928年의 再入滿說 > 金誠柱와 端川襲撃說 > < 昌熙, 月波, 昌道, 斗千의 実体 > 및 後章 (第二部) 의 金成柱의 行脚 (날조된것) 等を 徹底히 考證 하면 그 어떤 脈路이 있을 可能性도 없지 않다.

第二部 抗日빨지산 金日成將軍論

< 1931年以後의 金日成論 >



政 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国民政府는 中共黨과의 内戰으로 滿州에 손을 쓸수 없었고 ○ 東北政權의 首領 張學良도 滿州事變으로 日帝關東軍이 쳐들어가자 中国本土로 逃走하였다. ○ 그러나 滿州에 殘留한 張學良部隊 (王德林, 吳義成) 宗教勢力 (大刀會, 紅蒼) 韓國獨立軍, 共產遊擊隊는 繼續 抗日鬪爭을 하였다.
蘇 聯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17年 「하르빈」에 共產黨組織 ○ 1920年 東鐵附屬地區黨 事務局設立 (共產運動의 大本營) ○ 1931年 滿州事變으로 活動위축

中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26.7 中共党大連地方委組織 ○ 1928 奉天에 滿州省委組織 ○ 1930 中共党 滿州省委地方組織<南滿特委, 盤石省委 東滿特委> (外廓団体 中韓農民會組織 韓人 包摂) ○ 1931 滿州省委 韓中人責檢拳로 滿州省委 「우라지 보스톡」으로 移轉 ○ 1932 滿州事變後 紅軍빨지산組織
朝鮮共産党系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25 朝鮮共産党 (서울)을 <커민테룬>承認 ○ 1926 朝鮮共産党 滿州總局 設置 (高麗派加担) ○ 1928 朝鮮共産党解体 (内紛으로) ○ 1930.1 코민테룬朝共滿州總局解体, 黨員은 滿州省委 加入命令
日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05 日露戰爭勝利로 滿州에서의 露帝利權引受 滿州侵略拠点 確保 ○ 1932 滿州事變의 勝利로 關東軍司令部 實質적으로 滿州支配 韓人獨立運動 및 共産主義彈圧
滿州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32.3 政府樹立 (日本の 傀儡政權) 韓人民生團 協私會組織 韓人獨立団体 및 共産主義 運動 瓦解彈圧
韓人獨立団体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10 民族主義者들 滿州를 祖国光復運動拠点化 抗日鬪爭 展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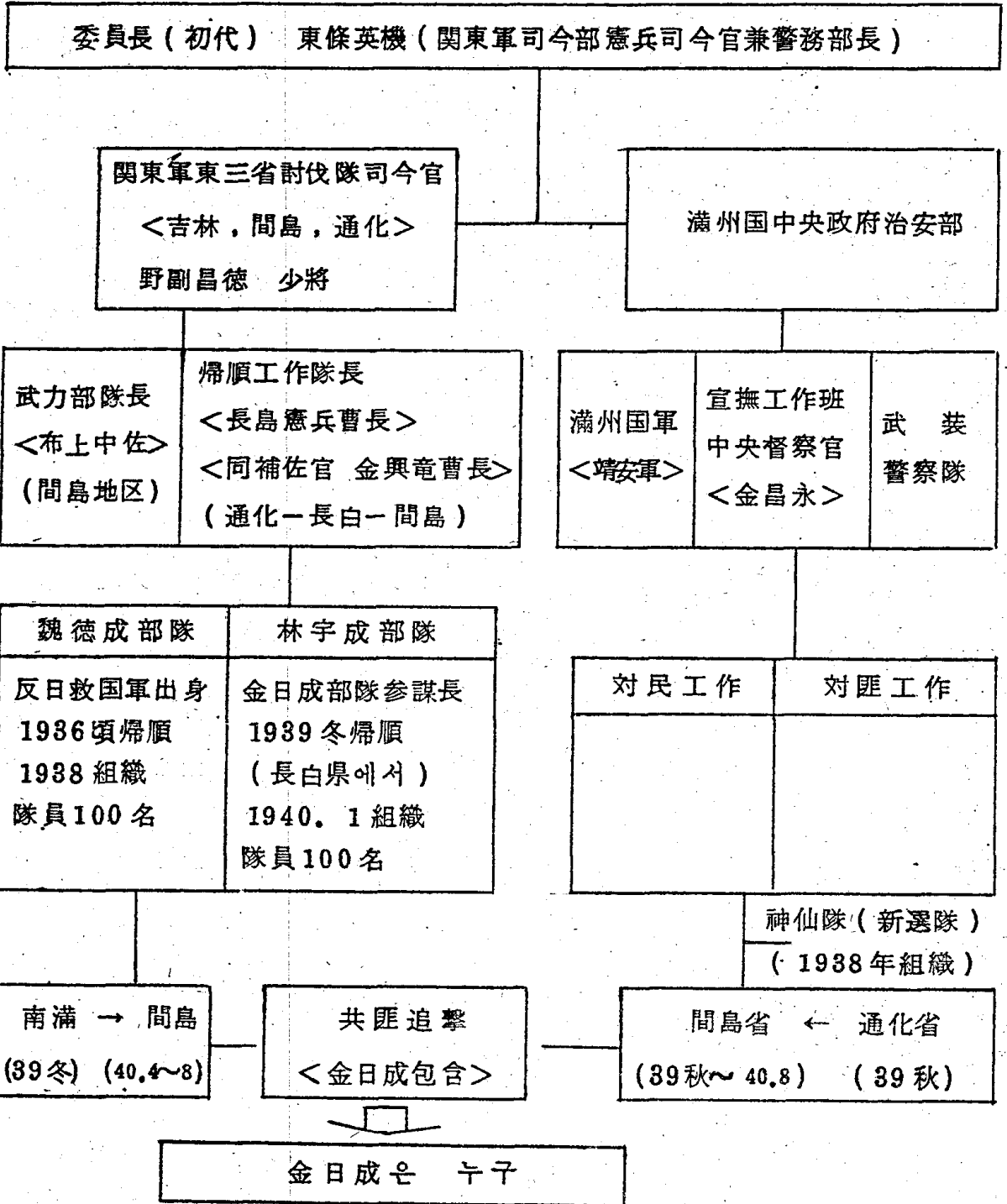
- 1924.8 南滿通化県中心으로 <參議府>組織
- 1925 東南滿의 10餘個 軍事団体統合 <正義府>組織
- 1925 北滿의 數個 軍事団体 統合 <新民社>組織
- 1927 三府代表로 韓國獨立黨과 獨立軍組織<總司令 李青天)
- 1929 朝鮮革命黨과 朝鮮革命軍組織(總司令 梁世鳳)
- 1932 滿州事變으로 南滿의 獨立運動者 四分五裂(金承學編 獨立史 P. 395 参照)
 南中(南京)行 — 李青天, 洪雲, 吳光鮮
 殉國派 — 梁世鳳, 高而虛
 蘇聯行(北滿行) — 金日成
 投降派 —
 地下化 —
- 1932. 梁總司令戰死後 金浩斗 總司令官職引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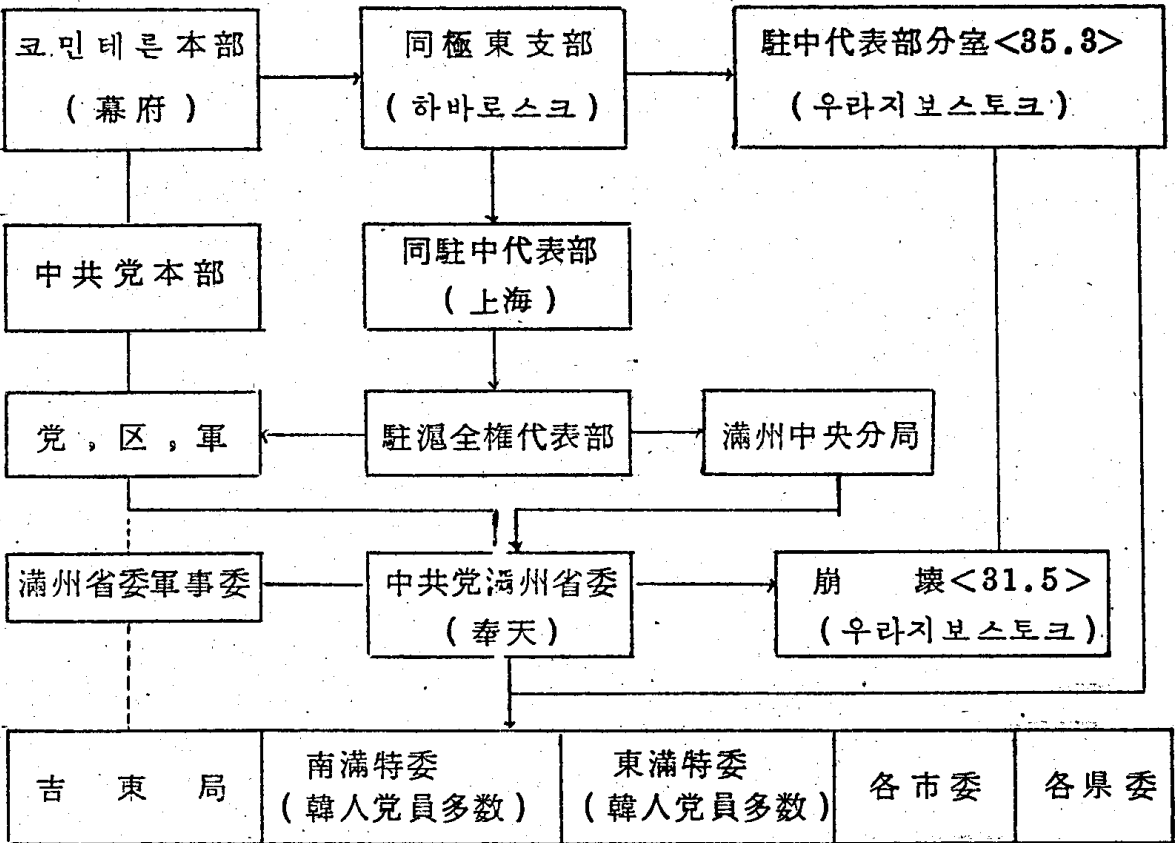
- 滿州地方의 無政府狀態一日帝統治時代로 移行
 <韓人獨立団体 4分5裂—殘留派地下化 共產化>

4. 日滿共匪討伐隊司令部

<日滿軍警務統制委員會>



다. 中共黨組織
指揮系統



幹部

東滿特委書記長 ———— 魏根民 (中國人, 코민테른派遺)
 東滿特委 委員 ———— 金光 (一名 吳成崙, 韓人모스크바共大卒)

指揮權

코민테른 (蘇聯共產黨) 指揮權 掌握

라. 抗日軍事組織
및 幹部

中共黨滿州省委 軍黨委員會

東北人民革命軍
(1933.2)

總 11 個軍 < 共產黨 지산 >	○ 總司令兼第 1 軍長 (南滿特委所屬) 梁請宇 (中共黨中央委員)	
	○ 總司令 政治委員	魏極民 (코민테른派遣員)
	○ 第 1 軍 參謀長	李紅光 (韓女)
	○ 第 2 軍長 (東滿特委所屬)	毛德泰
	○ 同政治委員	魏極民
	○ 同政治主任	全 光 (韓人)
	○ 同第二獨立師 第二團 政治主任	金日善 (1934.3)
	○ 同第三師長	金日成

東北抗日聯軍
(1936.初)

總 11 個軍 < 東北人 民革命軍) 反日救國軍 (國府系)	○ < 1935.7 第 7 次 코민테른會議 指今 (魏極民參席)
	○ 極左 誤謬是正
	○ 反日救國軍 및 韓國獨立軍包含 - 抗日統一戰線形成
	○ 특히 韓人에게 < 間島韓民族自治區建設 > 및 < 韓國獨立任務 > 遂行強調하라고

韓人獨立軍 > ※當時 反日救國軍 指導者 吳義成 (東南滿), 馬占山
(北滿)
○抗日聯軍 第6師長 金日成 (36.4)

11個軍을
3個路軍으로
(3.6夏)

- 第1路軍 (第1, 2軍으로 編成) 總司令 梁請宇
 - 副司令 魏極民 (코민테른)
 - 第二軍黨責 " "
 - 同政治主任 全光 (蘇共大卒)
 - 同第6師長 金日成 (?)
- 第2路軍 (4, 5, 7, 8, 10軍으로 編成)
 - 總司令 周保中
- 第3路軍 (3, 6, 9, 11軍으로 編成)
 - 總司令 趙尚志

第1路軍의 改編
(40.8)

○ 第1路軍 總司令代理	魏極民
同秘書處長	金 光
第一方面軍長	曹丕範
第二方面軍長	金日成
第三方面軍長	陳翰章

實 質 的
指 揮 權

○ 蘇聯派 (코민테른) -- 極民, 金光 (吳成)

?

○ 金日善 . 金日成은 누구 ?

○ 抗日 말지산 <金日成>論의 發端!

参 考

投降者 (1940年頃)	第一路軍 總司令部秘書處長	全 光
	南滿特委候補委員	金在範 (一名 金平)
	警衛部長	朴得範
	警衛旅團參謀	韓仁和
	參 謀	方振声 (前第二軍〇團長 金一星 의 上官)
	第二方面軍參謀長	林宇成 (1939 冬季討伐作戰時 長白原에서)
	"女子青年部長	金惠淑 (第二方面軍長 金日成의 妻)

逃避者	○ 崔 賢	(團 長)	
	○ 崔備健	(北 滿)	
	○ 金 策	(,)	
	○ 金 一	(營 長)	
	○ 安 吉	(,)	
	○ 金一星	(,)	
行方不明說	○ 金日成	(三 長)	入蘇? 戰死?

金日成斗 金成松의 同一人說斗 別人說

2. 金聖柱와
同一人論

가. 白峰
<金日成伝>

主	張	参 考
(1) 1930 頃	金聖柱 <一星> 또는 <日成>으로 改名	① 1829.12.30 朝鮮革命党, 朝鮮革命軍 組織宣言 (總司令 李辰 卓)
(2) 1930 夏	朝鮮革命軍組織①	○ 同弟 9 隊 吉江省 組織 (元 国民会 所屬 一 共產 系)
(3) 1932.4.25	抗日빨기산 創設②	同 幹部 李鍾洛, 金 誠柱, 車光洙
(4) 1933	朝中聯合軍組織, ③ <反日 救国軍 吳義成說服)	② 前記 中共党 抗日義勇 軍
(5) 1933.9	朝中聯軍④ <東寧 鼎城 攻略> <金聖柱指揮下, 吳義成部隊 史 忠恒旅長 參加>	③ 大韓獨立軍과 吳義成 提携
(6) 1934.4	抗日빨기산을 <朝鮮人民革命 軍>⑤ 으로 改編	④ 救国軍 約束違反 不參으 로 獨立軍 被害莫甚
(7) 1936.5.5	<祖国光復会⑥ 組織 同會長 에 被任	⑤ 前記 中共의 東北人民 革命軍
(8) 1937.6.4	<普天堡戰鬪>⑦ 總司令	⑥ 中共党, 코민테른 指今 全光指導
(9) 1940.8	人民革命軍을 <小部隊>로 編成⑧ (地方 및 国内에 派遣)	⑦ 中共의 後方교란作戰 中国人 施某指揮
(10) 1945.8	蘇聯軍과의 協同作戰으로 朝 鮮解放⑨	⑧ 弟 11 路軍 全域 ⑨ 金聖柱 蘇聯軍籍承認

評 価

○ 金聖柱業績은 上記 <参考>에서 보는바와 같이 그 全部가 他人 또는 大韓獨立軍 中共軍, 蘇聯軍의 業績을 盜用하고 있음.

意 見

○ 金聖柱는 <金日成> 名義조차 盜用 可能性이 있음
○ 朝鮮革命軍 吉紅省 第9支隊 幹部中の 金誠柱와 金聖柱 關係 檢討 必要

나. 韓載德 著

<金日成을告發한다>

主 張	内 容
<p>(1) 1937年 <普天堡>事件当時 그의 戰責은 <抗日聯軍>의 第6師長이었다.</p> <p>(2) 그것을 指導하고 움직인 것은 請宇, 周保中, 王德泰 等 中國共產黨 幹部였다^①</p> <p>(3) 1938년에는 제법 큰 部隊의 <政治委員>^②으로 昇格하였다.</p> <p>(4) 1962.4.15 <金聖柱>의 50週年 生日에 毛沢東은 祝電^③에서 「中國人民에게 있어 困難했던 1930年代에 當身은 朝鮮人民의 우수한 아들 딸을 인솔하여 피로서 中國人民의 革命鬪爭을 援助하였다」고 했는데 이것만 보아도 金聖柱는 中共의 즐거웠다는 事實을 알 수 있다.</p>	<p>①內容不精密 要前記 抗日聯軍名單 参照</p> <p>②根拠未詳</p> <p>③金聖柱의 抗日빨지산 隊長說 立証 그러나 그 職責이 明示되지 않고 있다.</p>

評 価

- 金聖柱의 中共走狗性を 攻撃해 보았자 무슨 큰 効果가 있을까?
- 오히려 金聖柱의 金日成同一人論을 방조한 格이다.

意 見

- 今後 이런式의 反金論은 嚴禁되어야 할 것이다.

다. 洪泰植 著

韓國共產主義運動研究의
批判 (解放前編)

主 張	参 考														
<p>(1) 1934.6 間島 日本總領事館 創立當時의 東北抗日聯軍 第2軍의 幹部名單은 다음과 같다.</p> <table border="0"><tr><td>第2軍長</td><td>王德泰</td></tr><tr><td>同政治主任</td><td>極民</td></tr><tr><td>同第1獨立師長</td><td>朱鎮 (韓人)</td></tr><tr><td>同第2獨立師長</td><td></td></tr><tr><td>同政治委員</td><td>李 某 (韓人)</td></tr><tr><td>同第2團長</td><td>陳滿山 (中人)</td></tr><tr><td>同團政治委員</td><td>金日善</td></tr></table> <p>(2) 金成柱 (金日成) 은 보잘것 없는 遊擊隊의 小部隊長이며 普天堡戰鬪當時에는 第2軍參謀長 施某 (中國人) 이 指揮하였다.</p>	第2軍長	王德泰	同政治主任	極民	同第1獨立師長	朱鎮 (韓人)	同第2獨立師長		同政治委員	李 某 (韓人)	同第2團長	陳滿山 (中人)	同團政治委員	金日善	<p>① 中共黨의 35.8.1 宣言에 依拠 36年初에 東北人民革命軍은 東北抗日聯軍으로 改編되었다.</p> <p>따라서 34年 6月 當時는 抗日聯軍이 아닐 것임.</p> <p>※ 東北人民革命軍 第2軍은 34.3에 延吉縣에서 組織되었다.</p>
第2軍長	王德泰														
同政治主任	極民														
同第1獨立師長	朱鎮 (韓人)														
同第2獨立師長															
同政治委員	李 某 (韓人)														
同第2團長	陳滿山 (中人)														
同團政治委員	金日善														

評 価

- 東北人民革命軍 第2軍第2獨立師 第2團 政治委員으로 <金日善>이 나오는데 그를 金聖柱와 同一人으로 보고 있는것 같다.
- 當時 政治部幹部에는 蘇聯出身 理論家들이 많았다.
- 더욱 金聖柱는 1912年生이라해도 그 當時의 年今이 22歲였다.

意 見

- 金聖柱와 金日善 同一視는 좀 檢討할 必要가 없을까

라. 共產圈問題研究所編

<金日成과 金聖柱>

主 張	参 考
<p>(1) 國際共產黨文獻인 1935.5 發行 <共產인터내쇼날> 弟 23, 24 合本号 <滿州에 있어서의 反帝 統一戰線에 關하여> 라는 題下에 쓴 글을 보면 抗日聯軍의 움직임에서 梁請宇, 周保中, 王德泰 白楊, 趙志光 等 이름이 오르내릴뿐 金日成의 이름은 말할것도 없고 金聖柱란 이름조차 찾아볼 길이 없다. (※)</p> <p>(2) 이點으로 보아도 金日成<金聖柱>의 存在는 極히 보잘것 없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p> <p>(3) 前記 「코민테른」의 文獻에 依하면 「在滿共產黨組織은 中國共產黨의 一機能部分이며 東滿民族革命運動은 中國革命運動의 一部分이다. 그것은 全中國으로부터 日帝支配를 打倒하는데 있다」고 하였다.</p> <p>(4) 全体主義를 標榜하는 共產黨體制下에 한낱 地方黨員인 金聖柱가 抗日遊擊隊를 組織하였느니 朝鮮革命軍을 創設하였느니 하는 것은 있을려야 있을 수 없는 것이다.</p> <p>(5) 더군다나 1936年當時에 1個師長에 지나지 않았던 金聖柱가 1932~3年末부터 <金日成將軍>으로 불리웠다는 것은 아무리 좋게 解釈하려해도 納得이 가지 않는다.</p> <p><以上 上掲書 P. 38~40></p>	<p>※</p>

評 価

- 金聖柱와 金日成의 同一人論이며
- 金聖柱의 虛構性만 暴露하는데 注力하였다.
- 그렇다고 決定的인 虛偽事實을 提示한 것도 아니다.

意 見

- 決定的 虛偽事實을 提示 못할 때에는 拳論치 않는 것
이 오히려 나올 것이다.

마. 統一朝鮮新聞社刊<東京>

統一朝鮮年鑑(1965~6)

主 張	参 考
<p>(1) 中国共産党은 1932年 日帝의 侵略에 对 抗하기 위하여 在滿朝鮮獨立軍, 張學良軍 等を 糾合<抗日義勇軍> 12軍을 結成하였 는데 <金日成>은 弟3軍의 1師長에 就任하여 얼마後 軍長으로 昇進하였다. ①</p> <p>(2) 이 抗日義勇軍의 總司今은 中国人인 梁 請宇였으며 副司今은 朝鮮女性 李紅光이 었다는 點은 매우 注目할 事이다. (P. 177)</p>	<p>① 當時 弟3軍의 師長에 金日成이 就任하였다는 記 録을 資料에서 찾아 볼 수 없 다.</p>

評 価

- 金聖柱가 金日成이 란 明文은 없지만 文脈上 現金日成을 指稱 한것 같다.
- 그리고 金日成의 職責이 너무나 誇張되었으며 內容도 正確치 않다.
- 金聖柱를 灰色的으로 宣傳한 感이 強하다.

意 見

- 이런式의 灰色宣傳에 注意해야 할것 같다.

바. 波多野乾一 著
 <中国共産党史>
 (第4卷)

主 張	参 考
<p>① (1) 東北抗日聯軍第2軍의 大半은 韓国人 이었다. (2) 該軍의 第3師長은 金日成이었다. (3) 共産分子들도 끼어 있었으나 同師는 国民党影響下의 救国軍과 親密하게 合作하여 抗日鬪爭을 하였다.</p>	<p>① 東北抗日聯軍이라면 1936春以後의 일이다. ② 救国軍이라면 吳義成系이며 上記 <金日成 伝>의 内容과 符合 되는 点이다.</p>

評 価

- 第3師長 金日成說은 다른 資料에서도 나오나 그가 金聖柱와 同一人이란 說에는 言及하지 않았다.
- 金聖柱는 當時 1個 營長(中隊長級)이다.

意 見

- 金日成 伝(金聖柱가 吳義成部隊와 合作했다는 說)과 비슷한 点이 있어 이것은 繼續 檢討할 問題라고 본다.

사. 徐大肅 教授

<上揭書>

主 張	参 考
(1) 現金日成은 <金日成>의 假名을 使用한 많은 革命家의 한사람이다. (2) 現金日成은 그러한 伝說위에서 있으면서도 그 自身도 널리 이름이 알려질 程度의 큰 実績을 가지고 있다. (3) 南韓側의 批判은 北韓指導層을 故意的으로 謀略하기 위한 印象이 強하다.	

評 価

- (1) 学者的 客觀性を 보이고 있으나 形式論理에 치우친 感이 濃厚하다.
- (2) 現金日成을 金日成과 無條件 同一視하였다.
- (3) 지나치게 순진하다.

意 見

- (1) 本意는 아니겠지만 確實한 根拠없이. 形式論理에 치우쳐 문제를 그릇되게 速断하는 것은 매우 危險하다.
- (2) 좀더 慎重을 期했더라면

야. 抗日빨지산 金日成과
金聖柱의 同一人說에
대한 <綜合評價>

- (1) 中共黨마저 코민테른 線縱과 指令에 依해서 活動하던 當時의 政治, 軍事的 狀況下에서 中共黨員이었다는 金聖柱가 滿州에서 祖國解放을 위해 独自の인 빨지산活動을 했다는 白峰 金日成 傳은 지나치게 造作된 神話이다.
- (2) 그럼에도 不拘하고 論者들은 白峰의 同一人說을 너무나 無批 判的으로 接受한 感이 있다.
- (3) 그리고 同<金日成傳>의 誇張性和 歪曲相을 酷評하는 論者들 마저도 正確性和 統一性を 期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本意는 아니겠지만 第3國人들에게 金聖柱의 同一人說을 逆宣傳하는 結果를 招來한 것 같다.
- (4) 그보다는 오히려 <金日成傳>의 虛構成이 <同一人說>을 스스로 否定하는 效果를 지닌지 모른다.

綜 合 意 見

- (1) 金聖柱와 抗日빨지산 金日成의 同一人說은 根本的으로 決定的 資料不足과 研究未備에 基因되었다고 判斷된다.
- (2) <金日成傳>의 反論資料의 広範한 蒐集과 그의 多角的 分析이 要望된다.

3. 抗日빨지산의 金日成과
金聖柱의 <別人論>

가. 金昌希 說

出 名	主 張	参 考
柳 著 <民族 의 變 들>	<p>(1) 내가 아는 <金日成>將軍은 1930 年代에 東滿으로 移動하였다고 들었 다.</p> <p>(2) 金日成將軍 <金昌希>는 滿州事變後 西方으로 흠어졌다. 獨立軍을 糾合하 여 祖國光復會를 組織하였다.</p> <p>(3) 普天堡事件도 指揮했는데, 當時 그곳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는 群衆 을 모아놓고 <나는 端川郡水下面黃谷 里에 사는 金斗天의 次男 金昌希다> 라고 하였다 한다.</p> <p>(4) 1941年 3月 내가 무슨일로 端川署 에 被逮, 收監時 偶然히 金日成將軍의 親父 金斗天 先生을 만났는데 그는 <故鄉에 用務次 왔더니 端川署 에서 아들 行方을 대라고 二週째 收 監中이라』고 하였다.</p> <p>(5) 8.15直後 金日成將軍의 姨從 薛麟</p>	<p>※柳氏는 金昌希 의 死亡年代는 모른다고 했다.</p> <p>※柳氏는 金昌希 의 出年을 1807名으로 証言, 他文獻에 는 1888年을 1889年으로 記錄하였다.</p>

出 名	主 張	参 考
	氏 (6.25時 拉北)가 평양에 가서 金成柱를 面会한즉 그는 판사람이였 고 때문에 그는 평양에 3個月間이 나 収監되었다가 釈放 越南하였다.	
金 彦 (端川 人)의 証言	(1) 金日成將軍은 <光復会組織과 普天 堡戰鬪>를 指揮하였다. (2) 1937年 側近으로 侵透한 赤色分 子의 테로로 被殺 ^① 되었다	① 他文献에는 1926年에 死亡 된 것으로 記錄 되고 있다.

評 価

- (1) 柳氏가 主張하는 金昌希의 年수는 다른 文献과 此較해서
너무나 差異가 있다. 그러나 普天堡事件 現場에서 端川人
임을 밝혔다 하니 그는 金昌希의 実弟 昌道の 이야기가
아닐는지
- (2) 金氏의 証言에서도 金昌希의 死亡年度가 1937年으로 되었
는데 이것은 次項의 <承名>者의 死亡年度와 같다. 承名
者와의 關聯性 与否가 궁금하다.

나. 南滿의 承名者說
및 行蘇者

出 名	主 張	参 考
平安道地方의 伝 說	(1) 獨立團體 正義府所屬의 金日成將 軍은 1930年頃 南滿에서 病死하 였다. (2) 그의 承名者도 1937年에 死亡 하였다고 한다.	①韓載德氏와 李宗 氏의 金日成 關係發說 ②徐大肅教授의 上揭書
金承學編 韓 國獨立史(P.395)	○ 南滿州運動의 末期 愛國志士들의 行跡을 네갈래로 볼 수 있다. 첫째 國派(代表的人物) 梁世鳳 둘째 南中國行() 李青天, 洪震 셋째 蘇聯行(共產主義에 共鳴하던者) 金日成 네째 投降派	①滿州事變直後

評 価

- (1) 金日成將軍과 그의 承名者의 本名이 무엇인지 밝혀져 있지
않을뿐더러 蘇聯行의 金日成도 共產主義에 共鳴하던 者라고
만 되어 있지 그 正體를 밝혀지 않고 있다.
- (2) 地域 및 年代로 보아 承名者와 蘇聯으로간 金日成은 同一
人인 것이 分明하다.

(3) 그리고 同金日成의 移動年代가 1932年頃이고 行先地도 前項 金昌希의 그것과 類似하다.

意 見

이들 <上記 가, 나項의> 金日成說의 어떤 關聯性否가 檢討되어야 할것 같다.

다. 金誠柱 說
(含南人)

出 名	主 張	参 考
李命英 ^① 教 授	(1) 祖国光復会組織 및 普天堡襲擊事件時의 東北抗日聯軍 第2軍 第6師長 金日成은 지금 평양의 金日成이 아니다. (2) 朴金喆 朴達等의 惠山事件取調文書에 依하면 第6師長 金日成은 南出身이며 普天堡事件 當時 36歲程度이며 키가 작다. 本名 金誠柱는 ^② 1919年 入滿, 蘇聯共產大學을 卒業하고 그곳 赤衛軍에 있다가	①李教授는 1937年 12月の 朝鮮軍 司令部 發表文 国内新聞 및 朴今喆의 惠山事件 陳述書를 根拠로 提示하고 있다. ②金誠柱는 上掲 獨立史에 나오는 朝鮮革命軍內的 前國民府 共產系로 吉林伊通縣 中心의 同軍 第9支

出 名	主 張	参 考
	<p>滿州事變後에 入滿 共軍에서 活躍하였다고 되어 있다.</p> <p>(3) 1937年12月 金誠柱射殺(11月)에 關한 朝鮮軍司令部 發表內容도 朴今喆, 朴達等의 陳述內容과 一致된다.</p> <p>(4) 當時 平양의 金聖柱는 最下位 게릴라隊에서 따라 다닌것 같다.</p>	<p>隊幹部名單에 李鍾洛 車光洙等과 함께 나타난다. 또 金日成 伝에는 車光洙는 現 金日成의 同志로 李鍾洛은 背反者로 나타난다.</p> <p>(3) 吉林의 革命軍이 活動하던 時期는 1926~28으로 되어 있는데 當時 金聖柱는 14~16歲(또는 11~13歲)였다.</p>

評 価

- 1) 李教授의 研究年輪이나 熱意 및 學子身分으로 보아 가장 有力한 說이다.
- (2) 그러나 朝鮮革命軍의 金誠柱와의 關聯性이 檢討되었으면 좋겠다.
- (3) 그리고 朝鮮革命軍의 本部가 南滿에 있는만치 吉林의 金誠柱와 南滿의 金日成과의 關聯性與否도 檢討해야 할것 같다.
- (4) 평양의 金聖柱가 1929年에 朝鮮革命軍을 組織하고 1930年에 金日成으로 行勢했다는 事實은 그의 年今上 不可能說이다.

라, 金一成 說

<間島>

出名	主 張	参 考
李命英 教授①	(1) 金誠柱<金日成>死亡 다음해인 1938년 봄에 蘇聯으로부터 또 하나의 金日成(本名 金一成)이 瀋州로 들어와서 第6師長職을 引受하였다. (2) 그는 1940年初에 第一路軍 第2方面軍長까지 되었다가 1941年3月에 蘇聯으로 敗走하였다. (3) 그는 1930.5.30 <間島>暴動 事件時 竜井大成中學校 在學生으로 暴動에 參加한 ^② 關係로 日本 領事館 警察에 逮捕되었다가 脱走入蘇한 者다. (本橋 第一部の 徐教授提示 資料와 符合되다) (4) 入蘇後 그곳 赤軍士官學校를 卒業하였다. (5) 평양의 金聖柱도 그때의 蘇聯으로 逃亡한 것 같다. (6) 同金日成의 特徵은 眼鏡을 쓴 事實이다.	①李教授는 이 事實을 關東軍 長島工作隊長으로부터 確認, 金의 夫婦写真까지 入手하였다고 한다. ②同 金의 妻 金惠淑은 39年 冬季討伐時 第2方面軍 林宇成과 함께 長白景에서 長島工作隊에 投降했으며 8.15直後 평양에 가서 現金日成을 面接하려 했으나 失敗했다고 함.

評 価

- (1) 李教授는 科学的 証拠提示에 努力하고 있다.
- (2) 그러나 當時 滿州의 共產主義工作은 蘇聯의 黑色工作이었고 關東軍의 敗北 및 北韓의 証拠湮滅工作等으로 決定的 資料蒐集은 至極히 困難한 實情이다.
- (3) 繼續的 努力이 要望된다.

마. 綜合 分析

- (1) 抗日빨지산隊長 金日成의 金昌希說 承名者(南滿의 金日成)說 金誠柱說 및 金日成說 等
- (2) 1931年以後의 金日成도(現金日成除外) 4名이나 登場되어
- (3) 金聖柱의 別人說은 一応 成立되는 셈이다.
- (4) 그러나 金一成說 以外의 金昌希說 承名者說, 金誠柱說 사이에는 <東滿으로 移動한 年代(1932年說), 死亡年度(1937年說), 出身地(南說), 祖国光復會 및 普天堡事件關係等>에서 連絡될 듯 하면서도 年今, 蘇聯과의 關係 및 承名者의 本名不明 및 活動經緯等의 差異로 連結안되는 点이 있다.

評 価

- (1) 聯結되지 않거나 不明確한 事項때문에 別人說이 損傷 또는 中傷當할 念慮가 있으니
- (2) 이 点에 留意 多角的 研究가 要望된다.

4. 現金日成에 對한

<懷疑論>

가. 玉城素 著

<金日成의
思想과 行動>

主 張	参 考
<p>(1) 1931年入黨當時의 金日成은 19歲, 게다가 1936年 24歲에 <師長>인 것으로 보아 아무리 봐도 이 人物이 32~33年頃에 <將軍>으로 불리웠을리 萬無하다. (P. 35)</p> <p>(2) 나의 推定으로는 金日成은 1934.3에 組織된 東民人民革命軍 第二軍에 正式으로 參加하여 1936年에 第6師長에 任命된것 같다. (P. 184)</p> <p>(3) 그러나 1938年 12月末 現在의 「對岸匪賊現勢表」에 臨江省을 根拠로한 金日成匪 200과 撫松省를 根拠로한 金日成匪 300이라는 두 部隊가 長白省의 崔賢匪180과 並行 登場한다. (P. 197)</p> <p>(4) 이 事實은 두가지로 解釋된다. 하나는 一人의 金日成이 兩部隊를 指揮하고 있다는 解釋이고, 다른 하나는 各己 二個의 金日成部隊 即 두사람의 金日成이 있다는 解釋이다. (P. 187)</p> <p>(5) 이것 亦是 풀기 힘든 問題이다.</p>	<p>①金正明資料所 収의 朝鮮總督府 警務局 資料 (昭和 14年 = 1939年)</p>

評 価

- (1) 著者は 比較的 科学的인 資料에 依拠 公平하게 分析하려고 努力하였다.
 - (2) 때문에 白峰著 <金日成伝>의 지나친 虚構法과 非合理的 作偽때문에 오히려 金聖柱의 存在에마저 懷疑的態度이다.
 - (3) 그리고 <金日成>과 <金聖柱>의 他人說에는 그 可能性에 興味를 가지면서도 決定的 資料의 不足 및 研究未備에 概嘆 하였다.
- ※ 著者は 李命英教授의 研究内容에는 아직 接하지 못했을 것이다.
- (4) 第3国人이며 共產主義者인 著者の 金日成伝에 對한 不快感 乃至 懷疑的態度로 보아 本課題 <金日成의 正体>를 研究發展시켜 이를 對內外的인 政治心理戰 資料로 適宜 活用할 경우 北韓의 金日成 偶像化政策은 큰 打撃을 받을 것이다.

意 見

決定的 資料의 蒐集과 政治心理戰資料로의 深化發展 이 크게 要請된다.

5. 別人說의
補充資料

가. 金誠柱와 金聖柱
(1932 - 1937)

年 代	資 料	参 考
1926 ~ 8	(1) 朝鮮革命軍吉江指揮部 (弟 9 支隊) 幹部에 < 金誠柱 > 라 있음 ^①	① 當時 金聖柱 年今 14 ~ 16 歲 또는 (11 ~ 13 歲)
1930 ~ 1	(1) 金聖柱를 一星 또는 日 成으로 改名했다고 ^①	① 南滿의 金日成將軍 死亡 說 流布
1932 末	(1) 金聖柱 養父 武警察隊長 通匪嫌疑로 日軍에 被殺 ^① (2) 金은 武의 部下 17 名과 함께 入山逃走 (武의 武器 2 携帶) ^①	① 金亨德의 新友 李某氏의 証言
1933	(1) 中国系 救国軍司令 吳義 成의 当差 (使喚) 說 ^①	① 當時 關東軍關係者 및 日 本領事館警察職員의 証言
1934.3	(1) 東北人民軍第 2 軍第 2 師 第 2 團 政治主任 金日善 ^①	① 第 2 軍政治委員 魏極民 (코민테른 派遣員) 同政治主任 全光 (一名 吳成崙 蘇聯 共產大學出身) ※金日善 (蘇聯出身 金誠柱?) < 洪泰植 著 上揭書 P. 494 >

年 代	資 料	参 考
1935	(1) 南北人民革命 第2軍에 第3師創設時 金日成이 師長이 됨	<p>※ 當時 1931年度 日本領事館報告 日本外交文書에 間島地方의 東北人民革命軍 第二師 第1團 第3營長으로 金一成, 金日善, 金一善이 登場</p> <p>※ 當時 第1團長은 方振声 (1940. 第1路軍 參謀로 昇格)</p>
1936 初	<p>(1) 同年봄 撫松에서 第2軍에 6師長編成時 師長에 金日成^①</p> <p>(2) 當時 第2聯隊 第2,3中隊(營長)을 核心으로 編成計劃이였으나 2,3中隊의 未參으로 第4師의 民生團員을 引受 第6師 編成^{②③}</p>	<p>① 玉城素 著 <金日成의 思想과 行動> P. 183</p> <p>② 當時 第3中隊(營長) 金一星</p> <p>③ 第4師長 朱秀東(中國人)</p>
1936 初	(1) 東北人民革命軍 第2,5軍 混成部隊編成時 金日成 西部戰線의 政治主任 兼任 ^①	① 上掲 日本外交一書 및 玉城著 上掲書 P. 185 参照

年 代	資 料	参 考
1936	<p>(1) 在滿韓人祖国光復会 発起委員^{①②} 吳成崙, 嚴洙明, 李相俊</p> <p>(2) 朝鮮總督府報告書(1936) 抗日連軍第二軍第6師長 金日成 同師政治委員 穗民生等 直接指導下 韓人 祖国光復会다 (玉誠 P. 186)</p>	<p>① 李命英 著 上掲 「在滿韓人祖国光復会」研究 P. 189</p> <p>② 林春秋 著 <祖国光復의 偉대한 構想>에 當時 金日成 (金聖柱)은 「金東明」이라는 假名을 使用했다고 主張 (王城素 著 上掲書 P. 226)</p>
1936.11	<p>(1) 安東省,^① 士兵頭目殺害者에 賞金 交付</p> <p>梁請宇 20 万円 李司今 20 万円^② 吳義成 10 万円 王鳳閣 5 万円 杜○人 2 万円 ○ 同 2 万円 金日成 2 万円 萬 順 2 万円</p> <p>< 36.11.11 朝鮮日報 ></p>	<p>① 李紅女 (韓) 인듯 安東省公表로 보아 當時 金誠柱는 南滿地区에서도 蚕動한 것 같다.</p> <p>※ 金聖柱는 36.9에 東滿으로부터 長白泉으로 移動</p>

年 代	資 料	参 考
1936.	(1) 金日成一派 曹司令 (東北抗日聯軍 1路軍 第1軍第3師長) 과 合同羅綏堡掩襲 (36.11.22)	① 金日成伝 不掲書 ② 同年 10월에 있을 萬順萬과의 合同 長白県 襲撃事件도 黙殺
1937 (普天堡 惠山事件)	(1) 코민테른 第7次大会 (1935)의 人民戰線戰術에 依拠 1936年 가을以後 抗日聯軍 第2軍第6師長 金日成 및 同師 政治委員 魏民生の 直接 指導下에 韓人祖国光復會 韓人民族解放同盟이 組織되어 国境地帶로부터 漸次 南下 擴大하였다. 1936年 12月에는 金日成은 新히 朝鮮内の 朴達, 朴金喆, 等を 根拠地 山寨에 招致하여 組織活動을 指今하고 同時에 第6師의 政治工作員을 对岸으로부터 統統浸透 興南, 함興, 元山 新義州를 비롯한 平安北道 함鏡南北道の 要街地 10	① 第2軍政治委員 極民이 同大会에 参席 指今持参 ② 1937.10 惠山事件으로 同年 11月 14日 被通 無期刑을 받고 服役中 8.15 解放으로 出監 평양에 가서 現金日成을 만나 니 옛날의 第6師長 金日成이 아니더라는 것이다. 朴은 67年 肅清되었다. ③ 이들 가운데는 第6師組 總科學權永声 (金昌滿說) 同師 政治工作員 李 (前对南連絡部長 李孝의 兄) 등이 있는데 金昌滿, 李孝도 1967年에 肅清되어 甲山派 完全脫落 ※ 玉城素는 上掲書 (P.205)에서 金日成인 甲山派를

年 代	資 料	参 考
	<p>數個所에 組織을 擴大했다. 이것을 基礎로 1937年 11月 五豐洞浸襲事件, 6月保田襲擊事件, 九月仲坪里浸襲事件 등의 武力侵入을 行하였다.</p> <p><朝鮮總督府警務局 「最近에 있어서의 朝鮮治安狀況」(1939年)> (玉城著 上掲書 P. 189)</p>	<p>肅清한 것이 事實이라면 그의 빨지산時代의 事實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하였다.</p>
<p>1937 (")</p>	<p>(2) 師長 金日成은 大量軍資金調達地點으로서 保田(普天堡)에 注目, 鮮內組織工作員 朴今喆로 하여금 保田의 經濟狀況 및 地理를 調査시키고 其報告를 接한뒤 1937年 6月 4日 밤 自身이 參謀長 施某(中國人)以下 3個連 80餘名(輕機 5擲彈筒數個, 各自小銃携帶)를 引率하여 -」</p> <p><上同, P. 190></p>	<p>※ 甲山派 肅清後 北韓에서는 本格的인 金日成偶像化政策의 一環으로서 金日成傳을 叙述하기 始作했는데 그 當時 資料蒐集次 抗日 빨지산出身들을 닥치는대로 招致하여 普天堡事件 當時의 經險談을 써내라고 하였더니 現金日成을 普天堡에서 보았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는 것이다.</p> <p>當時 文學家同盟員 越南者 李某氏 証言)</p>

年 代	資 料	参 考
1937. 12.23 朝鮮司令部 發表	(1) 同年 12月13日 金日成(金誠柱)射殺 實驗으로 同 體確認 ※ 師長 金日成이 射殺되자 6師는 支離滅, 金成柱도 이때부터 金日成의 이름을 使用하려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니 個別行動을 取한것 같다.	※ 金日成派(白峰著)에 依하면 當時 金聖柱는 臨江, 蒙江地方의 山岳地帶에서 5個月間(37.11~38.3) 隊員들의 冬季學習指導를 했다. (P. 316) 가 또 場所를 옮겨 1個月半學習을 繼續했다 (P. 322)고 하였다.
1938.4 參謀長 林이 師長代理役	(1) 同月 18日 弟6師長 金日成匪의 林參謀引率下 150名 匪賊이 平化東興 對岸股流, 崗城의 集團部落襲擊(38.4.10 東亞日報) ②※	① 林宇成 ② 金日成伝에는 이 事實 不掲載 ※ 林參謀가 部隊를 直接 引率했다는 事實은 師長의 有故立証

評 価

(1) 이상의 여러가지 反金資料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現金日成과 金誠柱의 關係를 解明치 못한 것은 그에 對한 無關心과 研究不足에 基因된것 같다.

(2) 今後 目的意識을 가지고 繼續 追跡하면 보다 많은 資料를 開發할 수 있을 것이다.

나. 金日成과 金聖柱

(1938 - 1941)

金日成 (第 6 師長) 과 金聖柱의 行動 对照

1938.5 ~ 10 期間

○ 金日成部隊의 動態에 関한 報告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金日成과 金聖柱는 各己 隔離되어 自己部隊의 整備補에 注力한것 같다.

1938.11.

資 料	参 考
<p>(1) 金日成匪 臨江 嶺과 撫松 嶺에 各己 存在</p> <p>臨江 嶺의 金日成의 部隊 200 名</p> <p>撫松 嶺의 金日成 部隊 300 名</p> <p>長白 嶺의 崔賢 部隊 150 名</p> <p><1929 年 朝鮮總督府警務局資料 中 1938 年 12 月末 現在의</p>	<p>① 金伝에는 当時 金成柱는 20 万의 敵軍이 包圍한 條件下에 蒙江 嶺南 牌子에서 金一, 吳仲 等과 對策會議를 가진바 熱河 地方으로 「遠征」하려는 案을 說服, 部隊를 東滿으로 移動시 키기로 하고 部隊를 3 個方面 으로 再編成 自己는 長白 嶺, 白頭山南東側經由의 「苦難의</p>

資 料	參 考
「对岸匪賊現勢表」>	<p>行軍」을 挾하여 12 月에 南牌 子를 出發했다고 記錄(p.325)</p> <p>※ 金伝(326)에 依하면 當時 敵은 李鍾落과 聖柱의 祖母를 시켜 金聖柱 婦順工作을 했으 나 李鍾落(前專革軍吉江司令) 을 處理했다고</p> <p>※ 金亨稷親友 李某神仙隊長(第 道善의 戰死契機) 就任, 金聖柱 婦順工作 發意</p> <p>이때부터 金聖柱의 金日成論 대두</p>

臨江省 金日成은 金一成 林參謀部隊

撫松省의 金日成은 金聖柱, 金一星, 吳冲洽等の 合同部隊

1938.12 ~ 39.4

金 一 成	金 聖 柱
<p>○ 長白, 臨江省에 位置</p> <p><38.12.2-39.4 末까지의 東亞日報 및</p>	<p>○ 白頭山 東南部經由→間 方으로 移動(百餘日의 行軍)</p> <p>金日成伝 綜合比較檢討時의 判斷)</p>

1939. 5

金 一 成	金 聖 柱
<p>○ 南滿 → 東滿으로 移動 <當時 東亞日報></p>	<p>東滿 白頭山北部 間島省에 位置 <金伝에 記載, 国内新聞不報道></p>

1939 冬季

關東軍 東南部3省(吉林省, 間島省, 通化省) 治安肅正特別工作
 展開 本部 吉林, 司令官 野副昌德少將, 南滿地方 武力部隊長
 布上中佐 宣撫長島工作隊

39 ~ 40 初

金 一 成	金 聖 柱
<p>○ 長白地区에서 竊藏 ○ 金一成 行方不明 ○ 參謀長 林의 本妻와 金一成 妻 後方參謀夫妻歸順</p>	<p>○ 松花江流 撫松県에서 新兵訓練 40日間 (敵의 視野離脱)</p>
<p>① 林의 妻 金惠順 ② 金의 妻 金惠淑 (當 30 歲程度) ③ 後方參謀夫妻名 未詳</p>	<p>○ 金聖柱 (當 27 歲 또는 24 歲) ○ 金은 當時 三貞淑 (金貞淑, 許 貞淑, 李貞淑) 을 거느리고 있었 음)</p>
<p><長島工作隊幹部某 日本間島總領館警察官 金某氏의 証言></p>	

金 日 成	金 聖 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2.23 第1路軍總司令楊請宇 戰死後의 對策會議 ○ 南滿華 界 吳成崙의 山塞에 서 (40.3.13-15) ○ 參席者 副司令 魏極民 政治主任 吳成崙 其他幹部 韓仁和, 金日成, 崔賢, 金光, 金在範等 11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11 間島省 和竜界 大馬庇溝戰鬪 ※ 金日成伝에 不掲載 										
<p>< 第一路軍 幹部改編 ></p>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width: 50%;">總司令代理</td> <td style="width: 50%;">崙極民</td> </tr> <tr> <td>同秘書處長</td> <td>吳成崙 (全光)</td> </tr> <tr> <td>第一方面軍長</td> <td>曹阿範 (中國人)</td> </tr> <tr> <td>第二方面軍長</td> <td>金日成 (金一成)</td> </tr> <tr> <td>第三方面軍長</td> <td>陳翰章 (中國人)</td> </tr> </table> <p>< 李命英著 東滿의 風雲兒 吳成崙 p.278 參照 ></p>		總司令代理	崙極民	同秘書處長	吳成崙 (全光)	第一方面軍長	曹阿範 (中國人)	第二方面軍長	金日成 (金一成)	第三方面軍長	陳翰章 (中國人)
總司令代理	崙極民										
同秘書處長	吳成崙 (全光)										
第一方面軍長	曹阿範 (中國人)										
第二方面軍長	金日成 (金一成)										
第三方面軍長	陳翰章 (中國人)										

軍事方針

東北滿으로 北上 第2, 3路軍合流 方針

1940.3 ~ 1941.3

金 一 成	金 聖 柱
<p>○ 北上中 行方不明 (長白県에서)</p> <p>長島工作隊員 - 戦死로 看做 李教授 - 蘇聯逃避主張</p>	<p>○ 40.3.25 紅旗河 <白頭山 東北方安図県> 戦鬪에서 主力壊滅</p> <p style="text-align: center;">↓</p> <p>○ 40.5 安図県 大沙河에서 敗戦 <神仙隊의 攻撃으로></p> <p style="text-align: center;">↓</p> <p>○ 40.8 小哈爾巴 (安図県, 敦化県境) 經由</p>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行 方 不 明</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東寧県 (特丹江) 密山으로 一 行 7 名 - 入蘇</div>

< 40 年末 >

殘匪大量帰順 - 共匪全滅

長島工作隊 解散 (40.8)

< 前長島工作隊幹部公某氏 및 領事館警察官証言 >

< 41.3 >

金聖柱派 蘇聯으로 逃走한 事實 確認 (金伝, 金聖柱入蘇事實 否認)

41.3 ~ 45.8.15

○ 第一路軍第一方面軍 殘餘幹部 (吳成崙, 朴得範, 韓仁和, 方振声, 林宇成, 金惠淑) > 投降

< 8.15 以後 投降者 全員 銃殺 >

北 韓

○ 當時의 証拠湮滅 (甲山派肅清等) 을 奇貨로 金聖柱의 金日成 行勢 現實化劃策

○ 남조된 <抗日빨치산傳統> 繼承 <金日成主体思想>의 基調化

5. 小結論

○ 當時의 資料가 많이 湮滅되었으므로 애로점은 많을 것이나
上記와 같은 資料들을 보다 積極的으로 蒐集 整理할 境遇

○ 北韓의 金日成主体思想 및 金聖柱의 金日成化策動은 큰 威
脅을 받을 것임으로

○ 今後 同資料의 蒐集 및 政治心理戡 資料化에 努力할 것이
要望됨.

第三部 金聖柱의 正體

1. 家 系

区 分	父 系	母 系	参 考
本 貫	未 詳	未 詳	①壬辰 乱 (1945頃)
始 祖	金 繼 詳 ①)	"	全州에서 평양지방으로
曾祖父 (9代)	金 膺 우	"	②美帝 船 샤만号 事件時
祖父 (10代)	金 輔 鉉 ②) 李 宝 益	康 敦 煜 ③)	(1866.8) ③弟가 康良煜 (現副主 席)
父 母	金 亨 稷 ④) 1894.7.10 ~ 1926.6.5)	康 盤 錫 ⑤) (1892.4.18 ~ 1932.7.31)	④反日 闘 士 ⑤17 歳時 結 婚
<淑>	<亨 權, 亨 錄> ⑥	<康 錫 (兄) 康 錫 用 (姉)>	⑥1930 年 被 通 西大山 刑務所에서 獄 死

金 聖 柱

<反美日 愛國家庭의 後예로 浮刻>

2. 金成柱의 프로필

区 分	行 跡	参 考
出 生 地	平南大同郡古平面南里 ①	①現 万景台
生年月日	○ 真字 : 1914年 4月 15日 ② 說 ○ 假字 : 1912年 4月 15日 ③ 說	②洪泰植著 上掲書 p. 501. ③金○贊 (1919. 4)
姓 名	○ 兒名 : 長孫 ○ 本名 : 金成柱 ○ 假名 : 金一星, 한별, 金日成, 東明, 英煥	在山時隊友>의 証言 自己보다 5歲年上 <現某国民校長> ④ 1949 死亡
妻 關 係	○ 本妻 : 金貞淑 ④ ○ 假妻 : 許貞淑, 李貞淑 ⑤ ○ 現妻 : 金聖愛 ⑥	⑤在山時 <三貞淑> 同行 ⑥自己秘書 (1959年 結婚說)
兄 弟	○ 哲柱 ⑦ ○ 英柱 ⑧	
子 息	○ 本妻의 所産 : 長男 金修羅 (金正一) 次男 金○羅 (死亡) 長女 金愛羅 ○ 現妻의 所産 : 1男 3女	⑦ 1935年 討死說 (金伝 p. 5) ⑧現 勞動党秘書 組織 指導部長

○ 年齡偽造? ○ 7가지 이름 ○ 4人의 妻

3. 少年時節

年 代	行 跡	参 考
1918.12	○ 平北中江鎮 移任 <父, 母, 成柱, 哲柱>	① 1917. 秋 亨稷故郷에서 民族運動으로 9個月刊
1920 末	○ 滿州通化省 臨江嶺兎山移 住<父, 母, 聖柱, 哲柱>	① 亨稷 大韓獨立軍<白山武士 團> 軍醫로 勤務(洋漢方兼) <李某氏의 証言>
1922	○ 長白県 八道溝로 移住 <父, 母, 聖柱, 哲柱, 英 柱> ○ 成柱, 八道溝小學校入學	① 英柱出生
1923	○ 故郷 外家宅에서 彰德學 校 編入	
1925 初	○ 嶺兎山經由 滿州通化省 ① 撫松第1小學校에 編入	① 1924.12 亨稷長白県, 八道 溝 葡坪에서 被遜, 中江鎮 으로 移送中 平北厚昌渡船 場에서 脱走, 撫松으로 逃 避 ② 撫松小南通에서 撫林醫院經營

年 代	行 跡	参 考
		③家族(盤石, 哲柱, 英柱)를 兎山三寸宅(亨權家)에 1個月 委托 ④1925. 兩家 撫松으로 移住 ⑤亨稷 白山學校設立에 参与
1926 夏	(1) 華成義塾에 入学 ^① (2) 級支殺害 投獄 10 個月	①獨立團體 正義府에서 設立 初代學長 崔東併 當時學長 朴某 ②亨稷白山學校左翼學生(成柱 親友)에게 被殺
1927. 春	(1) 吉林毓文中學入學說 (金伝) ^①	①李某氏 否認 ※ 李氏 1925年 兎兎山에 서 安圖로 移住
1928. 6. 5	(1) 殺女會加入(1928頃 民 族主義者 除去를 目的으 로 共產主義少年團體)	※ 李某氏 証言
※ 1929 秋 ~ 1930 春	(1) 吉林監獄에서 服役 ^①	①中國人殺害說(証人) ②共產主義運動說(金伝) ③李某氏 否認
1929	(1) 母親, 3 兄弟(成柱, 哲 柱, 英柱) 安圖縣興隆村, 小沙河經由 茂朱屯土器幕 部落에 있는 三寸宅으로 移住	

区 分	行 跡	参 考
1930	(1) 亨權妻 蔡氏 成柱, 英 柱를 安凶의 李某氏에게 委托 (2) 李某氏, 成柱를 安 警 察隊 使喚으로 주선 (3) 李某氏집에서 英柱保護	① 蔡成落의 次女 ② 哲柱討死說 (李某氏 証言) ③ 李某氏 1925年에 楸兪山 에서 容凶로 移住
1931	(1) 安凶의 武警察隊長 聖 柱를 養子로 入籍	
1932 秋	(1) 武警察隊長 通匪嫌疑로 日軍 第 19 師團 (羅南) 第 75 聯隊討伐隊에 被殺 (2) 武隊長 死亡後 聖柱는 武의 部下 17 名과 함께 武의 銃二点 所持 入山逃走	① 救国軍司令官 (国府 吳義成) ② 英柱 同行 当時 聖柱 18 歲說 (1954 年版 金日 成 伝에도 18 歲로 되었음)
1933	(1) 滿州軍 襲擊武器 多量 入手 (2) 聖柱, 救国軍司令官 (土 匪) 吳義成의 使喚 (当 差) 으로 入隊 (3) 吳義成部隊과 大韓獨立 軍의 協同作戰 妨害	① 1933. 夏 兩軍協同作戰으 로 戰果多大 ② 1933. 9 東寧 攻城 (牡丹江 省) 攻略戰에 救国約束 違反不參으로 獨立軍 損失 막심

区 分	分 跡	参 考
1934	(1) 吳義成部隊員으로 遊擊 活動	(1) 1934.3 東北人民革命 第 二軍 第二獨立師 第二團 政治委員 <金日善>은 別 人
1935 - 1941	(1) 東北人民革命軍에 加担	(1) 三貞淑
1941 - 1945	(1) 入蘇 베리아系 첩보 要員	(1) 金日成伝, 成柱의 入蘇事 實 否認

特 徵

○ 轉轉移住, 殺友, 殺父(間接), 投獄, 中退(中學), 使喚, 中國
人養子 게리라, 蘇聯諜報員

3. 英柱의

少年時節

年 代	行 跡	参 考
1922	○ 安岡, 八道滿에서 出生	○ 金亨稷의 3男
1925 初	○ 臨江, 惇兒山 三寸宅에 家族과 함께 1個月 滞在	
1925	○ 撫松三寸宅으로 (母, 聖柱 哲柱, 英柱)	
1929	○ 安岡県土器幕部落 移住	○ 1926.6.5 父被殺 ○ 1932. 哲柱討死 (35年說) ○ 1932.7.1 母死亡
1930 頃	○ 安岡李某家에 依托 (8歲)	
1932	○ 聖柱따라 入山說	
1934 末	○ 安岡地区 滿州国軍警備司令 李道善에게 被通 ○ 安岡朝鮮人居留民会 (會長 李某氏) 使喚	
1937 末	○ 李某氏 長男 李○○과 함께 家出 ○ 敦化·吉林方面으로 轉轉	○ 1937.10.1 日本治外法權 撤廢로 居留民会解散 ○ 李道善, 崔賢部隊에 被殺

年 代	行 跡	参 考
19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新京(長春) 日出町(日本橋橫町)日本人料亭使喚(金,李 同家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李某氏 神仙隊第1隊長으로 新任, 共匪討伐에 앞장 ※ 神仙隊: 安圖縣警務科長 金學聲의 發意, 間島省 次長 柳鴻洵 裁可로 1938 年에 創設(成員白頭山砲手)
194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滿州國治安部 中央督察官 金昌永 指揮下 滿州國 中央第1工作班(班長 林谷警佐)에 對聖柱工作要員으로 被採 ○ 祖母는 1939.12. 長白에서 이미 工作員化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滿州國理事官 平北道警視出身(滿州招憑官吏), 8.15 後 越南 金日成工作次 越北(個人資格) 行方 不明 ② 1940.2 ~ 40.7 頃 間島로 移行 ③ 金日成傳에는 1938 年부터 工作班이 祖母를 強制 連行했다고 (p.326)
194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林谷工作班 解体時 英柱 身邊 關東軍 布上大佐 (間島省, 牡丹江省境 位置 東寧縣)에 引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日軍通訳說

特 徵

孤兒，匪賊，使喚，日本人小使，對共工作人員 無誠 狡猾

4. 評 価

(金聖柱의 人間像)

① 亂世波蘭 많은 家庭 亂暴한 個性，非順担的 少年時節 (殺人，
投獄，養子，使喚，匪賊，獵色 中蘇의 工作人員

<非正常的 人間形式過程，反民族的 共產계리라>

結 論

金聖柱의 正体

1. 抗日独立志士 金日成將軍과 無関한 者
2. 抗日빨치산 金日成의 第6師長 祖国光復會 및 普天堡事件
等과 無関한 者
3. 殺友, 殺父, 投獄, 退学, 中国人養子, 蘇聯의 諜者, 掠奪, 獵色,
愛国者의 名儀와 業績을 盗用, 詐欺, 狹雜, 假字等
「惡의 化神」

自己正体隱蔽, 愛国独立闘士假裝 權謀術教員 祖国統一
英雄化 對策

對 策

- (1) 金聖柱의 詐欺漢的 正体赤化策動
- (2) 對北政策, 南北對話에 慎重
- (3) 高次的 政治心理戰的 方法으로 金聖柱의 正体를 万天下에
暴露



全世界的 糾彈 喚起
全聖柱의 赤化統一野慾粉碎



民主統一課業完遂의 相對的 力量強化

金日成言行變化過程分析

研究執筆責任：調查研究室(1976)

目 次

1. 研究目的	111
2. 研究方法과 修正範圍	112
3. 選集修正의 背景	114
가. 政治的 背景	114
나. 北傀 歷史觀 變化	115
다. 對外路線 變化	118
4. 選集의 修正內容	120
가. 選集의 版別內容概要	120
나. 個別論文修正內容 分析	121
다. 結 論	164
5. 發展策 및 建議	168

1. 研究 目的

- 가. 70年代에 들어와 北傀는 歪曲된 歷史的 正統性을 主張하면서 國際적으로 公公然히 代表權問題를 提起하여 大韓民國의 唯一 合法性에 對해 挑戰하여 오고 있으며
- 나. 對內的으로는 捏造된 金日成 抗日武裝鬪爭 運動과 主体思想을 理論的 武器로 하여 金日成 一人獨裁體制를 合理化하고 있음
- 다. 金日成選集은 主体思想을 集約적으로 記述하고 있을 뿐 아니라 正統성과 唯一代表權을 主張하는 北傀論理의 根柢를 提示하는 基礎資料로서 北韓社會의 聖典이 되고 있으나 其實은 歷史的 事實의 捏造와 歪曲 및 論理的 虛構性으로 點綴되어 있음.
- 라. 解放以後 지금까지 金日成選集은 3次(47年, 60年, 67年) 에 걸쳐 內容이 修正 補完 및 添削되어 發刊되었으며 演說 論文題目도 變更되었음.
- 마. 따라서 本課題는 同選集의 修正過程을 細密히 分析함으로써 北傀政權의 歷史的인 偽裝의 本質과 主体思想의 虛構性을 資料의 考證을 통해 摘發하여 이를 國內外에 暴露하고, 對北政 治心理戰 戰略樹立의 資料를 導出하는데 研究目的을 들.

2. 研究方法과 修正範圍

가. 研究方法

- (1) 金日成選集의 版別比較分析에 있어서 內容分析 方法 (Content analysis) 과 아울러 象徴分析方法 (Symbol analysis) 을 活用하여 內容變更의 本質的 意味를 追跡

例 示

47 年 版	60 年 版
○ 自由獨立	○ 자주 독립
○ 3.1 運動에서 피흘린 先烈	○ 항일민족 해방투쟁에서 피흘린 先烈

- (2) 內容修正과 用語變更을 歷史 및 思想的 側面, 对内外的 側面, 对南戰略的 側面에 關聯시켜 意味分析

나. 修正範圍 (毛沢東選集과의 比較)

	金 日 成 選 集	毛 沢 東 選 集
冊 題目 修正	(1) 1947年版 ○ 重要報告集(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 樹立의 길) (2) 1960年版 ○ 김일성 선집 (3) 1967年版 ○ 김일성저작선집	(1) 1946年版, 51年版, 57年版, 63年版, 67年版, 71年版(6回) ○ 毛沢東選集
內容修正	(1) 論理의 本質(essence)修正 (2) 理論不在에서 새理論의 造作 ○ 主体思想	(1) 論理의 本質不變 (2) 時代狀況에 맞추어 理論展開를 精密化
特 徵	(1) 哲學的著作 不在 (2) 金日成의 抗日武裝斗争 運動造作 (3) 平凡한 內容의 主体思想을 獨特한 創造思想인양 強調	(1) 「矛盾論, 實踐論」의著作 (2) 毛沢東革命運動의 經驗을 理論化 (3) 農民을 中國共產革命의 核心으로 把握

3. 選集修正의 背景

가. 政治的 背景

- (1) 1956年 北傀勞動黨 第3次黨大會에서 金日成은 후루시초프의 非스타린化運動에 刺戟을 받고 金日成 除去를 陰謀(所謂 8月宗派事件)한 崔昌益(中共派) 朴昌玉(소련派) 등의 反金勢力을 肅清하기 爲해 政治思想的 名分으로서 主体性を 提起했음.
- (2) 이처럼 1947年 以來 소련의 스탈린을 盲目的으로 模倣해 오던 金日成이 스탈린死後에 일어난 變化의 물결로 부터 自己의 權力體制를 계속 유지하기 爲해 外國(소련)의 修正主義에 反對한다는 理論的 名分下에 내세운 主体性 提起는 그 內容이 虛構的이긴 하나 北傀政權의 思想 이데올로기 歷史觀, 價值觀 및 基本路線의 轉換을 가져온 決定的 契機임.
- (3) 反黨宗派分子를 除去하기 爲한 理論的武器로 使用된 金日成의 民族主体性主張은 그後 1966年 自主宣言으로 發展하여 이른바 政治自主, 經濟自立, 國防自衛, 思想主体를 內容으로 하는 金日成 主体思想으로 完成되었으며, 또 이 主体思想을 歷史的으로 捏造된 金日成 抗日武裝鬪爭運動과 連結시켜 北傀政權의 歷史的正統性 主張의 理論的 根拠로 活用
- (4) 따라서 捏造된 金日成 抗日武裝鬪爭運動과 主体思想은 金日

成 1人 独裁体制를 合理化하는 理論的 土台로 作用하고 있으며 오늘날 北韓의 金日成 偶像化運動도 여기에 根拠를 두고 있음.

- (5) 이리하여 1956年 以前 스탈린의 政治 이데오로기를 盲目的으로 模倣 追從하던 當時의 金日成選集 內容은 1960年代에 들어와 金日成 抗日武装鬪争運動과 主体思想의 論理에 立脚하여 本質적으로 全面 修正을 보게 됨.

나. 北傀歷史觀 變化

- (1) 共產主義者들은 共產社会建設을 爲한 政治思想的인 理論武器의 核心으로서 歷史研究를 強調하고 있는데 北傀의 경우에도 金日成의 歷史觀이 北傀의 对内外路線 및 对南戰略에 그대로 反影될 뿐만 아니라 其實 理論的 思想的 骨格을 이루고 있음.
- (2) 1956年 北傀勞動党 3次党大会以前 盲目的으로 스탈린을 模倣 追從하던 當時의 北韓은 国史觀 不在時期였음.

가) 1949年 北傀 金日成 政治勢力的 歷史的 正当化를 위해 金日成大學에서 集團著述된 「朝鮮民族 解放鬪争史」의 內容을 보면

- ① 教條的 公式主義에 立脚하며 唯物論的 階級史觀을 機械的으로 韓國史에 適用
- ② 소련 불레비키党史의 北傀的 適用 및 模倣 (소련中心의 歷史意識)

③ 歴史的 民族的 特殊性 完全無視

④ 傳統的 民族史 否定 및 斷絶 (過去不在의 現在觀)

나) 學校에서는 소련 教科書를 그대로 번역하여 教材로 삼았고
當時 平壤 종로거리는 '스타린 거리'로 大同江은 '레닌
江'으로 呼稱

(3) 1956年 소련의 修正主義 影響을 받은 反金日成 勢力의 肅
清事件을 契機로 歷史研究 再出發, 即. 1956年에서 62年
사이에 北韓에서는 傳統的 民族史가 金日成 抗日武裝鬪爭과
主体思想으로 連結되어지는 歪曲된 國史觀이 形成

가) 이처럼 金日成 抗日武裝鬪爭運動 捏造와 傳統的 民族史를
加味하여 形成된 國史觀에 立脚하여 1966년에는 北傀의
自主路線이 公式的으로 宣言되었음.

나) 1956年以後 北傀史學者들은 1949年版의 「朝鮮民族解放鬪
爭史」를 全面 批判 및 完全無視하고 다음과 같이 再執筆

著 者	冊 名
歷史研究所	○ 朝鮮通史上 (56年) 下 (58年) 및 개정판 (62年)
이 나 영	○ 조선민족 해방투쟁사 (58年)
정진석의	○ 조선철학사 (상) (60年)
역사연구소	○ 조선근대혁명사 (61年)

著 者	冊 名
박 시 형	○ 조선토지 제도사 (60年)
도 유 호	○ 조선원시 고고학 (60年)
김 석 형	○ 조선봉건시대 농민의 계급구성 (57年)

다) 北傀国史觀의 内容

- 国史를 北傀正統性的 歴史的 根拠로 活用
- 国史는 金日成 一人独裁体制의 思想教養事業의 基本으로서 階級意識, 民族意識 高취
- 解放初期 精神史觀이라고 非難하던 丹齐史学 (申采浩) 을 骨格으로 하여 北傀 国史觀 構成 (高大申一徹教授 主張)
- 祖国戰爭觀 (스탈린의 二次大戰中 祖国防衛戰爭概念 - 내소 나라즘, 愛国主義論) 公式을 6.25戰爭 概念에 適用하곤 同時에 임진왜란의 조국전쟁 概念과 同一化하고 있으며 이로써 現在의 金日成을 과거 歴史上 가장 위대한 人物인 李舜臣 將軍과 同格化하고 있음.
- 統一을 歴史的 이데오로키化 하여 6.25戰爭을 統一을 위한 聖戰으로 概念化

다. 對外路線 變化

- (1) 北傀는 1945年 解放以來 1956年 소련 第20次 共産黨大會(후루시초프가 東西 平和共存과 스탈린 格下路線 提起) 開催時 까지는 對蘇 一刃倒路線을 追求하여 盲目的으로 소련을 模倣(45年~56年)
- (2) 그런데 1956年 平和共存과 스탈린 格下 問題를 위요하여 中蘇間의 對立이 露骨化하자 北傀는 主体性을 내세워 줄타기 式인 對中蘇 中立的 兩面外交를 展開(56年~60年)
- (3) 1960年代에 들어와 北傀 소련關係는 62年 쿠바 危機 事件을 契機로 惡化하기 始作하고 北傀는 親中共路線을 標榜하기 始作하였으며 62年以後 소련의 對北傀 援助는 中斷, 한편 北傀는 經濟面에 있어서도 中共式인 自力更生 路線을 採択하여 7個年計劃(61年)을 作成(60年~65年)
- (4) 1965年 소련首相 코시긴의 北傀訪問과 더불어 北傀의 對蘇關係는 改善되기 시작하였으며 소련의 對北傀援助(65年 軍事援助協定, 66年 經濟技術援助協定)도 再開, 또한 北傀는 年年惡化一路에 빠져들어가자 中蘇紛争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 1966년에는 自主路線을 公式的으로 宣言하여 主体思想을 더욱 強調(65年~70年)
- (5) 70年代에 들어와 北傀는 對中蘇關係에 있어서 中立的 立場을 固守하면서 亞阿非同盟 中立諸國의 第3勢力圈에 對한 猛烈的 接近路線을 追求

라. 小結論

- 上記와 같이 소련에서의 修正主義登場, 北傀内部 權力 鬭爭과 肅清事件, 北傀 歷史觀의 變化, 對外路線의 變化 등의 諸要素는 金日成選集 修正의 基本要因으로 作用

4. 選集의 修正內容

가. 選集의 版別 內容

版 別	期 間	內 容				再 收 錄 論 文
		政 治 論 文	經 濟 論 文	社 會 文 化 論 文	總 論 文 數	
(1) 1947年 版(初版: 重要報告 集)	自 1946.2.8 至 1947.8.14	14 편 (統一關係 : 1 편)	5 편	4 편	23 편	
(2) 1960年 版(2版: 김일성 선 집)	自 1945.10.13 至 1959.12.4	66 편 (軍事論文 : 4 편) (統一關 係 8 편)	38 편	18 편	122 편	○ 初版: 14 편 (政) 8 편 (經) 4 편 (社) 1 편 (統一) 1 편
(3) 1967年版 (3版: 김일성저작 선집)	自 1945.10.13 至 1967.12.16	43 편 (軍事論 文: 4 편) (統一關 係: 7 편)	29 편	17 편	89 편	○ 初版: 6 편 (政) 3 편 (經) 3 편 ○ 2版: 37 편 (政) 20 편 (經) 11 편 (社) 5 편 (統一) 1 편

나. 個別論文修正內容分析

- 47年 選集에 収録된 論文으로서 60年版과 67年版 選集에 再収録된 論文 14편을 選擇해서 分析

- (1) 論文 1 : 目前朝鮮政治形勢와 北朝鮮臨時 人民委員會의 組織問題에 關한 報告 (1946.2.8)
(北朝鮮 臨時人民委員會 結成 大會에서)

(가) 題目變更

60年 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전 조선정치 정세와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 조직에 관하여 (북조선 민주주의 정당 , 사회단체 , 행정국 , 인민위원회 대표확대 협의회에서한 보고)
67年 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上 同 (북조선 민주주의 정당 , 사회단체 , 행정국 , 인민위원회 대표 협의회에서한 보고)

(나) 修正内容 및 評價

○ 文章을 全般的으로 修正 (粗雜文章→洗練文章)

1) 主要修正内容对照表

47年 版	60年 版	67年 版
○ 蘇聯軍隊의 偉力으로 解放된 北朝鮮은 決定的으로 眞正한 民主主義의 길에 나섰습니다.	○ 完全削除	○ 完全削除
○ 朝鮮農民의 8割은 半小作人, 雇傭農民	○ 조선농민의 80%는 소작농, 반소작농 및 고용농	○ 60年版과 同一
○ 유명한 3.1運動	○ 3.1 운동	○ 3.1 운동
○ 6.10示威運動	○ 6.10 만세운동	○ 6.10 만세운동
○ 言及없음	○ 1930년대초 항일무장투쟁	○ 1930년대초 항일무장투쟁
○ 發起部의 意見을 蘇聯軍 司令官에게 陳情한 結果에 反意가 없을 뿐 아니라 歡迎하였읍니다. (政黨, 社會團體의 指導者들이 發起部를 組織)	○ 소련군 사령관도 발기위원회의 의견을 지지하였읍니다.	○ 完全削除

47年 版	60年 版	67年 版
○ 소베트軍司令部는 北朝鮮에 있는 모든 民主主義 政党들과 社会团体들의 事業에 同情하여 주며 우리에게 多方面으로 방조하여 주며 努力하여 줍니다.	○ 소련군대가 북조선에 진주하자 북조선 인민들은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 지방정권인 인민위원회를 조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60年版과 同一
○ 소련군대 또는 소베트國家에 대한 언급 9회	○ 5회	○ 4회
○ 소련군	○ 영웅적소련군	○ 영웅적소련군
○ 中國으로부터 들어온 朝鮮 獨立同盟	○ 조선독립동맹	○ 조선독립동맹
○ 朝鮮農民의 8割	○ 80%	○ 80%
○ 勞動組合과 農民同盟만 하더라도 자기의 同盟에 250萬名 규합	○ 노동조합과 농민 동맹에만도 200여만 명의 맹원들이망라	○ 60年版과 同一
○ 朝鮮에 대한 三国外相 모스크바會議 決定의 真意를 解釈함에 대하여 反動分子들은 모스크바會議의 決定을 部分的으로 後見에	○ 반동분자들은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 특히 後견에 관한 개념을 옳지 않게 해석하려고 시도	○ 60年版과 同一

47年 版	60年 版	67年 版
대한 諒解를 울지 못하 게 解釈하기를 試圖		

2) 評 価

가) 60年版 選集이 후부터는 蘇聯 및 駐北韓蘇聯軍司令부에 대
한 金日成態도의 根本的 變化

○ 对蘇依存一辺倒→自主的姿勢

○ 解放初期 蘇聯軍의 役割을 약간 低下

나) 北傀政權樹立過程에 있어서 金日成의 主動的 役割을 間接的
表現을 통해 크게 強調

(例 示)

○ 蘇聯軍司令官에게 陳情, 혹은 소련군 사령부의 同情
및 방조, (47年版)→소련군의 지지(60年版)→完全削除
(67年版)

다) 1930年代初 抗日武裝鬪爭을 60年版選集 以後 새로 挿入한
것은 北傀의 政治思想 이데오로기面에서 불매 중대한 政治
的 意味를 內包

○ 北傀의 国史觀 歪曲(金日成의 抗日武裝鬪爭運動捏造)

○ 北傀政權의 正統性을 歴史的으로 正当化

(2) 論文 2 : 三 . 一節을 맞이하며 朝鮮人民에게 告함 (1946.3.1)

(平安南道 三 . 一運動 記念大会에서)

(가) 題目變更

60年 版	○ 3.1운동 27주년을 맞이하여 (3.1운동 27주년 평안남도 경축대회에서 한 연설)
67年 版	○ 不収録

(나) 修正内容 및 評價

1) 主要修正内容对照表

47年 版	60年 版
○ 우리民族의 大同團結로서	○ 민주주의 <u>민족통일전선의</u> 기발 아래 굳게 단결함으로써
○ 主觀的으로는 3.1運動의 失敗는 <u>3.1運動의 主要한 領導機構가</u> 不完全할 뿐만 아니라 動搖를 가지던 <u>몇개 先生들의 手中에</u> 있었습니다. 다쓰 말하면 그때	○ 3.1운동이 실패한 가장 주요 한 원인은 이 운동을 영도할 만한 <u>혁명적 계급과 혁명적</u> <u>당이</u> 없는데 있었습니다. 당시 노동자들은 투쟁에 적극

47年 版	60年 版
<p>의 그와같은 偉大한 運動과 有力한 政党的 指導가 없었고 個人의 無計劃, 無主張 堅實성이 없는 <u>몇개 地主 宗教家 學者들</u> 手中에 있었던 까닭입니다.</p>	<p>적으로 참가하여 자기의 완강한 전투력을 여실히 보여 주었으나 조선사회의 전반적 낙후성으로 말미암아, 아직 계급으로 형성되지 못하였으며 운동을 조직적으로 영도할 자기의 혁명적 당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습니다.</p>
<p>○ 3.1 運動에서와 3.1 運動을 계속하기 위하여 피흘린 烈士들의 榮光萬歲</p>	<p>○ <u>항일민족해방투쟁</u>에서 피흘린 선열들에게 榮光이 있으라</p>
<p>○ 새로운 民主主義的 <u>自由朝鮮</u> 萬歲</p>	<p>○ 새로운 민주주의적 조선만세</p>
<p>○ 世界人民의 偉大한 指導者이며 恩人이 斯탈린 萬歲</p>	<p>○ 完全削除</p>

2) 評 価

가) 60年版 選集以後부터 3.1運動觀이 歪曲

- 47年版 選集에서는 3.1 運動의 指導者로서 地主, 宗教家, 學者를 들고 있는데 反해
- 오늘날 北韓에서는 3.1運動의 指導者로서 金日成의 父 金亨稷을 내세우고 있음.

나) 소련의 스탈린 格下운동의 影響을 받아

스탈린 個人 崇拜 文句 削除

- 스탈린 個人崇拜 文句 削除로 相對的으로 金日成 個人崇拜의 터전 마련

(3) 論文 3 : 朝鮮臨時政府樹立을 앞두고

20 個條 政綱發表 / (1946.3 月 平壤放送)

(가) 題目變更

60 年 版	○ 20개 조 정강 (방송연설 1946.3.23)
67 年 版	○ 上 同

(나) 修正內容 및 評價

1) 主要內容修正對照表

47 年 版	60 年 版	67 年 版
○ 解放된 朝鮮의 <u>敬愛</u> 하 는 兄弟姉妹와 親友들 이여!	○ <u>친애</u> 하는 동포형제 자매들	○ 친애하는 동포형제 자매들
○ 京城市	○ 서 울	○ 서 울
○ 소. 米共同委員會는 朝 鮮에 民主主義的 臨時 政府를 結成할 問題를 解決할 <u>것</u> 입니다.	○ 소. 미공동위원회는... 조선인민이 絶실히 요구하는 통일된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문제를 <u>해결</u> 하여야 <u>합니다</u> .	○ 60년판과 동일

47年 版	60年 版	67年 版
○ 美 . 英 . 蘇 <u>三大強國</u>	○ <u>3國의상회의</u>	○ <u>3國의상회의</u>
外相會議		
○ 財產의 多少를	○ 재산의 유무를	○ 재산의 유무를
○ 進步的 所得稅制	○ 후진적 소득세제	○ 후진적 소득세제
○ 우리 祖國의 自由獨立과 民族政體를 위하여 싸우는 鬪士들은 <u>民主主義的 自由獨立國家建設</u> 에 모든 힘을 바치라고 호소	○ 우리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싸우는 투사들이 <u>민주주의적 자주독립</u> 국가 건설에 모든 힘을 다 바칠것을 호소	○ 60년판과 동일
○ 民主主義的 <u>自由獨立萬歲</u>	○ 민주주의적 <u>자주독립만세</u>	○ 민주주의적 <u>자주독립만세</u>
○ 日本壓迫에서 朝鮮人民을 解放시켜준 偉大한 <u>諸聯合國萬歲</u>	○ 完全削除	○ 完全削除

2) 評 価

가) 本 論文은 内容上의 修正이 比較的 적음.

나) 日帝로 부터의 解放에 대한 美.英.蘇 聯合国의 役割을

될 수 있는한 浮刻시키지 않으려는 의도 露呈

○ 解放에 대한 金日成과 金日成 父의 代를 이은 主動
的 役割을 捏造하여 歷史를 歪曲했기 때문

○ 金日成 偶像化 作業의 터전 마련 때문

다) 60年版 以後부터 北傀 特有的 自主的인 이데오로기 觀

念이 明白化

○ 自由独立国家→自主独立国家

○ 3大強国→3国

(4) 論文 4 : 土地改革總結報告에 對한 結論要旨 (1946年 4.13)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 第一次 擴大委員會에서)

(가) 題目變更

60年 版	○ 토지개혁의 總결과 金후사업 (1946.4.10) (조선공산당북조선조직위원회 제 6차확대집행 위원회에서 한 보고
67年 版	○ 上 同

(나) 修正內容 및 評價

1) 主要修正內容對照表

47年 版	60年 版	67年 版
○ 言及없음	○ 당은 우리 사회발 전에 성숙된 요구 와 국내 외의 정세 에 근거하여 북조 선에서 토지개혁을 실시하기로 결정하 고 전당의 력량을 이 사업에 돌렸음	○ 60年版과 同一

47 年 版	60 年 版	67 年 版
	니다.	
<p>○ 蘇聯軍隊를 為首로 한 聯合國의 反파시스트의 戰爭의 勝利로 因하여 東方에서 日本帝國主義가 撲滅된후 東方諸植民地 國家中에서 第一 먼저 朝鮮이 封建制度를 倒壞하고 真正한 民主主義的 建設을 始作</p>	○ 完全削除	○ 完全削除
<p>○ 朝鮮軍隊가 進駐하여서 朝鮮人民에게 能히 民主主義的으로 發展하는 可能性과 條件을 주었다.</p>	○ 完全削除	○ 完全削除
<p>○ 土地改革을 순조롭게 進行하게한 條件의 또 하나는 北朝鮮에서 民主主義的 統一戰線이 굳게 結成되었다는 것</p>	○ 우리당은 토지개혁을 수행함에 있어서 各黨, 各파, 各계 各층과의 통일전선을 강화하며	○ 60年版과 同一

47 年 版	60 年 版	67 年 版
<p>이다. 北朝鮮에 있는 各 民主主義的 政黨, 即 朝鮮共產黨, 朝鮮民主 黨, 新民黨, <u>天道教</u>, <u>青友</u> <u>黨</u> 及 其他 各社會團體 들이 結成한 <u>統一戰線</u>은 土地改革法令이 發表되자 ...이를 절대 지지하는 聲 明書發表</p>	<p>그들의 역량을 총 동원하기 위하여 노력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당 원들 이외에도 70여만명의 맹원 을 가진 북조선 농민연맹, 35만여 명의 맹원을 가진 노동조합, 그리고 조선민주당 조선신 민당 30여만명의 맹원을 가진 여성 동맹 50여만명의 맹원을 가진 민청 그밖에 평양학원, 문화단체, 예술연맹 교원동맹인민극단등 도합 300여만명의 조직된 군중이 동 원되어 농촌위원회</p>	

47 年 版	60 年 版	67 年 版
	들을 협조	
○ 蘇聯軍에 대한 言及 5 回	○ 完全削除	○ 完全削除
○ 土地改革은 <u>統一的</u> <u>民主主義 政權을 하</u> <u>루 속히 建設하기</u> <u>위한것</u>	○ 토지개혁은 북조선을 <u>민주주의적 가치로</u> <u>전변시키는 역사적</u> <u>위업</u>	○ 60.年版과 同一
○ 農民銀行	○ 完全削除	○ 完全削除

2) 評 価

가) 内容上 큰 修正 敢行

- 47年版 選集에서는 土地改革의 成功이 소련軍의 支援 役割때문이라고 表現
- 60年版 選集 以後부터 土地改革 事業은 소련에 依存하지 않고 全般的으로 北傀 金日成領導下 勞動黨이 独自の으로 決定하여 實施成功한 業績이라고 主張하고 北傀 勞動黨이 成功한 歴史的인 核心的 大事業으로 評價

나) 60年版부터 土地改革에 있어서 勞動党的 核心的 役割

強調

- 統一戰線은……(47年版) → 우리당은 토지개혁을 遂行함에 있어서 (60年, 67年版)

다) 論文 報告 日字 修正 (理由不分明)

- 47年版 : 46年 4月 13日
- 60年, 67年版, 46年 4月 10日

(5) 論文 5 : 民主主義 朝鮮建國에 있어서의 靑年들의 任務

(北朝鮮 共産黨 各道, 市, 郡 靑年部長과 民主靑年
同盟委員長會議 席上에서)

(가) 題目變更

60年 版	○ 민주조선건설에서의 청년들의 임무 (1946.5.30) (각도당 위원회 청년사업부장, 도민청위원회 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한 연설)
67年 版	○ 不収録

(나) 修正內容 및 評價

1) 主要修正內容對照表

47年 版	60年 版
○ <u>金九</u> , 李承晩이가 派遣한 放火 團	○ 이승만도당이 파견한 암해 분자
○ (청년들은) 科學的立場과 <u>唯物</u> <u>辯證法的 方法</u> 에 立脚하여 朝 鮮事情에 적합한 理論을 가져 야	○ 과학적방법에 입각하여 조선 의 현실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 不言及	○ 혁명투사용어사용

2) 評 価

가) 金九를 비난대상에서 除外한 것은 48年 南北協商을 考慮

하여 對南宣傳戰略的 側面을 意識했기 때문

나) 47年版에는 演說日字 不記載 (理由不分明)

(6) 論文 6 : 勞動法令草案을 發表하면서 (1946.6.20)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擴大委員會席上에서)

(가) 題目變更

60年 版	○ 勞動법령초안에 대하여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확대회의에서 한 연설)
67年 版	○ 上 同

(나) 修正內容 및 評價

1) 主要修正內容對照表

47年 版	60年 版	67年 版
○ 現段階의 朝鮮의 民主主義的 改革建設段階에 있어서 規定받은 民主主義勞動法令	○ 이 勞動법령은 民主主義적법령으로서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역사적 조건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적 혁명단계에 있습니다.	○ 60年版과 同一

47年 版	60年 版	67年 版
○ 蘇聯軍隊	○ 위대한 소련군대	○ 위대한 소련군대
○ 倭寇	○ 일제	○ 일제
○ 個人資本	○ 개인기업	○ 개인기업
○ 米國式的民主主義	○ 완전삭제	○ 완전삭제
○ 金九, 李承晩 파시스트	○ 이승만 매국역도	○ 이승만 매국역도
○ <u>世界被压迫民族의 偉</u> 대한 領導者 스탈린 大元帥	○ <u>소련군대와 소련인민의</u> 위대한 영도자 스탈린 대원수	○ 60年版과 同一
○ 116 %	○ 16 %	○ 16 %
○ 125 %	○ 25 %	25 %

2) 評 価

가) 金日成은 對蘇關係에 대해 相當히 큰 神經을 쓰고 있음.

- 土地改革에 관한 報告 (46.4.10) 에 있어서 蘇聯軍의 役割을 故意로 낮게 評價
- 그러나 勞動法令에 관한 報告 (46.6.20) 에 있어서는 蘇聯軍의 호칭에 수식어 사용 (소련군 → 위대한 소련군)

나) 스탈린 格下運動의 영향을 받아 스탈린 個人崇拜를 나타내는 表現 削除

다) 金日成의 無識 暴露 (% 不理解)

- 116 % (47年版) → 16 % (60年版)

라) 金九의 非難對象除外 (南北協商 때문)

- 對南宣傳戰略考慮

(7) 論文 7 : 北朝鮮民主主義民族統一戰線委員會 結成에 對한 報告

(1946. 7. 22)

(北朝鮮民主主義民族統一戰線委員會結成大會席上에서)

(가) 題目變更

60 年 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民主主義 民族統一戰線委員會를 結成할데에 對하여 (北朝鮮民主主義 各政黨, 社會團體代表會議에서 한 報告)
67 年 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不 收 錄

(나) 修正內容 및 評價

1) 主要修正內容 對照表

47 年 版	60 年 版
○ 倭寇 統治時代	○ 일제 통치시대
○ 統一的인 民主自由 完全獨立의 富強한 새 朝鮮	○ 통일적 민주주의 독립국가
○ 売国奴 民族 叛逆者의 頭目 金九 李承晩	○ 民族 叛逆者들의 頭目인 이승만도당

2) 評 価

가) 文章은 세련되게 全般的으로 修正되었으나 内容上的
特異한 修正은 없음.

(8) 論文 8 : 重要 産業, 交通, 通信, 運輸, 銀行 등의 国有化法令 發表
에 對하여 朝鮮人民에게 告함 (1946. 8. 10)

(가) 題目變更

60 年 版	○ 重要산업의 國有化는 自립독립국가 建設의 기초 (산업國有化 법령지시 평양시 軍中대회에서 한 연설)
67 年 版	○ 上 同

(나) 修正內容 및 評價

1) 主要修正內容對照表

47 年 版	60 年 版	67 年 版
○ 敬愛하는 同胞들 / 그리고 男女同胞들	○ 친애하는 동포 여 러분	○ 친애하는 동포 여러분
○ 朝鮮人民의 손으로	○ 朝鮮인 民의 피와 땀으로	○ 朝鮮인 民의 피와 땀으로
○ 無償沒收하여 國有 化	○ 무상으로 沒수되어 朝鮮인 民의 소유로	○ 60 年판과 동일
○ 自由民主國家	○ 民主주의 자주독립 국가	○ 民主주의 자주독 립 국가

47 年 版	60 年 版	67 年 版
<p>○ 이 모든 것 (國有化法 令施行) 은 오로지 蘇聯軍隊의 熱誠的 인 방조와 끊임없 는 指導에 의하여 達成</p>	<p>○ 完全削除</p>	<p>○ 完全削除</p>
<p>○ 英勇한 蘇聯軍隊</p>	<p>○ 영웅적 소련군대</p>	<p>○ 영웅적 소련군대</p>
<p>○ 蘇聯軍隊는 日本帝 國主義의 약탈적 侵略軍隊를 滿洲와 朝鮮에서 驅逐</p>	<p>○ 소련군대는 일본제국 주의 침략군대를 격 멸</p>	<p>○ 60年版과 同一</p>
<p>○ 蘇聯軍隊는……北朝 鮮의 經濟 및 文 化生活를 復興함에 있어서 우리를 방 조하여 주었으며 계속 後援</p>	<p>○ 소련군대는 북조선의 인민경제와 문화의 급속한 부흥발전을 위하여 우리에게 계 속 사심없는 원조</p>	<p>○ 60年版과 同一</p>
<p>○ 自由政治生活</p>	<p>○ 민주주의적 새생활</p>	<p>○ 민주주의적 새생 활</p>
<p>○ 蘇聯의 英明한 親善政策</p>	<p>○ 형제적 소련인민의 지성어린 원조</p>	<p>○ 형제적 소련인민 의 지성어린 원조</p>

47年 版	60年 版	67年 版
<p>○朝鮮人民과 全世界에 蘇聯은 絶對로 他國을 侵略할 目的이 없었으며</p>	<p>○完全削除</p>	<p>○完全削除</p>
<p>○米軍司令部의 默認과 後援을 利用하여 反動分子들은... ...産業과 朝鮮의 自然부원을 <u>外國資</u> <u>本家</u>들에게 팔아먹고 있습니다.</p>	<p>○미 군사령부의 적극적 후원 밑에 미국 자본가들과 국내 반동분자들은...조선의 산업과 자연부원을 미국독점 자본가들에게 제멋대로 팔아 넘기고 있습니다.</p>	<p>○ 60年版과 同一</p>
<p>○朝鮮人民의 <u>擁護者</u>인 스탈린大元帥</p>	<p>○조선인민의 <u>친근한</u> <u>벗</u>인 스탈린대원수</p>	<p>○ 60年版과 同一</p>

評 価

가) 60年版 選集 以後 人民概念의 強調를 통해 大衆의 參考
意識 鼓吹

○ 国有化→人民의 所有

나) 本 論文 修正에 있어서는 理念的側面을 크게 考慮

○ 自由国家→自主国家

○ 社会主義 用語 不使用 (47年, 60年, 67年版)

다) 金日成의 滿洲에서의 抗日武装鬪争運動에 대해 간접적으로
강조

○ 蘇聯軍의 滿洲와 朝鮮에서 日本帝国驅逐 (47年版)

→소련군의 일본제국침략군격퇴 (60年, 67年版)

라) 金日成의 对蘇警戒心 尙露

○ 소련의 後援 (47年版) →소련의 사심없는 後援

(60年, 67年版)

마) 金日成의 스탈린에 대한 尊称變化

○ 朝鮮人民의 擁護者 스탈린 (47年版) →친근한 벗

스탈린 (60年, 67年版)

(9) 論文 9 : 朝鮮同胞에게 告함 (1946. 8. 15)

(8. 15 解放 一週年記念慶祝大會席上에서)

(가) 題目變更

60 年 版	○ 8.15 해방 1주년 평양시 경축대회에서 한 보고
67 年 版	○ 不 收 錄

(나) 修正內容 및 評價

1) 主要修正內用對照表

47 年 版	60 年 版
○ 많은 愛國分子는 豆滿江, 압록 江을 건너 滿洲 또는 <u>華北</u> 등지에서 빛나는 反日武裝鬪爭	○ 특히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애국자들은 단주일대와 국내 에서 직접무기를 잡고 일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유격 투쟁
○ 3.1 以後 우리 獨立運動은 主로 朝鮮의 <u>勤勞大衆의 아들</u> 딸이 繼承	○ 3.1 운동이후 조선인민의 민 족 해방투쟁은 주로 <u>노동계급</u> 을 비롯한 <u>노동대중의 아들</u> <u>딸들에 의하여</u> 계승

47 年 版	60 年 版
○ 偉大한 스탈린大元帥領導下	○ <u>소련 공산당</u> 과 영명한 스탈린 대원수의 영도 밑
○ 民主主義聯合國의 勝利	○ 반과쇼역량의 승리
○ 소베트人民과 소련軍隊의 偉大 한 指導者 <u>스탈린大元帥</u> 의 領 導가 얼마나 正確하고 天才的	○ 소련인민의 지도적 향도적 역 · 량인 <u>소련 공산당의 영도가</u> 얼 마나 精確하였는가
○ <u>蘇聯과 蘇聯軍隊</u> 로 부터 앞으 로는 誠意있는 援助가 있을 것을 믿는 바입니다.	○ 성심 성의로 도와주고 있는 위 대한 <u>소련인민</u> 과의 친선을 공 고히

2) 評 価

가) 60年版부터 階級意識 強調

- 朝鮮의 勤勞大衆 (47年版) →
勞働階級을 비롯한 勤勞大衆 (60年版)

나) 上海 臨政의 獨立運動을 間接적으로 否定하고 빨찌산의 유격鬪爭을 강조

- 滿洲 또는 華北等地에서 反日武装鬪爭 (47年版) →
滿洲一帶와 國內에서 유격鬪爭 (60年版)

다) 对南宣传 意識 考慮

- 联合国勝利 (47 年版) → 반과소力量의 勝利 (60 年版)

라) 人民概念 強調

- 소련과 소련군대의 원조 (47 年版) → 소련人民과의 親善 (60 年版)

(10) 論文 10 : 北傀鮮 民主選舉의 總結과 人民委員會의 当面課業

(1946. 11. 25)

(北朝鮮 臨時 人民委員會 第三次 廣大 委員會 席
上에서)

가) 題目變更

60 年 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선거의 총화와 인민 위원회의 당면과업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 제 3 차 확대 위원 회에서 한 연설)
67 年 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不 收 錄

나) 修正內容

1) 主要修正內容對照表

47 年 版	60 年 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韓總選에 對해) 그들이 (反動分子) 製造 하였고 指揮하던 「 政黨 」 들까지도 反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들이 조작하고 지휘하던 <u>우익정당들</u>에서까지 반대

47 年 版	60 年 版
<p>○ 統一的 民主主義 獨立國家</p>	<p>○ 통일적 민주주의 <u>자주</u> 독립 국가</p>
<p>○ <u>노동者</u>들이 人民主權에 參加해야 할 것은 勿論이고 또 이 番 選舉를 通하여 그들은 <u>人民政權의 一員</u>으로서 몇몇하게 參加하였습니다.</p>	<p>○ <u>로동계급</u>은 해방된 자기 나라를 민주주의적으로 건설하는데서 <u>선봉적 역할</u>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u>인민정권</u>에 <u>다수</u> 참가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p>
<p>○ 人民委員會는……… 人民各階層의 要求와 利益을 代表하는 主權形式</p>	<p>○ 인민위원회는………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대중의 요구와 이익을 대표하는 <u>민주주의적 주권형태</u></p>
<p>○ 人民委員會는 모든 隣接國들의 自由와 民主를 사랑하는 나라들과 親善과 協助를 계속하여 發展</p>	<p>○ 인민위원회는 <u>위대한 소련</u>을 비롯하여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과 협조를 더욱 강화 발전.</p>

2) 評 価

가) 60年版에서 勞動階級の 役割強調

○ 勞動者들은 人民政權의 一員으로 參加 (47年版)

→ 勞動階級은 先鋒적역할 수행 (60年版)

나) 對蘇關係 新중고려

○ 自由와 民主를 사랑하는 모든 나라들 (47年版)

→ 소련을 비롯하여 자유와 민주를 사랑하는 모든 나라들
(60年版)

다) 對南宣傳意識 考慮

○ 政黨들까지 反對 (47年版) → 우익정당에서 까지 반대

(60年版)

(11) 論文 11 : 1947年度 北朝鮮 人民經濟 發展에 關한 報告

(1947. 2. 19)

(北朝鮮 · 道, 市, 郡, 人民委員會 大會에서)

가) 題目 變更

60 年 版	○ 1947年 인민경제 발전 계획에 관하여 (북조 선 도 시 군 인민위원회 대회에서한 보고)
67 年 版	○ 不 收 錄

나) 修正內容 및 評價

1) 主要 修正 內容 對照表

4 7 年 版	6 0 年 版
○ 1946年의 우리의 成果와 1947年度의 우리 課業을 말하면서 소련 人民과 朝 鮮人民과의 親善關係가 공 고히 되었으며 소련人民들 의 수령인 위대한 스탈린 과 偉大한 소련이 우리에게 게 거대한 방조를 주었으	○ 完全削除

47年 版	60年 版
<p>며 또 주고 있는 훌륭한 事實에 대하여 말하지 않 을 수 없습니다.</p>	
<p>○ 政治 經濟 및 文化에 있 어서 우리가 戰取한 成果 와 勝利는 소련에서 우리 에게 주는 방조가 진정하 였기 때문</p>	<p>○ 完全削除</p>
<p>○ 1946年度에 소련 軍隊와 소련 技術者들은 企業所들 을 復興시킴에 있어서 또 는 人民들의 要求를 滿足 시키기 위한 再建事業에 거대한 事業을 進行</p>	<p>○ 完全削除</p>
<p>○ 쏘베트 聯邦으로부터 휘발 유 5,000톤과 其他 機械 油 600톤을 迅速히 적시 에 運搬하여 灌溉를 원만 히 展開</p>	<p>○ 完全削除</p>
<p>○ 소련 獸醫 58名이 열성 적으로 服務</p>	<p>○ 完全削除</p>

47 年 版	60 年 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련으로 부터 초빙한 技術者 36名은 教育文化 부문에 幫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完全削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련人 農業經理 技術者 2名이 계속적 服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完全削除

2) 評 価

가) 1949年~1947年度에 政治 經濟 社会 文化等 諸般分野에 있어서 北傀가 이룩한 業績에 대해 60年版 以後부터는 北傀当局이 独自の으로 成就한 것으로 造作

- 1946年度 當時의 具體的인 소련의 援助事實을 削除 (60年版)

나) 1959年 소련의 援助가 中斷되자 北傀는 自力更生路線을 標榜하였는바 이 路線의 正當性을 歷史的事實 造作에서 合理化

- 1961年 7個年計劃의 原則은 自力更生 路線

(12) 論文 12 : 北朝鮮 道, 市, 郡, 人民委員會 大會를 結束하면서
 (1947. 2. 20)
 (北朝鮮 道 市 郡 人民委員會大會 席上에서)

가) 題目變更

60 年 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조선 도, 시, 군 인민위원회 大會를 結束하 면서 (북조선 도, 시, 군 인민위원회 大會에서 한 결론)
67 年 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上 同

나) 修正內容

1) 主要修正內容對照表

47 年 版	60 年 版	67 年 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들은 과연 <u>北朝鮮 一千三 百萬 人民을 代表한 人民代 表의 資格으로 써 朝鮮人民</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大會는 여 기 참가한 <u>전체 대표들이 민족의 운명을 걸머지고 인민의 선두에 서서 나갈 수</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年版과 同一

47 年 版	60 年 版	67 年 版
<p>들이 要求하는 人民의 政權機關 을 더욱 強化하 며 朝鮮民族에게 지워진 歷史的 使命을 能히 完 成</p>	<p>있는 진정한 인 민의 대표</p>	
<p>○ <u>京城長安</u>에 있는 民族叛逆者 <u>金九</u> 李承晩 金性洙等 反動輩</p>	<p>○ <u>서울</u>에 있는 이 승만, 김성수 등 반동도배</p>	<p>○ 60年版과 同一</p>
<p>○ <u>一千三百萬 北朝 鮮 人民</u>들을 代 表한 여러 代表 들의 한마음 한 뜻과 같이 團結 되었더라면 우리 는 벌써 統一된 政府를 能히 樹 立</p>	<p>○ <u>남북조선 전체 인민</u>이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하 여 싸워나갔더라 면 우리는 벌써 통일된 정부를 수립</p>	<p>○ 60年版과 同一</p>

47年 版	60年 版	67年 版
○ 不 言 及	○ 우리의 법령(土地改革法令)은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인민 의 승인을 받은 항구적인 인민의 법령(첨가)	○ 60年版과 同一
○ 가장 <u>信賴</u> 할 만 <u>한</u> 가장 民主主 義的인 소련 国 家	○ 가장 <u>선진적</u> 이며 민주주의적인 소 련	○ 60年版과 同一
○ 不 言 及	○ 자기의 민족경제 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 은..... 역사적 의의를 가집니다.	○ 60年版과 同一
○ 不 言 及	○ 애국심(첨가)	○ 애국심
○ 最高政權機關인 人民會議	○ 최고 주권기관인 인민회의	○ 60年版과 同一

47年 版	60年 版	67年 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朝鮮人民의 벗이 며 방조차 偉大 한 스탈린 大元 帥 萬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完全削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完全削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正義의 나라 蘇聯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完全削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完全削除

2) 評 価

가) 對南宣傳戰略 考慮

- 北朝鮮 一千三百萬 人民을 代表한 人民代表 (47年版) →
전체대표
- 민족의 운명을 걸머지고 (60年版 添加)
- 金九를 비난대상에서 제외
- 애국심 용어 사용 (60年版 添加)

나) 自主路線 強調

- 民族經濟發展에 歴史的 意義 부여 (60年版 添加)

다) 人民概念強調

- 最高政權機關인 人民會議 (47年版) → 最高 主權機關인
人民會議 (60年版)

라) 스탈린 格下運動影響

- 스탈린 개인 숭배 語句 削除 (60年版)

(13) 論文 13 : 民主主義 朝鮮臨時政府 樹立에 關하여 各 政黨들과 社會團體들은 무엇을 要求할 것인가

(1947. 6. 14)

(北朝鮮 民戰傘下 各政黨 社會團體 熱誠者 大會에 서 하신 報告

(가) 題目變更

60年 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주의 조선임시정부수립과 관련하여 각 정당 사회단체들은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북조선 민전산하 각정당, 사회단체 열성자 대회에서한 보고)
67年 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不 收 錄

(나) 修正內容 및 評價

1) 主要修正內容對照表

47年 版	60年 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總起立 끄칠줄 모르는 우리 같은 박수속의 登壇)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完全削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日本帝國主義者들의 滅亡과 蘇聯軍隊의 北朝鮮 進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제 식민지 통치기관으로 부터의 조선의 해방

47 年 版	60 年 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45 年에 이르러 北朝鮮에 만 全体農戶의 <u>6.8%</u>에 지나지 못한 地主가 總耕作面積의 <u>54%</u>를 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45 年에 북조선에서 전 농호의 <u>4%</u>에 지나지 못하는 지주가 총경지 면적의 <u>58.2%</u>를 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民主主義 朝鮮臨時政府는 반드시 <u>民權</u>에 대한 宣言書를 發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주의 조선임시정부는 반드시 <u>인민들의 권리를</u> 보장하기 위한 정강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스크바 三相會議決定을 <u>基</u>礎로 한 政治綱領에 <u>立脚</u>하고 있는 広範한 諸 民主主義 政党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스크바 3상회의 <u>결정을</u> 지지하는 광범한 민주주의 정당

2) 評 価

가) 自主性姿勢 強調

- 모스크바협정 결정을 기초로한 (47年版) → 모스크바협정 결정을 지지하는 (60年版)

나) 理念的 側面을 考慮하여 自由主義的 觀念을 내포한 用語 修正

- 民權 (47年版) → 人民의 권리 (60年版)

(14) 論文 14 : 民主主義 臨時政府樹立을 앞두고 朝鮮青年에게
 告함 (1947.6.23)

(世界民主青年 祝典參加代表 歡送體育大會에서)

(가) 題目變更

60 年 版	○ 미래의 조선은 청년들의 것이다. (세계 청년축전에 참가할 대표 환송체육대 회에서 한 연설)
67 年 版	○ 不収録

(나) 修正內容 및 評語

1) 主要修正內容對照表

47 年 版	60 年 版
○ 北朝鮮 青年들에게 解放된 <u>朝鮮民族의</u> 이름으로 祝賀	○ 전체 조선 청년들에게 열렬한 축하
○ 모스크바 三相會議 決定에 依拠하여 朝鮮人民의 民主 主義 臨時政府를 <u>樹立하는</u> <u>마당에</u> 들어섰습니다.	○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에 의거하여 조선인민의 민주주 의 임시정부를 <u>수립하는 문</u> <u>제를 토의</u> 하고 있습니다.

47 年 版	60 年 版
○ 朝鮮青年을 그들의 侵略戰爭의 <u>道具</u> 로서 虐殺	○ 조선 청년들을 자기들의 침략전쟁의 <u>대포밥</u> 으로 내몰았으며
○ <u>우리 祖国</u> 은 우리 革命 先烈들의 피줄기를 타고 <u>聯合國</u> 의 <u>勝利的 血戰</u> 가운데서 解放	○ 애국선열들의 피줄을 이어 원수들과 간고한 투쟁을 계속하여 온 <u>우리 인민</u> 은 위대한 <u>조선군대</u> 에 의하여 해방
○ 우리 青年들에게 이모든 <u>自由와 權利와 幸福</u> 을 최대한으로 保障	○ 청년들에게 <u>자유와 행복</u> 을 보장

2) 評 価

가) 对南宣傳 戰略的側面 考慮

○ 北朝鮮青年 (47 年版) → 전체 조선 청년 (60 年版)

나) 8.15 解放에 對한 聯合國의 共同役割을 低下

○ 聯合國의 勝利的 血戰 가운데서 解放 (47 年版) → 조선군대에 의하여 解放 (60 年版)

다) 홍보 선전적 측면 考慮로 用語使用에 커다란 神經을 쓰고 있음.

○ 侵略戰爭의 道具 (47 年版) → 侵略戰爭의 大포밥 (60 年版)

다. 結 論

(1) 外形面

47 年 版	60 年 및 67 年 版
(가) 文章이 粗雜	(가) 文章이 洗練
(나) 国·漢文 混用	(나) 国文專用
(다) 1帙 1卷	(다) 60年版 : 1帙 5卷 67年版 : 1帙 4卷

(2) 内容面

(가) 47年版選集의 内容과 60年版 및 67年版選集의 内容은 本質的인 相異性 存在

○ 60年版과 67年版 内容은 거의 同一

(나) 内容修正에 있어서 考慮한 基準을 類推해 보면

1) 主体性強調 및 北韓住民을 相對로한 對內的 考慮

例 示

47 年 版	60 年 및 47 年 版
○ 스탈린을 極端的 으로 찬양하고	○ 스탈린 格下運動 (56年)後 金日成
○ 土地改革, 人民經濟 發展等に 있어서	權威体制을 確立하 기 위해

47 年 版	60 年 및 67 年版
<p>蘇聯軍의 支援을 찬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土地改革, 人民經濟發展에 있어서 勞動黨의 自主的 決定과 決定的 役割 強調 ○ 同時에 蘇聯軍의 支援內容 宣傳을 削除 및 蘇聯軍의 役割 低下

2) 金日成 偶像化를 위한 考慮

例 示

47 年 版	60 年 및 67 年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金日成 抗日武裝鬪爭運動 不言及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30 年代初 金日成 抗日武裝鬪爭運動 捏造 添加 및 解放에 대한 主動的 役割 強調

47 年 版	60 年 및 67 年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傀政權樹立에 있어서 蘇聯軍의 支援을 노골적 宣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傀 人民政權의 樹立을 金日成 領導下의 党的 自主的 力量에 依한 것으로 表現 宣傳

對南宣傳을 위한 考慮

例 示

47 年 版	60 年 및 67 年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난대상의 첫째 人物로 金九를 指目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北協商(48年)을 念頭에 두어 金九를 비난대상에서 削除 ○ 解放에 있어서 革命的 党役割과 革命的 階級意識 強調

4) 理念的 基準

例 示

47 年 版	60 年 및 67 年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民主主義的 自由獨立 國家 ○ 民權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民主主義的 自主 獨立國家 ○ 人民의 權利

5) 對蘇關係

例 示

47 年 版	60 年 및 67 年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盲目的인 蘇聯 및 스탈린 찬양 ○ 蘇聯의 對北韓 援助에 對해 노골적 찬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蘇聯 北傀間의 平等的 地位關係 維持 努力 ○ 盲目的 蘇聯 찬양 및 스탈린 개인 崇拜 表現 削除. ○ 蘇聯의 對北傀 援助事實에 對한 宣傳 削除

5. 發展策 및 建議

가. 金日成選集 修正過程 分析結果를 活用하여 對北 政治心理戰 戰略樹立

- 北傀의 歷史的 事實 造作과 國史의 歪曲現象을 指摘 暴露
- 金日成 主体思想의 虛構性 暴露
- 北傀의 正統性 主張과 唯一代表權 主張의 不當性을 指摘 暴露

나. 選集의 分析結果를 科學的인 統一戰略 樹立의 資料로 活用

金日成選集修正過程分析

研究執筆責任：趙 在 瓊

略 歷：延世大 政外科 卒

第3回 高試 行政科 合格

延世大學校 大學院 卒

延世大, 國際大, 梨花女大 講師

美國 캘리포니아 주립 버클리大
學 卒 (政治學 博士)

現在 建國大學校 教授

目 次

I. 序 論	171
1. 研究目的	171
2. 研究範圍	172
3. 研究資料	173
4. 研究方法	174
II. 『目前朝鮮政治形勢와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의 組織問題에.....』	176
關한 報告의 修正内容分析	
1. 修正内容	176
2. 主要部分의 对照	183
3. 評 価	183
III. 『朝鮮臨時政府樹立을 앞두고 二十個條政綱發表의	
修正内容分析	185
1. 修正内容	185
2. 主要部分의 对照	191
3. 評 価	192
IV. 『土地改革總結報告에 대한 結論要旨의 修正内容分析	194
1. 修正内容	194
2. 主要部分의 对照	197
3. 評 価	200

V. " 労働法令草案을 発表하면서 " 의 修正内容分析	204
1. 修正内容	204
2. 主要部分의 对照	207
3. 評 価	212
VI. " 重要産業, 交通, 通信, 運輸, 銀行 等の 国有化 法令 發布 에 際하여 朝鮮人民에게 告함 " 의 修正内容分析	215
1. 修正内容	215
2. 主要部分의 对照	221
3. 評 価	227
VII. " 北朝鮮 道 市 郡人民委員會大会를 結束하면서 " 의 修正内容分析	229
1. 修正内容	229
2. 主要部分의 对照	232
3. 評 価	236
VIII. 結 論	240

1. 序 論

1. 研究目的

1960年代 後半에 들어와서 北傀의 金日成 一党은 個人崇拜 (personality cult) 運動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이 運動은 그 幅에 있어서나 그 깊이에 있어서 蘇聯의 스탈린 또는 中共의 毛沢東의 個人崇拜보다도 넓고 깊은 感을 주고 있다. ▶

위로는 党的 高位 幹部로 부터 밑으로는 幼稚園의 兒童들에 이르기까지 金日成의 이름을 넣지 않으면 公式 席上에서의 演說은 말할 것 없고 日常生活에서의 對話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른바 思想 教育은 날로 強化되어 가고 있거니와 이 思想教育에서 核心을 形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곧 金日成의 말이라고 할 수 있다. 金日成의 말을 잘 의위서 引用하는 것이 北韓社会에서의 知識人の 義務와 같이 되고 말았다.

즉 北韓社会에서는 마르크스나 레닌 또는 毛沢東의 말을 引用하는 것보다도 金日成의 말을 最上의 敬語로서 引用하는 것이 個人의 安全을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것이다. 왜냐하면 金日成의 말을 引用하는 것은 그에 대한 忠誠의 表示로 되기 때문이다. 그 引用의 가장 무게 있는 源泉은 무엇인가? 그것은 곧 金日成 選集이다. 따라서 本論文에서는 이러한 위치를 占하고 있는 金日成 選集이 版이 바뀌는데 따라 어떻게 修正되었는가를 客觀적으로 分析

하려는 것이다. 本 論文의 具體的인 目的을 간결하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選集에 収録된 論文 또는 報告文이 版에 따라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구체적으로 밝힌다.

둘째, 修正, 歪曲, 消除, 添加된 部分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를 分析한다.

셋째, 修正部分이 版에 따라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对照함으로써 必要에 따라서는 歷史的 事實까지도 멋대로 修正하는 共產主義者들의 曲筆을 浮刻시킨다.

2. 研究範圍

本研究의 範圍는 金日成 選集에 掲載된 論文 또는 報告文中 初版(1947年), 第2版(1960年) 그리고 第3版(1967年)에 계속하여 掲載된 것들에 局限하기도 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理由가 있다.

첫째, 初版에서 뿐만 아니라, 第2版, 第3版에서 까지도 계속해서 掲載된 論文은 그 자체가 편집자의 立場에서 볼 때 그만큼 중요시 된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둘째, 그보다도 더 중요한 理由는 金日成 選集의 修正 過程을 구체적으로 또한 客觀的으로 밝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根拠가 되는 初版에서의 論文이 계속해서 어떻게 수정되었는가를 추적하는 것이 가장 效果的이기 때문이다.

3. 研究資料

研究의 具體的인 자료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初版, 第2版 및 第3版에 한결같이 수록된 論文들만을 골라서 사용하기로 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初版에 수록된 論文은 도합 23편이었는데 그 23편중 第2版에 까지 수록된 것은 11편이었고, 1967년에 刊行된 第3版에 까지 계속해서 수록된 것은 23편중 6편에 불과하다. 따라서 本研究에서는 이 6편의 論文이 初版과 第2版 및 第3版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수정되었는가를 추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6편의 論文을 우선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目前朝鮮政治形勢와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의 組織問題에 관한 報告
- 2) 朝鮮臨時政府 樹立을 앞두고 二十個條 政綱 發表
- 3) 土地改革總結報告에 關한 結論 要旨
- 4) 勞動法令 草案을 發表하면서
- 5) 重要産業 交通 通信 運輸 銀行 等の 國有化 法令 發布에 際하여 朝鮮人民에게 告함.
- 6) 朝鮮 道·市 郡人民委員會大會를 結束하면서

本研究에 使用한 初版, 第2版 및 第3版의 刊行年度 및 發行者는 다음과 같다.

初版 : 重要報告集 :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樹立의 길, 1947年, 北朝鮮人民委員會宣傳部

第2版 : 김일성선집, 1960年, 朝鮮勞動黨 中央委員會 직속 당력사
연구소

(本論文에서는 1963년에 刊行된 것을 利用하였다)

第3版 : 김일성저작선집, 1967年, 朝鮮勞動黨 중앙위원회 직속 당력
사 연구소

4. 研究方法

研究方法으로서는 우선 客觀적으로 주목할만한 몇 가지의 象徴 (symbol)에 관심을 둔다. 그 象徴중의 하나는 金日成의 個人崇拜 또는 偶像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며 다른 하나는 政治的 價值로서의 自由에 대한 언급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는 것을 內容分析方法 (content analysis)에 集하여 검토한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朝鮮軍에 대한 金日成의 언급이 어떻게 변천했느냐도 아울러 검토한다. 이것을 굳이 方法論的인 用語로서 表現한다면 象徴分析方法 (symbol analysis)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무릇 政治적인 理念이나 體制나 또는 기타의 人間의 정신에 관계되는 思考의 表現은 一般的으로 象徴으로서 集約되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가령 기독교에서는 十字架가 그 최고의 象徴이며 美國的 自由는 自由의 女神像에 의하여 象徴되는 것이며, 金日成의 이른바 唯一思想은 그나름대로의 象徴을 가지는 것이라고 前提할 수 있다. 따라서 本論文에서는 金日成이 어떠한 象徴을 重視하고 있

으며 그것을 이 選集에 어떻게 反映하고 있는나를 客觀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이다.

카령 金日成을 부를 때에 그냥 동지라고 부르는 경우와 그 이름 앞에 지도자 또는 " 위대한 首領 " 등 형용사가 붙는 것은 면밀한 分析家에서는 결코 소홀히 생각될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金日成이 蘇聯軍에 대하여 初版의 論文에서 붙였던 형용사와 第2版, 第3版에서 붙였던 형용사 등은 그의 소련에 대한 태도를 잘 나타내 주는 象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을 견지하면서 本論文에서는 修正 過程의 구체적인 추적을 하기 위하여 3가지의 기틀을 채택하였다.

첫째, 修正된 內容, 둘째 主要 部分의 对照, 셋째 評語 이 세가지 기틀에 입각하여 初版에서의 論文이 第1版 및 第3版에 再収録 될 때에 어떠한 修正을 당하였는지를 밝힌다는 것이다. 修正된 內容이라고 한 마디로 표현하였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字句의 修正이나 또는 題目의 修正이나 또는 當該 論文의 문맥상의 修正 등이 이 속에 다 포함된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 싶다. 修正이 내포하는 의미에 대한 分析에 있어서도 그 수정이 어떠한 動機에 의한 것인가 또는 그것이 政治的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를 음미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修正이 對內的으로 가지는 의미와 對外的으로 가지는 의미도 분석할 것이다. 對外的인 側面에서 보는 의미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國際的인 側面과 對南戰略的인 側面 등을 음미할 것이다.

II. 「目前朝鮮政治形勢와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의 組織 문제에 관한 報告」의 修正內容分析

1. 修正因容

이 報告文은 그 題目에 있어서 修正된 흔적을 곧 발견할 수 있다. 初版에서는 「目前朝鮮政治形勢와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의 組織問題에 관한 報告」로 되어 있지만 第2版에 있어서는 「組織問題」를 「組織」이라 修正하였다. 그리고 第2版에서는 모든 글자가 한글로 統一되어 있는데 反하여 初版에서는 國漢文이 混用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다른 것에서도 同一하게 國漢文用體가 한글만으로 수정되었다.)

특히 本報告에 대한 설명 부분에서 初版에서는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結成大會에서 行한 연설」로 표시하고 있지만 第2版에서는 「北朝鮮民主主義政黨, 社會團體, 行政局, 人民委員會代表 擴大 협의회에서 한 報告」로 적혀있다. 이것은 第3版의 경우에는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 文章上的 修正은 거의 全面的으로 행해졌다. 第2版에서 실고 있는 文章이 훨씬 세련되어 있다. 문장상의 수정이 얼마나 심한가를 實例를 들어 설명한다면 소련 軍隊에 관한 다음과 같은 句節을 들 수 있다. 「蘇聯 軍隊가 北朝鮮으로 들어와 半世紀 동안이란 긴 세월을 日本 壓迫 밑에서 신음하던 朝鮮人民을 解放한지 벌써 5개월이나 經過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初版인데 이 부분은 第2版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우리 인민이 蘇聯 군대에 의해 해방된지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5개월이란 짧은 기간이지만 이 기간에 北朝鮮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北朝鮮은 진정한 민주주의 발전의 길에 확고히 들어 섰습니다. 또한 初版에서는 "蘇聯 軍隊의 偉力으로 解放된 北朝鮮은 결정적으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길에 나섰습니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第2 및 第3版에서는 完全히 削除되었다.

그리고 日本帝國主義 政策에 관한 설명에서는 다음과 같이 修正하였다. 初版에서는 "農村에 대한 日本의 侵略 政策은 자기의 努力으로 全國民들을 먹여 살리는 半數 이상의 農民들에게 土地가 없게 하였습니다. 朝鮮農民들의 8割은 半小作人 고용농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第2版에서는 이 부분이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다. "農村에 대한 일제의 약탈 政策으로 인하여 農民의 대다수는 토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朝鮮 농민의 80%는 소작농, 반소작농 및 고용농이었습니다. 일제 侵略者들은 봉건적 소작제도를 그대로 보존함으로써 農業 生産力의 發展을 극도로 抑制하였으며 수 백만의 農民들을 貧窮과 기아 속에서 허덕이게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第3版에 있어서도 第2版에서의 修正대로 실려있다. 이 修正 속에서 지적할만한 점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점이다.

하나는 朝鮮 農民의 "8割"을 "80%"로 고쳤다고 하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農民들의 種類를 初版에서는 "半小作人, 고용농

민」으로 구분하였음에 反하여 第2 및 第3版에서는 農民의 種類를 小作物 半小作農 및 雇傭農」으로 세분하였다는 점이다. 初版, 第2版 그리고 第3版에서 修正없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部分은 全体 工業資本 중에서 「朝鮮人 資本이 차지하는 비중은 5%에 불과하였으며 商業資本에서는 85%가 日本人에게 속하여 있었습니다」라는 部分이다. 특히 우리의 주목을 끄는 部分은 1919년에 있었던 3.1運動에 관련된 記錄이다.

그것을 實例를 들어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1919年の 「유명한」 3·1運動이라고 表現된 部分이 第2版에서는 「유명한」이라는 形容사들 削除하였고 또한 6.10시위운동이라는 것을 「6.10만세 運動」이라고 고쳤으며, 「1929年 3個月間 繼續된 원산 勞動者의 同盟罷業」을 第2版에서는 「1929年の 元山 勞動者들의 總罷業으로」 고쳤으며 이 部分들은 第3版에 있어서도 第2版과 같이 실려있다.

그런데 우리의 興味를 끄는 것은 初版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抗日빨치산에 関한 部分이다. 즉 第2版에서는 1930년부터 1932년까지 繼續된 各지 農民 폭동 그리고 「1930年代 初부터 国内 国外에서 치열히 展開된 抗日武装鬪爭은 우리 人民이 日帝를 反對하여 불굴의 鬪爭을 展開하였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줍니다」라는 部分이 添加되었다. 이 添加된 部分은 第3版에서도 그대로 실려있다.

解放과 관련하여 蘇聯 軍隊의 역할과 그들에 對한 韓國人의 態

도를 기술한 部分에서는 다음과 같은 修正이 가해졌다. 즉 初版에서는 "소베트 國家의 英雄的 蘇聯 軍隊가 北朝鮮을 解放한 後 形便은 根本的으로 變하였습니다. 蘇聯 軍隊가 朝鮮으로 들어 온 後 우리 同胞들은 지리한 惡夢으로 부터 깨끗이 새 生活의 부활을 이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北朝鮮에는 軍중적 政黨들과 社會團體들이 自由스럽게 發生하여 自己들의 事業을 展開합니다. 이렇게 現下의 北朝鮮에서는 共産黨, 中國으로 부터 들어온 朝鮮獨立同盟이 自己의 事業을 시작하였으며 勞動組合, 女性同盟, 民主青年同盟, 農民同盟, 朝蘇文化協會 및 기타의 軍중적 民主主義 團體들이 組織되었습니다" 라고 表現되어 있는데 이 部分은 第2版에서 다음과 같이 修正되었다. 즉 英雄的 蘇聯 軍隊가 日本帝國主義를 擊滅하고 朝鮮을 解放한 後 우리나라 형편은 根本的으로 달라졌습니다. 自由와 解放을 얻은 朝鮮人民은 光明한 未來를 바라보게 되었으며 民主主義的 獨立國家 建設의 길에 힘차게 들어섰습니다. 오늘 北朝鮮에서는 대중적 政黨들과 社會團體들이 組織되어 自由롭게 活動하고 있습니다. 共産黨과 民主黨과 朝鮮獨立同盟이 事業을 시작하였으며 勞動組合, 女性同盟, 民主青年同盟, 農民同盟, 朝蘇文化協會 등 각종 대중적 民主主義 團體들이 組織되었습니다. 이 部分은 第3版에서도 第2版에서와 같이 그대로 되어 있다.

다만 興味있는 것은 初版에서는 없었던 "自由" 라는 말이 특별히 添加되었다는 事實이다. 이것은 第3版에서도 插入되어 있다.

이러한 政治的 理念을 象徵하는 용어를 插入하였다는 것은 注目

할만한 점이다. 그리고北韓에 있었던 당시의 勞動組合, 農民同盟 등의 가입자 數에 대한 部分은 第2 및 第3版에서 수정되었음을 볼 수 있다. 즉 初版에서는 "現在 다만 勞動組合과 農民同盟만 하더라도 자기의 同盟에 250 萬名을 규합하였습니다"로 기술되어 있는데 第2版에서는 이 部分을 "勞動組合과 農民同盟에만도 200 여만명의 盟員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로 表現되어 있으며 이 部分은 第3版에서도 "200 여만"으로 修正되어 있다.

문장상의 修正部分에서 끝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初版에서는 前後 9 번에 걸쳐서 "蘇聯軍" 또는 "소베트國家" 등의 用語를 使用했는데 蘇聯에 언급한 部分은 第2版에서는 5 번, 第3版에서는 겨우 4 번에 지나지 않는다.

2. 主要部分의 对照

內容上으로 보아 그 修正이 가지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되는 部分을 잠간 說明한 다음에 修正된 主要 部分의 对照를 하기로 한다.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소베트군사령부에 對한 金日成의 表現이다. 이것은 政治的으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實例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初版에서는 "소베트 軍司令部는 北朝鮮에 있는 모든 民主主義 政黨들과 社會團體들의 事業에 同情하여 주며 우리에게 多方面으로 방조하여 주며 協力하여 줍니다"라 表現하고 있는데 反하여

第2版에서는 “蘇聯 軍隊가 北朝鮮에 進주하자 北朝鮮人民들은 자주적이며 民主主義的 地方政權機關인 人民委員會를 組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人民委員會는 우선 社會秩序를 維持하며 人民들의 生活를 安定시키기 위한 事業부터 시작하였습니다.”로 表現되어 있다.

이 部分은 第3版에서도 그대로 修正 없이 記載되어 있다.

中央行政機關을 組織하기 爲하여 北韓에서 活動한 狀況과 그것에 관련된 蘇聯 軍司令官 과의 關係를 기술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많은 修正이 가해진 것을 엿 볼 수 있다. 初版에서는 “中央行政機關 즉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 組織에 대한 意見을 누구보다도 먼저 民主主義的 諸政党和 社會團體들의 指導者들이 提出하였습니다. 이 目的으로 政党和 社會團體들의 指導者들이 發起部를 組織하였습니다. 이 發起部の 意見을 蘇聯 軍司令官에게 陳情한 結果에 反意가 없을 뿐 아니라 歡迎하였습니다.”라 기술되어 있는 部分이 第2版 에 가서는 다음과 같이 修正되었다. 즉 “中央主權機關을 組織할 目的으로 北朝鮮의 民主主義的 政党和 社會團體 지도자들은 발기위원 회를 組織하였습니다. 蘇聯 軍 司令官도 발기위원회의 意見을 지지 하였습니다.”로 修正되었는데 이 部分은 第3版에 가서 다시 다음 과 같이 변모하였다. 즉 “中央主權機關을 組織할 目的으로 北朝鮮의 民主主義的 政党和 社會團體들은 발기위원회를 組織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中央主權機關을 組織할 目的으로 北朝鮮의 民主主義的 政党和 社會團體 지도자들이 發기위원회를 組織하여 蘇聯 軍 司令官에게 交渉한 것과 그것에 對한, 蘇聯 軍 司令官의 태

도에 대한 기술은 初版, 第2版 및 第3版에서 크게 달라졌다는 것을 간파할 수 있다. 즉 第3版에서는 蘇聯軍司令官에 대한 部分은 完全히 削除된 것이다. 또 한가지 지적해 두지 않으면 안 될 部分은 이른바 팔치산 運動에 관련되는 部分이다. 初版에서는 全然 言及하지 않았던 "1930年代 초부터 国内 国外에서 熱烈히 展開된 抗日武装闘争"을 第2版과 第3版에서 添加한 것은 金日成의 抗日闘争을 浮刻시키기 위한 布石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은 또한 金日成 偶像化를 爲한 첫 布石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說明한 것중 主要한 修正 部分을 对照해 보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즉

对 照 表

初 版	第 2 版	第 3 版
"中国으로 부터 들어 온" 朝鮮獨立同盟	조선독립동맹	조선독립동맹
"유명한" 3.1運動	3.1 운동	3.1 운동
8 割	80%	80%
반소작기 용농	소작농, 반소작농	소작농, 반소작농
	고용농	고용농
蘇聯에 관한 언급 9回	5 회	4 회
蘇聯軍의 同情	소련군의 지지	완전 삭제

初 版	第 2 版	第 3 版
蘇 聯 軍 250 万名 言及 없음	영웅적 소련군 200여만명 1930년대 초 항일 무장투쟁	영웅적 소련군 200여만명 1930년대 초 항일 무장투쟁

3. 評 価

이 報告文중 가장 크게 주목을 끄는 것은 信託統治에 對한 모스크바 三國外相會議 (1945年)의 決定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第2版 및 第3版에서도 修正되지 않고 그대로 실려있는데 이것은 金日成이 信託統治를 贊成하였다는 사실을 說明하는 具體적이고도 客觀적인 資料라 할 수 있겠다. 그 다음으로 지적할 것은 蘇聯軍司令部에 對한 기술이다. 특히 "소베트軍司令部는 北朝鮮에 있는 모든 民主主義 政黨들과 社會團體들의 事業에 同情하여 주며 우리에게 다방면으로 補助하여 주며 協力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初版에서의 기술이 第2版 및 第3版에서는 크게 修正되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이것은 蘇聯 政府에 對한 金日成의 態度가 第2版을 刊行할 때부터는 달라지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暗示해 주는 것이다. 이것은 1960년에 나타난 修正이지만 이러한 修正이 가해지도록 되는 데에는 民族的인 자부심이 作用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며 同時에 蘇聯에 對한 金日成의 態度가 초기에

있었던 低姿勢로 부터 점차로 變更되었다는 것을 暗示해 주는 것
이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初版에서 使用한 「同情」이라
든지 「幫助」 등의 表現은 약 15年の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削
除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되었던 것 같다.

이와 관련하여 지적할만한 또 하나의 部分은 中央行政機關을 設
置하기 爲하여 蘇聯軍司令官과 交渉했던 과정에 관한 기술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蘇聯軍司令官에게 진정한 結果에 反意
가 없을 뿐 아니라 歡迎하였습니다」라는 表現은 第2版에서 修正
을 당했고 第3版에서는 完全히 削除되었다. 여기에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陳情」이란 用語라든지 또는 그 陳情에 대하여 蘇聯
軍司令官의 態度에 「反意가 없었다」고 하는 따위의 表現은 1967
年 第3版 以後 完全히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反하여 「1930年代 初부터 国内 国外에서 抗日武装闘争」이 치열
하게 展開되었다는 것을 添加한 것은 注目할만한 修正이며 앞으로
새로운 金日成 選集이 나온다면 이 部分은 金日成의 指揮下에 그
러한 闘争이 있었던 것으로 再添加할 可能性조차 엿보이게 하는
터이다.

Ⅲ. 「朝鮮臨時政府樹立을 앞두고 二十個條政綱發表」 의 修正內容分析

1. 修正內容

이것은 初版에서 1946年 3月(날자 表示없이) 平壤 放送에서 行한 演說문이라 하였는데 第2版에서는 그 題目을 「20個條政綱」이라 고쳤고 그것에 對한 說明에서는 「放送 演說 1946年 3月 23日」이라 하여 날자를 밝히고 있다. 이 部分은 第3版에서도 同一하다. 內容에 들어가서 보면 初版에서는 「解放된 朝鮮의 敬愛하는 兄弟姉妹와 親友들이여!」로 시작되어 있는데 第2版에서는 이 部分을 「親愛하는 同胞兄弟姉妹들!」로 고쳤다. 즉 「敬愛」하는 형제자매라는 部分을 단순히 「親愛」하는 동포형제자매들이라고 修正한 것이다. 그리고 本文에 들어가서 初版에서는 「京城市에서 모스크바 三國外相會議에서 決定된 바에 의하여 結成된 蘇米共同委員會가 開幕하게 되었습니다」로 되어 있지만 第2版에서는 「京城市」를 「서울」로 고쳤고 이 修正은 第3版에서도 同一하게 답습되어 있다.

그리고 初版에서는 「朝鮮人民의 圧倒的 多數는 蘇·米·英 三大強國外相會議의 決定을 贊同하였습니다」로 되어 있는데 比하여 第2版에서는 「모스크바 3國外相會議의 決定에 따라 創設된 蘇·米共同委員會는 이달 20日에 서울에서 자기 事業을 시작하였습니다.」라고 쓰여져 있다. 즉 「蘇·米·英 3大強國」 外相會議라는 말

을 단순히 3國 外相會議로 고쳤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으며 朝鮮人民의 압도적 多數라는 말도 이 문장에서는 예고 다음 部分에서 言及하고 있다. 그러나 그 말도 第2版에서는 「全体 朝鮮人民의 기대 속에서 進行되고 있는 소·米共同委員會는 朝鮮人民의 利益에 부합되게 事業하여야 하며 朝鮮人民이 眞實히 要求하는 統一的 臨時政府를 樹立하는 問題를 解決하여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이 部分은 初版에서는 「이 決定은 朝鮮의 自主獨立國家를 建設하기 爲한 土台를 닦아 놓았습니다」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第2版에서는 그 文脈이 「朝鮮人民의 利益에 부합되게 事業하여야 하며 라는 식으로 特別히 강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일종의 要求하는 者의 立場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表現되어 있다.

또한 初版에서는 「京城市에서 事業을 시작한 蘇·米共同委員會는 朝鮮에 民主主義的 臨時政府를 結成할 問題를 解決할 것입니다」로 되어 있지만 第2, 第3版에서는 이 部分이 完全히 削除되었다.

그리고 初版에서는 「朝鮮臨時政府는 全体人民의 利益과 希望을 實現할 能力을 가진 眞實한 民主主義的 政府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以上の 말한 바와 같은 眞實한 民主主義的 政府는 아래와 같은 政綱 위에서만 結成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로 되어 있는데 反하여 第2版에서는 이 部分을 「臨時政府는 全体朝鮮人民의 念願을 實現할 수 있는 眞정한 民主主義的 政府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세워야 할 民主主義的 政府가 반드시 아래와 같은 政綱을 實現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로 修

正되었고 이것은 第3版에서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初版에서 사용했던 「希望」을 「念願」으로 고쳤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實現할 能力을 가진 「眞實한 民主主義的 政府」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는 部分도 實現할 수 있는 「眞정한 民主主義的 政府」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로, 修正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初版에서는 없었던 部分으로 第2版에서는 「우리는 우리가 세워야 할 民主主義的 政府가 반드시 아래와 같은 政綱을 實現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라는 말을 添加하고 있다. 즉 文脈上으로 볼 때에 初版에서의 연설은 하나의 希望者的인 立場에서 表現하는 자세로 되어 있지만 第2版과 第3版에서는 특별히 要求하는 者の 立場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20 個條의 內容에서는 그다지 큰 文章상의 修正은 없다. 다만 第5項의 경우를 보면 初版에서는 「全體公民들에게 性別 信仰 資産의 多少를 不拘하고 政治 經濟 生活 諸條件에서의 同等한 權利를 保障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部分은 第2版에서 다음과 같이 修正되어 있다. 「全體公民들에게 性別, 信仰 및 財産의 有無를 불문하고 政治, 經濟, 生活에서 동등한 權利를 보장할 것.」으로 되어 있다. 이 部分도 第3版에서 同一하다. 한가지 지적할 것은 初版에서 使用한 「資産의 多少를 不拘하고.」라는 말이 第2版에서는 「財産의 有無를 불문하고.」라 修正되어 있다는 것이며, 「政治 經濟生活 諸條件.」에서의 同等한 權利를 保障할 것이라는

表現을 「政治 經濟生活에서 同等한 權利를 保障」할 것이라고 고쳐 놓았다. 즉 諸條件이라는 말은 削除되어 있다.

그리고 第 13 項에서 내세우고 있는 部分에도 다소의 修正이 加해졌다. 初版에서는 「單一하고도 公正한 租稅制를 規定하여 進歩的 所得稅制를 實施할 것」이라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第 2 版에서는 「단일하고 公正한 稅納制를 제정하며 魯진적 所得稅制를 實施할 것」으로 修正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租稅制라는 말 대신 稅納制라는 말을 使用하였으며 「進歩的 所得稅制」라는 말 대신에 魯진적 所得稅制라는 말을 使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修正은 第 3 版에서도 그대로 답습되어 있다. 다만 第 2 版과 第 3 版에서 볼 수 있는 相異點은 띄어쓰기에 있어서 多少의 相異가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비단 이 論文에서만 아니라 全体 論文에 共通되는 部分이다.

第 16 項에 關하여 살펴보면 初版에서 「全般的 人民義務教育制를 實施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第 2 版에서는 「全般的 人民」이라는 말을 削除하였다. 그 理由는 文章上의 重複을 피하려는데 있는 듯 하다. 그 以外의 部分에서는 修正이 가해지지 않았고 「全般的 人民」이라는 말은 第 3 版에서도 削除되었다.

第 18 項은 初版에서 國家機關과 人民經濟의 「諸部門」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第 2 版과 第 3 版에서는 그대신 「各부분」에서라고 修正하였다.

第 19 項은 初版에서 「科學과 藝術에 從事하는 人士들의 事業을

奨励하며 그들에게 補助를 줄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第2版과 第3版에서는 "補助"라는 말 대신 "방조"라는 말을 使用하였다. 그리고 20個條項을 열거하고 난 다음에 있는 結論部分에 관해서는 다소의 修正을 가하였다. 즉 初版에서는 "以上에 指摘한 諸根本 要求條件을 實行해야만 朝鮮人民이 眞實한 自由 政治的 權利 및 福利向上을 받을 것이며 따라서 우리 國家의 自由獨立이 達成될 것입니다"로 되어 있는데 그 部分을 第2版과 第3版에서는 "이상에 지적한 基本要求가 實現되어야만 朝鮮人民은 眞정한 自由가 政治的 權利를 얻게 되고 福利를 向上시키게 될 것이며 우리나라의 完全 獨立을 達成하게 될 것입니다"라 修正하였다.

즉 여기에서는 "諸根本 要求條件"이라는 말을 "基本要求條件"이라는 말로 修正하였고 기타 文章을 다듬으려고 努力한 흔적을 엿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 國家의 "自由 獨立"이 達成될 것인 다라는 말 대신 우리나라의 "完全 獨立"을 達成하게 될 것이라고 修正하였다. 그다음 部分에서는 初版에서 "以上에 指摘한 人民의 要求를 實行할 수 있는 政府만이 眞實한 民主主義的 政府로 될 것이며 全人民의 支持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索·米共同委員會가 朝鮮人民의 要求를 滿足시키며 그 諸要求가 朝鮮의 民主主義的 臨時政府를 建立하는 土台가 될 것입니다"로 되어 있다.

이에 反하여 第2版과 第3版에서는 "이상에서 指摘한 要求를 實行할 수 있는 政府"라야만 眞정한 民主主義的 政府로 될 것이며

全体人民의 支持를 받을 것입니다. 蘇·米共同委員會는 朝鮮人民의 이 要求를 충족시킬 수 있는 朝鮮民主主義 臨時政府를 建立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할 것입니다.」로 修正하였다.

또한 初版에서는 「나는 全朝鮮人民과 忠實한 愛國者 우리 祖國의 自由 獨立과 民主政體를 위하여 싸우는 鬪士들을 民主主義的 自由獨立國家 建設에 모든 힘을 다 바치라고 呼召하는 바입니다.」로 되어 있는데 第2版에서는 「나는 全体朝鮮人民과 우리 祖國의 自由와 獨立을 위하여 싸우는 투사들이 民主主義的 자주 獨立國家 建設에 모든 힘을 다 바칠 것을 호소합니다.」로 修正하였다. 이 部分도 第3版에서도 마찬가지로 답습되어 있다. 제일 마지막 部分에서는 몇 가지의 구호를 열거하였는데 첫째번의 구호는 「民主主義的 自由 獨立만세!」로 되어 있다. 이것이 第2版과 第3版에서는 「民主主義的 자주 獨立萬歲!」로 修正되어 있다. 둘째번의 구호는 初版에서 「解放된 朝鮮人民 萬歲!」로 되어 있고 그것은 第2, 第3版에 無修正으로 실려있다. 그러나 마지막 셋째번의 구호는 完全히 削除되었다. 즉 「日本 壓迫에서 朝鮮人民을 解放시켜준 偉대한 諸聯合國 萬歲!」라는 구호는 第2, 第3版에서 完全히 削除되었다.

이러한 구호의 削除가 의미하는 것은 「日本の 壓迫에서 朝鮮人民을 解放시켜준 決定的 勢力은 蘇聯만이라고 강조해 온 그들의 입장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主要部分의 对照

우리는 注目を 끄는 修正은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20 個條를 열거하고 난 다음에 使用한 말중에서 우리 國家의 "自由 獨立"이 達成될 것이라고 한 것을 第2 및 第3 版에서는 "自主 獨立"으로 고쳤다는 것을 들 수 있고 "自由 獨立" 대신에 "自主 獨立"이라는 말을 使用한 것은 그 다음 部分에서도 동일하게 답습되고 있다. 즉 初版에서는 "우리 祖國의 自由獨立 및 民主政體를 爲하여 싸우는 闘士들을 民主主義的 自由 獨立國家 建設에 모든 힘을 다 바치라고 呼召하는 바입니다"로 되어 있는 文章도 第2 版 및 第3 版에서는 "自由"라는 말을 自主"라는 말로 바꾸어 놓고 있다.

이것은 自由主義的 獨立國家가 아니라 自主的 獨立國家를 念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며 이데올로기적 고려에 의하여 修正되었다는 것을 指摘할 수 있다.

둘째 제일 마지막의 구호이다. 初版에서는 "日本 壓迫에서 朝鮮人民을 解放시켜준 偉대한 諸聯合國 萬歲!"로 되어 있는 것이 第2 및 第3 版에서는 完全히 削除되었다는 것을 앞서 지적하였거니와 이것은 그들의 宣傳의 一貫性을 유지하기 위한 修正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本論文이 다른 論文과는 달리 比較的 내용상의 修正이 많이 가해지지 않았던 까닭은 당시의 韓國에 있어서의 臨時政府樹立에 관한 要求條件이라고 하는 특수한 事情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說明한 修正部分을 정리하여 对照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이 된다.

对 照 表

初 版	第 2 版	第 3 版
京 城	서 울	서 울
三大強国外相會議	삼국의상회담	삼국의상회담
希 望	념 원	념 원
될 것입니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財産의 多少를	재산의 유무를	재산의 유무를
不拘하고	불문하고	불문하고
租稅制	납세제	납세제
進歩的 所得稅	루진적 소득세	루진적 소득세
全般的 人民義務教育制	의무교육제	의무교육제
補 助	방 조	방 조
自由獨立	자주독립	자주독립
偉大한 聯合國 萬歲	삭 제	삭 제

3. 評 価

앞서 言及한 바와 같이 本論文은 비교적 적은 修正을 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特別히 눈에 띄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初版에서는 「蘇·米·英 三大強国 外相會議」라는 말을 序頭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三大強国이라는 말을 修正하였다.

이 修正이 의미하는 內容은 이른바 強大國家에 대한 表現을 강조하는 듯한 印象을 주지 않으려고 시도한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態度는 앞서 指摘한 바와 같이 聯合國에 대한 칭찬을 하나의 구호로써 提示하였던 것을 削除한 事實과 一脈相通하는 것이다

初版에서는 「偉大한 諸聯合國 萬歲」라고 하였으나 이것을 削除한 것은 동일한 發想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發想의 밑바닥에 흐르는 것은 朝鮮을 日帝로 부터 解放시켜준 米·英·蘇 聯合國의 역할을 될 수 있는대로 부각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이라고 하겠다. 이것은 1960年代 이후 특히 1970年代에 들어와서 金日成 자신이 日帝로 부터 韓國이 解放되는 데에 主動的 役割을 한 것처럼 歷史를 歪曲하여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과 견주어 생각될 必要가 있다. 즉 日帝下에 있어서의 모든 愛國 革命 運動은 金日成의 아버지와 金日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꾸며 놓고 있는데 이러한 態度가 歷史를 歪曲한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지만 이러한 태도 때문에 이 구호가 削除되었으며 그것은 金日成의 偶像化를 위하여도 비록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利用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IV. 「土地改革 總結報告에 대한 結論要旨」의 修正內容 分析

1. 修正內容

이것은 「1946年4月13日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 第一次 擴大大會에서 行한 報告」라고 初版에는 적혀있지만 第2版에서는 「朝鮮 共産黨 北朝鮮組織委員會 第6次 擴大執行委員會에서 行한 報告」라고 되어 있으며 날짜도 1946年4月10日로 修正되어 있다. 그리고 제목도 「土地改革의 總結과 今後 作業」으로 修正되었다. 이것은 第3版에서도 동일하게 修正되어 있다. 제목의 修正이 暗示하는 바와 같이 이 보고문은 內容上에 있어서도 대단히 큰 修正을 가하여 전적으로 새 論文을 쓴 것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만큼 되어 있다. 가령 그 內容에 나오는 것을 항목별로 보면 初版에서는 「一. 土地改革의 歷史的 意義」 「二. 土地改革實施의 經過」 「三. 北朝鮮土地改革 實施上의 優點」 「四. 北朝鮮土地改革 實施上의 弱點」 그리고 「五. 今後的 任務」로 나뉘어져 있다.

이에 대하여 제 2版과 第3版에서는 「1. 土地改革의 歷史的 意義」 「2. 土地改革 實施의 經過와 그 성과」 「3. 土地改革을 實施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結함과 우리가 얻는 經驗」 「4. 우리의 作業」 등으로 修正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第2 및 第3版은 內容에 있어서도 修正이 없다는 것이다.

문장상의 修正은 이루 말할 수 없을만큼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內容에 있어서는 그 흐름이 대체로 상통하지만 문장은 初版의 경우와 第2版의 경우는 完全히 다른 문장으로 되어있다. 가령 序頭에서 보면 初版에서는 연설조로 되는 "同志들!"이라는 말이 전혀 없는데 비하여 第2 및 第3版에서는 "동지들!"이란 말을 使用하는 동시에 土地改革 事業이 党에 의하여 결정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문장이 插入되어 있다.

즉 初版에서는 전혀 없었던 部分이 第2版과 第3版에서는 실려 있다는 것이다. 例컨대 第2版에서는 "党은 우리 社会發展에 성숙된 要求와 国内外的 정세에 근거하여 北朝鮮에서 土地改革을 실시하기로 決定하고 전 党的 역량을 이 事業에 들렸습니다"로 시작되어 있다. 이것은 第3版에서도 마찬가지다. 그 以外에도 第2版에서는 "모든 党 团体들과 黨원들은 党的 決定을 執行하기 위하여 献身的으로 執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예정한 期間内에 偉大한 民主主義的 改革인 土地改革을 순조롭게 승리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党은 土地改革을 위하여 党 政策의 正確性을 검열하였으며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오직 우리 党만이 人民의 利益의 진정한 代表者라는 것을 明白히 알게 하였습니다. 나라의 獨立과 民主主義的 發展을 要求하는 全体 人民은 우리 党的 政策을 열렬히 支持하여 나섰습니다. 党은 広範한 人民大衆의 支持에 의거하면서 人民의 반역자와 반동분자들의 온갖 발악과 장애를 물리치고 이 民主主義的 과업을 용감하게 수행하였습니다"라는 序頭가 插入

되었다.

그 다음에 비로소 土地改革의 歴史的 意義라는 것을 說明하고 있다.

그리고 初版에서는 「蘇聯 軍隊를 爲首로 한 聯合국의 反파시스트적 戰爭의 勝利로 因하여」라는 말이 있었지만 第2版과 第3版에서는 이 部分이 完全히 削除되었다. 그리고 初版에서는 「금번 北朝鮮에 있어 實施된 土地改革은 38度線을 境界로 하고 南北으로 分離된 朝鮮으로 하여금 하루 속히 民主主義的 統一을 實現시킬 것이라고 認定한다」라는 表現을 使用하고 있는데 이 部分도 第2 및 第3版에서 다음과 같이 修正되었다. 즉 「지금 38線 以北과 以南의 農村 形便은 아주 捰捰입니다. 38線 以北에서는 이미 土地問題가 完全히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38線 以南에서는 土地改革은 고사하고 3.7制度 實施하지 않았으며 土地問題 해결에 대한 방향조차 내놓지 못하였습니다」라는 식으로 表現되어 있는데 이것은 同 報告문의 마지막 部分에서 나오고 있다.

그리고 初版에서는 「北朝鮮에 있는 各 民主主義的 政黨 즉 朝鮮共産黨, 朝鮮民主黨 新民主黨 天道教育友黨 及 기타 各 社會團體들이」라는 表現을 使用하여 天道教育友黨도 民主主義的 政黨 속에 열거하고 있었음에 反하여 第2 및 第3版에서는 天道教育友黨을 完全히 削除하였다.

다시 말하면 天道教育友黨은 民主主義的 政黨으로 取扱하지 않는 것으로 第2版과 第3版에서는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土

地 改革의 歴史的 意義라는 것에 대해 세번째로 열거하고 있는 部分에서 使用한 表現도 全般的으로 修正되었다. 여기에서 그 전부를 引用할 수는 없지만 가령 例를 들면 初版에서는 “農民들 로 하여금 農村의 封建制度를 打破하는 것은 農民들 뿐만 아니라 都市에서 가장 進步的으로 나가고 民主主義의 가장 선봉으로 나가는 勞働者들과 同盟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였고 또 同盟하게 한 것이다”로 되어 있었는데 이 部分은 第2版과 第3版에서 다음과 같이 修正되어 있다. 즉 “다른 모든 地方에서도 勞働者들은 土地改革을 實施하기 위한 鬭爭에서 農民들을 적극적으로 도와 주었습니다. 이리하여 土地改革의 實施를 통하여 勞働同盟이 강화되었습니다. 이 同盟은 앞으로 民主主義 獨立 國家 建設을 위한 鬭爭에서 勝利의 결정적 담보로 될 것입니다” 修正되었다. 즉 勞働者들은 가장 進步的이고 民主主義의 가장 선봉적인 存在로 規定한 部分이 削除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初版에서는 蘇聯 軍隊에 대해 言及한 部分이 前後 다섯차례 있었음에 反하여 第2版과 第3版에서는 蘇聯 軍隊에 대한 言及이 모두 削除되었다. 이것은 土地改革만은 黨에 의하여 決定되었고 執行되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풀이된다.

2. 主要部分의 对照

土地改革實施上の 優點에 관련하여 說明한 部分에서도 많은 修正이 가해졌다. 문장 全体的인 修正을 가하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전부를 지적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數字上的 修正이 加해진 部分과 또한 蘇聯 軍隊의 役割에 관한 記述이 修正되어 있는 部分만은 지적해 두는 것이 좋겠다. 初版에서는 「北朝鮮에는 三十五萬의 勞動組合員, 八十萬의 農民組合員, 五十萬의 民主青年同盟員, 三十五萬의 女性同盟員, 其他 無數한 民主主義的 社會團體를 組織하여, 大衆的 힘을 團結하여 民主主義的으로 發展할 條件을 形成하였다」라 表現하였던 것을 第2版에서는 다음과 같이 修正하였다. 즉 「그리하여 우리 黨員들 以外에도 70여만명의 盟員을 가진 北朝鮮農民聯盟, 35萬餘名의 盟員을 가진 勞動組合 그리고 朝鮮民主黨, 朝鮮新民黨, 30여만명의 盟員을 가진 女性同盟, 50여만명의 盟員을 가진 民衆, 그밖에 平壤學院, 文化團體, 藝術聯盟 敎員同盟, 人民극단 등, 道합 300여만명의 組織된 軍중이, 動員되어 農村委員會들을 協助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黨이 時局을 淸正하여 온 統一戰線政策의 勝利인 것입니다」라 修正되어 있다.

즉 숫자상으로 보면 80萬의 農民組合員이라고 하였던 것이 70여만으로 修正되었고 35萬의 女性同盟員이라던 것을 30여만명으로 修正하였으며 50萬의 民主青年同盟員이라고 하였던 것을 50여만으로 고쳤으며 初版에서 열거하지 아니하였던 朝鮮民主黨, 朝鮮新民黨과 平壤學院, 文化團體, 藝術聯盟, 敎員同盟, 新民黨 등을 열거하고 있다.

특히 注目할 것은 그 말에 이어서 나오는 部分이다. 즉 第2版에서는 「이것은 우리 黨이 時局을 淸正하여 온 統一戰線政策의

勝利인 것입니다"라 하였던 部分이다. 이 部分은 初版에서는 "蘇聯軍隊가 北朝鮮에 民主主義的으로 發展할 可能性과 條件을 준 것이라고 認定한다"라 되어 있었던 部分에 해당한다. 앞서 言及한 바와같이 蘇聯軍隊의 役割에 대해서는 第2版과 第3版에서 完全히 削除하는 동시에 統一戰線政策이 勝利한 것으로서 表現하고 있다는 것이다.

以上에서 지적한 것과 함께 이 報告文에서 볼 수 있는 主要한 修正部分을 对照해 보면 다음과 같다.

对 照 表

初 版	第 2 版	第 3 版
당의 결정에 대한 言及 없음	당의 결정 강조	당의 결정 강조
蘇聯軍隊를 爲首로한 聯 合國의 勝利	완전 삭제	완전 삭제
天道教靑友黨	"	"
蘇聯軍에 대한 言及 5回	"	"
80 万명	70 만명	70 만명
35 万명	30 여 만명	30 여 만명
統一的 民主主義 政權	민주주의적 기지	민주주의적 기지
農民銀行	완전 삭제	완전 삭제

3. 評 価

위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이 報告文은 初版에서의 原文을 그대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修正을 가하였다. 修正이 내포하는 의미로서 特別히 강조할만한 것은 다음과 같은 점들이다.

첫째 土地改革의 實施가 朝鮮共産黨의 결정에 의해서 實施된 것처럼 바꾸어 놓았다는 점이다. 初版에서는 黨의 결정에 대한 言及이 없었음에 反하여 第2版과 第3版에서는 土地改革이 전적으로 黨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黨의 지도하에 實行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黨이 蘇聯 占領軍司令部와 關係없이 독자적으로 土地改革을 實行한 것처럼 歪曲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歪曲은 그들이 必要한 때에는 歴史的 事實을 얼마나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서술하는 것인가를 여실히 證明해 주는 것이다.

둘째, 蘇聯 軍隊에 대한 言及은 第2版과 第3版에서는 完全히 削除되어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北韓의 學生들이 对照해서 읽어볼 수만 있다면 金日成의 주장이 그때 그때의 狀況에 따라 얼마든지 修正 또는 歪곡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問題중의 하나는 蘇聯 軍隊에 관한 기술이 完全히 削除된 時期가 언제였던가 하는 점이다. 第2版이 나온 것은 1960年이었다. 1960年이라면 中共과 蘇聯의 關係가 바야흐로 악화되기 시작하는 里程碑中的 하나를 형성한 해이다.

즉 1960年에 蘇聯은 中共에 파견하였던 모든 기술자 약 万名을 철수하기로 決定하였으며 또한 그것을 執行하였던 것이다. 물

론 그 前에 있어서도 韓國戰을 계기로 하여 北韓에 있어서는 蘇聯의 영향력이 中共의 영향에 의해서 밀려나기 시작했다고 볼만한 새로운 정세가 조정되었으며 그러한 정세의 연장선상에서 中·蘇의 대립이 노골화하기 시작하였을 때 金日成으로서는 蘇聯 軍隊에 관한 자기의 表現을 削除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을는지도 모른다.

어떻든 이러한 國際情勢의 변화와 土地改革만은 党的 主体的인 결정에 의하여 執行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政治的 動機와 함께 작용한 결과 이와같은 削除가 있었던 것이라고 해석된다.

특히 初版에서 "蘇聯 軍隊가 北朝鮮에 民主主義的으로 發展할 可能性과 條件을 준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部分은 政治的으로 볼 때 1960年 現在에서는 눈에 거슬리지 않을 수 없었을는지도 모른다.

가령 1960년에 있어서도 蘇聯의 영향이 金日成에 대하여 解放直後에 가졌던 영향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러한 削除는 없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것을 다른 측면에서 보면 金日成이 싹트는 中·蘇의 紛爭 속에서 이른바 자주적 노선을 취하려고 하는 생각이 점차적으로 싹트기 시작한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1960년에 조성된 특수한 國際的 狀況과 國內的 要請이 이러한 修正을 可能하게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셋째 土地改革의 성격에 대하여 金日成은 初版에서 금번의 土地改革은 北朝鮮의 農民만 興奮시키는 것이 아니라 全國의 農民과 人民을 興奮시키는 것이며 全國 人民으로 하여금 北朝鮮의 農民과

같이 일어나서 民主主義를 妨害하는 反動的 地主들을 박멸하고 朝鮮에 하루 속히 統一的 民主主義 政權을 建設하기 위한 것이다" 라 하였음에 反하여 第2版에서는 "土地改革은 北朝鮮農村을 反動的의 근거지로 부터 民主主義의 근거지로 전환시켰습니다. 과거에 지주에게 예속되었던 農民들은 土地의 主人으로, 自由로운 農民으로 되었으며 우리 나라의 선전 階級인 勞動階級과 함께 부강하고 統一된 民主主義 獨立國家 建設의 基本역량으로 되었습니다. 우리 黨은 土地改革을 實施함으로써 北朝鮮을 祖國 統一의 튼튼한 민주 기지로 轉變시키는 歴史的 偉業에 着手하였습니다" 이라 하여 土地改革이 "民主主義的 기지" 를 만드는 事業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土地改革에 대한 의미의 부여가 金日成의 政治的 욕망에 의하여 달라져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네째 初版에서는 土地改革을 순조롭게 進行하게 한 條件을 열거했을때 가령 "蘇聯 軍隊가 進駐하면서 朝鮮人民에게 能히 民主主義的으로 發展하는 可能性과 條件을 주었다" 라고 하여 蘇聯 軍隊의 役割을 특별히 기술하면서 北韓에 있었던 여러 政黨, 가령 朝鮮共産黨, 朝鮮民主黨, 新民黨, 天道敎育友黨을 열거하였던 것인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蘇聯軍의 役割을 削除하고 天道敎育友黨이라는 것은 통일전선 속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第2版과 第3版의 경우이다. 이와같은 修正은 天道敎育友黨에 대한 金日成의 척대심을 여실히 나타내주는 것인데 그것은 土地改革에 있어서 天道敎育友黨이 전혀 協力하지 않는 것으로 表現하고

자 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土地改革이 끝난 다음에 행해야 할 任務에 관한 기술중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金日成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즉 初版에서는 "北朝鮮의 農村經濟는 土地改革의 成功에 의하여 安定의 基礎를 주었으나 金融機關의 不備로 圓滿한 發展을 할 수 없음에 감하여 특히 農資 融通을 위한 銀行 設立이 必要하다. 그래서 農民을 위한 農民銀行을 設立하고자 準備하고 있으니 各級 人民委員會는 積極적으로 協力할 것을 強調한다"라 하였다. 그런데 이 부분은 第2版과 第3版에서 完全히 削除되었다. 削除된 이유를 정확하게 알기는 힘들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즉 農民들을 위한 農民銀行이 設立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강조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하여 第2版과 第3版에서 이 부분을 削除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削除하는 것과 添加하는 것이 마음대로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다른 論文이나 報告에서도 동일한 현상이다.

V. 「勞動法令 草案을 發表하면서」의 修正內容分析

1. 修正內容

우선 제목부터 修正되었다. 즉 初版에서는 「勞動法令 草案을 發表하면서」라고 되어있는 것에 反하여 第2版에서는 「勞動法令 草案에 대하여」라고 修正하였다. 初版에서는 문장의 사각이 「여러 同志들」이라 되어있음에 대하여 第2版과 第3版에서는 「여러」라는 表現을 削除하였다. 그리고 문장에 있어서 많은 修正을 加하였지만 주목할만한 것을 추려서 說明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初版에서는 「속般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에서는 土地改革과 같이 朝鮮 歷史의 空前의 壯舉이며 全世界의 被壓迫民族 歷史中에 例가 없는 民主的 勞動法令 草案을 發表하였다」라 되어 있는데 第2版에서는 다음과 같이 修正되었다.

「이번에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에서는 土地改革과 마찬가지로 朝鮮 人民의 生活에서 거대한 의미를 가지며 동방 被壓迫人民들을 크게 고무하게 될 民主主義的 勞動法令草案을 發表하게 됩니다」로 되어 있고 第3版에서도 이와같은 修正이 그대로 답습되어 있다. 여기에서 주의깊게 읽은 독자들은 이미 간과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句節이 있는데 그것은 문장을 모두 높임말로 고쳤다고 하는 점이다. 그리고 이 修正에 의하여 시사되는 바와같이 문장상의 修正은 거의 모든 部分에 걸쳐서 행해졌으며 따라서 이것도 새로 쓴 報

告文이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이다.

그 修正된 部分 속에는 숫자상의 오류를 고친 部分도 있다.

가령 初版에서 우리나라 勞働者들에 關하여 說明한 部分에서

“朝鮮人 勞働 時間은 日本人 勞働 時間에 比하여 116% 延長 時間이고 16歲 以下の 少年 勞働者에 있어 朝鮮 少年은 日本人 少年 勞働에 比하여 125% 強의 延長이었다. 平均 朝鮮人 勞働者 는 日本人 勞働者에 比하여 113% 勞働 時間이 더 긴 것이다”

라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第2版에서는 다음과 같이 修正하고

있다. “朝鮮人 勞働者들의 平均 勞働時間은 日本人 勞働者들에 比하여 13% 더 길었습니다. 그중 16세 以上 職공들의 勞働時間을 보면 朝鮮人 職공의 勞働時間은 日本人 職공에 比하여 16% 더 길었으며 16세 이하의 少年勞働에서는 朝鮮人 少年 勞働者의 勞働時間이 日本人 少年에 比하여 25% 더 길었습니다”라 修正 되어 있고 이것은 第3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修正되어 있다.

즉 116%가 16%로, 125%가 25%로 113%가 13%로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金日成이 1946年 6月 20日 이 연설을 행하였을 때 %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 라 보여진다. 初版에서는 “朝鮮이 日本帝國主義者 勞動力 市場이었던 만큼 朝鮮勞働者가 日本資本主義 發展에 큰 기여가 있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国内에서 朝鮮 勞働者들이 差別的 壓迫과 착취를 받는 以外에도 소위 自由모집, 官斡旋 내지 強制

징용으로 日本에 끌려가서 勞動市場에 착취받고 壓迫받은 朝鮮 勞動者가 一百五拾万 以上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하등 保護策이 없었다. 이 部分을 第2版에서는 다음과 같이 修正하였다.

즉 “日帝의 勞動市場이었던 우리나라에서는 勞動者들이 國內에서 온갖 差別的 壓迫과 야만적 착취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소위 自由募集이니 斡旋이니 징용이니 하는 여러 가지 명목으로 수 많은 勞動者들이 日本으로 끌려갔는데 그 수만하여도 150万 以上에 달합니다.” 이 部分도 第3版에서 동일하게 답습되어 있다. 初版에서는 “倭놈”이라는 말을 使用하였는데 第2版과 第3版에서는 그것을 “日帝”라고 修正하였다. 가령 예를 들면 初版에서는 “倭놈들의 工場은 더욱 勞動者를 얽매고 착취하는 道具가 되었으며 勞動者의 貧困과 饑餓를 더 가져왔을 뿐이었다”라 表現되었던 것을 第2版에서는 “日帝는 이와같이 朝鮮 勞動者들의 피 땀을 흑독하게 빨아냈으며 그중 많은 사람들은 불구자로 되게 하고 疾病으로 신음하게 하였습니다.” 第3版도 第2版에서 修正된 그대로 실려있다.

그리고 蘇聯 軍隊에 관계된 部分을 보면 다음과 같이 修正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初版에서는 “西方에서 많은 被壓迫 民族을 解放하여 自由獨立의 길을 열어 준 蘇聯 軍隊는 昨年 8月 15日 日本帝國主義를 朝鮮에서 永永히 내어쫓고 朝鮮民族에게 解放과 自由를 가져왔다.” 이 部分을 第2版에서는 다음과 같이 修正하고 있다. 즉 “히틀러 醬缸 基盤에서 많은 民族들을 解放

하고 自由와 獨立의 길을 열어준 偉대한 蘇聯 軍隊는 朝鮮에서 日帝를 깨망시키고 우리 人民에게도 自由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로 되어 蘇聯 軍隊에 대해서 初版에서는 使用하지 않았던 *偉대한* 이라는 형용사를 第2 및 第3版에서는 添加하고 있다.

이것은 앞서 지적한 蘇聯軍에 대한 경향과는 다른 측면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어찌하여 이와같은 혼선이 생겼는지를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金日成으로서는 지나치게 蘇聯 軍隊에 關係되는 部分을 修正하여 눈에 떨만큼 되었던 것에 대한 일종의 心理的 反作用으로 蘇聯 軍隊앞에 이러한 형용사를 添加한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며 조금 더 다른 側面에서 해석하면 1945年 히틀러 파시즘을, 타도한 歴史的 事實을 金日成이 想起할 때에 당시 蘇聯軍의 一將校였던 金日成으로서는 새삼스럽게 *偉대한* 蘇聯 軍隊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을지도 모를 일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中共이나 蘇聯에 대해 等距離外交路線을 取하는 것이 北韓에게 有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蘇聯軍에 대해 이러한 형용사를 添加하지 않았는가 생각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中·蘇에 처한 金日成의 等距離 維持 努力의 初期的인 表現으로서도 해석할 수 있겠다는 것이다.

2. 主要部分의 对照

初版에서는 첫째, 둘째, 셋째 라는 式으로 열거하여 이 法令의 이른바 民主主義的 성격을 강조하고 있었는데 第2版과 第3版에서

는 그와같은 체계를 使用하지 않고 그대로 풀어서 기술하고 있다.

가령 初版에서는 "첫째로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는 朝鮮에서 日本帝國主義 植民地 搾取 잔재를 숙청하고 民主主義的 勞動制度를 確立하기 위하여 二十個 政綱의 第14條와 第15條에 提出한 勞動政策을 具體적으로 實現하기로 되었다"라 되어 있다. 이 部分을 第2版에서는 다음과 같이 修正하였다. 즉 "동지들이 다 아는 바와같이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의 20개조 政綱에는 朝鮮에서 日帝 植民地 착취의 잔재를 숙청하고 民主主義的 勞動秩序를 確立하는데 대한 과업이 明確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發表될 勞動法令은 바로 이 政綱에 명시된 우리 人民政權의 勞動政策은 실생활에 구현하는 것으로 되며"라 修正하였고 그것은 第3版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되어있다. 同勞動法令에 대한 說明가운데 현단계의 事情에 대해 言及한 部分이 있는데 그 部分에 있어서도 몇가지 注目할만한 修正이 가해져 있다.

初版에서는 "現段階의 朝鮮의 民主主義的 改革, 建設 階段(그대로)에 있어서 規定받은 民主主義 勞動法令으로서 朝鮮 社會의 歷史的 經濟發展에 符合된 法令인 것이다. 朝鮮 經濟는 지금 封建的 制度의 잔재와 搾取制度를 숙청하는 過程에 있다. 그러나 現下 朝鮮에 있어서는 個人資本의 發展을 許諾하며 그를 獎勵하게 되었다. 現在 朝鮮에서는 社會主義的 經濟制度 建設도 아니며 同時에 朝鮮의 社會經濟發展의 方向(그대로) 米國式的 民主主義 方向도 아닌 것이다"라 되어있다. 이것을 第2版에서는 다음과 같이 修

正하였다. 즉 "이 勞動法令은 民主主義的 法令으로서 우리 나라의
의 구체적인 歷史的 條件에 全적으로 符合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나라는 民主主義的 革命段階에 처하여 있습니다. 우리는 植民
地的 搾取制度和 封建的 搾取制度의 잔재를 숙청하고 있으며 개인
企業을 일정한 정도로 獎勵하고 있습니다. 現在 우리나라에서의
經濟 建設은 社會主義的 經濟建設도 아니며 그렇다고 하여 물론
資本主義의 方向으로 나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植民地的
및 封建的 搾取의 기반을 청산함으로써 各階各層의 愛國的 民主力
量을 團結하여 民主主義 國家를 建設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
것은 第3版에서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注目할 것은 다음과 같은 점들이다. 그중 하나는
"個人資本의 發展을 許諾하며" 하는 部分을 第2版에서는 "個人企
業을 일정한 정도로 獎勵하고 있다"고 修正하였다는 점이다. 이
경우에 "個人資本과 "個人企業"의 차이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
로 생각된다. 다른 하나는 初版에서 使用했던 表現중 "同時에
朝鮮의 社會 經濟 發展의 方向(은) 米國式的 民主主義 方向"도
아니라는 部分을 完全히 削除하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美國을
"帝國主義國家"라고 공격하고 있는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필연
적인 修正이었다고 풀이된다. 이러한 修正은 第3版에서도 행해졌
다. 그리고 또 한가지 주목할 것은 南韓에 關係되는 部分에서
金九, 李承晩과 파시스트 잔재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이것을 第2版과 第3版에서는 크게 修正하였다는 것이다.

즉 初版에서는 「土地改革에서는 金九, 李承晩 파시스트 잔재들과 鬪爭하는 데서 어떠한 階級보다도 용감하게 鬪爭한 것은 勞働者 階級이었었다」라 되어 있었던 것이 第2版에 가서는 「金九」는 完全히 削除하였다. 그 대신에 「이승만」에 대해서는 「역도」라는 호칭을 添加하고 있다. 이것도 第3版에서 동일하게 修正되었다. 이와 같은 修正은 金九先生이 南北協商(1948年)에 呼應했던 사실때문에 행해진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은 對南宣傳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석되는 것이다.

그리고 끝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蘇聯 軍隊에 關係되는 句節이다. 즉 初版에서는 「蘇聯 軍隊가 朝鮮을 解放하고 北朝鮮에 進駐함으로써 能히 北朝鮮人民들이 民主主義 力量을 準備할 條件을 주었던 것이다」라 되어있던 部分을 第2版에서는 「蘇聯 軍隊가 朝鮮을 解放하고 北朝鮮에 진주하게 됨으로써 우리 人民은 자기의 의사대로 民主主義的 新生活을 建設할 수 있게 되었으며」라 修正하였는데 이것도 第3版에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 그리고 스탈린에 關係되는 部分에도 修正된 것이 있다. 즉 初版에서는 「蘇聯 軍隊에 대한 深深한 感謝와 敬意를 드려야 할 것이며 世界 被壓迫民族의 偉대한 領導者 스탈린 大元帥에게 最高의 感謝와 敬意를 드려야 할 것이다」라 되어 있는데 第2版에서는 이 部分을 「우리의 解放者인 蘇聯 軍隊와 蘇聯 人民의 偉대한 領導者인 스탈린 大元帥에게 衷心으로 감사를 드립니다」라 修正하여 「世界 被壓迫民族의 偉대한 領導者 스탈린 大元帥」가 아니라 「우리의 解放者

인 蘇聯 軍隊와 蘇聯 人民의 偉대한 領導者인 스탈린 大元帥로 고쳤다. 그리고 "最高의 感謝와 敬意"를 드러야 할 것이다. 라는 표현도 단순히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修正되어 있는데 이 部分도 第3版에 있어서 동일하게 修正되어 있다.

以上에서 說明한 修正 内容中 主要한 것을 对照해 보면 다음과 같다.

初 版	第 2 版	第 3 版
116 %	16 %	16 %
125 %	25 %	25 %
113 %	13 %	13 %
倭 寇	일 제	일 제
蘇聯軍隊	위대한 朝鮮군대	위대한 朝鮮군대
個人資本	개인기업	개인기업
米國式的 民主主義	완전삭제	완전삭제
金 九	완전삭제	완전삭제
世界被壓迫民族의 偉	朝鮮군대와 朝鮮인민	朝鮮군대와 朝鮮인
대한 領導者 스탈린	의 위대한 영도자	민의 위대한 영도
大元帥	스탈린 대원수	자 스탈린 대원수

初 版	第 2 版	第 3 版
最高의 感謝와 敬 意	충심으로 감 사	충심으로 감 사

3. 評 価

金日成의 이 演說은 1946年 6月 20日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 擴大委員會席上”에서 行한 것인데 修正을 加한 部分중 우리의 注目を 끄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이다.

첫째, 앞서 지적한 바와같이 初版에서는 使用하지 않았던 “偉대한” 蘇聯軍이라는 형용사가 第2版과 第3版에서 添加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것은 金日成이 蘇聯과의 關係에 대하여 상당히 많은 矚目を 쓰고 있었다는 것을 反映하는 것이라고 풀이된다.

왜 蘇聯軍에 대하여 새삼스럽게 이러한 形용사를 添加하였겠는가를 分析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특히 앞서 검토한 土地改革에 관한 報告에서는 蘇聯軍의 役割을 格下시키려고 努力한 흔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想起할 必要가 있다. 두가지의 경우를 對照해 볼때 여기에서는 그 理由로서 두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다. (1) 土地改革에 관한 報告에서는 意識적으로 蘇聯軍에 대한 言及을 削除했던 만큼 그것에서 오는 心理的 反作用에 의한 結果로서 이와같은 添加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다는 것이다. (2) 이러한 金日成의 心理作用과 관련하여 생각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측면은 만약 장차에 있어서 土地改革에 관한 報告文과 勞動法令에 대한 報告文, 그리고 그의 選集을 면밀히 검토하는 作業이 있을 때 蘇聯에 대한 一種의 敵意가 金日成의 마음 속에 있었다는 따위의 해석이 생기지 않도록 布石하기 위하여 이러한 添加가 행해진 것이라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蘇聯軍이나 스탈린에 대한 表現이 修正 또는 削除된 사실을 생각하고 그러한 部分과의 均衡을 잡기 위하여 이러한 형용사를 添加한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겠다는 것이다.

둘째 스탈린에 관하여 初版에서는 "世界被压迫民族의 偉대한 領導者"라 表現했던 것을 第2版과 第3版에서는 "蘇聯 軍隊와 蘇聯 人民의 偉대한 領導者"로 修正한 것은 免無識을 위한 것이라고 풀이 되기도 하며 또한 民族的 自覺心の 作用에 의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스탈린은 蘇聯軍과 蘇聯人의 指導者임에 틀림 없었기 때문이다. 즉 지나친 稱讚은 잘 못하면 無識하다는 印象을 줄 수 있다는 心理도 이 修正에는 作用한 듯하다는 것이다.

셋째 끝으로 지적할 것은 金九先生에 관한 것을 完全히 削除한 점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같이 그러한 修正을 가한 理由中에는 金九先生이 1948년에 있었던 이른바 "南北朝鮮 諸政党 社会团体, 代表者協議會"에 參加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고려가 作用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고려는 對南宣傳이라는 측면도 함께 가지는 것이라고 풀이될 수 있을 것이다.

要컨대 이 報告에 대한 修正은 蘇聯과의 關係, 對南宣傳과의 關係 및 先無識의 心理 등에 의하여 행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러한 고려와 아울러 文章을 보다 洗鍊시키려고 努力한 흔적이 대단히 짙다고 評價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1960년에 刊行된 第2版이나 특히 1967년에 刊行된 第3版에서는 蘇聯에 관한 部分이 一律적으로 削除되거나 크게 修正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報告에 대한 添加 部分이나 修正 部分은 그러한 생각이 性急한 判斷임을 明示해 준다.

VI. "重要 産業, 交通, 遞信, 運輸, 銀行 等の 國有化 法令 發布에 際하여 朝鮮人民에게 告함"의 修 正內容 分析

1. 修正內容

이것은 題目이 第2版과 第3版에서 다음과 같이 修正되었다.
즉 第2版에서는 "重要 産業의 國有化는 自主獨立國家建設의 기
초" 라고 修正되었는데 이것은 띄어 쓰기만 달리 하고 第3版에서도
동일하게 되어 있다. (다른 경우도 第2版과 第3版的 띄어 쓰기는
다르다) 그리고 初版에서는 단순히 "1946年8月10日 演說" 이
라 하여 날자만 밝히고 있는데 대하여 第2版에서는 "産業 國有
化 法令 支持 平壤市 軍中대회에서 한 연설 1946年8月10日" 이
라 添加하고 있으며 이 部分은 第3版에서도 동일하게 取扱되어
있다. 序頭에서 初版의 경우는 "敬愛하는 同胞들!" 그리고
"男女同胞들!" 이라 시작되어 있는데 비하여 第2版에서는 "親愛
하는 同胞 여러분!" 이라 修正되었다. 다시 말하면 同胞들에 대
하여 "敬愛" 하는 말 대신에 "親愛" 하는 말로 修正하였고 "男
女同胞"라는 말은 削除하였다. 이것은 앞서 취급했던 연설 속에서
도 볼 수 있던 현상이지만 金日成의 자세가 同胞들을 부를 때에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한 표적이라고 볼 수
있다. 本文에 들어가서 修正한 部分을 보면 앞서 검토한 것에
비하여는 훨씬 적게 修正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修正이 아주 적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해가 될 것이다. 특히 文章을 세련되게 하려는 努力이 엿보이지만 同時에 初版에서는 전혀 말하지 않은 것을 添加하고 있는데 그중 主要한 것을 좀 더 具體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初版에서는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의 이 法令은 아주 偉大한 歷史的 意義를 가진 法令입니다. 이 法令에 의하여 日本帝國主義者들이 朝鮮人民의 손으로 朝鮮 땅에 施設하여 놓은 北朝鮮의 一切 企業所, 鉸山, 發電所, 鐵道, 運輸, 通信, 銀行, 商業 及 文化機關 등이 이제부터 唯一한 法的 主人인 朝鮮人民의 所有로 넘어오게 되는 것입니다」라 말한 部分을 第2版에서는 다음과 같이 修正하고 있다.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가 發表한 이 法令은 아주 거대한 歷史的 意義를 가지는 法令입니다. 이 法令에 의하여 北朝鮮에서는 日本帝國主義者들이 朝鮮人民의 피와 땀으로 이 땅 위에 建設하여 놓은 모든 工場, 鉸山, 發電所들과 鐵道, 運輸, 通信, 銀行, 商業, 文化機關 등이 그 유일한 合法的 主人인 朝鮮人民의 所有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이라 修正하여 특히 「朝鮮人民의 피와 땀으로」라는 말을 「朝鮮人民의 손으로」라는 말 대신에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朝鮮人民의 피와 땀으로 이 땅 위에 建設하여 놓은 모든 工場 기타 重要 企業은 朝鮮人民의 所有로 넘어오게 되었다」는 표현은 말하자면 民族主義的 감정에 크게 호소하고 있음을 暗示해 주는 部分이다.

그리고 初版에서는 「그 뿐만 아니라 日本人들과 함께 도주한

者 또는 南朝鮮으로 도망친 朝鮮民族叛逆者들에게 屬했던 工業企業所 等도 또한 無償沒收하여 國有化하게 되는 것입니다"라 되어 있는 部分을 第2版에서는, "그뿐 아니라 日本人들과 함께 도주한者, 친일파, 民族叛逆者들의 所有였던 工場, 企業所들도 모두 무상으로 沒收되어 朝鮮人民의 所有로 되었습니다"라고 修正하였다. 이 部分은 앞서 指摘한 部分과 마찬가지로 第3版에서도 그대로 답습되어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無償沒收하여 國有化하게 되는 것입니다"라는 말 대신에 "모두 무상으로 沒收되어 朝鮮人民의 所有로 되었습니다"로 修正된 것에서 볼 수 있는 바와같이 國有化라는 말이 朝鮮人民의 所有라는 말로 대체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一般人的 所有欲을 만족시켜 주는 듯한 인상을 조성한다는 意圖가 作用한 것이라고 分析된다. 그리고 日本帝國이 韓國에 있어서 행한 努力의 搾取에 대하여 記述한 部分에 있어서도 다음과 같은 修正이 가해져 있음을 본다. 즉 初版에서는 "朝鮮人民의 값싼 努力을 搾取할 目的으로 또는 朝鮮에서 工業原料를 強奪할 目的으로 또는 日本資本家들의 利潤 獲得을 目的으로 工業企業所를 建設하였던 것입니다"라 표현되어 있는 部分이 第2版에 있어서는 "우리 祖國의 豊富한 資源을 약탈하며 우리 人民의 努力을 搾取하여 막대한 植民地 利潤을 얻어낼 目的으로 우리나라에 産業施設들을 建設하였던 것입니다"라 修正하였다. 즉 初版에서 말한 "朝鮮人民의 값싼 努力"이라는 표현을 "우리 人民의 노력"

이라고 표현을 바꾸었는데 이것은 의미상 「값싼 노력」이라는 말이 자칫 잘못하면 본질적으로 저열한 努力이라는 뜻으로 오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행한 修正인것 같다.

이와같은 修正은 역시 第3版에서도 그대로 답습되어 있다. (특별한 言及이 없을 때에는 第2版에서의 修正은 第3版에 그대로 답습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法令의 의미에 대하여 初版에서는 다음과 같이 言及하고 있는데 즉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에서 採択한 새 法令은 朝鮮民主化의 途程에 있어서 또는 朝鮮의 自由 民主國家 建設의 途程에 있어서 重大한 새로운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이라 되어 있는데 反하여 第2版에서는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에서 採択한 이 法令은 朝鮮의 民主化와 民主主義 自主獨立國家 建設을 위한 새로운 중요한 조치로 됩니다」이라 修正하였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初版에서 使用한 「自由民主國家」라는 표현이 第2版에서는 「自主獨立國家」로 고쳐진 점이다. 다시 말하면 初版에서는 自由民主主義的인 國家의 建設을 위하여 同法令이 重大한 뜻을 가진 것처럼 說明하였지만 第2版에서는 民主化와 民主主義 自主獨立國家를 建設하는 데에 새로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修正하였다.

이것은 自由라는 말을 使用했을 때 있을 수 있는 특수한 理念的 측면을 의식하여 행해진 修正이라 볼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自由」와 「自主」는 비록 글자는 한자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이 의미하는 政治的 理念的 問題는 대단히 크다는

것을 金日成이 의식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同法令이 施行되도록 되는 과정의 배경을 說明하는 部分에서 初版에 있어서는 "이 모든 것은 오로지 蘇聯軍隊의 熱誠의인 방조와 끊임없는 指導에 의하여 達成된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라고 되었던 部分을 第2版과 第3版에서는 完全히 削除하였다. 이 削除는 아마도 文章上 蘇聯 軍隊의 役割을 너무 강조한 듯이 느꼈기 때문에 행해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것은 蘇聯軍隊에 대한 言及을 削除한 第4章의 경우와 같은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蘇聯軍隊에 대한 初版에서의 言及은 第2版과 第3版에서도 그 형용사를 그대로 또는 다소 修正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初版에서는 "지금으로부터 一年前에 英勇한 蘇聯軍隊는 日本帝國主義의 侵略軍隊를 滿洲와 朝鮮에서 驅逐하고 朝鮮人民으로 하여금 日本 노예로부터 解放시켰습니다" 라 하였는데 이러한 部分이 第2版에서는 "지금부터 1年 前에 英勇적 蘇聯軍隊는 日本帝國主義 侵略軍隊를 擊滅하고 朝鮮人民을 日帝 植民地 基盤에서 解放하였습니다" 이라 修正하였다. 여기에서 우리는 初版에서 사용한 "英勇한" 이라는 形용사가 第2版에서는 "英勇적" 이라는 말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蘇聯軍隊가 "滿洲와 朝鮮에서" 日本帝國主義의 侵略軍隊를 驅逐했다는 말을 의식적으로 第2版에서는 단순히 "日本帝國主義의 侵略軍隊를 擊滅하고" 라는 표현으로 고쳤다는 점을 注目할 만한 修正이다. 다시 말하면 滿洲에서 金日成이 말치산

運動을 하였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蘇聯軍隊가 滿洲에서 日本軍을 驅逐하였다는 사실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修正이 가해진 것이라고 생각된다.

以上에서 지적한 第2版에서의 修正은 第3版에서도 동일하게 답습되어 있다.

또 한가지 蘇聯軍隊에 關係되는 部分은 같은 페이지에 있는 다음과 같은 文章이다. 즉 初版에서는 “蘇聯軍隊는 北朝鮮을 解放한 後 우리 人民에게 自由政治生活를 保障하였으며 自己의 政權을 樹立할 수 있는 完全한 權利를 주었으며 北朝鮮의 經濟 및 文化生活를 復興함에 있어서 우리를 방조하여 주었으며 계속 後援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部分을 第2版에서는 다음과 같이 修正하였다. 즉 “蘇聯軍隊는 朝鮮을 解放한 後 우리에게 자기의 의사에 따라 진정한 人民의 政權을 樹立하고 民主主義的 새생활을 창조할 수 있는 完全한 自由를 보장하여 주었으며 北朝鮮의 人民 經濟와 文化의 급속한 부흥 發展을 위하여 우리에게 繼續 사심없는 援助를 주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修正에서 나타난 바와같이 初版에서 말한 “自由政治生活”을 第2版에서는 “民主主義的 새생활을 창조할 수 있는 完全한 自由를 보장해 주었다”라는 式으로 修正하고 있다. 또한 蘇聯軍이 “방조하여 주었으며”라든지 “계속 後援”하여 주고 있다는 式으로 표현한 것을 第2版에서는 특별히 계속 “사심없는 원조”를 주고 있다는 式으로 修正하고 있다.

2. 主要部分의 对照

本 論文에서는 蘇聯軍隊에 關係되는 部分이 상당히 있는데 그 중에는 削除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다. 가령 初版에서는 "蘇聯軍司令部의 이 모든 동향을 통하여 朝鮮에 관한 우리의 偉大한 인접 國家! 蘇聯의 英明한 親善政策이 명백히 표현된 것입니다" 라 되어 있었는데 이 部分을 第2版에서는 "朝鮮人民은 實生活를 통하여 蘇聯人民이 自己의 가장 친근하고 진실한 벗임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人民은 형제적 蘇聯人民의 지성어린 援助를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다. 이 部分도 第3版에서 동일하게 修正되어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初版에서 지적한 "蘇聯의 英明한 親善政策" 이라는 표현이 第2版에서는 "형제적 蘇聯人民의 지성어린 援助" 라 표현되어 있는 점이다.

이것은 金日成이 蘇聯政府와 蘇聯人民을 애써서 구별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 이 論文에서는 蘇聯軍에 대한 言及이나 蘇聯政府에 대한 言及이 初版에서 나온 회수만큼 第2版과 第3版에서도 대체로 계속하여 사용되고 있는데 흥미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部分이다.

初版에서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朝鮮人民에 대한 蘇聯政府와 蘇聯人民들의 偉大한 首領이며 朝鮮人民과 全世界 被壓迫人民들의 親友인 大元帥 스탈린의 관심과 고려가 표현된 것입니다. 偉大한 스탈린의 領導를 받은 蘇聯政府의 朝鮮에 대한 모든 政策은 朝鮮人民과 全世界에 蘇聯은 絶對로 他國을 侵略할 目的이 없었으며

또한 없으며 가장 真正하고 眞實한 朝鮮人民의 親友이라는 것을 實際로 보여 주었습니다"라 표현되어 있는데 이 部分은 第2版에서 完全히 削除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削除는 第3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다.

우리에게 특히 흥미있는 部分은 이 削除된 文章 속에 있는 "蘇聯은 絶對로 他國을 侵略할 目的이 없었으며 또한 없으며 가장 真正하고 眞實한 朝鮮人民의 親友이라는 것을 實際로 보여 주었습니다"라는 部分이 削除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와같은 削除가 과연 金日成이 蘇聯에 대한 그의 최초의 생각 즉 蘇聯은 絶對로 他國을 侵略할 目的이 "없었으며 또한 없다"는 그러한 인식을 부인하는 것으로까지 擴大 해석할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지만 다만 蘇聯을 경계하여야 한다는 점만은 함축되어 있다고 말해서 틀림없을 것 같다.

이러한 경계심이 1960년에 形成되었던 時代的 環境 특히 中蘇의 對立과 그리고 1956년에 있었던 蘇聯의 항가리 侵入 등을 回想할 때 이와같은 경계심은 충분히 근거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金日成이 蘇聯에 대하여 적대적인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擴大 해석해서는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표현 속에서 잘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즉 初版에서 그는 말하기를 "朝鮮人民들은 永遠히 이 兄弟的 방조를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잔악무도한 日本 壓迫者로 부터 朝鮮人民을 解放하기 위하여 蘇聯 子孫

들의 흘린 피는 朝鮮人民과 蘇聯人民들과의 꿈을 수 없는 永遠한 親善을 맺어 놓은 것입니다. 이 部分을 第2版에서는 "잔인무도한 日帝 강점자들의 抑壓에서 朝鮮人民을 解放하기 위하여 偉대한 蘇聯人民의 아들 딸들이 흘린 피는 朝鮮人民과 蘇聯人民을 꿈을 수 없는 親善의 유대로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이러한 修正에서 엿볼 수 있는 바와같이 金日成은 蘇聯에 대해서 특별히 꿈을 수 없는 關係가 있으며 피의 紐帶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蘇聯人民을 親友라는 立場에서 인식해야 한다는 것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있어서는 일방적으로 保護를 받는 者와 같은 立場에서 말한 것을 바꾸어서 이제 동등한 立場에서 "親友的인 關係"에 있는 것으로 說明하려고 努力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이다.

第2版에서 행한 削除는 第3版에서도 답습되어 있다.

또 한가지 指摘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南韓에 關係되는 部分이다. 初版에서는 "米軍司令部의 默認과 後援을 利用하여 反動分子들은 南朝鮮에서 過去 日本人 所有物을 자기들이 掌握하려고 갖은 計策을 凶謀하고 있습니다. 金九, 李承晚 및 그의 忠僕들은 朝鮮의 産業과 朝鮮의 자연부원을 外國資本家들에게 팔아먹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部分은 第2版에서 다음과 같이 修正되어 있다. 즉 "미군사령부의 積極적인 後援 밑에 美國資本家들과 國內 反動분자들은 南朝鮮에서 過去 日本國과 日本人의 所有였던 生産施設들과 物品을 차지하려고 갖은 술책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李承晚

미국도당은 朝鮮의 産業과 자연 부원을 拳國獨占資本家들에게 제멋대로 팔아넘기고 있습니다. *

이 修正에서 注目되는 점은 두가지이다. 그중 하나는 初版에서는 *金九, 李承晩 및 그의 忠僕들*이라 열거하였음에 反하여 第2版에서는 *金九*는 빼고 그 대신 李承晩 前 大統領에게 대해서는 *미국도당*이라는 稱號를 使用하고 있다. 金九先生의 이름을 削除한 理由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다. 그 다음 한 가지는 初版에서는 *外國資本家에게 朝鮮의 자연부원을 팔아먹고 있다*는 式으로 표현했는데 이것을 第2版에 있어서는 *미국 獨占資本家들에게 팔아먹고 있다*는 式으로 修正하였다. 이와같은 修正은 獨占資本이라는 말을 使用함으로써 이른바 레닌의 帝國主義理論의 냄새를 풍겨보자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되며 *美國 獨占資本家*를 지칭한 것으로 修正한 것은 特定한 獨占資本이라는 점을 浮刻시키려는 의도의 表示이며 그것은 그들의 宣傳과도 符合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지적할 것은 이 演說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口號에 관한 것이다. 口號가 初版에서는 6개 있었는데 第2版에서는 4개로 줄어 들었고 이것은 第3版에서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다. 즉 初版에서는 *民主主義的 自由朝鮮萬歲!*라는 구호가 있었는데 이 구호는 그대로 第2, 第3版에 실려 있으나 둘째번의 구호인 *사랑하는 우리 祖國은 永遠히 降盛하라!*라는 구호는 完全히 削除되었다.

셋째번의 구호인 "自由로운 우리 人民 길이 길이 健全하라!" 이 구호도 完全히 削除되었고, 네째번으로 실려있었던 구호 즉 "우리 人民의 政權인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 萬歲!" 와 다섯째로 실려있었던 "朝鮮人民의 親友이며 解放者인 蘇聯萬歲!" 와 여섯번째로 실려있었던 "蘇聯人民의 偉대한 首領이며 朝鮮人民의 擁護者인 스탈린 大元帥 萬歲!" 는 第2版과 第3版에서 계속하여 실려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修正된 部分이 없지 않다. 그것은 즉 다섯째와 여섯째의 구호인데 第2版에서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修正하였다. "朝鮮人民의 가장 친근한 벗이며 解放者인 蘇聯人民 萬歲!" 라 하여 특별히 蘇聯人民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리고 여섯번째의 구호도 재미있는 修正을 받고 있다. 즉 蘇聯人民의 偉대한 首領이며 朝鮮人民의 친근한 벗인 스탈린 大元帥 萬歲!" 라 修正되어 있는 것에서 나타나 있는 것은 이제 스탈린의 경우도 친근한 벗이라는 형용사를 쓰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朝鮮人民의 擁護者" 라 표현한 初版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우리의 注目을 끄는 점이다. 이상에서 說明한 主要한 修正內容을 对照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된다. 즉

初 版	第 2 版	第 3 版
손으로 國有化 값싼勞力	피와 땀으로 조선인민의 소유 노 력	피와 땀으로 조선인민의 소유 노 력

初 版	第 2 版	第 3 版
自由民主國家 英勇한 滿洲와 朝鮮에서 계속 後援 英明한 親善政策 蘇聯은 絶對로 他國 을 侵略할 目的이 없었다	자주 독립 국가 영웅적 삭 제 계속 사심없는 원조 지성어린 원 조 완전삭제	자주 독립 국가 영웅적 삭 제 계속 사심없는 원조 지성어린 원 조 완전삭제
外國資本家	미국독점 자본가	미국독점 자본가
金九, 李承晩	이승만 매국도당	이승만 매국도당
朝鮮人民의 擁護者	조선인민의 친근한 벗	조선인민의 친근한 벗

3. 評 価

이 報告文의 修正은 다음과 같은 점을 念頭에 두고 행해진 것이라고 推測할 수 있다.

첫째 重要 産業 및 運輸手段을 国有化한 것은 이른바 “人民經濟”의 建設을 위한 것이며 따라서 “国有化”는 사실상 國家의 所有라기 보다는 人民의 所有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一般大衆의 參與意識을 고취하고 그들의 所有慾을 充足시키고자 하였다.

둘째 “自由國家”라는 표현에서 나타나 있었던 바와 같이 政治的 理念으로서의 自由에 立脚한 國家를 建設하려는 것과 같은 印象을 주는 部分을 “自主國家”라 修正하였다는 점이다. 이 報告에서는 民主主義라는 말은 사용되고 있지만 (初版에서와 第2, 第3版에서) 社會主義라는 用語는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도 주목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要컨대 이 報告文의 修正에 있어서는 理念的 側面이 고려되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蘇聯軍이 “滿洲와 朝鮮에서 日本帝國의 軍隊를 구축하여 朝鮮을 解放”시켰다는 部分에서 “滿洲와 朝鮮”을 第2版과 第3版에서는 削除하고 막연히 “朝鮮을 解放시켰다”고 修正한 사실은 앞서 지적하였던바 “1930年代初의 항일무장鬪爭”이 添加되었던 사실과 비추어볼 때 이 修正은 장차 있을 金日成의 偶像化를 위한 綿密한 布石중의 하나였다고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蘇聯과의 關係를 될 수 있는대로 對等한 “벗”의 立場에서 표현하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態度는 이른바 金日成의

“自主”的 意認과도 밀접히 관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蘇聯은 絶對로 他國을 侵略할 目的이 없었으며 또한 없다” 고 하였던 部分을 完全히 削除한 것은 1956年以後의 蘇聯의 行爲에 대한 反應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일종의 抵抗意識의 間接的 表現이라고 하여도 좋을 것이다. 즉 自主的 姿勢의 삭은 第2版의 修正 속에서 엿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金九 先生에 대한 言及을 削除하고 李承晚博士에게 “매국도당”이란 욕설을 붙인 것은 對南宣傳用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앞서 檢討한 報告文의 修正過程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以上 要컨데 이 報告文의 修正과정에서는 政治的 理念에 대한 특별한 意識 金日成 偶像化에 대한 布石意識, 國際情勢의 變動 특히 蘇聯의 헝가리侵入事件 이후의 情勢에 대한 感覺 및 對南宣傳이라는 意識 등이 作用하였다는 것을 指摘할 수 있다.

Ⅶ. 「北朝鮮 道·市·郡 人民委員會大會를 結束하면서」의 修正內容分析

1. 修正內容

이것은 1947년 2월 20일 北朝鮮 道 市 郡 人民委員會大會 석상에서 행한 演說이라고 初版에서는 지적했는데 第2版과 第3版에서는 「北朝鮮 道 市 郡 人民委員會 大會에서한 結論 1947년 2월 20일」이라 표시하여 단순한 演說이 아니라 「結論」이라는 것을 特別히 내세우고 있다. 本文 序頭에서는 演說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렁찬 박수가 있었다는 것을 初版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박수에 관한 記錄은 序頭에서 뿐만 아니라 本文안에 16군대에 표현되어 있는데 第2版에서는 그것을 모두 삭제하였고 이것은 第3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되어있다. 그리고 修正된 부분도 적지 않으나 주목할만한 것만 추려서 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初版에서는 「우리는 당신들과 같이 朝鮮 歷史上에 있어서 가장 찬란하고 偉大한 事業을 또한번 勝利的으로 成功하였습니다」라 되어 있었던 부분을 第2版에서는 「우리는 이번 大會를 통하여 우리 歷史上에 길이 빛날 또 하나의 事業을 勝利的으로 완수하였습니다」라 修正하였다. 이와 같은 修正은 第3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이 修正은 다만 문장을 다듬은 정도의 것이다. 內容上的 修正을 보면 初版에서는 「우리들은 과연 北朝鮮 一千三百万 人民을 代表한 人民 代表의 資格으로써 朝鮮人民들이 要求하는 人民의

政權機關을 더욱 강화하며 朝鮮民族에게 지워진 歷史的 使命을 能히 完成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번 約束하였습니다"라 되어 있었던 부분을 第2版에서는 "이번 大會는 여기에 참가한 전체 대표들이 民族의 運命을 걸머지고 人民의 先두에 서서 나갈 수 있는 진정한 人民의 代表라는 것을 잘 보여 주었습니다"라 修正하였다. 다시 말하면 문장상 부드럽지 못한 점을 고친 것도 사실이지만 特別히 "전체 代表들이 民族의 運命을 걸머지고 人民의 先두에 서서 나갈 수 있는 진정한 人民의 代表"라는 점을 강조하였다는 데에 特色을 볼 수 있다.

初版에서는 民族叛逆者로서 "金九, 李承晚, 金性洙"를 열거하고 있는데 第2版과 第3版에서는 金九先生의 이름을 뺐다. 即 初版에서는 "만약에 京城長安에 있는 民族叛逆者 金九, 李承晚, 金性洙 등 反動輩들이 우리 民族의 團結을 破壞하지 않고 南朝鮮도 우리 北朝鮮 人民들과 같이 이 大會에서 表現된 精神과 같이 一千三百万 北朝鮮 人民들을 代表한 여러 代表들의 한마음 한뜻과 같이 團結되었더라면 우리는 벌써 統一된 政府를 能히 樹立하였을 것이며 벌써 三八線이 없어지고 우리 民族의 完全 自主獨立은 이미 돌아왔을 것입니다"라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第2版에서는 다음과 같이 修正하고 있다. 即 "만일 서울에 있는 李承晚, 金性洙 등 反動徒單들이 우리 民族의 團結을 破壞하지 않고 南北朝鮮 全体 人民이 한마음 한뜻으로 團結하여 싸워나갔더라면 우리는 벌써 統一된 政府를 樹立하였을 것이며 38線을 무너뜨리고 民族의

完全 自主獨立을 達成하였을 것입니다. ” 이와같은 修正은 第3版에서도 그대로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削除가 의미하는 것은 前章에서 言及한 바와 마찬가지로이다.

初版의 文장이 거칠었다는 것은 다음의 文장에서도 여실히 들어나고 있다. 即 初版에서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昨年에 土地改革 法令이 發布되어 土地改革을 實行할때에 反動派들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 땅 탄사람아 기뻐하지 말라. ” 땅 잃은 사람아 슬퍼하지 말라 ” 이와같은 선전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무리 땅 탄 사람이 좋아하여도 앞으로 도리어 빼앗길 것이며 땅 잃은 사람은 앞으로 다시 땅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反動派들의 가련한 謠言은 아무 근거도 없는 삼끄대에 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땅 탄 사람은 永遠히 웃어라 땅은 永遠히 발같이 하는 農民의 것이라고 聲明합니다.”

이 부분을 第2版에서는 다음과 같이 修正하였다. 即 “昨年에 土地改革 法令이 發布되어 土地改革을 실시할 때에 反動派들은 “땅 탄 사람아 기뻐하지 말라” “땅 잃은 사람아 슬퍼하지 말라고 떠버렸습니다. 이것은 지금 땅을 탄 사람이 좋아하지만 앞으로 도로 빼앗길 것이며 땅 잃은 사람은 다시 땅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반동파들의 삼끄대같은 요언은 그 누구도 속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法令은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全體人民의 승인을 받은 항구적인 人民의 法令으로 되었습니다. 우리는 “땅을 탄 사람은 永遠히 기뻐하라. 땅은 永遠히 발같이 하는 農民의 것이다라고 聲明하는 바입니다.

이와같은 修正은 그대로 第3版에도 실려 있다. 이 修正에서는 特別히 土地改革 法은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全体 人民의 承認을 받은 항구적인 人民의 法令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 主要部分의 对照

修正한 部分은 기타에도 많이 있지만 주요한 部分을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은 점도 있다. 即 初版에서는 "우리는 昨年 一年의 成果와 이번 大會의 승리를 통하여 앞날의 完全한 승리를 반드시 爭取할 것을 確信합니다. 우리는 過去에도 그랬고 오늘도 또 앞으로도 가장 信賴할만한 가장 民主主義的인 蘇聯國家와 隣接하였으며 蘇聯人民은 우리를 日本帝國主義로부터 解放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民族이 自主獨立國家를 建設하고 그들과 아주 가까운 隣邦國家가 되기를 원하고 있으며 또 그들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援助해 줄 것을 우리는 確信합니다. 그들은 日本帝國主義者에게서 解放된 우리 民族이 다시 어떠한 帝國主義者들의 植民地 되는 것을 反對하는 鬪爭에 永遠히 같이 서있을 것을 우리는 결실히 믿습니다." 이 部分을 第2版에서는 다음과 같이 修正하고 있다. 即 "우리는 또한 위대한 蘇聯人民의 형제적 방조를 받고 있습니다. 蘇聯人民은 우리를 日本帝國主義의 압박에서 解放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民族이 自主獨立 國家를 建設할 수 있도록 물질 양면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선진적이며 民主主義的인 蘇聯이 앞으로도 우리 人民의 정의의 鬪爭을 적극

지지하며 永遠히 우리 人民의 편에 서 있으리라는 것을 確信하고 있습니다. * 이와같은 修正은 第3版에서도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

여기에서 한가지 첨가된 部分을 지적한다면 그것은 初版에서는 없었던 다음과 같은 부분이다. 即 第2版에서는 * 우리가 解放 후 일년 동안에 民主改革를 통하여 達成한 성과에 基礎하여 자기의 民族經濟를 계획적으로 發展시키는 길에 들어섰다는 것은 自主獨立 國家 建設의 經濟的 基礎를 축성하는 증대한 사업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으로서 歴史的 的의의를 가집니다. 우리는 1947년도의 人民經濟發展計劃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第2版에서의 이와같은 添加는 第3版에서도 그대로 실려있다. 이 部分이 初版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었는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即 * 우리 北朝鮮人民이 自己의 中央機關의 指導 밑에서 우리 北朝鮮 人民들은 우리 民族의 完全 自主獨立을 하루 바삐 爭取하기 위하여 1947年度의 人民經濟發展 予定 數字를 完成할 것이며 그러함으로써 人民들에게 부여된 自由權利와 生活을 더욱 幸福스럽게 向上시키는 事業으로부터 民主主義的 獨立國家를 建設하여 國際的 同等主義를 爭取하는데로 邁進할 것입니다. * 이와같은 사실이 나타내주는 바와같이 金日成은 이른바 民族經濟의 계획적인 發展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것의 歴史的 意義를 내세우고 있다. 初版에 있었던 내용은 다른 여러 곳에서 다시 修正 添加되어 初版의 內容이 그대로 남아있는 部分은 많지않다. 初版에서는 蘇聯에 대하여 한번 더 言及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 正義의 나라 * 라 표현되었다.

그런데 그 部分은 第2第3版에서 削除되었다. 原文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即 初版에서 "우리 民族과 祖國은 發展할 것이며 獨立할 것이며 또한 융성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번 大會를 통하여 우리 人民이 이와같이 團結되었으며 自己 國家 建設에 모든것을 아끼지 않고 바칠 수 있으며, 모든 國難을 무릅쓰고 나가는 精神下에서 옳은 民主主義 政權 주위에 더욱 튼튼히 團結하여 正義의 나라 蘇聯人民의 友誼的 방조 아래서, 全体人民들의 熱誠의 努力에 의하여 멀지않은 장래에 完全 獨立國家를 建設할 것이며, 또한 東邦에 있어서 가장 民主主義的인 國家가 될 것을 確信합니다." 이 部分은 第2版에서는 "우리 民族과 祖國은 반드시 獨立할 것이며 융성 發展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人民의 自己 國家 建設에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바칠 수 있는 愛國心과 그리고 어떠한 困難이라도 극복하고 나가는 굳센 투지를 가지고 있으며 人民政權의 주위에 튼튼히 團結되어 있기 때문이다."이라 수정하였는데 이와같은 修正도 第3版에서 그대로 실려있는데 "正義의 나라 蘇聯"은 削除되었다. 그러나 이 削除는 앞서 인용한 "형제적 방조 國家"로서의 蘇聯이라고 表現했던 것과 견주어서 생각하는 것이 좋을것 같다. 다시 말하면 蘇聯과의 관계가 이와같은 削除를 통하여 特別히 소원된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지나친 속단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위대한" 蘇聯人民이라고 새삼스럽게 없었던 形容詞를 添加한 점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削除와 添加에 의하여 우리는 金日成이 蘇聯에

관한 部分을 修正할 때 일종의 均衡을 유지하려고 努力한 흔적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部分은 이 報告의 제일 말미에 있는 口號에 관한 것이다. 이 報告의 末尾에는 初版에 6개의 口號가 실려 있는데 그중의 하나는 完全히 削除되었고 다른것도 다소의 修正을 받았다. 即 初版에서는 "一. 北朝鮮 道 市 郡 人民委員會大會 勝利 萬歲!" "一. 北朝鮮人民의 最高政權機關인 人民會議 萬歲!" "一. 北朝鮮人民委員會 萬歲!" "一. 朝鮮人民의 벗이며 방조자 偉대한 쓰팔린 大元帥 萬歲!" "一. 朝鮮人民의 統一政對樹立 萬歲!" "一. 朝鮮人民의 自主獨立 萬歲!"라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第2版에 가서는 다음과 같이 修正 또는 削除되었다. 即 "北朝鮮 最高主權機關인 인민회의 만세!" 여기에서는 최고정권 기관으로 수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수정은 제3판에서도 그대로 실려 있다. 넷째번의 口號는 第2版에서 完全히 削除하였다. 이러한 削除는 第3版에서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다. 어찌하여 쓰팔린에 대한 칭송이 削除되었는가를 說明하기는 쉽지 않지만 아마도 自主獨立의 뜻을 보다 부각시키기 위한 생각에서 나온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以上에서 說明한 修正內容중 主要한 것을 對照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對 照 表

初 版	第 2 版	第 3 版
人民代表의 資格	진정한 인민의대표	진정한 인민의대표
叛逆者 金九	완전 삭제	완전 삭제
가장 信賴할 만한 蘇聯人民	위대한 조선인민	위대한 조선인민
正義의 나라 蘇聯 (愛國心에 대한 言及 없음)	완전삭제	완전 삭제
最高政權機關	애국심	애국심
偉大한 쓰칼린	최고 주권기관	최고 주권기관
	완전 삭제	완전 삭제

3. 評 価

이 報告文은 앞서 指摘한 바와같이 1947年 2月 20일에 北朝鮮 道市郡 人民委員會大會에서 行한 演說인데 修正한 內容을 檢討한 결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몇가지 점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初版에서는 人民代表의 資格에 言及했을때 特別한 形容詞를 붙이지 않고 단순히 人民을 代表하는 者로서 表現했음에 反하여 第2版에서는 特別히 眞정한 人民의 代表라 하여 代表者가 가지는 政治的 性格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北韓의 住民들이 政權에 自發적으로 參與 또는 協助하도록 할려는 意圖의 表現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意圖는 初版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愛國心이라는 말을 第2版과 第3版에서 添加하고 있다.

는 사실 과도 깊은 聯関性을 가지는 것이다.

그리고 初版에서는 「最高政權機關」이라고 表現한 것을 第2版 및 第3版에서는 「最高主權機關」이라 表現한 것도 人民委員會가 主權機關이라 한 것을 特別히 강조했는데 이것도 같은 意圖가 作用한 결과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要컨대 이것은 金日成이 그의 演說이나 報告의 內容을 1960年과 1967年에 修正했을 때에 国内的인 측면에 상당한 관심을 쏟고 있었다는 것을 暗示해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北韓住民들의 자발적인 協助, 支持 또는 參與를 誘導할 것을 念頭에 두고 修正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앞서 檢討한 報告文에서 나타난 바이지만 初版에서는 金九先生을 叛逆者로 몰았는데 第2 및 第3版에서는 이 部分을 完全히 削除하였다. 이러한 一律的이며 一貫性있는 修正傾向은 다른 경우에는 보기 어려운 일이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앞서 지적하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되풀이 하지 않는다.

셋째 蘇聯에 관계되는 部分은 우리의 特別한 흥미를 끄는 것 중의 하나이다. 가령 初版에서 「가장 信賴할만한 蘇聯人民」이라 하였던 것을 第2版과 第3版에서는 「偉大한 蘇聯人民」이라고 고쳤는데 이것은 얼핏 보기에 蘇聯에 대한 記述 部分을 修正할 때에 아무런 基準없이 행한 것처럼 느끼게 하지만 그러나 좀더 면밀히 分析한다면 앞서 指摘한 바와같이 蘇聯에 대해서 지나치게 誤解나 疑心을 살만한 修正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金日成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暗示해 준다. 왜냐하면 蘇聯에 대한 修正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이 동시에作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의 하나는 蘇聯에 대한 지나친 讚辭는 削除 또는 修正하되 그러한 修正이 誤解를 유발하지 않도록 다른 表現을 添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表現하면 修正上 일종의 均衡을 維持하고자 애썼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蘇聯에 대한 態度에 있어서 對等한 입장에 있는 나라라고 하는 점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蘇聯 人民에 대해서 表現하는 것도 벗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한 가지 점은 蘇聯에 대해서 金日成이 일종의 警戒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暗示해 주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다. 가령 初版에서는 「正義의 나라 蘇聯이라 표현하였던 것을 앞서 言及한 바와같이 제2판과 제3판에서는 完全히 削除하였다. 이러한 削除와 함께 생각할만한 또다른 削除는 前章에서 지적했던 바와같이 「蘇聯은 絶대로 他國을 侵略할 目的을 가지지 않았고 또한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表現한 部分을 第2版과 第3版에서 削除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에 蘇聯에 대한 金日成의 警戒心은 1960년에 이미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初版에서 실었던 구호 卽 「朝鮮人民의 벗이며 幫助者 스말린 大元帥 萬歲!」라는 구호를 第2版 및 第3版에서는 完全히 削除하였는데 이것은 스말린이 1953년에 이미 死亡하였다는 사실

과 그후 1956년 후르시초프에 의하여 格下運動이 展開되었다는 사실과도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다시 말하면 1960년 현재로서 볼 때 스탈린에 대한 이른바 格下運動의 물결이 北韓에도 影響을 미쳤기 때문에 이와같은 修正이 행해진 것이라 말할 수 있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削除는 金日成이 자기 자신의 위대함을 내세우고자 하는데에 스탈린의 그림자가 지나치게 크면 결코 利롭지 않다는 것을 계산했기 때문에 이와같은 削除를 행한 것이라 할 수도 있다. 即 金日成의 偶像化 運動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스탈린에 대한 지나친 칭찬은 결코 賢明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러한 修正이 第2版과 第3版에서 행해졌다고 解釈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VIII 結 論

지금까지의 설명을 통하여 金日成 選集이 修正된 과정에서는 여러가지 새로운 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발견한 몇가지 점을 요약함으로써 이 연구의 끝을 맺고자 한다.

전반적으로 말해서 初版의 문장은 몹시 거칠다. 제2版과 제3版에서는 그러한 문장상의 粗雜性을 수정하는데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동시에 제2版에서의 內容은 제3版의 內容과 거의 同一하다는 것도 알 수 있다. 특별히 제2版과 제3版이 그 內容上 다른 점이 있을 때에는 빠짐없이 지적하였다.

가령 토지개혁 법령을 발표하면서 행했던 연설중 제2版과 제3版에서 소련군 사령부에 관한 詞句가 삭제, 수정된 것과 같은 것은 빠짐없이 지적하였다. 이러한 지적을, 통하여 初版과 第2版에서는 단순히 문장상의 차이가 아니라 內容上的 相異點이 적지 않다는 것을 짐작하기에 어렵지 않을 것이다. 初版의 內容과 第2版의 內容을 比較해 보면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연설문이나 보고문이 거의 전면적으로 修正된 것도 적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지적하였다. 그 內容上的 相異點은 이미 本文에서 지적하였기 때문에 되풀이 할 필요가 없을 것이지만 初版에 없었던 內容이 第2版에서 많이 添加되었거나 또는 수정되었던 사실은 주목할만한 것이다. 여기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內容上的 수정이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 졌는가하는 점이다. 이것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점으로 요약될 것이다.

첫째 그 기준증의 하나는 北韓의 住民들을 相對로 하는 이른바 대내적인 고려라고 할 수 있다. 가령 土地改革法이 黨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 졌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든지 스탈린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稱頌하는 것을 削除한 것이라든지 또는 소련군의 역할을 될 수 있는대로 낮추어서 표현하려고한 사실들은 대내적인 정치적 考慮의 표현이라고 보아서 틀림없을 것이다. 이것은 黨을 中心으로한 政治的 決定에 北韓의 大衆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하고 또한 참여 또는 지지하도록 만들고자 하는 意圖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것은 새로운 權威體制 (authority system)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환경적 要請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對內的인 政治的 考慮는 다른 또 한가지의 修正 基準을 暗示해 주는 것이다. 그것은 곧 다음에 지적하는 基準이다.

둘째 金日成의 偶像化 (個人崇拜)를 위한 고려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基準이 作用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이미 本論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1930년대 초부터 무장 抗日鬪爭이 있었다는 것을 특별히 添加한 사실과 스탈린에 대한 口號를 削除한 사실 등에 있다. 이것은 日本帝國의 軍隊를 「만주와 조선에서」 소련군이 구축하였다는 것을 第2版과 第3版에서 削除하였던 사실과도 깊은 관계를 가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金日成은 이른바 抗日鬪爭의 「영웅적 지도자」로서 부각되고 그의 일생을 마치 抗日鬪爭으로서 始終되어 있는 것처럼 떠버리고 있는 현실을 볼 때에 이러한 우리의 分析은 客觀的으로 妥當性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셋째 對南宣傳이라는 基準이다. 이것은 金日成이 그의 演說文들을 修正하는 과정에서 金九先生에 관한 部分만은 一律적으로 削除하였다는 사실을 볼 때 發見할 수 있는 基準이다.

넷째 편집자의 말에 의하면 "이 선집에 수록된 매개저작은 모두 저자의 교열을 보았으며 저자에 의하여 어떤 부분들은 표현상 수정이 가하여졌고 개별적 저작들은 内容上으로도 약간의 보충 또는 수정이 가하여 졌다"고 한다.

이것은 金日成이 직접 자기의 演說文을 修正, 添加 또는 補充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이 말을 引用한 까닭은 金日成이 소련에 관한 部分을 직접 修正 또는 補充했을 때 아무런 생각이나 基準없이 했겠는가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即 한편에 있어서는 蘇聯의 역할을 낮추어 표현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소련군에 대한 칭찬을 添加하고 있다는 사실은 소련에 관한 金日成의 수정 態度에는 均衡을 유지하려는 觀念이 작용하고 있었음을 證明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섯째 理念的인 基準이다. 이것은 1947년 당시에 있어서 아직도 國家를 建設하고 있지 못한 時期에 金日成이 "自由國家"라는 말을 사용하였다가 그것을 "自主國家"로 修正한 사실에서 엿 볼 수 있는 基準이다. 國家 建設을 앞에 두고 있는 時期에 있어서 金日成이 行한 演說은 해방 직후의 분위기가 自由를 획득하고 있다는 것을 反映한 것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1960년 第2版을 刊行할때의 사정에서 보면 너무나 동떨어진 말이라고 생각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第2版에서는 "自主國家"라는 말로 바꾸어 놓으므로 自由主義的 理念을 추구하였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시도하였다고 評할 수 있다는 것이다. 「自主國家」라는 말은 自由主義的 理念을 가지고 자주성의 內容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며 一人獨裁的인 金日成 體制로서 그 內容을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자주라는 말은 理念的으로 볼 때에 無色한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섯째 이러한 無色한 用語를 사용함으로써 理念的인 面에 있어서의 誤解를 拂拭하는 동시에 자주성을 前面에 부각시킬려고 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측면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停止 過程 속에는 자주성을 강조한다는 것이 항상 軸점의 하나로 作用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는 다섯번째의 基準이었다고 하여도 좋을 것이다.

이상 要컨대 金日成의 選集이 修正되는 과정에는 대체로 여섯가지의 基準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基準에서 必要한 때에 따라 사실을 歪曲하기도 하고, 하지 않았던 말을 한 것처럼 꾸미기도 하고, 하였던 말을 안한 것처럼 修正하기도 하여 마치 金日成이 歷史上에 아무런 오류도 犯하지 않았던 超人間的인 存在처럼 만들고자 노력하였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金日成政治行態의 分析

研究執筆責任：李 聖 根

略 歷：延世大 政外科 卒

필리핀 國立大 大學院 卒

日本 東京大 大學院 卒
(社會學 博士)

明知大 副教授

第9代 國會議員

目 次

序 論	247
연구의 目的과 範圍	248
研究方法	248
I. 金日成의 性格과 政治行態	250
(1) 金日成의 性格形成過程에 있어서의 特徵	250
(2) 金日成의 性格과 政治行態	255
II. 視覺·聽覺的 媒体를 통한 大象操作과 金日成의 政治行態 ...	264
(1) 영화제작정책에 나타난 政治行態	265
(2) 聽覺的 象徴에 依한 大象操作實態에서 나타난 金日成의 政治行態	287
III. 言語的 象徴을 통한 大象操作	295
(1) 「獨立」과 「民主」란 象徴의 操作	296
(2) 「主體」와 「自主」란 言語的 象徴의 구사와 그 實體 ...	298
結 論	304

序 論

오늘날 우리가北韓社會를 理解하고 그 政治的本質을 把握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다음 세가지 要因에 대한 考慮를 前提로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즉 첫째로는北韓政治社會를 支配하고 있는 「이데오르기」와 体制의 役割이란 점이고, 둘째로는北韓社會의 歷史的 發展段階의 制約性이나 또는 國際的環境과 같은 客觀的인 要因의 作用이란 側面이며, 셋째로는 金日成獨裁体制의 犠牲을 形成하는 基本적 要因으로서의 金日成個人的 性格(Personality)의 影響들을 들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北韓社會를 診斷하고 來日의北韓社會의 向方을 診斷함으로써 國土統一政策의 자료로 삼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오늘날의北韓社會에서 차지하고 있는 金日成의 地位가 絶對的이라는 點과 또한北韓社會에 있어서는 公산주의 体制가 骨幹이 되고 있다는 點을 大前提로 하여 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고 또한 그와같은 前提下에 과연 金日成의 內面的條件으로서의 性格 그 자체가 公산주의체제라는 틀(frame)속에서 어떻게 國內外的 客觀的 條件을 受容하는데 影響을 주었으며, 그 結果 客觀的 條件에 대한 主體的條件의 反應으로서의 現實認識과 具體的 対応行動등이 어떠한 樣相으로 나타나게 되었든가의 政治的 行態의 類型을 찾아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研究의 目的과 範圍 >

이상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오늘날 金日成의 獨裁體制가 支配하고 있는 北韓社會를 理解하고 또한 장차 北韓社會의 進로를 진단하기 위하여서는 金日成의 政治行態 그 자체를 構造的으로 理解하는 것이 重要한 意味를 갖게 되는 것이며 그러한 點에서 本研究의 目的과 重要性이 있는 것이다. 本研究는 金日成의 政治行態를 分析하여 가는 過程에서 金日成의 性格이 그의 政治行態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으며 또는 客觀的인 國內의 條件들이 各各 어떻게 金日成의 政治行態에 作用하고 있는가의 相關的 關係性을 分明히 함으로써 그의 行態的 論理의 本質을 把握하려는 데 本研究의 焦點을 들 것이다.

< 研究의 方法 >

우선 第一章에서는 金日成의 成長過程을 中心으로 하여 그의 性格形成에 影響을 주었으리라 생각되는 要因을 발견하고, 그와 같은 환경적 요인들이 어떻게 그의 內面的 性格形成에 作用하였는가를 살펴보고, 그와 같은 性格上的 特徵이 具體的으로 그의 政治行態와는 어떻게 內面的으로 關連되는가를 心理的 方法에서 整理하여 보려 하였다. 特히 金日成의 入北 이후로 부터 그가 執權하면서 부터는 그의 內面的 條件 가운데 心理的 側面과 함께 「이데오르기」의 側面이 어떻게 배합되어 밖으로 부터의 客觀的 條件에 대한 認識을 가능케 하였는가를 살펴 볼 것이며, 또한 그와 같은 認識體系위에서

그의 對內的政治行態가 어떻게 規定지워져 갔는가를 黨內에 있어서의 主導權 確立過程과 對中共·對蘇關係와 같은 對共產圈關係設定 및 變遷過程에서 살펴보려 하였다.

이와같은 金日成의 一般的 政治行態의 特徵을 中心으로 하여 第2章과 3章에서는 具體적으로 金日成의 大衆操作(Mass Manipulation)의 手段과 方法을 各種 심볼(Symbol)의 조작이나 혹은 大衆情報媒体(Mass Communication Media)를 통한 조작을 통하여 整理하여 보았고 그와같은 大衆操作에서 나타난 金日成의 政治行態樣式이 相對적으로 北韓住民들의 意識을 어떻게 規定지우고 있는가를 살펴보려 하였다.

마지막 結論으로서는 全体論文의 要約과 더불어 北韓社會에 對한 展望 및 北韓社會에 對한 우리측의 對應자세에 對하여 言及하였다.

I. 金日成의 性格과 政治行態

공산국가에 있어서 一人獨裁의 形態와 個人崇拜熱은 歷史的으로 여러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스탈린”(Stalin)과 毛沢東의 個人崇拜政策은 뛰어난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北韓社會에 있어서의 金日成崇拜를 土臺로한 一人獨裁體制는 “스탈린”이나 毛沢東과는 特異한 極烈性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점에서 金日成자신의 性格的인 特性이 더욱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이며 金日成의 특이한 政治行態樣式야말로 金日成의 性格上의 구조적 특성과 分離하여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다.

(1) 金日成의 性格形成過程에 있어서의 特徵

人間の 性格形成에 있어서 유년기의 家族의 環境적 要因과 소년기에 있어서의 家族 및 一次的 所屬集團의 影響은 重大한 것이다.¹⁾ 그러한 意味에 있어서 金日成의 유년기와 소년기가 金日成의 性格形成에 미친 影響은 至大하다 할 것이며 또한 先天的인 家風이나 血統關係에 있어서의 要因도 重要視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세계로 金日成의 成長過程의 時代的背景, 社會的風潮, 그리고

註 1) Sidney Verba, Small Groups and Political Behavio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1, pp. 30-33; Eckstein and Apter ed, Comparative politics (N.Y: The Free Press), 1963, p. 487 등을 참고할것.

그의 個人的 經驗世界的 犠牲 등은 모두 그의 性格形成에 크게 영향을 주었으리라 생각되는 것이다.²⁾

우선 金日成이 출생하여 20세가 될때까지의 時代的 背景上 특징을 들어보면, 金日成은 1912年 4月 15日에 출생하였다하니 그가 20歲가 된것은 1932年이라 하겠고, 따라서 이 시기는 日本의 韓國併呑에 따른 韓國社會의 危機時代였고 그는 7세에 3.1운동 시기를 지냈으며 10세 전후하여 만주생활로 들어가 在滿교포사회에 접게되고, 14세때인 1926年 中國의 第1次 國共合作時期에 中國人中學에 다니기 시작하였으며 동시에 14세에 애비없는 자식의 되었고,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日本의 中國侵略이 다시 본격화 되는 1930年代를 거쳐 1930年代 후반에는 中共系 군벌에 휩싸여 20여세부터 일종의 방랑생활을 하였고, 특히 1940年代 전반은 멀리 낯설은 蘇聯領으로까지 流浪生活를 하였다는 등의 특징을 들 수 있다.

家庭의 背景에 있어서는 유년기에는 當時의 中産層 정도는 되었던 것으로 알려져있고 比較的 新文化에 접촉한 啓蒙된 父母 밑에서 成長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實質적으로 어려서 할아버지 밑에 있기도 하고 또한 일찍이 애비없는 입장이 되는 등으로 父母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을 가능성이 많다함이 또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³⁾

註 2) H.D.Lasswell, Power and Personality (N.Y.: Norton Co.), 1948. pp. 35-40 과 Zevedei Barbu, Democracy and Dictatorship: Their Psychology and Patterns of life (N.Y.: Grove Press), 1956. pp. 170-180 등을 對照하여 볼것.

3) 金日成의 成長過程에 관하여서는 韓載德, 金日成과 北傀의 實相 (서울: 공산권문제연구소), 1969. pp. 37-98; 金昌順, 歷史의 증인 (서울: 反共聯), 4289年: 이동준, 歷史의 증인 (서울: 내외문제연구소) 등을 참고할것

이와같이 김일성의 성장과정에서의 특징은 어려서부터 正常的 家族生活을 못하였고 正常的 教育過程을 밟지 못하였으며. 일찍이 부모를 잃었고, 武力이 난무하는 社會 環境속에서 일찍이 부터 무력과 飢餓에 휩쓸려 流浪生活을 하였고, 또한 일찍이부터 교포사회 一員으로서 少數民族의 生活를 체험하였다는 등이 특이한 成長과정의 背景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一次的으로 金日成의 性格形成에 있어서 以上에서 열거한 바와같은 그의 특이한 環境적 要因에 대한 心理的 対応 과정에서 그의 性格이 形成되었다는 大前提에서 다음과 같은 그의 性格的 특징들을 관련지워 풀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것이다.

첫째로 金日成은 過激한 性格의 所有者로 알려져 있다.⁴⁾

이와같은 金日成의 性格은 기본적으로는 先天的이라 보아야 옳을 것이다. 그와같은 性品上의 素質은 金의 叔父들 가운데에서 多血質的 性品の 所有者가 있었다는 것과 관련시켜 생각하여 볼때에 수궁이 잘 수 자는 天性이라 하겠으나 그와같은 性品上의 素地가 正常的 家庭教育이나 또는 正常的인 學校教育과 教養에 依하여 순화되고 制御될 機會가 없었을 뿐더러, 오히려 만주 軍벌에 편입되 어렸을적부터 流浪生活로 보냈다는 것은 그의 性品에 있어서의 先天的 過激性을 加一層 激情的인 것으로 자극시키는 要因이 되었

註 4) 韓載德 · op.cit., p.51을 참조.

을 것으로 看做되는 것이다.

둘째로 金日成의 好戰的性格과 無慈悲한 性格에 關하여 그 要因을 유추하여 본다면, 우선 好戰的性格은 過激한 性格에 憎惡心이 加하여 질때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金日成이 그와같은 好戰的 性格을 形成케한 要因으로서는 무엇보다도 그가 10代에 겪은 경험과 당시의 환경적 분위기에 기인하는바 크다고 볼 수 있다. 즉 金日成은 10代에 故國을 떠나 他國에서 異民族사이에 끼여 살게 되었고 따라서 少數民族이며 植民地民族으로서의 輕視를 당하였을 가능성이 많으며 따라서 그와같은 질시에 대한 憎惡心은 擴大되었음에 틀림없으며 또한 當時 時代的 環境으로 보아도 당시 만주지방은 危機意識과 함께 日帝에 대한 中國人社會의 갈등과 증오의 분위기가 팽배되어 있었음을 감안하여 볼때 감수성이 예민한 10代의 金日成은 二重的으로 憎惡感을 培養시킬 수 있는 條件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그와같은 好戰性은 후일 金日成이 공산주의 破壞思想에 접하면서 더욱 激烈한 好戰的 性格 형성의 기초가 되었을 것이다. 한편 그와같은 好戰的 性格은 無慈悲한 측면을 불가분하게 포함하게 마련이다. 즉 憎惡心이 過激한 激情으로 배출될때 健全한 情緒의 발로인 慈悲란 있을 수 없는 것으로서 사실상 好戰性과 無慈悲性은 表裏一體의 內面的 關係를 지니고 있게 마련인 것이다.

셋째로 金日成은 好戰的이고 過激한 性格이면서도 自己合理化에 철저하고 完結主義(Perfectionism)의 性格의 소유자로 看做되는 것이다. 즉 金日成은 모든 자신의 弱點들은 철저히 偽裝하는

자기 合理化에 철저하다. 다시 말하면,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偽裝이라기 보다는 英雄主義와 자신의 完結主義的 性品 때문에 自己中心的으로 도취되어 있는 性格의 소유자로도 보여진다. 따라서 每事에 細心하고 獨善的이며 일단 지나간 일에 대하여는 자신의 過誤를 認識치 못하거나 아니면 認識하더라도 未來指向的으로 그것을 철저히 合理化시킴으로써 스스로 肯定하고 넘어가는 듯한 측면을 소지하고 있다. 아마도 그와같은 스스로의 「카타리시스」에 의하여 精神衛生을 관리하는 결과를 빚고 있기 때문에 그의 過激한 性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血壓을 극복하고 精神的인 파탄을 극복하여 나아가는지도 모르겠다.

네째로 金日成은 目的의 달성을 위하여는 어떠한 手段과 方法이라도 合理化내지는 正當化될 수 있다는 극도의 目的合理論的 思考의 소지자로서 그와같은 性品の 形成 역시 그가 겪은 非正常的 幼年시기내지는 소년시기의 경험에 기인하는바 큰 것 같다. 즉 그는 過程에 있어서의 重要性和 意義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듯하며 주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구사하더라도 스스로의 目的을 達成시키는데에서 合理性을 느끼는 反民主的 性格의 소유자임을 또한 알 수 있다.

다섯째로 金日成은 극도의 心理的 「콤플렉스」에 의하여 歪曲된 意識의 소유자이다.

즉 그의 英雄主義的이고 完結主義的이며 目的合理論者인 동시에 好戰的이고 무자비한 性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기본적 이유의

하나는 그의 잠재 의식속에 있는 劣等意識의 투영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여섯째로 金日成의 性格은 目的추구에 집요한 性格이며, 따라서 持久心이 강하고 음흉하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好戰的이고 激情的이면서도 그 집요성과 完結主義로 因하여 相對的으로 강인한 持久力과 음흉성을 底辺에 內包하고 있음이 특징이라 할 수 있으며 이와같이 一見 相互矛盾되는 性格의 破行的 構造에서 오는 緊張感和 갈등의식을 자기 合理化와 獨善的 自我中心主義的 思惟에 의하여 「카타르시스」하여 나아가는 것으로 看做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 以下에서는 위에서 지적한 바와같은 假說的 性格診斷을 기초로 하여서 그것이 「이데오로기」란 틀속에서 구체적으로 客觀的 狀況속에서 어떻게 政治行態를 特徵지워 나아갔는가를 살펴 보기로 한다. 즉 그의 政治行態 속에서 그의 性格的 特徵이 再檢証될 수 있는 것이다.

(2) 金日成의 性格과 政治行態

첫째로 金日成이 過激한 性品の 소지자라는 것은 金日成을 側近에서 오랜기간 觀察할 수 있었던 韓載德氏의 証言이기는 하지만 具體的으로 그의 政治行態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明確하게 立証할 만한 자료는 없다. 그 理由는 金日成의 公式的 政治行態는 意識的으로 制御되고 있기 때문에 그의 一次所屬集團에서 관찰하거나 또는 그의 私文書와 같은 자료를 통하지 않고 確認키는 어렵

다. 즉 그는 對外的인 공식발언에 있어서는 언제나 各分論과 더불어 意識的으로 柔軟한 姿勢를 보이기 때문이다. 오직 그의 過激한 性品の 一端을 감지케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党内 集會발언에 있어서도 특히 高位幹部를 숙청하기 위하여 「種派分子」란 레벨을 부쳐 맹렬히 攻擊하는 모함연설에서 찾아 볼 수 있고 또한 그가 政治的 “제스추워”로서 憎惡의 象徴에 관하여 言及할 때의 激情的 발언형태 등에서 이다.

둘째로 金日成의 好戰的性格과 무자비한 性格에 관하여 그의 具體的 政治行態속에서 再檢証하여 보기로 한다. 대개 金日成의 好戰性은 對南政策과 북괴의 党内部 숙청정책에서 잘 반영되고 있다.

즉 對南政策에 關한限 과거 6.25南侵으로부터 시작하여 최근 8.15事件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무장공비와 간첩의 침투, 休戰線에서의 계속된 海上, 陸上 등지에서의 도발, 激烈하였던 心理戰 그리고 最近 수년 동안 再南侵을 위한 북괴의 全北韓社會의 武裝化, 요새화등 4大軍事路線, 遠戰速結論, 休戰線 땅굴등, 이미 周知되고 있는 明白한 사실들로서 金日成의 好戰을 如實히 證明하고 있다.

또한 金日成은 獨裁權 確立을 위한 手段으로서 南勞黨系列의 숙청 延安派의 숙청, 蘇聯派의 숙청, 심지어는 직계의 甲山派의 숙청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숙청의 선풍을 계속 일으켜 오는 가운데 그의 好戰性과 무자비성을 如實히 찾아 볼 수 있다.

이와같이 어제까지의 同志를 面前에서 공격을 피부어 숙청하여 버리는 잔인성은, 무장간첩을 남파하여 북한 젊은이를 死地로 몰아

넣고 있는 잔인성 정도는 輕微한 것으로 보이게끔하는 冷血的性格을 立証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好戰性和 자인성은 그의 憎惡心에 찬 心理的要因이 「마르크스주의」의 「階級革命論」에 의하여 公高화되고 合理化되었다. 즉 그와같은 사실은 憎惡의 名分으로서 계급적 갈등이론을 내세워 合理化시키고 있는 것으로서, 興味있는 사실은 그와같은 憎惡感을 党内部에서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反革命이니, 敵對계급의 思想的 소유자니 또는 적대 계급에 봉사한다느니 등으로 계급적 모순에 立脚한 憎惡心으로 各分化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같은 金日成의 憎惡의 心理와 哲學은 그가 말한대로 「기독교에서는 왼뺨을 치거든 오른뺨을 돌려대라고 가르치지만 우리는 오히려 오른뺨을 마르면 맞은것에 두배는 때리겠다」는 발언에서 如實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즉 이와같은 金日成의 憎惡의 哲學이 그의 過激性和 複合적으로 結付될때 好戰性和 무자비성의 성격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며, 그와같은 心理現象이 政治行態로 나타날 때에는 늘 그 憎惡의 對象이 누가 되었던간에 계급간의 矛盾關係에서 오는 계급적 憎惡心인 것으로 合理化乃至는 正当化시키고 있는 것이 특징인 것이다.

세째로, 金日成의 自己合理化에 철저한 「카타르시스」(Katharsis)型 性格과 完結主義者(Perfectionist)의 性格은 다음과 같은 그의 行態에서 찾아 볼수 있는 것이다. 그 例로서 우선 金日成은 党幹部들의 「思想革命」을 機會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있으며 「革命精神」의 철저화는 自己批判의 철저화를 통하여서만

가능함을 강조하고 있다. 소위 “形式主義”, “官僚主義”, “種派主義”, “家族主義” 등을 배격할 것을 反復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金日成자신을 한번도 자기비판어할 것을 하여 본적이 없다. 더구나 金日成이야말로 家族主義와 種派主義者의 標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자신은 결코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자부하고 있고 더구나 金日成은 모든 政治行為에 있어서의 過誤를 犯할때마다 그 責任을 자신의 過誤에서 찾기보다는 주위의 人物에게서 찾으려 하였던 것이며, 모든 상황을 항상 我田引水 絡으로 풀이하고 主張하고 있는 것은 정신적 緊張의 「카타르시스」에 철저한, 자기合理化와 自我中心的 발상의 性格소유자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金日成은 그 스스로 告白하고 있드시 영화 한편을 보고도 자신의 판단에서 어긋나는 것이 있으면 당장 영화제작자들에게 電話로 指示한다는⁵⁾ 完結主義的 思考方式의 소유자이다.

예를 들어 金日成은 그의 숙청수법에 있어서도 完結主義에 立脚하여 단행하고 있음을 본다. 즉 政敵이나 그 可能性 보지 자에 이르기까지 그의 미리 미리 広範圍하게 뿌리채 除去하여 버리는 大量的 숙청수법은 完結主義의 延長線위에서 理解될 수 있는 것이며⁶⁾, 또한 그의 狂信的 個人偶像化政策의 徹底化라던지, 對南간접침략의 집요한 長期化등은 모두 이같은 金日成의 完結主義와 相通한다.

註 5) *Infra*, Chapter II, p.19.

6) 韓載德, *op.cit.*, pp.77 ~ 88.

특히 그와같은 Perfectionist로서의 金日成의 性格은 그의 原稿 집필태도에서도 찾아 볼수 있다. 즉 그는 原稿의 作成方法이 修正과 修正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와같은 집필 형태를 통하여 우리는 金의 Perfectionist로서의 性格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이와같은 Perfectionist로서의 性格이 金의 行態에서 每事에 있어서의 치밀성과 적극성 및 철저주의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며, 또한 그와같은 측면이 바로 感情的 激情을 제어시키고 있는 중요한 要因이 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같은 完結主義는 計劃執行의 신중성을 同時에 要求하게 되는 것이며 따라서 그와같은 신중성은 對內外政策樹立形態에서 찾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北京路線으로 기울었던 1963-5년 時期의 金日成이나 最近의 金日成이 사실상 日本共産黨과 원만히 관계를 유지하는 어렵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중하게 다루고 있다던지, A. A地域外交와 對外 宣傳·선동활동을 마약 밀수등 수단과 方法에 구애됨이 없이 집요하게 展開시키고 있다는 點 및 對南侵略을 여러가지 형태로 지속시켜 나아가면서 再武力南侵의 기회포착을 기다리고 있다던지의 政治行態는 곧 그와같은 金日成의 完結主義者로서의 眞面目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와같은 各分野에 걸쳐서의 Perfectionist로서의 각가지 번민이 「카타르시스」되어 精神的 緊張感이 精神狀況의 全面的 分裂로는 발전되지 않는 것이라 생각 되는 것이다.

네째로 目的을 達成시키기 위하여는 작가지 手段과 方法을 가리지 않는 것은 모든 공산주의자들에 공통된 현상이나 특히 金日成의 경우 그와 같은 行態는 비단 공산주의 「이데오르기」에 立脚한 戰略이나 戰術的인 次元에서의 그것과는 또 다른 만주 流浪이란 靑少年時節의 經驗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그와같은 社会底辺에서 배회하는 과정에 형성된 야비한 性格이 공산주의에 접함으로써 그 나름대로의 名分 밑에 더욱 加熱化되었던 것으로 理解된다.

이와같이 利己的 目的을 달성시키기 위하여서는 모든 것을 道具化할 수 있는 야비한 性格의 소유자가 바로 金日成이라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諸 역사적 사실들을 통하여 검증될 수 있는 것이다.

그 例는 허다하게 많이 있으나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김일성이 과연 目的을 달성키 위하여 어떠한 政治行態를 보여 주었는가에 관하여 잠시 言及하기로 한다.

첫째로 金日成은 그의 執權을 合理化하고 그의 独裁体制에 대한 正統性을 부여하기 위하여 우리의 民族史 자체를 날조하고 歪曲시키는 行爲를 犯함으로서 民族史 자체를 자신의 独裁權力을 위한 道具로 삼었다는 사실이다. 즉 소위 金日成의 「抗日鬪争歷史」를 마치도 歷史的 事實인양 날조하였을 뿐 아니라 韓民族의 近·現代史가 金日成個人的 歷史와 同一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점에서 그의 行態的 特徵을 찾아 볼수 있는 것이다.

둘째로는 그가 북한에 들어가서 집권할때까지의 過程에서 나타난 行態的 特徵으로서 소위 그의 “統一戰線戰略”이란 기만적 술법

에 의한 權力体制의 確立過程을 들 수 있다. 즉 金日成은 그가 北韓全域에 대한 統治權을 確立하기 위하여 北韓赤化를 극구 은폐하고, 虛偽 공약을 남발하고, 순수한 북한 주민들의 민족주의적 감정과 願望을 自身の 政治道具化하여 유린하였던 것이다.

예를 들어 金日成은 “統一戰線”이란 「국내의 정치·경제생활을 빨리 정돈하여 우리나라를 통일된 민주주의적 통일국가로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것」⁷⁾이라 선전함으로써 「統一戰線」이란 것이 공산화와 金日成의 權力爭取가 目的임을 은폐하고 북한주민들의 민주주의에의 열망, 통일에의 念願, 경제질서의 안정에 대한 열망등에 편승하여 그와같은 북한주민들의 열망을 하나의 道具로 利用한 것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그뿐 아니라 김일성은 1946年 3月 23日 소위 20개 정강이란 公約을 내걸고 「언론·출판·집회·신앙의 자유를 보장한다」, 국민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주택의 신성불가침과 국민들의 재산 및 개인의 소유물을 모두 법적으로 보장한다. 개인의 수공업과 상업의 자유를 허락할 뿐 아니라 장려할 것이라는 등⁸⁾ 마치도 자유의 사회를 건설하고 민주주의제도를 채택할 것처럼 公約을 내걸고는, 사실상 金日成 독재체제를 위한 手段으로 사용하고 말았던 것이다. 한편 當時 金日成은 북한주민들을 기만하기 위하여 남한에는 「언론·출판·집회·결사·신앙 등의 초보적 자유도 없다」느니 또는 南韓에서는 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조국의 독립을

註 7) 「김일성저작선집」 1권 (평양), 1967, pp.8 ~ 9

8) Ibid., p.32.

주장만 하여도 투옥되고 고문을 당한다느니⁹⁾ 각가지 虛偽宣傳을 거리낌없이 늘어 놓았던 것이다. 이와같이 金日成은 공산화와 독재권의 장악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각가지 虛偽宣傳, 謀略, 살인등을 감행하였던 것이다. 또한 김일성이 그의 독재권력장악이란 목적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피의 숙청을 감행하였으며 더덕우나 그의 韓半島全域을 공산화시킬 목적으로 동족간에 얼마나 많은 동포들을 戰爭의 희생물로 삼았는가는 너무나도 金日成의 비열하고 不道德한 性格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로 金日成의 劣等意識이 政治行態에 어떻게 투영되었는가를 보자. 즉 金日成의 少年時期에 있어서의 평탄치 못하였던 生活過程은 그에게 少数民族으로서의 劣等意識과 教育的背景의 취약성에서 오는 열등의식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와같은 열등의식의 表裏의 關係로서 오히려 英雄主義的, 誇張된 優越意識이 表面에 부각되기도 하고 때로는 持久的인 緩曲한 形態로 劣等意識에 기초한 憎惡心을 무자비한 보복의 형태로 表出키도 하는 것이다. 사실상 金日成의 숙청사의 이면에 있어서의 心理的 構造나 對中·蘇關係에 있어서의 心理的 構造나 對南侵略의 好戰性과 獨裁主義的 人體制 強要等에 흐르고 있는 心理的 構造는 곧 Inferior Complex의 歪曲된 表現 乃至는 그 反動的 心理現象으로서의 意味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註 9) Ibid., p.72.

끝으로 金日成의 性格 가운데 陰性的이고 持久的인 집요성을 內包하고 있는 것과, 그와 같은 집요성의 底辺에 흐르고 있는 음흉한 강인성등은 그의 政治行態에 있어서 一貫的으로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란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강인한 持久性과 집요성은 그의 少年時期와 青年時期에 있어서 特異한 非正常的 生活環境속에서 蓄積된 性格의 一部라 할 수 있다. 즉 그와 같은 그의 性格上的 特徵은 그가 蘇聯의 괴뢰적 역할로부터 점차 자기의 주위에 숙청의 선풍을 일으키며 단계적으로 獨裁權을 確立하여 나아가는 過程이라던지 完結主義와 결부되어 스스로 完全하다고 認識될때까지 계속 집요하게 목표에 접근을 試圖하면서도 決定的 段階의 到來까지 강인한 忍耐力을 보여 주는 것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열거한 바와 같은 諸特徵은 주로 金日成이 그의 性格形成過程中에 이미 굳혀 놓은 측면으로서 사실상 金日成의 지난 30年間に 걸친 政治行態는 결국 그와 같은 性格이란 內面的土台위에 「이데오르기」란 틀이 加味되고 그 속에서 어떻게 國內外問題들을 受容하고 対応하여 나아갔는가를 말하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그와 같은 金日成의 政治行態를 주로 大衆操作이란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서 과연 성격과 「이데오르기」 그리고 國內外客觀的 情勢라는 세가지 變數가 어떠한 형태로 相互作用하며 하나의 行態的 特徵을 이룩하였는가를 재검토하여 보고자 하는 바이다.

II. 視覺 聽覺的 媒體를 통한 大衆操作

(Mass Manipulation)과 金日成의 政治行態

공산독재 체제의 성립에 있어서 第一義的인 重要性을 갖는 것은 權力의 基盤으로서의 「黨」의 성립을 들수 있으며 또한 이와같은 權力 基盤으로서의 「黨」은 組織을 前提로 하여서만 成立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와같은 黨組織에 있어서 不可欠의 要素가 宣傳(Propaganda)과 선동(Agitation)에 의한 組織員吸收活動인 것이다. 따라서 金日成이 그의 一人獨裁體制를 강화하여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특히 黨의 組織과 宣傳에 力點을 두고 말하기를 「조직부와 선전부는 배합작전을 잘하여야 합니다. 비유하여 말하면 조직부는 의사이고 선전부는 약제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의사와 약사가 배합작전을 잘하여야 합니다. 사람의 병을 고치려면 그 병에 대한 진단을 바로 할 줄 알아야 하며 그와함께 약을 잘 써야 하는 것입니다.」¹⁾라고 주장한 것은 바로 그와같은 자신의 權力기반을 공고히 하고져 하는데 焦點이 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의 선전과 선동은 결코 黨組織문제만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黨存在를 위한 大衆的 基초를 공고히 하고 擴大하기 위하여도 重要하게 動員되는 것이다.

註1) 「당 사업에서 형식주의와 관료주의를 없애며 일군들을 革命化 할데 대하여」 「金日成思想理論과 批判」(서울. 極東問題研究所) 1974, p.132로 부터 인용.

이와같은 현상은 북한공산주의집단에서도 如實히 나타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서 특히 注目하여야만 할 것은 북한의 경우 과거 스탈린治下의 蘇聯에서 보다는 더욱 철저하게 金日成個人崇拜을 위한 선전·선동 활동이 압도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며, 그와같은 金日成個人偶像化를 위하여 各種大衆媒体가 어떻게 動員·操作되고 있는가에서 우리는 金日成의 政治行態의 일단을 찾아 볼수 있는 것이다. 특히 金日成이 스스로 告白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영화를 하나 보고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밤중에라도 인차 그 부문 일군들에게 전화를 겁니다.」²⁾란 말은 얼마나 金日成이 선전·선동을 위한 大衆媒体로서의 영화에 신경을 쓰고 있는가를 示唆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럼 이하에서는 大衆情報媒体(Mass Communication Media)들 가운데, 특히 영화 부문으로 부터 金日成의 政治行態가 어떠한 類型(Pattern)으로 展開되어 왔는가를 살펴 보기로 한다.

(1) 영화제작정책에 나타난 政治行態

김일성은 해방후 入北하여 얼마 안된 1947년에 「로동당」 중앙위원회상임위원회 43차 회의의 결정이란 이름으로 소위 「국립 영화촬영소」의 설치를 꾀하고, 영화를 통하여 당시 金日成에 대한 평양市民들의 違和感과 敵對意識을 무마하고, 자신의 權力탈취를 합

註 2) Ibid., p.133.

理化하며 나아가서는 南侵準備를 위한 노동에 북한주민들을 동원하도록 「선전·선동」을 획책하였다.

예를 들어, 당시 제작된 <내고향>은 주로 二次大戰以前부터 마치고 金日成이 우리나라 獨立운동을 이끌고 온 巨擘인양 묘사하기 위하여 反日帝 鬪爭을 中心으로 영화화함으로써 金日成의 權力탈취를 民族史的으로 正當한 것으로 粉裝시키려 企圖하였던 것이며, 또한 당시 제작한 <민주선거>도 마찬가지로 공산당의 權力탈취를 合理化시키고 正當化시키려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또한 당시 제작된 <용광토>나 <우리의 전설> 등의 영화 제작물은 모두 북한주민들의 반발을 무마시키고 南侵을 위한 준비노동에 동원키 한 것이었다.³⁾

그후 1950年 6月 25日, 金日成은 南韓에 대한 武力侵略을 개시한 만일 년후인 1951年 6月 30日 관계분야의 要員들을 불러 놓고 다음과 같이 지령하였던 것이다.

「오늘 조선인민이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성스러운 해방전쟁을 진행하고 있는 이때 우리 작가·예술가들에게는 매우 중대한 임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작가·예술가들은 인간정신의 기사로서 자기의 작품에

註 3) 「조선영화」 5호 (평양,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1965.
동시기에 제작된 것으로는 그외에도 <人民委員會> <8.15>
<南北連席會議> 등이 있다.
「北韓全書」 中卷, (서울·極東問題研究所), 1974, p. 282.

우리인민의 崇高한 愛國心과 堅決한 투지와 中國적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뚜렷이 표현하여야 하며 자기들의 작품이 싸우는 우리인민의 강력한 무기로 되게 하며 그들을 최후의 승리로 고무하는 거대한 힘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⁴⁾

즉 김일성은 그가 저지른 同族에 대한 侵略戰爭을 「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성스러운 해방전쟁」이라 위장하는 동시에 영화작품제작은 「싸우는 인민의 강력한 무기로 되게 하며 …… 승리로 고무하는 거대한 힘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지령하는 것이었다.

이같이 김일성은 同族을 流血戰爭으로 誘因하기 위하여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要件을 영화의 주축으로 삼으라 지령하였다.

첫째, 북한주민들의 애국심에 호소할 것. 둘째, 南侵에 동원된 북괴군을 「英雄」으로 묘사하여 心理적으로 誘因할 것 등을 강조하고 그러기 위하여는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전쟁은 정의의 전쟁이며 조국의 자유독립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전쟁이라는 것을 높은 예술적 경지에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령하였던 것이다.⁵⁾ 이뿐 아니라 김일성은 구체적으로 「작품을 통하여 적에 대한 불붙는 증오심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어서 「여기에서 적을 어떻게 묘사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은 교활할 뿐 아니라 가장 포악하고 가장

註 4) 「우리 문학예술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金日成思想理論과 批判」, op.cit., 181.

5) Ibid., p. 182.

추악한 현대의 야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 (略) …우리는 미국놈들의 죄악을 전세계인민들앞에 철저히 暴露 하여야 하며 그들에 대한 적개심으로 우리 인민을 교양하여야 하겠다…… (略) …미제국주의자들의 만행과 함께 이승만매국역도의 추악한 면모도 폭로하여야 한다.」는 등 세부지침을 지령함으로서 북한 주민을 기만하고 북한주민의 순수한 향토애와 민족적 감정을 誤導함으로서 赤化를… 위한 武力南侵戰爭과 反民族的 行爲를 음폐하려 하였다. 사실상 공산주의자들은 민족주의를 적대시하고 있는 것이며 김일성 자신 그것을 자백하고 있다. 즉 김일성은 1968年 함경북도에서 행한 연설에서도 「우리가 주체사상을 내세우는 것은 결코 민족주의로 나가자는 것이 아닙니다」고 말한 바 있다⁶⁾

또한 당시에만 하더라도 김일성은 새로운 지침 지령을 내리면서 강조하기를 「우리 문학·예술에는 세계평화의 성새로서의 蘇聯, 우리 인민의 영원한 벗으로서의 蘇聯인민이 충분히 묘사되지 못하였으며……중국인민지원군이 잘 묘사되지 못하였다.」⁷⁾ 고 비난함으로써 자신의 傀儡的 性格과 事大主義的 경향을 노골적으로 나타내고 있었다. 그뿐 아니라 1960年代 前半期中·蘇對立에서 당시 中共으로 기울고 있던 김일성이 「로동신문」사설을 통하여 蘇聯은 北韓의 金을 국제가격보다 훨씬 싸게 뺏어갔다고 고백하였으면서도 6.25侵略 當時 蘇聯을 「우리 인민의 영원한 벗」이라 주장한

註 6) Ibid., pp.183-184

7) 「우리당의 인테리정책을 정확히 관찰할데. 대하여」 Ibid., p.172.

것은 곧 김일성의 허위선전의 본질을 잘 말하여 주는 것이었다⁸⁾

이같은 허위에찬 김일성의 反民族的 戰爭에 북한주민을 동원하기 위하여 내린 지령에 따라 <또 다시 전선으로>, <빨지산 처녀> <정찰병>, <정의의 전쟁>, <조국통일을 위하여> 등의 영화들이 제작되었던 것이다.

한편 休戰이 成立되자 金日成은 우선 自招한 經濟的파탄을 복구하기 위하여 東奔西走하였다. 즉 1954년에서 1956년까지 계속된 3個年經濟計劃이 바로 그것으로서 生産은 1948年度 수준까지의 복구를 목표로한 것이었다. 김일성은 1953년 9월에 약 한 달간이나 「모스크바」에 머물면서 蘇聯의 경제원조를 간청하였고, 동구권 몇나라에서 약간씩, 그리고 중공으로 11월에 들러 약 보름간 있으면서 원조를 요청하였으며 그것으로 産業의 복구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경제복구에는 자본 뿐만아니라 우수한 노동력도 필요하였으나 動亂中 北韓 주민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南韓으로 피난을 오게 되자 노동력에서도 타격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김일성은 남은 주민들의 노동력을 최대한도로 착취하기 위하여 만든 영화들이 <여성영웅광부>, <진실한 사람들>과 같은 것들이었다. 또한 당시 農村에 있어서의 農業協同化를 강력히 추구하고 있었던 것으로서, 그같은 協同化 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註 8) 北韓經濟가 蘇聯經濟에 예속되어 있었음은 복귀가 스스로 認定하고 있었다.

Cf. 「로동신문」 1964.9.7. 社說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빨간뎡기>, <수정골 사람들> 과 같은 내용의 영화를 제작하였다.⁹⁾

3개년 경제계획이후 곧 1956년부터 5개년 경제계획을 추진하였는 바, 이 時期에 제작된 영화들을 보면 극영화로서 <미래를 사랑하라>, <해국자>, <벗들이여 우리와 함께 가자>, <영광스러운 항일투쟁>, <한부녀회원의 이야기>, <다시는 그렇게 살수없다>, <어랑천>, <전우>, <끝나지 않는 전투>, <정각 9시> 등이 있고 기록영화로는 <김일성원수항일유격전적지>, <강철>, <오늘의 조선> <일떠서는 평양>, <금강산>, <쇠물은 흐른다> 등이 있으며, 과학 영화로는 <양잠·동해를 찾아서>, <양계> 등이 있다.¹⁰⁾

이 時期 김일성의 大衆操作을 위한 영화媒體의 구사수법을 그 内容的 구조에 따라 大分하여 보면, 첫째 1930年代에 걸친 만주에서의 독립운동을 마치도 金日成의 전유물인 양 날조 선전하는 内容이 하나의 「카테고리」를 형성하고 있고, 두번째로는 金日成이 도발한 戰爭의 責任을 회피하고 戰爭을 正当化시키기 위한 작품과 自招한 北韓의 패허화에서 오는 북한주민의 反金日成意識을 회유하기 위한 내용, 그리고 향토애에 기초한 애국심을 이용하여 김일성의 권력체제를 다지려는 것, 끝으로 增産을 위한 농어민 기술보급과 思想改造를 위한 内容등으로 정리된다.

註 9) 「조선영화」, op.cit..

10) Ibid.

예를 들어 1956년에 제작한 <다시는 그렇게 살수없다>는 노골적으로 그들의 侵略戰爭을 合理化시키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再侵略하여야 한다는 일종의 使命感을 고취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김일성원수항일유격전적지>는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民族獨立運動史를 歪曲, 날조함으로써 金日成의 民族史的 正統性을 조작·선전하는 것이었고, <과학영화>란 곧 增産을 위한 기술교육용이며, 기록영화는 모두 体制合理化 및 金日成 獨체체제를 위한 住民의 意識기반 조성을 위하여 제작된 것들이었다.

그러나 1950年代에는 전반적으로 보아서 1960年代와 같이 영화·연극등을 통한 大衆意識操作이 大規模化되고 組織化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그 성격에 있어서도 50年代 後半期에 있어서의 기조는 反体制的 意識을 무마하고 김일성의 지위를 구축하여 나아간다고 하는 受勢的 경향이 많았다. 그러나 1960年代에 들어와서 부터, 양상이 바뀌기 시작하였고, 특히 1960年代 後半부터 1970年代에 들어와서는 對南赤化武力侵略이란 目標가 뚜렷하여지고, 규모도 조직화 및 大型化되는 것이다.

1960年代에 金日成의 政治行態에 영향을 크게 미치었으리라 想定되는 客觀的 要因들을 살펴 본다면 대략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라 하겠다. 즉 첫째는 1960年 봄으로부터 시작된 韓國에 있어서의 4.19를 前後로한 政治的 混亂을 지적할 수 있고, 둘째로는 1961年의 5.16革命의 成立, 셋째로는 北傀의 7個年 經濟計劃의 失敗, 넷째로는 中·蘇의 對立이 理念對決부터 武力對決에로의 硬化

및 1965년의 韓·日 國交正常化 등을 일차적으로 들 수 있다.

이같은 直接的인 客觀情勢와 함께 間接적으로는 1962년의 큐바 事態, 1965년의 월남전의 擴大, 1965年 第二次 AA 國家들의 알제리아會議流産, 1965년의 인도네시아에 있어서의 9.30 事件의 발발, 등을 들 수 있겠다. 이와 같은 諸般事態의 進展이 사실상, 北傀로 하여금 1961年 7月 6日 蘇聯과의 군사동맹조약체결, 同年 7月 11日에는 中共과의 군사동맹체결, 그리고 對內的으로는 천리마운동, 「自力更生」 「主休思想」 등의 「슬로건」과 같은 對應策으로 나타났으나, 그와같은 對應姿勢는 영화제작에 있어서도 例外는 아니었다. 즉 김일성은 1960年 1月 27日 영화제작에 관련된 要員들을 상대로 하여 「천리마시대에 맞는 문학예술을 창조하라」는 지령을 내렸던 것이다.¹¹⁾

이 지령 가운데 김일성은 「영화는 대중교양의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영화는 낮은 수준에 있다. 우리의 영웅적 노동계급을 그린것도 없고 우리의 농민을 그린것도 볼만한 것이 없다」고 비판하면서 「지금 천리마 작업반만 하여도 850여개나 되며 모범농업협동조합만 하여도 1,000여개에 이르고 있다. 천리마기수들은 모두다 우리 시대의 훌륭한 영웅들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천리마운동의 영웅들」을 묘사함으로써 근로대중을 선동하도록 지령하였다.¹²⁾

註 11) 「金日成思想理論과 批判」, op.cit., pp.189-199.

12) Ibid.

또한 김일성은 그와같은 선동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시사하였다. 「영화에는 생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사상이 강조되어야 하며, 위대한 생활은 어떠한 류의 탁월한 사람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역사적 사명을 자각한 수백만 근로자들의 투쟁에 의해서 창조된다는 마르크스레닌주의적 관심이 명백히 나타나야 된다. 이러한 영화의 주인공은 쾌활하고 낙천적이며 난관앞에 굴할 줄 모르며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가 매우 강한 전형적인 새 인간으로 그려져야 한다」¹³⁾고 지령을 내렸다. 즉 이와같은 김일성의 「천리마 시대에 상응한 문학예술을 창조하라」는 지령은 곧 북괴의 7개년제획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서 김일성의 지시대로 북괴는 대량의 「천리마운동의 영웅상」을 날조하기 시작하여 영화화를 서둘렀다.

그결과 나온 것들이 「옥림」을 주인공으로한 「정방공」, 선자를 주인공으로한 「붉은 선동원」, 「영도」를 주인공으로한 <인민교원> 「순옥」을 주인공으로한 <독로강변에 핀꽃>, 「명순」을 주인공으로한 <처녀중대장>, 「홍기」를 주인공으로한 「뜨거운 심정」, 「명숙」을 주인공으로한 <새세대>, 「금실」을 주인공으로한 <끝없어라 나의 희망> 등이고, 그외에 <갈매기호 청년들>, <백일홍> <애착> 등이었다. 그외에도 1930年代 만주에서의 독립운동을 배경으로 김일성의 업적을 날조 선전하기 위한 영화는 계속 제작

註 13) 「조선영화」, op.cit., 1965년 8호

되었다. 예를 들어 이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는 <공청원의 노래> <밝은 태양 아래서> 등을 들 수 있고, 또한 계급의식을 강조한 것과 북파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영화로서는 <붉은꽃>, <대지의 아들>, <3부작>, <조국으로 돌아오라>, <공화국 기치만세> (12부) <분계선 마을에서> 등이 제작되었던 것이다.¹⁴⁾

이와 같은 북한에 있어서의 영화는 바로 김일성의 정치적 목적만을 위하여 제작된다는 사실은 어느 북파 영화제작요원의 다음과 같은 평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그는 「이시기 우리의 예술 영화 창작에서 획기적인 전변이 일어난 것은 전적으로 수상동지의 1960年 11月 27日 교시와 배여 놓고서는 생각할 수 없다」고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¹⁵⁾

사실상 1960年代 前半期에 있어서의 영화제작의 기초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50年代와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즉 思想改造에 있어서 否定的 批判보다는 金日成이 요구하고 있는 方向으로 「모델」을 提示하여 강제로 물고 가려는 積極的 方向으로 制作態度를 轉換시키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즉 그것은 1950年代를 거쳐서 일단 金日成의 独裁体制를 유지하기 위한 大衆的 意識 기반의 기초가 다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곧 金日成에 대한 밑으로부터의 저항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와같은 기초위에 강력히 金日成의 独裁權

註 14) Ibid.

15) Ibid., p.4.

力의 行使를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적극적 大衆의식조작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고도 풀이할 수 있겠다. 그 반면에 그와같은 主体的 條件의 變化与否와는 關係없이, 당시 1960年代의 狀況이 그와같은 적극적 大衆媒介體를 통한 意識조작이 要求되고 있다는 金日成의 判斷이 강력히 작용하였다고도 풀이되는 것이다. 그와 관련하여 1960年 11月 金日成의 연설 가운데 「지금 우리당은 軍중을 교양개조하는데 커다란 힘을 들이고 있다. 軍중을 교양개조하는데는 학교교육만으로도 안되며 선전·선동만으로도 안된다. 대중교양의 훌륭한 수단들인 소설·시·연극·영화·음악 등 모든 형태의 문학예술을 다동원하여야만 軍중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¹⁶⁾ 고 언급한 부분이 중요한 意味는 갖는 것으로 看做된다.

그러나 1965年부터 北傀의 영화제작 자세에는 또 다시 변화가 일기 시작하면서, 그 규모는 급격히 방대하여지고 그 內容이 變化를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물론 그와같은 변화의 기본요인을 형성하여 놓은 것은 金日成이었다.

즉 金日成은 1964年 11月 7日 관계요원들을 모아놓고 「革命的 문학예술을 창작할데 대하여」란 새로운 지령을 내렸던 것이다.

金日成은 주장하기를 「우리 문학예술분야에는 적지 않은 성과가 있는 반면에 한가지 중요한 결함이 있다. 그것은 문예작품에서

註 16) 「金日成思想理論과 批判」, op.cit., p.195

남반부 인민들의 생활과 투쟁을 매우 적게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당은 남반부의 2,000만 동포들을 해방하는 것이 남반부 인민들 자신의 일일뿐 아니라 북반부 인민들의 혁명임무라는 것을 강조하여 왔다. 남반부 인민들을 미제국주의자들의 억압에서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서는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가 말한 바와 같이 세 가지 방면에서 우리가 사업을 잘해야 한다」고 하였다.¹⁷⁾

이와같이 김일성의 「對南革命·統一」을 위한 영화제작명령이 내려지자, 그 즉각적 反應으로서 「김수암」은 「혁명적 대작 창작과 영화예술」이란 제목으로 글을 발표하고, 그 가운데에서 다음과 같이 김일성의 주장을 받아드리고 있는 것이다. 「시대와 혁명이

구하는 혁명적 영화란 한마디로 말하여 대중을 혁명투사로 교양 육성함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작품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1930年代의 항일무장투쟁, 지난 조국해방전쟁, 그리고 남반부 인민들의 반미 구국투쟁 등은 혁명적 주제의 探求에서 일차적으로 종목을 돌려야 할 분야이다」라고 들고 나왔던 것이다.¹⁸⁾

그리고 이에 보조를 같이하여 새로운 內容과 수법이 동원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제작된 것들을 들어 보면, <성장의 길에서> (1, 2부), <그들은 이렇게 싸웠다> (1, 2부), <한 지대장의 이야기> (전후편), <폭풍시절> (1, 2부), <철길위에서>

註 17) Ibid., p.200.

18) 「조선영화」, pp.pp.cit., 1965. 2호, p.2

〈최학신의 일가〉, 〈전·후편〉, 〈영원히 이길에서〉, 〈한 세포위 원장의 이야기〉, 〈여대원〉, 〈학수리 사람들〉, 〈어느 한 농장에서〉 〈두번째 상봉〉, 〈적구도시에서〉 등의 극영화와 기록영화서의 〈폐허위에서 일어난 조선〉이란 복귀 찬양을 내용으로 한 선전기록영화 및 〈광장의 땅 남조선〉과 같은 북한주민들을 전쟁으로 동원키 위한 세뇌기록영화등이 었고, 그외에도 7개년 경제계획의 좌절에 당황한 북괴는 「천리마의 영웅」들을 계속 상영함으로써 북한주민의 노동을 강요하는 동시에 소위 과학영화라 하여 〈산과 강을 잘 다스리자〉 〈연유절약〉 〈집을 알뜰히 거두자〉 〈버릴 것은 하나도 없다〉 등 영화물을 제작하여 가득이나 限界的 生活에 허덕이고 있는 北韓住民들의 生活을 더욱 압박하기 위한 세뇌를 전개하였다.

이상과 같은 金日成의 영화제작정책을 통하여 나타난 구체적 정치행태의 本質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특성으로 요약되는 것이다.

즉 김일성은 말하기를 「남반부에서의 혁명은 무엇보다도 남반부인민들 자신의 일인것만큼 혁명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남반부인민들을 각성시키고 일어 세웠야 한다. 우리가 북조선에 앉아서 아무리 좋은 통일방안을 내놓아도 남반부인민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통일은 될 수 없다」¹⁹⁾ 고 하였다. 이것은 곧 김일성은 당시 7개년 경제계획의 파탄에서 오는 북한주민들의 반발을 南韓의 赤化를 위한 전쟁준비를 合理化시킴으로서 무마시키려 하였

註 19) 「金日成思想理論과 批判」, op.cit., p.201.

음을 意味하는 것이며 더욱 積極的 意味에서는 그와같은 영화정책을 통하여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동족상잔의 侵略戰爭을 正當한 것으로 誤認케 하는 세뇌작용을 일으키는 동시에 南派간첩들의 사상 교육 및 對南 心理戰의 자료로 사용하겠다는 目的意識을 그대로 들어내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와같은 金日成의 目的意識은 다음과 같은 그의 自由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즉 「북반부 인민들에 대한 이러한 정치, 선전교양 사업이 남조선 인민들을 각성시키기 위한 대남정치사업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²⁰⁾, 「남조선 혁명가들을 교양할 좋은 문학작품이나 영화가 있어야 하겠는데 그런것이 별로 없다」²¹⁾, 「남반부의 혁명가들과 애국자들에게 될 수 있는대로 많은 교양자료를 주어야 한다」²²⁾, 「북조선인민들에 대한 이러한 정치, 선전교양 사업은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정치, 선전교양 사업으로도 되는 것이다」²³⁾, 「북조선 인민들이 남조선 형제들을 구원하려는 각오가 높아지면 질수록 남조선 인민들을 해방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역량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남조선 인민들은 더욱 큰 교무를 받게 될 것이다」²⁴⁾ 등등의 발언은 바로 그와

註 20) Ibid.

21) Ibid., p. 203.

22) Ibid.

23) Ibid. p. 201.

24) Ibid.

같은 金日成의 目的意識을 露出시키고 있는 明示的 事實들인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金日成의 意識과 行態의 底辺에는 그의 당시의 對南韓情勢觀에 달려 있었음을看過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즉, 上記와 같은 一連의 발언을 하고 있던 1964年 11月은 우리 社會에 있어서는 韓·日會談을 둘러싸고 國論이 分裂되고 反日與論이 抬頭하는가 하면, 學生들의 「테모」사태가 계속되는 등 混亂이 계속되고 있던 時期였던 것이다. 그와같은 南韓內의 情勢에 대한 認識을 金日成이는 다음과 같이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즉 金日成이는 말하기를 「4.19인민봉기, 6.3시위투쟁같은 것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용감한 투쟁입니까?」²⁵⁾, 「지금 남조선정세는 매우 좋습니다. 남조선 인테리들이 아주 잘 나오고 있다. 그들은 외세의 간섭이 없는 자주통일을 주장하고 있다. 그들이 직접 미국놈들을 반대하여 싸우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미국놈들을 무서워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남조선 인민들이 반미투쟁구호를 높이 들고 싸우도록 계속 노력하여야 한다」²⁶⁾ 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이와같은 金日成의 발언은 당시 6.3사태를 그들의 武力南侵을 勢助하는 反日운동이라 認識하고 武力南侵을 가능케 하는 反美鬭爭으로 6.3사태를 유도하여 나아가야만 하겠다는 對南戰略을 具體的으로 明示하고 있는 事實적 根拠가 되는 것이다. 즉 金日成이

註 25) Ibid., p.203

26) Ibid., p.201

주장하는 소위 「平和統一」이라는 것이 무엇을 意味하는 것이냐는 그가 말하는 것처럼 바로 「反美鬪爭」을 南韓에서 展開시켜 美軍을 철수시킨다음 武力南侵하는 것을 意味한다는 것을 示唆하는 것이다. 다음은 바로 그같은 金日成의 反日에서 反美로 사태를 유도하는 것이 「平和統一」이란 武力南侵의 條件임을 明確히 보여주는 발언이다. 즉 김일성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여러번 말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를 完全히 통일하려면 南반부에서 人민들이 혁명투쟁을 벌려 미국놈들을 쫓아내야 한다. 미국놈들을 몰아내는 것은 물론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南반부 혁명가들이 당건설 사업을 잘하고 南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잘 조직한다면 얼마든지 미국놈들을 내쫓고 그 괴뢰들을 때려 부실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조국통일은 평화적으로 실현될 것이다. 우리의 평화통일 방침은 바로 이와같이 하여 통일을 이룩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지 않고 전쟁에 의하여 통일이 이루어 질수도 있다. 미국놈들이 우리를 반대하여 전쟁을 일으키면 우리는 무력으로 침략자들을 몰아내지 않을 수 없다.통일이 어떤 방법으로 되든지 南북조선인민들을 끊임없이 혁명정신으로 교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²⁷⁾ 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이와같은 金日成의 心理戰과 思想戰에 치중한 영화매체를 통한 大衆意識조작 정책은 북한의 어린 아동들에게 까지도 집요하게 전

註 27) Ibid., pp. 202-203

개되었던 것이다. 즉 당시 金日成의 그와같은 지령하에 제작된 아동들을 대상으로한 아동용 영화나 만화영화들을 보면 그와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북괴가 제작한 어린이용 만화영화를 보면 <제물로 돌아가라>는 제목의 경우 각종 현대무기를 갖고 있는 추악한 괴물로 미군을 묘사하여 놓고 원시적인 무기를 들고 미군과 싸우는 두명의 월맹아동을 中心으로 하여 反美思想을 注入시키는 것이고, <두아동단원>란 제목의 것은 日帝時代를 배경으로 두명의 아동 공산당원이 독립군 연락병으로 김일성에게 충성을 다한다는 주제로 金日成崇拜와 金日成의 과거를 美化하고, 北傀가 민족운동사상 정통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어려서부터 세뇌하려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그외에 인형극영화로 된 <복수의 불길> 같은 것도 反美선전과 韓國으로 부터의 美軍철수를 주장하는 것으로 일관시키고 있으며, 그 밖에도 <금돌이의 하루>, <감장병아리>, <꼬마화가>, <막내골>, <인걸이와 눈사람>, <돌쇠이야기>, <꽃부채> 등 여러가지 아동세뇌용 영화제작을 통하여 어린아이들에게 -제급의식과 증오의 감정을 불러 일으키게 하고 폭력을 통한 南韓侵略을 「정당한 正義의 行爲」인 것으로 錯覺토록 세뇌시키기 위한 非人間的 手段까지를 동원하였던 것이다.²⁸⁾

이와같이 金日成이 어린아몽에 이르기까지 영화媒體를 통하여 세뇌를 展開한 기본적인 목적이 「혁명적 대사변」(무력남침)에 있었음

註 28) 「조선영화」, pp.cit., 1967年4月号, pp.4-5.

은 북괴「영화인동맹」의 다음과 같은 공식 발표가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즉 「특히 최근연간에는 김일성동지의 1964년 11월 7일, 1965년 12월 16일, 1966년 2월 4일 교시정신에 입각하여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을 혁명적 세계관으로 무장시키며, 인민들을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사상으로 교양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는 우수한 예술, 기록, 과학, 아동 영화작품들을 적지않게 창조함으로써 혁명적 대사면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사상적 준비를 促進하는데 일정하게 기여하였다.」²⁹⁾

이상에서 指摘된 金日成의 南侵準備와 獨재체제강화를 위한 1960年代 후반기의 영화매체를 통한 대중의식조작형태의 특징을 여기서 요약하여 본다면 대략 다음과 같다.

(1) 우선 形式面에서, 종래와는 달리, 주제의 영화를 단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上·下편 또는 1, 2, 3篇 등 長時間의 상영을 거쳐 깊숙히 세뇌하기 위한 소위 「大作」 中心의 長偏化가 特徵이라 하겠다.

(2) 内容面에 있어서는

(가) 反美思想을 고취하고 美軍의 철수를 주장하는 内容

(나) 韓國社會의 현상을 조작 惡宣傳하고 内部的 混亂을 선동 고무하는 内容³⁰⁾

註 29) Ibid.

30) 예를 들어 「통일의 念願」 「성장의 길에서」 「항쟁의 서곡」 「조국으로 돌아오라」 등.

(다) 金日成個人崇拜를 合理化하고 북괴의 政統성을 조작키 위한 反日獨立運動의 造作

(라) 전쟁준비의 물질적 기초를 쌓기 위한 北한주민의 노동강요의 美化와 合理化

(마) 6.25南侵을 合理化시키기 위한 선전

(바) 계급의식의 고취와 再南侵을 위한 思想的 세뇌를 中心으로한 内容 등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内容的 特徵은 크게 区分하여 본다면, 첫째 北한에서의 4大軍事路線遂行을 뒷받침하기 위한 思想改造, 反美 統一戰線 고취와 武力南侵을 달성키 위한데에 焦點이 주워져 있었음을 中心으로 한다. 즉 「조국해방전쟁을 취급한 우리의 영화는 한결 같이 미제침략자를 타승한 영웅적 조선인민의 정신적 위대성을 밝혀야 하며 조국통일의 위대한 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에로 전체 인민들을 불러 일으키는 그러한 힘있는 정신적 양식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³¹⁾ 라는 表現은 곧 그같은 당시 北괴 영화의 意圖를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투사들은 鬪爭을 의무로 간주한다기 보다 자기의 指向과 이상을 성취하기 위한 불가결의 欲求로 이해해야 한다 운운」³²⁾ 하는 대목에서

註 31) 리승환 『조국해방전쟁 주제의 영화와 영웅적 성격 - 시대의 영웅적 성격 창조를 위하여』 Ibid., p.10.

32) 길수암, op.cit.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당시의 북괴영화가 얼마나 철저히 세뇌의 심도를 주장하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南侵을 위한 條件造成的 道具製作을 위하여 金日成은 1965년에 이미 4개의 撮映所를 설치하고 年間 數百篇씩을 製造하여 냈고, 제작물은 북한 全域에 걸쳐 1,600개의 「영화보급시설」을 통하여 소화시키는 격렬성을 보였던 것이다.³³⁾

그러나 金日成은 이상에서 열거한 大衆媒体를 결코 內需用으로만 제작한 것은 아니었다.

즉 金日成은 소위 국제적 「統一戰線의 결성」이란 측면에서 對消費用으로도 이를 날조된 영화물들을 대량 투입하였던 것이다. 이와같은 金日成의 對外的인 「統一戰線戰略」의 意圖는 그의 다음과 같은 발언이 집약적으로 明示하고 있는 것이다.

즉 金日成은 1964年末만 하더라도 주로 아세아·아프리카지역의 중립국 또는 신생국가들에 그 침투의 초점을 두고 있었다.³⁴⁾

즉 金日成은 「국제혁명역량」과 단결하여 “미제국주의”를 「철저히 고립시키고 미제를 반대하여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투쟁하여야 한다」, 「남조선혁명을 완수하고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하

註 33) 이같은 작업을 가르켜 金日성의 지령을 관철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과 방도」라고 북괴 「영화인동맹」은 기록하고 있다. 「조선영화」, op.cit., p.39.

34) Cf. 宋建鎬「北韓의 對外宣傳에 관한 研究」, 국토통일원, 1973.6. p.28.

여서는 남북조선의 혁명역량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국제혁명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국제혁명역량」과의 단결의 목적이 곧 南韓赤化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³⁵⁾ 그와같은 南韓赤化政策의 일환으로 金日成이는 A.A 구릅국가들에의 心理戰을 活潑히 전개하고 있었다. 즉 이미 1960年代 중반기에만 하더라도 金日成은 「알제리아」에 反美思想을 고취시킴으로서 殖民地로서의 背景을 갖인 「알제리아」의 호응을 얻기 위하여 <위대한 승리>란 제목의 反美영화를 필두로 하여 북괴선전의 「공화국기치만세」, 「영광스러운 우리조국」, <영예로운 임무>, <경찰병>, <생명수>, <어랑천> 등 선전영화를 보내 강력히 선전활동을 전개하였는가 하면 당시 「시아누크」治下의 「캄보디아」의 경우에는 <어랑천>, <전우>, <영광스러운 우리조국>, <승리자의 대회>, <꽃피는 평양> 등에 관한 선전전단을 약 3万餘매 空中으로 살포하고 연일 신문·방송에 영화상영을 광고할 정도의 집중적 사전공세를 펴기도 하였던 것이다.

또한 인근 日本에 있어서도 1964년에만 하더라도 反美내용의 <로동당시대> 韓國에 대한 흑색선전인 <항쟁의 서곡>, 북괴찬양과 선전물인 <천리마>, <붉은꽃>, <어린이들의 노래와 춤> 등과 <갈매기호의 청년들> 등 다수를 투입하였다.

한편 金日成은 1920年代에 들어와서도 큰 自身の 偶像化와 對南侵略準備로서의 赤化統一을 合理化시키기 위한 各種 영화제작을

註 35) 「金日成思想의 理論과 批判」, op.cit., p.201.

계속 擴大시켜 오고 있다. 즉 1970년에 들어서면서 제작된 <이 물질은 막지 못한다>는 南韓의 農村社會를 地獄과 같은 암담한 것으로 묘사하여 선동하는가 하면 <금골의 노래> 같은 것은 金日成의 偶像化를 위하여 1930年代 獨立운동기를 날조, 선전하고 있고 南韓의 赤化를 武力으로 달성하여야 함을 主題로 하여 軍수피복산업을 찬미한 <재단사>, 공군력의 과시와 조종사들의 세뇌를 위한 「한 대오속에서」 등의 영화제작물들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³⁶⁾

視·聽覺的 媒体로서의 영화를 통한 象徴의 操作뿐 아니라 순수한 視覺的象徴을 통한 大衆操作手段으로는 각종 회화가 구사되고 있다. 즉 예를 들어, 각종 大衆相對의 「포스터」 등은 말한 필요도 없이, 소위 芸術作品이라는 회화 부문에 있어서도 <원한을 품고>라든지 <천리마거리 건설장> 1971년 작품들인 <물리탐사대원들의 기쁨>, <모내기 협조대> 등 武力南侵과 그 준비를 위한 增産 및 金日成의 偶像化에 모든 회화작품이 국한되고 있음을 본다.

특히 「조선예술」 1974年度 2月号에서는 허영옥이 「조국을 지켜 싸운 사람들의 형상을 더 많이 그리자」는 글을 게재하고 있는 바, 이는 金日成의 새로운 對南武力侵略政策이 회화 부문에서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가를 直接的으로 明示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

註 36) 「조선예술」 (평양, 문예출판사) 1972년 5월호참조

(2) 聽覺的象徵에 依한 大衆操作實態에서 나타난 金日成의 政治行態

金日成의 政治行態의 特徵은 그의 聽覺的象徵에 依한 大衆意識操作內容을 통하여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즉 金日成은 그의 獨裁權力을 絶對化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個人崇拜思想을 強要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와같은 사실은, 사실상 오늘날 北韓에서 불리워지고 있는 노래나 구호등은 모두 金日成의 絶對化를 위하여 操作되고 있다는 사실이 잘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네>란 노래는 「위대하신 김일성원수 4천만의 어버이수령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네」란 후렴을 부쳐 계속 각절마다 반복하여 부르도록 함으로서 북한 주민들의 의식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전통적 효(孝)의 概念을 金日成자신과 연결시켜 親근대적 君主로서 意識케 하는 동시에 「위대하다」는 상징적 수식어와 결부시켜 絶對적 복종과 충성을 잠재의식속에 뿌리 박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수법은 그외에도 여러가지 노래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즉 <우리는 언제나 수령과 함께>란 노래에서는 「아·그이는 우리 아버지, 그 품안에 안긴 아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행복합니다」³⁷⁾라는 후렴을 부치고 있고, 또한 <수령님 한 품속에 우리는 사네>란 노래에서는 「아 아버지 수령, 김일성 원수님, 인민은 우러러 충성다하여」³⁸⁾라 하였으며, <수령님 계시어 행복합니다>라던지

註 37) 「조선의 노래」(평양, 문예출판사), 1971, p.39.

<수령님 손길따라 승리하리라> 등에서는 각각 「김일성 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대를 이어 충성을 바쳐 가립니다」³⁹⁾ 라던지 또는 「아 김일성 원수님, 아 4천만의 아버지여, 언제나 우리들은 충성하리라, 천만년 충성하리라」⁴⁰⁾ 등등을 삽입하여 노골적으로 절대 독재 체제 확립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 외에도 대부분의 작품이 金日成個人崇拜를 위하여 작사·작곡되고 있으나, 그 가운데에서도 가요 제목 자체에 김일성 찬양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 거의 전 수록된 가수의 약 절반에 달하고 있다.

예를 들어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필두로 하여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노래>, <4천만은 수령을 노래합니다>, <김일성원수님 만수 무강하소서>, <김일성 장군님은 우리의 태양>, <장군님이 그리워> 등 수없이 많다.

이들 가요 가운데 김일성이 個人崇拜思想을 고취하고자 하는 操作수법은 크게 형식적인 면과 내용적인 면으로 大別하여 볼 수 있다. 첫째로 형식적인 면에서의 특징은 直說的이고 노골적인 表現을 몇번이고 계속 反復하게 함으로서 個体の 潛在意識속으로의 浸透를 企圖하는 동시에 일종의 條件反射的 意識作用의 效果를 目標로 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가요의 각절마다 동일

註 38) Ibid., p.40.

39) Ibid., p.41.

40) Ibid., p.42.

한 내용을 반복시키거나, 同一한 가요를 다수 제작하거나, 또는 가요마다 후렴에 집중적으로 그같은 操作要因을 投与하여 계속 반복의 効果를 노린다거나 하는 類의 形式的 要件에 의한 意識操作 수법이다.

둘째로 「태양」이니 「어버이」, 「수령」, 「원수」, 「장군」, 「충성」등 言語的 象徴을 통하여 金日成에 대한 「이미지」(image) 操作의 수법을 들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1930年代의 歷史的事實의 날조가 가요로 편성되고 또한 血族主義(Nepotism)의 象徴動員이 나타나는 것이며, 「聖域」으로서의 地名에 관한 가요가 제작되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金日成에 대한 大衆的支持가 날조되어 가요로 등장하기에 까지 이르르게 되는 것이다.

즉 북한의 오늘날 가요의 상당부분이 1930年代와 1940年代 초반 소위 만주일대를 중심으로한 金日成의 독립운동이란 사실을 날조하여 삽입시키고 있는 것이며, 그것을 마치도 歷史的 事實이었던 것처럼 분석하기 위하여 <영광의 땅 보천보>, <밀림이 설레인다>, <가림천>, <조국의 진달래> 등의 가요를 제작하였던 것이다.

그와같은 사실들은 다음과 같은 가요의 가사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김일성 원수님이 화불 올리신, 아 보천보 영광의 땅이여」라던지 「장군님 거느리신 빨찌산이 쉬고간 그날의 그밤이 그리워 설레인다」라던지 또는 「원수를 몰아낸 금수강산 삼천리에 장군님 밝은 햇살 영원히 비쳐가리」등이 바로 그것이다.

즉 다음내용을 통하여 마치 김일성 만이 민족독립 투쟁의 化神
이요, 日帝를 몰아낸 「太陽」이라고 선전하며, 그것을 合理化시켜
김일성이 유격대를 지휘한 것처럼 가요에 삽입하고, 그것을 具体化
시키기 위한 작업으로 「보천보」를 「영광의 땅」으로 聖域視시키
고 있는 것이다. 그와같은 수법의 일환으로 <포형나무터>에 관
한 가요도 제작되는 것이었다.

이와같은 김일성의 과거 경력의 날조에 대한 合理化 수단의 일
환으로서 김일성은 族閥主義的 家門主義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즉 前近代的 封建社会体制에서의 身分制度가 빛은 血統主義를 고
집하며 金日成 자신의 血統이 원래부터 「愛國的」이고 「革命的」
家門에 속하는 血統이라는 立場으로까지 擴大되기에 이르는 것이며,
그와같은 날조된 事實을 北韓住民들의 잠재의식 속에 뿌리박게 하기
위한 操作手法으로서 <극경투사 김형직선생>, <조선의 어머니>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 <만경대는 혁명의 요람> 등의 제목을
가진 가요들이 나타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김형직에 관한 가
요에서 「김일성 원수님이 이 끄시는 조국에 선생님의 높이신 뜻
영원하리라」⁴¹⁾란 內容은 분명히 김일성의 偶像化를 위하여 「김
형직」이 동원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또한 <조선의
어머니>에서 「아 우리 어머니 강반석어머니, 4천만의 마음속에
별처럼 빛나네」⁴²⁾란 內容이 「만경대, 만경대 혁명의 요람이여,

註 41) Ibid., p. 20

42) Ibid., pp. 22, 24

수령님이 탄생하신 조선의 고향이여」와 결부되어 보여 주고 있는 것은 곧 「혁명가 김일성」이란 날조된 사실의 合理化 도구로서 「강반석」이 가요주제로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김일성의 일인독재체제를 위한 기초로서의 김일성개인崇拜를 위한 諸事項의 道具化는 「로동당」 그 자체도 対象이 되고 있음을 찾아 볼 수 있다. 즉 「党」에 관한 가요로서의 <당의 가치 따라>에서는 「김일성원수님의 영도를 따라 폭풍을 헤쳐가는 혁명의 가치」⁴³⁾ 라 하여 「党」이 金日成의 統治道具임을 暗示하고 있으며, 또한 <어머니당을 노래합니다>에서의 「위대한 수령님이 부르시는길 로동당을 따라 나아갑니다」⁴⁴⁾ 라던지 <당중앙을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제목의 가요에서 「백만의 힘과 지혜 굳게 뭉친 로동당, 김일성원수님이 영도하는 당, 그러기에 초소에선 영예 높아라, 초병들 앞길에는 승리 뿐이다」⁴⁵⁾ 란 가사를 부치고 있는 등은 그와같은 金日成을 위한 党的 道具化를 잘 말하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金日成의 聽覺的심불에 의한 偶像化政策은 사실상 「스탈린」主義的 路線의 北韓式方法이라는 측면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것은 곧 강력한 唯一獨裁體制를 노동증대의 直結시키고 있다는 点이다. 즉 예를 들어 <모두다 학습하자>란 가요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金日成을 中心으로한 意識改造를

註 43) Ibid., p. 32

44) Ibid., p. 33

45) Ibid., p. 34

바탕으로 하여 「김일성원수님의 농촌체계는 공산주의 밝은 길로 인도하시네」라는 <사회주의 농촌체계의 노래>나 「수령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겨 우리모두 사상혁명 다 그쳐가자」란 「천리마 작업반의 노래」로 內面的으로 연결시켜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⁴⁶⁾ 특히 그와같은 聽覺的媒體를 통한 大衆動員과 操作方式의 결정적 表現은 소위 <10대정강의 노래>에서 집약적으로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더우기 최근 김일성의 이와같은 聽覺的媒體를 통한 大衆動員方式이 對南武力赤化戰略의 一環으로서 두들어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수령이시여 명령만 내리시라>란 가요의 내용은 「우리의 손으로 통일을 이룩하고 4천만이 행복하게 사라가리라. 수령이시여, 우리들에게 명령만 내리시라 단숨에 달려가, 남녘땅의 형제들을 해방하리라」⁴⁷⁾라고 되어 있으며 이것은 곧 金日成이 武力南侵을 위한 북한주민들의 意識上의 動員體制를 劃策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한편 <형제여 나서라>에서는 더욱 구체적이고 노골적으로 侵略戰爭에 北韓住民을 動員하겠다는 意圖를 明示的으로 나타내고 있다. 즉 「미제를 죽치자, 철천지원수놈, 결사의 - 혈전에, 형제여 나서라」고 제창케 함으로서 마치도 對南武力侵略을 異民族間의 鬪爭으로 묘사함으로서 純朴한 내쇼널리즘에 呼訴하려는 동시에 「정의의 대오다. 승리의 대오다. 미제와

註 46) Ibid., M. 49, 51, 53.

47) Ibid., p. 104.

그 주구 모조리 내물고 남북의 장벽을 열어재끼는 결사의 혈전에 형제여 나서라」는 文句를 동원하여 그와같은 侵略이 마치도 「정의」인 것처럼 묘사함으로써 北韓住民의 純朴한 正義感에 呼訴하려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가사의 設定속에서 후렴으로 「그렇다, 통일을 위하여 결사의 혈전에 형제여 나서라」고 반복적으로 감정에 호소함으로써 선동의 效果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청각적 매개체에 의한 大衆意識操作의 內容은 金日成의 平和的統一을 云謂하면서도 本質的으로 武力南侵을 唯一한 赤化統一의 窮極의 手段으로 삼고 있음을 明示하는 것이라 하겠다.⁴⁸⁾

이와같은 金日成의 武力南侵政策을 明示하는 가요는 그외에도 <내조국을 지켜 간다오>, <한손에 총을 한손에 낫과 마치를>, <로동적위대 행진곡>, <우리는 총창을 더욱 굳게 잡으리>, <죽음을 미제 침략자에게> 등 多數 들수 있다.

이와같은 對南武力侵略을 合理化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측면으로 부터의 조작은 <충성의 마음 수놓아 갑니다>란 가요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즉 北韓住民들에게 侵略戰爭을 合理化시키기 위하여 마치도 한국 全域이 金日成의 武力南侵을 고대하고 있는 것으로 날조하여 가요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즉 상기한 가요의 내용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경애하는 수령님을 모시고 살아갈, 그날 위해 일편단심 싸우렴

註 48) Ibid., pp. 111 ~ 112.

니다. 김일성원수님 만수 무강하시와, 우리들의 마음담아 수놓아
잡니다!⁴⁹⁾ 라 바로 그것이다.

이상과 같은 視聽覺的인 媒体로서의 영화·視覺的인 회화, 聽覺的
인 口号나 가요등과 무용등을 모두 망라한 大型化한 複合的 效果를
노리는 大衆意識 操作形態가 특히 最近에는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소위 「가극」(opera) 形式인 것이다. 예를 들어 <피
바다>, <은혜로운 햇빛아래>, <당의 참된 딸>, <연풍호>, <밀
립아 이야기하자>, <금강산의 노래>, <꽃파는 처녀> 등 근래의
북파 가극의 경향이 그것을 말하여 주고 있다. 이같은 가극들의
공통적인 내용은 영화물에 있어서의 内容과 거의 同一하나 단지
視覺과 聽覺의 效果를 複合的으로 구사하여 最大限度的 效果를 기
하고져 하고 있다는 点에서의 특수성을 살펴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위 「万景台」 芸術團의 海外公演이 갖는 意味는 바로
그와 같은 「가극」단을 통한 对南赤化의 선전·선동의 수출임을 알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이와같은 일련의 視聽覺的 媒介체를 통한
大衆意識 操作狀況을 통하여 金日成의 政治行態의 특성을 部分的으로
나마 측정할 수 있는 것이다.

註 49) Ibid., p.44

Ⅲ. 言語的 象徴 (Symbol) 을 통한 大衆操作

視覺的, 聽覺的 Symbol操作과 結드려 金日成의 獨裁權強化에 동원되고 있는 중요한 상징의 조작은 바로 言語的 象徴의 조작인 것이다. 그와같은 言語的 象徴의 操作을 時期的으로 볼때에, 대체로 北傀政權의 樹立時期까지의 두드러진 현상은 소위 「民主主義」란 Symbol과 「自主獨立」이란 Symbol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6.25南侵時를 前後로 하여서는 그와같은 「民主主義」와 「自主獨立」이라는 Symbol에 기초하여 「正義의 戰爭」 「解放의 戰爭」이란 象徴操作이 가장 빈도있게 구사되었으며, 1955年頃 Stalin의 사망과 후르시초프의 등장이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면서, 對蘇政策과 党内肅清등을 中心으로 하여 소위 「主体思想」이니 「自主路線」이란 象徴 구사가 전면에 나서게 되었던 것이며, 그후 60年代 前半期에 걸쳐 「千里馬」니 「自力更生」이니 하는 상징의 구사와 더불어 60年代 後半부터 다시금 「主体」와 「自主」가 강조되기 시작하였으며, 한편 60年代 全般에 걸쳐 계속 김일성의 獨裁化 기반의 공고화를 위한 「正統性」의 象徴操作이 「抗日武装鬪爭」 「社會主義的 愛國主義」 「民族的良心」등으로 강조되어 오다가, 70年代에 접어들면서 「唯一思想」 「金日成主義」, 「平和統一」 「解放戰爭」이란 象徴的 Slogan들이 다시 前面에 부각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以下에서는 以上에서 지적한 상징적 Slogan.들이 구체적으로 어

떠난 狀況에서 어떻게 구사되었으면 金日成의 그와 같은 政治行態가 그의 性格的 특성과는 어떻게 결부되는가에 關하여 考察하기로 한다.

(1) 「獨立」과 「民主」란 象徴의 操作

聯蘇의 對北韓軍政의 主体였던 「로마넝코司令部」 및 그 傀儡로서의 金日成一黨의 朝鮮공산당원들은 解放後 北韓에서 公산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最初의 作業으로서 손을 댄 것이 大衆의 心理的 操作을 위한 「獨立」과 「民主」란 상징의 구사였다. 즉 이와 같은 北韓住民에 대한 心理操作으로서의 象徴操作은 그들 黨内部에 있어서의 「民族統一戰線」論과 內面的으로 一致하는 것이었다.

즉 當時 韓半島의 全 우리민족의 念願은 解放의 기쁨속에 열띤 民族主義的 感情이 高潮되어 있었고, 그 當然한 歸結은 즉시 自主獨立國家를 建設하는 것이었으며, 또한 壓制에서 解放된 기쁨은 자유로운 民主主義社會의 實現이란 熱望을 낳게 하였다. 즉 民主主義와 民族主義의 물결이 드높은 時代였고, 따라서 「로마넝코」사령부와 金日成一黨은 그와 같은 추세가 北韓住民에게 있어서도 例外가 아니었음을 直感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公산주의자인 「로마넝코」사령관의 음흉성과, 金日成의 目的達成을 위하여서라면 수단과 方法을 가리지 않고 최종목표를 향하여 강인한 忍耐力과 집요한 집념, 그리고 갖가지 기만성의 발로도 불사하겠다는 性格的 특징 및 統一戰線戰術이란 「이데오르기」적 틀속에서의 迂廻作戰論이 結合되어 소위

金日成의 民族主義者로서의 「이미지」 조작을 위한 가짜金日成術策이 나타나는 것이며 그 구체적 표현으로서 조국의 「獨立」이다. 「民主主義社會」의 建設이다. 「언론·신앙」의 자유다, 「상·공업의 자유」등이 구가되기에 이르르는 것이다. 즉 金日成은 「공산독재」란 實體를 「民主主義」란 상징적 언어로 분식하려 하였으며, 階級革命이란 實體를 「民族主義」란 상징적 언어로 분식하였으며, 「공산당」의 설치를 「자주독립국가건설」이란 상징적 言語로 분식기만하였던 것이다.¹⁾

예를 들어 1945년 10월 13일 金日成이 統一戰線의 形成은 「民主主義革命」을 달성시키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그가 주장하는 民主主義는 西歐的 民主主義가 아니라 「조선실정에 맞는 새로운 진보적인 민주주의 제도를 세우는 것이다」라고 주장한것등은 「새 民主朝鮮」건설의 성패는 공산당을 강화하는데 있다는 것과 관련시켜 볼때에²⁾ 과연 언어적 상징으로서의 「민주주의」가 무엇을 뜻하느냐는 명확한 사실인 것이다.

이와같이 공산독재정권의 수립을 위하여서는 당시 팽배되어있는 북한주민들의 민족주의적 요구를 기만적으로 회유하여야만 하겠다는 의도는 1946년 8월 10일 金日成의 강연에서 다시 찾아볼 수 있다. 즉 그는 「조선인민과 튼튼히 단결하여 조선의 完全한 민주주의적

註 1) 이 점에 關하여서는 朴東雲 · 北韓의 大衆操作 · 「對韓共產化過程研究」(高大: 匪研), 1972, pp.28-40에 詳細히 論述되어 있다.

2) 「김일성저작선집」, op.cit., pp.3, 9.

자주독립을 쟁취하며 전체 인민의 행복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이룩
 하고야 말겠다」³⁾고 기만하고, 이어서 「남조선에는 아무런 정치적
 자유와 권리도 없고 미국이 독립을 가로막고 식민지화 하려하고
 있다」⁴⁾고 주장함으로써 다시한번 민족주의적 애국심에 편승하려
 하였음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象徵的 言語 구사에
 의한 大衆的 心理操作術策은 6.25南侵과 같은 反民族的 陰謀에서까
 지 시도되었음을 본다. 즉 김일성은 피뢰군의 조직을 가르켜 「우
 리가 인민군대를 창건하는것은 조국의 민주주의적 완전 자주독립을
 더욱 추진하기 위하여서이다」⁵⁾라고 강조하고 「인민군은 방어적
 임무만을 갖고 있다」⁶⁾고 기만하고 있으며, 피뢰군이 마치도 민족
 독립군의 역사적 정통성을 이어받은 「신성한」군대인양 조작함으로써
 金日成의 正統性을 북한주민에게 과시하려 하였음을 본다.⁷⁾

(2) 「主体」와 「自主」란 言語的 象徴의 구사와 그 实体⁸⁾

金日成이 「主体」란 言語的 象徴을 구사하기 始作하는 것은

註 3) Ibid., p.65

4) Ibid.

5) Ibid., pp.185-6

6) Ibid.

7) Ibid., pp.189-190

8) 여기에 관한 獨立論文으로서는 朴東雲 「北韓」의 自主路線
 과 政一政策 「垂細垂研究」 Vol.XI, No.1 (高大:垂研),
 pp.1-28이 있음.

1955년 12월 28일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⁹⁾란 연설로부터 비롯된다 하겠다. 그 연설가운데에서 金日成은 다음과 같이 主張하고 있다.

즉 「우리당 사상사업에서 주체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다른 나라의 혁명도 아닌 바로 조선혁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조선혁명이야말로 우리당 사상사업의 주체이다. 우리 인민의 鬪爭歷史와 그 전통으로 인민들을 교양하여야만 그들의 민족적 자부심을 북돋아 줄수 있으며 광범한 군중을 혁명투쟁에로 고무할 수 있다. 내가 언젠가 인민군 휴양소에 한번 갔었는데 거기에는 「씨비리」(시베리아) 초원의 그림이 붙어 있었다. 그 풍경은 아마도 「러시아」사람들의 마음에 들것이다. 그러나 조선 사람들에게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금강산이 더 마음에 든다.」고 주장함으로써 사실상 「계급혁명」을 위하여서는 민족주의적 국민감정을 최대한도로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와같은 사실은 金日成의 同演說에서 「지방의 민주 선전실에 가보아도 朝鮮의 5개년경제계획의 도표는 걸려있어도 우리의 3개년경제계획의 도표는 찾아볼수 없었다」느니 또는 「인민학교예를 가보아도 마야콥스끼, 푸슈킨의 사진만이 있는데」 그와같은 방법으로 어떻게 민족적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겠느냐¹⁰⁾는 등으로 소위 「민족적 자부심」이란 민족

註 9) 「金日成 저작선집」, op.cit., pp.560-585.

10) Ibid., pp.563, 565.

주의적 감정에 호소할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金日成은 「主体」라는 言語的 象徴을 통하여 북한주민과 국제적으로 마치도 北傀가 Nationalism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印象지우려는 心理的 操作에 열중하는 것이었으나 사실상 그 内幕은 表面的인 것과는 거리가 먼데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金日成이 1955년에 「主体」를 내걸게된 理由는 本質적으로 对蘇關係의 整立이란 側面과 함께 对內的으로는 金日成 独裁体制의 確立과 關聯하여 党内肅清이란데 초점이 주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으로서, 이와같은 金日成의 独제화 수단으로서의 对蘇關係, 对內党内關係의 道具를 大衆的레벨에 있어서의 Nationalism의 要求와 併行시켜 분식하였다는데 그 특징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김일성은 그의 연설가운데 「박영빈은 소련에 갔다와 소련이 对美和解의 方向으로가서 우리도 그에 따라야 할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이것은 곧 反美를 집어치우자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니냐」¹¹⁾고 말한 것이라던지 또는 「해방된지 10年이나 되었으니 자기의 党史를 갖고 당원을 교육하여야 할것이라」고 주장하고 「정권형태의 독자성」 「정강의 독자성」등을 주장한 것이라던지¹²⁾ 박창욱이 「조선역사」를 부인하는 印象을 주었다고 비난하고 南韓

註 11) Ibid., p. 566

12) Ibid.

의 이승만이 광주학생사건등을 강조하여 민족적 정통성을 주장하는데 공산당은 민족적 전통을 부인하는 印象을 주어 「민족적 양심의 진보인사」를 유인하는데 실패하였다는¹³⁾ 또는 그와같이 「선전사업에서 주체를 잊어버린 결과는 당사업에 숏한 피해를 가져오게 했다」¹⁴⁾ 느니하여 박창욱 일당을 극구 비난한 것이라든지, 또는 金日成이가 「내무성에 많은 혁명가들을 보냈으나 무능력하다는 이유로 내쫓았다」¹⁵⁾ 는 등으로 불평을 토로한것등을 통하여 우리는 金日成의 「主体」란 상징적 언어가 구사되게된 기본적인 원인들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즉 당시 「스탈린」의 사망과 「마렌코프」, 「불가닌」의 短期執權 그리고 「호르시초프」의 등장과 反스탈린個人偶像化 政策등에 자극을 받은 金日成은 그와같은 蘇聯内部의 變化가 金日成 자신의 地位에 큰 도전으로 나타날것을 우려하였던 것이며, 그와같은 점에서 김일성의 독재체제를 항구화시킬 명분이 요청되었다는 時代的背景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두번째로는 역시 그와같은 金日成一人體制의 추진을 위한 党内에서의 作業上的 필요성에 있었던 것이다. 즉 박창욱등과 같은 蘇聯派를 除去키 위하여서는 蘇聯의 路線에 대한 상대적 비판이 필

註 13) Ibid., p.563

14) Ibid., p.565

15) Ibid.

요시되었고, 「主体」的이고 「自由」的이란 名分下에 蘇聯一辺倒的 政敵의 숙청을 기도하고자 하는데 또 하나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同時에 숙청에 의한 他勢力의 제거와 步調를 같이하여 소위 「민족혁명가」로 지칭한 金日成의 直系들을 党下部組織에 계속 拏散시키기 위하여 소위 「主体」的 觀點에서의 党人事를 역설하였던 것이며, 세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것이 상기와 같은 党内와 對蘇關係에 있어서의 金日成一人体制를 爲한 布石과 관련된 對北韓住民들의 心理的 操作에 의한 金日成一人体制의 合理化한 側面이다.

이와같이 1955年末에 있어서의 金日成의 「主体」란 言語的「심볼」의 조작은 크게 세가지 분야에서 측정평가될 수 있는 것이나 그후 10年後인 1965年 以後에 있어서의 「主体」란 「심볼」의 조작은 또 한가지의 측면을 내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곧 中·蘇의 대립·갈등관계에 있어서 金日成의 機會主義的 자세를 合理化하기 위한 것이다. 즉 1961년에 들어서면서 金日成은 소위 7개년 경제계획을 실시하고 重화학공업화를 내세웠으며, 政治的으로는 金日成一人体制를 강화하는 急進主義를 취하면서 對外的으로는 中共·蘇聯과의 양면적 군사동맹을 발판으로 하여 기회주의적 中立姿勢를 취하였다. 그러나 中·蘇關係는 理念論争의 단계를 벗어나 武力衝突事態까지로 惡化되었고, 한편 후르시초프는 「큐바」事態이후 相對的인 緊張緩和政策을 견지하면서 北傀에 대한 急進政策에 견제를 가하게 되자 北傀는 이에 對中共경사로 맞섰으나 그 결과는 7개년계획의 3年延長을 불가피하게 만든 결과밖에 되

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소련의 원조를 다시 구걸하기 위하여서는 다시금 中共과 蘇聯의 양편에 봉사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와같은 양면정책의 對外名分の 근거를 「主体」에서 찾으려 하였던 것이다.

結 論

이상에서 고찰한바와 같이 金日成은 북한주민의 意識操作을 통하여 그의 一人独裁体制를 굳히는데 成功하였음을 본다. 적어도 현재의 金日成一人独裁体制가 北韓住民들의 심각한 반발에 의한 도전은 당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勿論 武力과 강압적인 조직적 統治權力의 行使가 그의 独裁体制를 유지하고 있는 重要한 骨幹이 되고 있음은 否認할 수 없으나 그것만으로 大衆의 心理的 操作없이 独裁体制의 存立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징에 의한 心理的 大衆操作 상당한 效果를 보고 있음을 否認할 수는 없는 것이다.

즉 그의 민족주의적 상징의 조작이나 神格化시킨 자신에 대한 個人崇拜熱 등이 歷史의 歪曲, 現實의 歪曲宣傳, 선동등에 의하여 상당한 体制維持의 效果를 보고 있음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그와 같은 一方的 「唯一思想」政策이 빚는 큰 문제는 北韓住民들의 意識構造를 單純化 乃至는 硬直化 시키는 결과를 招來시키고 있을뿐 아니라, 對美, 對南에 대한 憎惡心과 敵對意識만을 助長시켜 破行的 意識構造로 물고가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그와같은 不均衡하고 非合理的 意識構造를 固定시키기 위하여 金日成은 계속 北韓社會의 排外주의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이와같이 硬直化되고 破行的인 北韓住民의 意識構造속에 어떻게 새로운 合理主義的이고 균형이 잡힌 健全한 意

識狀態를 불러 넣어 줄 수 있겠느냐가 큰 문제로 제기되는 것이며, 또한 그와같은 새로운 바람의 意識構造와 價值觀을 불러 넣는 過程上에 있어서의 技術的 문제보다도 그 內容의 形成에서 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만약 이와같은 문제를 극복하고 北韓住民의 Stereotype 화된 意識構造속에 새로운 동요를 불러 일으킬수만 있다면 金日成体制는 内部的인 붕괴작용을 加速化 시킬것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한편 만약 이와같은 内部的 붕괴과정에 의한 平和的 統一이 있기에 앞서서 만약 전쟁이나 또는 기타 國際的 관계변동에 의하여 政治的으로 領土的 統一이 先行할 경우 과연 北韓住民의 意識構造 改遍에 대한 작업은 어떠한 형태로 진행되어져야만 할것인가가 문제로 提起된다.

이와같은 문제에 대하여는 두가지 접근방법이 있을 수 있겠다. 즉 첫째로는 正面으로 부터의 改遍作業으로서, 이는 상당한 후유증을 각오하여야만 할 것이며, 둘째로 그 Stereotype 的인 Pattern 에 있어서는 同一한 측면을 떠나면서도 그 內容을 근본적으로 달리 하는 意識內容의 變形政策이 一段階로 실시된후 서서히 多樣性 있는 意識 狀況으로 유도하는 方法이 指摘될 수 있는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外部로 부터의 能動的 作用없이도 金日成의 一人 獨裁体制가 심어놓은 硬直化된 意識構造 자체가 金日成体制를 붕괴시키는 要因으로 作用할수도 있음을看過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그 첫째要因은 金日成의 死亡이다. 즉 金日成獨裁体制는 北韓의

正統性을 金日成 個人과 결부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Post- 金日成 時期에 있어서 心理的 충격은 클것이 예상되며, 또한 주변 社會의 變化를 감안할때 金日成의 心理操作에도 그 自体限界가 날로 뚜렷하게 나타남으로서 破局的 危機를 当面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統一政策은 그와같은 金日成 体制의 內在的인 危機 構造에 対応할 수 있는 政策的 配慮도 留意하여야만 할 것이다.

金日成(本名 金聖柱) 研究

研究執筆責任：白 尙 昌

略 歷：延世大 醫大 卒

서울大 大學院 卒 (醫學博士)

延世大 醫大 講師

白神經精神科病院 院長

韓國社會病理研究所 所長

目 次

1. 序 論	311
2. 本研究의 目的	314
3. 研究方法	316
4. 金日成의 社会·政治的 經歷	318
(1) 金日成의 家族歷	318
(2) 金日成 出生時의 社会文化的 与件	319
(3) 幼年時의 生活	320
(4) 学校歷 및 級友關係	321
(5) 滿洲 馬賊生活과 蘇聯서의 生活	322
(6) 8.15解放과 金日成將軍의 行勢	325
(7) 6.25挑發과 大肅清作業	326
(8) 金日成 偶像化運動과 唯一思想体系	328
(9) 南北對話와 그 中断	331
5. 金日成의 性格的 特徵	334
(1) 体型 및 身体構造	334
(2) 知 能 (intelligence)	335
(3) 記憶力 (memory)	336
(4) 趣味 및 習慣	337

(5) 对人關係	340
(6) 可能的 精神身体的 症状 (Psychosomatic Syndrome)	342
6. 金日成의 精神構造	343
(1) 精神構造 (mental structure) 에 对한 精神分析学的 概念	345
(2) 金日成의 本能的 衝動 (ID) 과 그 存在 樣態	346
(ㄱ) 金日成의 性本能 (sex) 과 그 充足	347
(ㄴ) 金日成의 破壞本能和 그 充足	351
(ㄷ) 劣等 心理複合体 (Inferiority Complex) 와 憎惡感 ...	353
(3) 金日成의 超自我 (Superego)	357
(4) 金日成의 自我 (Ego)	362
7. 金日成의 精神力動学的 考察 (Psychodynamic Consideration)	367
(1) 人格發達과 固着現象 (fixation)	367
(ㄱ) 固着的 精神分析学的 概念	367
(ㄴ) 金日成의 男根期 (phallic phase) 固着症状	369
(ㄷ) 金日成의 肛門期 (anal phase) 固着症状	372
(2) 나르시시즘 (自己愛 Narcissism) 과 誇大妄想	375
(3) 偏執狂現象 (paranoia phenomena)	378
(4) 関心の 領域 (Sphere of interest)	380
(ㄱ) 過去, 現在, 未來의 問題	381

(ㄴ) 太陽 恐怖症(Sun-phobia Syndrome)	382
3. 金日成의 精神狀態에 對한 精神醫學的 診斷	
(Psychiatric Diagnosis)	385
(1) 金日成 샤마니즘(Shamanism) 的 精神의 露出	386
(2) 金日成의 유교주의적 思考의 露呈	388
(3) 原始的 精神防禦 機制(Defence mechanism)	389
(4) 金日成의 診斷	391
(ㄱ) 性格의 特徵	391
(ㄴ) 人格統合의 威脅과 退行의 程度	391
(ㄷ) 金日成이 自身의 精神安靜을 凶謀하는 方法	391
(ㄹ) 金日成의 精神症狀의 診斷	392
9. 結 論	393
(1) 金日成의 精神病的 防禦機制와 北韓社會	394
(2) 多父的 映像(multifather image)과 蘇·中共	
指導者와의 關係	395
(3) 演劇性, 自己顯示性등의 男根期 固着症狀과 誇大	
妄想的 思考로 因한 無謀性으로 因해서 自由友邦	
世界에의 接近	396
(4) 兇惡症狀으로서의 對南關係	397

1. 序 論

人間은 自己自身도 알 수 없는 無意識的 動機 (unconscious motivation) 에 依해서 支配를 받고 있다고 精神分析學의 創始者 " 지그문트 프로이트 " (Sigmund Freud) 는 말했다. 프로이트以來 發達해 온 現代精神醫學과 精神分析學 (Psychoanalysis) 은 " 프로이트 " 의 理論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研究成果를 追加하게 되었고 오늘날 가장 科學的인 人間學으로서 그 자리를 確立하게 된 것이다.

本 研究者는 現代精神分析學과 精神醫學的 理論을 바탕으로 해서 人間 「金日成」 (지금 北韓땅에서 「金日成」으로 行勢하고 있는 者는 本名이 金聖柱로서, 우리가 記憶하고 있는 저 有名한 抗日武將 「金日成 將軍」 이 아님은 大部分의 北韓住民도 알고 있는 事實이지만 本研究에서는 概念의 混亂을 避하기 爲해 이 金聖柱를 便宜上 金日成으로 指稱키로 했다) 을 分析하기로 하였다.

「金日成」은 北韓社會에서 三十年 以上이나 權座를 누려왔다. 오늘날 北韓에서는 " 살아도 그이 (金日成) 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그이의 榮光을 위해서 죽으며, 그이의 許諾이 없이는 죽을 權利도 없다 " 고 의을 程度로 狂的現象이 벌어지고 있는게 事實이다.

北韓住民들은 새벽부터 잠자리에 들때까지 各種 " 運動 " (셋별보기運動, 千里馬運動……) 의 奴隸가 된채 強制勞動에 動員되어야 하며, 自由라고는 居住의 自由, 言論의 自由, 旅行의 自由, 配偶者 選擇의 自由등 마저도 누릴 수가 없으며, 오직 金日成에 대한 服從

의 자유란이 許諾되어 있는 實情이다.

그런 터에 오늘날 金日成은 北韓住民에게 「南朝鮮人民을 解放시킬 때까지 鬪爭하자」고 호령하고 있으나 金日成이 말하는 解放은 무엇을 意味하는 것인가?

지난날 自身이 滿洲 벌판을 彷徨하면서 저지르게 된 殺人, 放火, 強姦, 掠奪 등은 다 감쪽같이 덮어둔 채, 그의 모든 지난날의 行爲는 愛國, 愛族 및 革命을 위한 鬪爭이었다고 主張하면서 「果然 누가 祖國을 解放시켜 주었는가…… 모든 人民은 歷史를 잘 研究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金日成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一字無識꾼이던 自己 曾祖父 金膺禹를 李朝末葉 大同江에 온 美國軍艦 「제너럴·셔만」호를 攻擊하는데 앞장섰다고 主張하며, 鎭山에서 強盜질을 했고 無免許 漢醫師 行勢를 하다가 사람을 죽게 하여 滿洲監獄에 있다가 死亡한 自己의 生父 金亨稷을 「抗日運動의 英雄的 指導者」였다고 捏造하여 北韓땅 곳곳에 銅像을 세워 놓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人間 「金日成」의 存在는 精神分析學의 學問的 立場에서 매우 興味있는 存在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政治體制나 政治現象을 研究하기 위해서, 그 政治指導者나 權力者를 分析해 본다는 것은 意味있는 일일 것이다.

이러한 試圖는 「해롤드 라스웰」(Harold Lasswell) 以來 政治學界에서도 있어온 일이었으며, 이런 見地에서 「아이사크·도위취」(Issac Deutch)의 「스탈린」이나 에릭·프롬(Erich Fromm)의

「히트러分析」(Escape from Freedom 中) 슈람(Shram)의 「毛
沢東 分析」(Mao Tse Tung) 등은 独特한 成果를 이룬게 事實이
다.

本 研究者가 「金日成」을 精神医学的으로 研究코져 한것은 비단
이러한 學問的 興味 때문만은 아니다.

오늘날 우리의 現實을 볼때 金日成이 언제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며, 우리의 生命과 自由와 平和와 財産이 어느 사이에 없어
지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狀況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金日成이 어떤 存在이며, 그의 깊숙히 숨겨 둔 無意識的 動機는
무엇인가? 그의 對南戰略의 方法은 무엇인가? 그를 支配하는
強力한 信念体系는 무엇인가? 그가 가진 最小限의 良心의 構造는
무엇인가? 어떻게 하여 祖國과 自由民主主義의 깃발 아래 무릎을
꿇고 參與케 할 수가 있는가? 하는 따위를 正確하고 科學的으로
分析한다는 것은 緊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으로 本 研究의
意味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2 . 本 研 究 的 目 的

이제 말한 바와 같이 金日成은 北韓의 政治權力을 30年 以上이나 完全히 掌握해 왔다.

그의 權力의 橫暴는 蘇聯의 "스탈린" (Stalin)이나 二次大戰時의 "나치"의 "히틀러" (Hitler)를 凌駕하고 있는듯 하다.

이토록 金日成은 北韓의 政治權力을 完全히 掌握하고 있어, 北韓에서는 그가 願하는 일은 무엇이나 할 수 있는 狀況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人間 金日成이가 어떤 모습의 사람이며, 어떤 狀況에서 어떤 짓을 저지를 수 있는가를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生存과 直結되는 重要한 일일 것이다.

좀더 專門적으로 말한다면 그의 精神構造 (mental structure)는 어떠한가? 不安이나 挫折感은 어떻게 處理하는가? 그는 무슨 일에 가장 幸福感을 느끼며 무엇에 憤怒를 느끼는가? 그의 人生의 目標나 人生觀은 어떠한가? 그의 自尊心 (Pride)의 構造는 무엇이며 超自我 (Superego)인 倫理意識이나 良心은 어떻게 作用하는가? 그가 解放後 30年間 政權을 維持해 온 秘訣은 무엇인가?

그의 思考内容 (Contents of thought) 은 어떠한가 , 그가 말하는 「革命」 이나 「民族」 이나 「主体」 란 어떤 意味를 가지는 것인가 ?
우리는 이러한 모든 側面에 대해서 完全히 把握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重要한 일인 것이다 .

3 . 研 究 方 法

本 研究는 金日成의 「퍼스널리티」에 대한 精神医学的인 方法을 통해서 研究를 進行하였다. 이 方法은 元來 患者가 自由聯想法 (Free Association)을 통해서 말하게 되는 言語의 內容 即 思考內容을 中心으로 進行되는게 原則이다.

即 患者가 말하는 言語와 그의 過去의 歷史와 行動等을 綜合해서 그의 마음 깊숙히 深層世界에 무엇이 있는가를 判斷하게 된다.

그러나 本 研究에서는 두가지의 隘路를 겪어야만 했다. 첫째로 金日成에 대한 面接이 不可能하다는 것이고 둘째는 金日成은 自身을 결코 患者로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自身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을 숨김없이 모조리 言語化 시키는 自由聯想作用에 協助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두가지의 隘路를 克服하기 위해서 筆者는 ①金日成의 周圍에서 가까이 지내던서, 그의 言行을 觀察할 수 있었던 사람들의 傳言이나 著書, ②金日成이 直接 말한 演說文이나 金日成選集에 나타난 特徵的인 內容, ③過去 30年동안 金日成이 取하게 된 政治的 行爲, ④金日成이 出演하는 映畫, ⑤金이 國內 및 外國人 政治家와 會見時의 그의 態度와 말한 內容, ⑥그의 여러 表情을 담은 寫眞의 分析, ⑦北韓에서 發刊되는 金의 傳記등을 本 研究의 資料로 삼았던 것이다.

이들 모든 資料는 될 수 있는 限 客觀的으로 解釋하도록

努力하였다. 解釈時에는 「프로이드」(Sigmund Freud) 以來 오늘 날까지 發展해 온 現代精神分析學(Psychoanalysis)의 理論을 바탕으로 삼았고, 筆者가 18年 동안 ①精神分析診療室, ②梨花女子大學의 學生指導相談室, ③서울家庭法院 精神分析調査官室 및 調整委員會, ④國立精神病院의 만성 精神患者 入院室, ⑤本 研究者의 精神分析診療室 등에서 얻은 臨床經驗등을 動員했던 것이다.

精神分析學은 元來 價値의 學問이 아니다. 한 人間을 있는 그대로 살펴보고, 深層心理의 밑바탕에서 作用하는 象徴性을 찾아내며, 思考와 行動間에 있는 相互作用을 檢討하고 特히 反復되는 思考나 行動의 패턴(Pattern)을 찾아서 그 理由가 어디에 있는가를 窮明하는 學問인 것이다.

이와같이 筆者는 人間 「金日成」을 精神分析學의 法則性에 따라 解剖, 分析하기로 했던 것이다.

4. 金日成의 社会·政治的 歴史 (Socio-political history)

우리는 金日成의 精神構造를 分析하기 前에 그가 이 世上에 出生해서 오늘날까지 걸어 온 行跡을 살펴 볼 必要가 있다.

어떤 時期에 어떤 일을 겪었고, 그때 어떤 反應을 보였는가 하는게 重要할 뿐더러 그런 過去의 社会的 生活을 通해서 어떤 性格이 形成되며 어떤 属性(attribute)이 添附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다.

(1) 金日成의 家族歷

金의 祖上은 元來 全州에서 살았는데 金日成의 15代祖 金繼祥이가 平南으로 와서 彷徨했고 金膺禹(金日成 曾祖父)는 大同郡의 豪農 李平沢家の 「山직이」로 定着하였고, 그후 代代로 온갖 苦生을 하였다.

四代祖 金翁우의 아들 金輔鉉은 妻 李宝益과의 사이에 亨稷, 亨權, 亨祿의 三兄弟를 두었는데 長男인 亨稷은 두살 위인 康盤石과 結婚하게 되었다.

金日成(聖柱)은 1921年 4月 15日 平南 大同郡古平面南里에서 父 金亨稷과 母 康盤石의 三兄弟中(聖柱, 哲柱(死亡), 英柱) 長男으로 태어났다. 父 亨稷은 「崇美中學校를 中退하고 順和學校에서 教鞭을 잡았다」고 北韓側에서는 主張하고 있으나 崇美中學의 小使

로 勤務했다는 說도 있다. 母인 康盤石은 元來 基督教의 家系에서 태어났으나 別다른 學校教育은 없는 듯하다.

金日成의 兪名은 「長孫」 또는 「宗孫」으로 그 이름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몇代를 長男으로 태어난 家의 長男이 되는 셈이다.

父 亨稷은 氣骨이 억세고 自尊心이 強해서 남에게 지기 싫어했으나 그만큼 現實生活의 適應은 어려웠던 存在였다. 그러함에도 生活의 어려움이나 家庭을 돌보지 못한 責任을 한번도 自身에게 돌린 일은 없었다. 長男이요 宗孫인 聖柱(日成)를 데리고 滿洲 等地를 放浪時에도 "우리가 못사는 것은 다 부자놈들 때문이다" 하면서 憎惡의 화살을 外部로 돌리는 性質이 있었다.

母 康盤石은 基督教系統의 집안으로 오촌 아저씨인 現 北僑副 主席 康良煜은 한때 基督教의 牧師의 地位에 까지 있었던 者이다.

(2) 金日成의 出生時의 社會文化的 與件

金日成은 모든 韓国人이 그러하듯이 精神構造의 밑바탕에는 儒教的 要因과 佛敎的 要因 및 샤마니즘(무당교) 要因이 뒤섞인 宗教思想的 傳統을 물려받고 있는 것이다.

金이 태어나기 전의 이땅의 狀況을 살펴보면, 李朝의 鎖國主義는 末葉에 이르러 西洋의 基督教의 影響을 받게 되었고 開化를 서두르고 있었다.

1910年 8月 29日에는 韓日合併의 國恥를 겪게 되고 모든 國民의 日本帝國主義에 대한 憎惡感, 反撥感이 極度에 이르고 있었다.

마침내 金日成이 7歲때 3.1獨立運動이 일어났고 많은 愛國鬪士들

은 日帝의 銃칼에 피를 흘렸던 것이다.

때마침 蘇聯에서 共產主義革命이 成功되자 그 余波가 極東地域에도 미치게 되었고 우리나라와 日本에도 傳播되어 一種의 「階級意識」이 싹트기도 했다.

基督敎의 平等思想, 侵略者 日帝에의 反抗感과 憎惡感, 그리고 一部 不平分子들 間에 뻗친 共產主義의 階級意識等이 混合되는 가운데, 金日成은 밀바탕에서 허덕이는 家系의 長孫으로 태어났던 것이다. 이러한 그의 出生時의 社會文化的 乃至는 宗教的, 思想的 背景은 훗날의 金日成의 人格形成에 하나의 母胎가 될만한 影響을 주고 있는 것이다.

(3) 幼年時의 生活 (Early life)

그의 幼年時의 生活에 對해서는 別다른 記錄을 찾아볼 수가 없다. 젖을 몇살때 까지 먹었으며 어떤 特殊한 癖이 있었는지도 알 길이 없다.

다만 가난한 집안이었으나 「長孫」이라는 우리나라 儒敎的 傳統意識에 따라 온 집안의 溺愛를 받았을 可能性은 있다. 特히 그의 祖母의 사랑과 돌봄을 받은 듯 하며, 特히 叔母이자 남자무당의 딸인 玄壤心은 恒常 「큰 人物이 될 아이」라고 추켜 세웠고 平素에 참을성이 많고 基督敎徒의 特徵인 感謝하는 마음을 가졌던 女人으로 母인 康盤石은 갖은 苦生(滿洲에서 食母살이등)을 하면서도 말아들을 敎育시키겠다는 強迫觀念이 있었던 것으로 解釋된다.

父 金亨稷은 前記한 바와 같이 自身の 劣等意識을 「부자놈」들

의 擄取때문이라고 說明했던 것이고 어린 金聖柱(日成)는 世上을 알기도 전에 富者들을 向한 憎惡心 때문에 두주먹을 불끈 불끈 쥐었던 것이다(北韓側主張·白峯著「金日成」)

더욱이나 亨稷은 모든 期待를 聖柱에게 걸었고 "큰人物"이 되어서 집안의 限을 풀어 주도록 強要했던 것이다.

(4) 學校歷 및 級友關係

1923年 2月 12歲時 故郷의 彰德學校(基督教季)에 入學, 3學年까지 다녔으나, 1925年 14歲時 父母를 따라 滿洲땅 撫松으로 갔고 撫松第一小學校에 轉學, 이듬해 15歲 樺甸縣의 華成義塾(獨立團體서 設立 初代校長 崔東旣氏로 崔德新氏 父)에 다시 轉學했으나 級友를 殺害하여 退學을 당했고 17日間 投獄되었다.

(北에서는 打倒帝國主義同盟을 組織했다고 捏造)

그는 잠시 歸國하여 外에서 다시 彰德學校에 다녔다. 이 당시 理由없이 級友들을 괴롭혔고, 특히 부자집 아들을 끌어서 大同江에 데려가 水泳중 물에 넣어서 물을 먹였고(北의 주장) 崇實學校에 見學을 갔을 적에는 혼자 남아서 물레 유리창을 모조리 破壞했던 것이다.

삼촌 金亨錄이 머슴살이 하는 面書記 尹氏宅에 가서 벧짐에 放火를 했고 理由없이 興奔하기도 했다. (훗날 解放後 金九 李承晚 博士를 가리켜 "放火團 같은 놈들"이라고 非難했음)

1926年 金亨稷이 危篤하다는 電報를 받고 다시 渡滿, 強盜罪로

服役하다가 폐스트에 걸려 病保釈된 父는 死亡하고, 1927年 16歲時 吉林毓文中学(中国人学校)에 入学, 偶然히 国民学校대의 벗 文東一(훗날 金日成과 같이 馬賊生活, 蘇聯生活後 한때 金日成의 秘書로 있다가 金에 의해 投獄당한 者)을 만나 그의 집에서 留宿한 바 있다.

1928年 17歲時 共產主義少年团体인 殺父會에 加入(北에서는 反帝青年同盟組織, 朝鮮人留吉學友會指導, 吉林에서 安昌浩의 民族改良主義的 演說에 反駁했다고 捏造하여 一種의 問題少年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1929年 18歲로 그가 毓文中学 3学年 在学中 社會主義者 李鍾洛部隊에 휩쓸려 上記校를 中退하고 말았다.

이것이 金日成이가 받은 學校教育의 全部인데 徐大肅氏에 따르면 金이 中国人 小學校와 中国人의 中學을 나온 것은 훗날 中国人의 東北抗日聯軍에 介入한 動機가 되었다고 한다. 어쨌든 그의 級友關係를 보면 언제나 自信心에 차있어 앞장서기를 좋아했고, 反對하는 學生은 즉각 手段과 方法을 가리지 않고 報復했으며, 차분한 學業에의 熱中보다는 問題少年들과 어울리고 彷徨 배회하기를 즐기는 편이었다.

(5) 馬賊生活과 蘇聯에서의 生活

金日成은 같은 問題少年 崔賢, 권영벽, 文東一등과 馬賊生活를 繼續하던중 1931年1月 金日成이 20歲되던해 社會主義 極烈分子

李鍾洛은 日警에 잡혀 刑되고 말았다. (北에서는 이 時期에 金日成이 朝鮮革命軍을 組織했다고 捏造)

이 時期에 金聖主는 金一星으로 改名했다가 다시 金日成으로 改名하게 되나, 한때 安凶의 警察隊에 붙잡혀 使喚노예를 했고, 1931年 安凶의 警察隊長의 養子가 되기도 했다는 說도 있다.

文東一의 監獄에서의 証言을 담은 李基奉氏(金日成과 女人들의 著者)에 의하면 이當時 金日成은 崔賢의 紹介에 의해 당시 滿洲에서 巨富가 된 日本人 菊池博의 使喚으로 일하기도 했고, 菊池의 마음에 들었으나 그의 딸 文子를 誘惑하다가 쫓겨나, 馬賊의 한패인 陳惠의 部下가 되었던 것이다. (仔細한 얘기는 同書 參照)

이때 金日成은 헤아릴 수 없는 殘忍한 殺人을 일삼고 때로는 陳惠를 背信한 部下 奏力真등을 自己손으로 목을 찢고, 그 피를 빨아 먹는 儀式에 參加하기도 했다.

이때 特記할만한 事項은 수없이 많은 滿洲의 遊女(매춘부)들을 籠絡했던 것이다. (省略)

1933年 그가 따라 다니던 馬賊團 頭目 陳惠은 東北抗日聯軍 周保中の 部下 王德泰의 一派에 投降하게 되었고, 이때 金日成도 中国人 共產組織인 上記 東北抗日聯軍에 吸收된다.

1937年 6月 4日 26歲時 同軍 二軍 6師長으로 朝滿國境地帶인 普天堡에 侵入하여 日警 駐在所(과출소)를 불태우고, 民家에 들어가 食糧등을 掠奪後 새벽녘에 後退했다. (徐大肅著 上掲書 287)
이때 金日成은 數年前 그의 父가 放浪生活時 이곳에서 신세를 진

金允徳의 딸 金静淑(後日 金日成의 두번째 公式妻로 金正一의 生母)을 拉致하게 되는 것이다. 당시 金静淑은 이미 結婚하여 家庭主婦가 되어 있었으나 金日成은 그의 男便과 子女를 銃殺시키고 金静淑만 데리고 滿洲 山岳地方으로 後退했던 것이다. (徐大肅氏는 加担說을 是認하나 李命英 教授는 金日成이 普天堡事建때 不可担說을 主張함)

1932年7月31日 그의 母인 康盤石은 이내 死亡했던 것이고 뒤에 이 消息을 듣고 한없이 울기도 했다는 것이다.

1911年 滿洲에서 日帝는 더욱 激烈한 掃蕩戰을 벌여 金一行은 入蘇, 하바로프스크의 蘇聯 極東情報學校에서 스파이 活動 및 落下傘 訓練을 받게 되는 것이다. (北에서는 入蘇事實을 一切 감추고 否認하며, 「日帝의 太平洋戰爭 開始에 対応 人民革命軍의 活動方針 提示」라는 막연한 說明을 하고 있음)

이제 살펴본 바와 같이 金日成의 滿洲 및 蘇聯에서의 生活은 放浪, 逃走, 奇襲, 殺人, 性的貧慾, 分散, 再組織 등과 같이 극히 不安定한 生活의 連續이라 할 수 있다.

이때의 特記할만한 共通되는 事實은 그가 힘이 있다고 判斷하기만 하면, 日本人이든(菊池) 馬賊頭目이든(陳惠) 滿洲 警察隊長이든(安囑에서) 共產頭目이든(中國人 王德泰) 蘇聯人이든(로마빙코 및 스티코프)간에 相對에게 온갖 忠誠을 다함으로써 그들의 눈에 들게 되고 信任을 받기도 하며 때로는 養子처럼 取扱받기도 했다는 事實이다.

이 時期의 또 하나의 共通되는 特徵은 그의 눈앞에 妨害가 되는 存在라고 認定될시는 언제든지 殺人을 서슴치 않았고 그후에도 단 한번도 後悔하거나 良心의 苛責을 느껴보지 않았다는 事實일 것이다.

이때의 또하나의 特徵은 쫓기거나 挫折感이 생겼을 적에는 언제나 女人과의 強制 또는 妥協的인 性遊戯에 貧溺했다는 事實이다.
(李基奉著「金日成과 女人들」)

(6) 8.15 解放과 「金日成將軍」의 行세

1945年 34歲時 蘇聯軍의 앞잡이 (처음 하바로프스크 中士 였다가 從軍時 大尉階級을 달았고 그후 少佐로 進級하고 있었음) 로서 歸國한 그는 로마벙코 少將 (베리아의 直系說) 의 推薦으로, 北韓社會를 이끌도록 工作命令을 받게 되었다.

"金宗孫" 또는 "長孫"이던 그가 聖柱로서 小學校를 나왔고 馬賊生活時 金一星으로 行勢하더니 格을 더욱 높여 金日成 (北쪽 主張에 따르면……同志들은 차라리 별보다는 해가 되어서 民族을 위해 싸우라고 이런 이름을 붙여주게 되었다……云云) 이 되었고, 解放後 蘇聯軍을 따라와서는 한때 金英煥이란 假名을 쓰다가 地盤이 굳어지자 「金日成將軍」이 된 셈이다.

形便없는 問題少年과 馬賊團의 앞잡이에서 蘇聯軍의 工作員이 되었다가 金日成將軍으로 變身한 그는 一面 얼떨떨하게 되며 自己同一視 (Self identity) 의 威脅을 받게 되고 더욱 不安해지기도 했

것이다.

가 이른바 「金日成將軍 歡迎 群衆大會」를 마치고 故鄉집으로 還鄉하던 날, 어릴때 올라가던 포푸라 나무에 앉은 까치를 보 곧장 拳銃을 빼들고 그 까치를 향해 쏘았다는 것이다. (韓載 「金日成을 告發한다」)

썩은 解放後 6.25 事變前까지 그는 蘇聯軍의 徹底한 保護아래 無慈悲한 方式으로 그의 支配體制를 굳히고 있었던 것이고(徐大肅 氏는 金日成의 勝利는 주로 다른 共產主義者들이 分裂하고 失敗했기 때문에 漁夫之利를 얻었다고 主張) 이 時期에는 日帝末葉 救國獨立의 英雄 金日成將軍이 이미지를 보잘것 없는 自己의 몸에 接木하느라고 안간힘을 다 썼던 것이다.

(7) 6.25 挑發과 大肅清作業

누구나 잘 아는바와 같이 1950年6月25日 새벽 金日成은 "스탈린"의 承認과 中共의 默認아래 南侵奇襲을 敢行하였고("후르시초프" 回顧錄, 韓國動亂史參照) 莫大한 民族의 財産과 피를 흘리게 했으며 이로 인해 오늘날의 南北關係는 어떤 異民族간의 敵對關係보다 더 큰 不信, 憎惡, 警戒, 過剩防禦, 攻擊衝動의 소용돌이에서 対処하지 않을 수 없는 狀況으로 이끌고 말았다.

金日成은 民族의 피를 흘리는 것은 아랑곳 없이, 오직 自身の 赤化野慾을 채우기 바빴으며 一說에는 全國民의 戰爭의 阿鼻叫喚 속에 헤메고 있는 틈에 그 自身은 洪命憲의 딸과 儒城溫泉에 나

타나서 sex 를 즐기고 있었다는 것이다. (李基奉著 「金日成과 女人」) 休戰과 再建過程에서 金料奉은 누구나 다 아는바와 같이 南勞黨의 자들 朴憲永 등을 日帝時 美國의 스파이질을 했다는 罪名을 씌워 処刑했고, 차례로 金料奉을 위시한 延安派, 許哥丙를 위시한 蘇聯派, 심지어는 李孝淳, 朴金喆 등 自派인 甲山派 그리고 金昌奉, 金正泰 등의 軍事派 등에 이르기까지 徹底한 反對勢力의 掃蕩作戰을 敢行했던 것이 事實이다.

즉 6.25 를 逃難後 休戰과 그후의 建設期間 동안 金日成은 徹底한 自己勢力의 確保에 熱中했고 그 目的을 達成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처음에 蘇聯의 심부름꾼 내지는 下手人으로 出難했던 그가 이 期間에 完全한 自己勢力을 確保後에는 蘇聯과 中共에 대해서 獨立을 宣稱했다고도 볼 수가 있다.

여기에서 特記할만한 事項은 무엇인가? 첫째로 金日成은 戰爭의 慘禍속에서도 自身の 窮極的 野慾(뒤에 論述)을 向해서 쉬지 않고 工作을 進行시킨다는 事實이다.

두번째 事實은 무엇인가? 그것은 金日成이 自身에게 不利한 環境도 온갖 智慧를 짜내어 自身에게 有利한 結果로 轉換시키려는 努力이 있다는 것이다.

1946年 新義州 暴動事件이 發生時 모든 責任을 當時 新義州 共產黨 責任者 韓雄에게 지워서 銃殺시켰던 것인데 그것은 실은 韓雄이가 金日成의 指令으로 延安派의 武裝解除를 시켰던 것을 그

秘密을 아는 韓雄이를 自己손도 안대고 暴動의 非難對象者로 指目 如刑하는 따위는 매우 興味있는 事實이다.

金日成은 이와 꼭 같은 手法으로 6.25 를 口實로 해서 政敵들 을 몰아 내는데 크게 利用했던 것을 알 수가 있다.

(8) 金日成 偶像化運動과 唯一思想作業

金日成은 애당초 愛國志士도 아니요 將軍도 아닌데 그가 「金日成將軍」으로 둔갑하여 自身을 誇大한 存在로서 君臨하고 있던 것이 사실이다.

1958年 12月부터 1960年까지 金日成은 中央黨集中指導(肅清)란 名目으로 延安派와 蘇聯派를 除去하면서부터 所謂 「金日成將軍體系」란 말을 露骨的으로 하기 始作했다. 前記한 바와 같이 「살아도 金日成首領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首領님을 위해서 죽는다」는 말을 했던 것이다.

1967年 朴金喆, 李孝淳등 甲山地下工作派를 除去하면서부터 더욱 露骨的으로 金日成 思想強化를 내세웠던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바와 같다.

그들은 唯一思想體系의 一環으로

① 國際共產主義運動에서 저러한 左右傾的 潮流들이 抬頭 하고 있다. 이런 表現은 總秘書同志의 思想과는 因緣이 없다. 따라서 總秘書同志 思想을 除外한 어떠한 思想도 存在할 수 없다. 우리에게는 總秘書同志의 路線에 忠實할 義務만이 있다.

② 日本帝國主義로부터 解放시켜 준 것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正確한 認識을 가져야 한다. 말로는 思想體系를 세우고 있으나 實踐은 없었다.

③ 歷史研究室을 잘 꾸미고 革命傳統回想記를 体系的으로 갖추고 工夫하라.

④ 會議席上에서 「結論」이란 말을 할 權利는 金日成總秘書同志에 局限한다. 다른 사람은 「結論」이란 말을 할 資格이 없으며 다만 「말씀」이라고 表現하여야 한다. 「모신다」「모시다」란 表現은 金日成同志가 參席할 때만 써야 하고 金日成同志가 入場할 때만 起立하며 다른 사람이 入場할 때는 이를 禁한다. 「萬壽無疆」이란 말도 金日成에 限하여 使用한다.

⑤ 「領導核心」이란 말도 종래 黨中央委員會 全體를 表現하는 뜻으로 使用했으나 今後에는 金日成同志에게만 使用하도록 했다. 따라서 今後 「金日成同志를 首班으로 하는 黨中央委員會」라고 表現해야 한다. 그리고 「指示」나 「敎示」에는 金日成同志 以外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붙일 수 없다.

⑥ 歷史研究室을 매개 作業班, 職場, 機關에 新設하도록 하라. 여기서 例示한 바와 같이 金日成은 自己 以外的 어떤 다른 사람도 眞正한 自由로운 思惟나 結論을 맺는 것을 禁止시키고 있다.

이것은 勿論 金日成이 직접 시키는 일은 아니지만, 그의 追徒者들이 金의 心情을 把握하고서 저질르게 되는 過剩忠誠心인 行爲라 할 수도 있으며 또 金 自身 그에 満足하고 있는 것이다. 어쨌

은 上記한 事實로 보아 오늘날 北韓社會에 있어 金日成 偶像化 運動이 얼마나 徹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證明해 준다.

이러한 偶像化와 唯一思想을 強要하는 理由는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로 金日成의 지나친 「自我의 膨大」(Expansion of Self)를 意味한다. 結局 北韓社會에서는 다른 모든 住民들은 生命을 잃은 者, 自由없는 者들로서, 오직 存在하는 것은 金日成 한사람 밖에 없다는 事實을 強要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그가 어릴적에 말을 듣지 않은 級友들을 大同江에서 물을 먹었고 화가 나면 放火하기와 유리창 깨기등을 통해 自身の 意思를 억지로 貫徹시키려 했던 惡習에 대한 또하나의 反復이라 할 수가 있다.

어릴적 부터 「남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芸術」(R. 니-버의 表現)을 배우지 못했고 ① 對話의 世界, ② 相對便을 尊重하기, ③ 相對便의 存在價值를 認定하기 등에는 距離가 먼 狀態에서 자라났던 金日成은 그가 일단 權力을 쟁게 되자 그의 本性은 遺憾없이 發揮하게 되었다고 할 수가 있다.

偶像化와 唯一思想體系를 強要하는 現狀 밑에 숨은 두번째 意味는 무엇인가?

그것은 金日成을 대하는 姿勢가 共產主義者의 指導者를 대하는 것과는 달리 마치 儒敎主義의 傳統속에서 「밑의 사람」이 「윗사람」을 대하듯 하도록 온갖 末稍的인 形式的 禮儀를 다한 것을 仔細하게 言及하고 있다는 점이다. (仔細한 것은 다시한번 뒤에서

說明) 金日成은 自己는 언제나 「結論」도 내릴 수 있고 「領導的 核心」으로서 남에게 「指示」나 「教示」를 할 수 있던, 다른 如何한 사람도 그것을 禁止한 것이다. 이것은 金日成이 다른 사람들의 自由로운 思惟나, 自發的인 行動, 生命있는 躍動 등을 나타내는 것을 두려워 할뿐더러 他人들은 一種의 죽은 狀態(Necrophilia)에 머물기를 바라고 있다는 証拠가 되는 것이다.

(9) 南北對話와 그 中斷

누구나 다 아는 바와 같이 金日成은 南北對話에 나서서 會談을 進행시키던 중 1973年 돌연히 터무니 없는 口突을 잡고 (李厚洛과는 會談할 수 없다. 云云)은 國民의 要望인 이 對話를 中斷하고 있는 것이다.

金日成은 中斷의 모든 責任을 南쪽에 돌리고 있을 뿐 아니라 非難을 強化하고 있는 것이다.

金日成은 三·一運動當時 朝鮮駐屯軍 總司令官으로서 우리 民族과 愛國志士들을 虐殺, 彈壓, 投獄하기에 바빴던 宇都宮의 生子 宇都宮德馬(日本A.A研派의 自民黨議員)와 「단짜」이 되어 對話를 하면서도(1974年8月9日-10日 金日成의 宇都宮 초대) 南北對話 中斷의 全的인 責任을 南쪽으로 돌리면서 自身의 立場을 合理化(rationalize)하고 있는 것이다. (同內容은 日本人 共產主義理論家 玉城素氏が 金의 虛構性과 不誠實性を 指摘하고 있음. 日本 亜細亞評論社 發社 發刊 1974年12月号 「亜細亞」參照)

金日成이 왜 南北對話에 應했으며 왜 途中에서 느닷없이 中斷시키고 있는가에 대한 政治的인 側面的 解釋은 本 研究의 範圍를 넘는다. 그러나 이 對話開始와 中斷을 두고 金日成이 취하는 態度는 興味있으며 우리의 關心의 對象이 되고 있는 것이다.

첫째로 이제 指摘한 바와 같이, 金日成은 일이 잘되면 다 自己가 했다고 主張하고, 잘못되면 相對便에게 責任을 投射(Projection) 하는 그의 本性을 이번 南北對話에서도 充分히 發揮하고 있다는 점이다. 단물은 삼키고 쓴물은 배알아서 相對便에게 주는 이와같은 극히 原始的 思考(Primary thinking)가 金日成의 生理를 支配하고 있다는 事實을 알 수 있다.

둘째로 金은 對話의 애당초 目的이 어디에 있었든지 간에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음을 깨달자 「遲滯없이」 對話를 中斷하고 만다는 事實을 指摘할 수가 있다.

즉 金日成은 나중에 分析하겠지만, 어떤 事物을 긴 안목으로 予見하고, 人生觀, 宇宙觀, 歷史觀의 깊은 洞察에서 바라 볼 수가 없는 為人인 것이다.

때문에 瞬間 瞬間의 利害關係와 當場 다툼을 未來(immediate future)의 일에 대한 判斷은 재빠른 듯 하지만, 조금만 훗날의 일에 대해서는 全的으로 盲目的인 狀態에 있지 않는가 한다.

이와같은 實例는 얼마든지 들 수가 있다. 즉 金日成選集을 分析해 볼때 8.15 解放 直後의 그의 演說에는 말끝마다 "偉대한 人民의 指導者 스탈린 大元首"라느니 "蘇聯軍隊의 威力으로 解放

된 北朝鮮은 決定的으로 眞正한 民主主義의 길에 나섰읍니다” 라는
따위의 말이 있었는데, 1960年 後에는 그전에 自己가 한 말을
完全히 削除해 버리고, 만 事實을 알 수가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金日成은 自身の 過去의 業績을 엮는 歷
史教科書 마저도 베차레 이상 修正을 거듭하고 있어 먼저번에는
「自身이 했다」고 記錄했다가 훗날 그것이 不利한 狀況이 되면
뒷版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記錄하는 등 毅然한 歷史的 事實
마저도 제 마음대로 捏造 造作하는 勇氣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金日成에게 國際政治的 道義나 民族的 良心이나 相對便과 約束의
尊重 따위는 조금도 重要한 일이 아니며, 다만 「어떻게 하면
자기 目的을 達成하는가」하는데 熱中하고 있어, 그의 態度는 恒常
「突發的이고, 予測하기 어렵고, 可變的이고, 自己 中心的이라」는 特
徵을 찾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여지껏 金日成의 社会的 내지는 政治的 歷史를 精神醫學
的인 側面에서 살펴 보았다.

다음으로 그는 果然 어떤 精神構造를 가지고 있는가? 性格的
特徵은 무엇인가? 그의 精神力動學的 行態는 어떠한가? 하는 것
을 차례로 살펴 보기로 한다.

5. 金日成의 性格的特徵 (Personality)

金日成은 어떤 性格의 所有者인가? 이제까지 살펴본 그의 生涯를 통해서 과연 그의 本性은 무엇이며 훗날의 生活과 經驗에서 오는 屬性 (Attribute) 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여러가지 側面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1) 体型 및 身體構造

키는 큰편 (約 173 cm) 이고 體軀는 肥大하며 얼굴은 장방형이며, 눈은 큰편이고 眉間이 넓고 이마도 넓고 눈썹이 많으며 코는 낮은 편이다.

平素에 개장국을 즐기며 기름기 (脂肪分) 가 많아 血中 콜레스테롤 (Serum Cholesterol) 의 濃度가 높을 것으로予想된다.

右側 後頭部와 頸部에 成人의 주먹크기 혹 (아마도 脂肪腫 Lipoma 로 推測되며 巷間에 떠도는說인 癌은 아닐것으로 보임) 이 있으며 이는 徐徐히 增殖일로에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로 인해 生命에 支障이 있을 것으로는 判斷되지 아니함.

다만 이 脂肪腫의 急速한 增大를 防止하기 위해 그가 좋아하는 개장국과 蘇聯製 술 (위카) 을 禁止하지 않을 수 없을 듯하며 그러한 憂鬱症 不眠症 (Insomnia) 神經質 悲觀등이 떠올 수가 있다.

걸음걸이 (Gait) 는 動作이 鈍하고 느리며 때로는 힘이 없어 步行中 쉬는 境遇도 있고 境遇에 따라서는 敏捷할 것으로 보인다.

때로는 어린 少女들이 부축하는 수도 있다 (이점은 뒤에 다시 精神分析學的으로 論했다).

体型은 크레츠머 (Kretschmer)의 分類에 따르면 肥滿型 (Pyknic type)에 屬하는바 이런 者는 大概 平素에 樂天的이고 社交的이나 感情 (Emotion)의 高低가 심해서 充分히 循環的으로 흥대가 나쁘다가 反復하는 傾向이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2) 知能 (Intelligence)

그의 制限된 學校教育과 滿洲等地에서의 放浪을 통해서 工夫할 機會가 적었던 탓으로 沒常識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의 對話는 幼稚하고 洗練되지 않았다는 것이며 따라서 教養美나 知性美와는 距離가 먼 無識이 支配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南北對話가 開始될 무렵 南쪽 代表와의 對話에서도 그가 熱을 내어 말하면서 "우리 이럴것 있오? 서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 되지 않소.....云云" 하였다는 것임)

그러나 주어진 臨迫한 狀況에서 어떻게 하면 된다고 하는 洞覺 (Apperception)은 매우 正確한듯 하며 普通보다 多少 뛰어난듯 하다. 特히 對人關係에서 相對便의 心中을 斟酌하는 "눈치" (特殊知覺)가 매우 發達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相對便의 願하는 바와 싫어하는 바를 꿰뚫고 그것을 自己에게 有利하게 利用하는 性質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와 같은 特性을 스탈린 (Stalin)이나 히틀러 (Hitler)에서도 共히 볼 수 있는 점이며, 때로는

우리 自由主義 社會에서 볼 수 있는 詐欺犯 強盜 등의 犯罪人들에
서 볼 수도 있다.

즉 이들 犯罪人은 눈치가 빠르고 相對便이 무엇을 願하는 바를
재빠르게 把握하며 거짓말을(虛言) 縱橫으로 驅使하며 마침내 相
對便을 陷穽에 넣게 됨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金日成은 知能이 一般的으로 낮은 편이나 어떤 特殊領域
에 대해서는 普通보다 뛰어난 特質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記憶力 (memory)

一般的으로 記憶力은 좋은 듯하고 그러나 自己에게 有利한
일은 積極적으로 記憶力을 動員함으로써 記憶力亢進症(Hyperamne-
sia)이 있으나 自己에게 不利한 일이나 苦痛스런 事件들에 대해
서는 까맣게 잊어버리는 이른바 選擇的忘却症(Selective amnesia)
이 있는 것으로 解釋되고 있다.

自身이 記憶해서 榮光스럽거나 愉快한 일들은 數十年이 되어도
아무게가 준 拳銃이나 아무곳에서 革命的 戰鬪를 해서 어떻게
勝利했다느니 하는 식으로 잘도 記憶하고 있으면서 그가 어떤 女
人을 籠絡했다느니 어디서 殺人을 했다느니 하는 따위의 일은 애
써 忘却해 버리는 性質이 있는 것 같다.

金日成은 이와 같은 選擇的 忘却症 以外에도 過去의 記憶을 適
當하게 忘却하고 自身에게 有利한 方向으로 美化시키는 無意識的인
精神作用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自身이 14세기 貧寒한 父母를 따라서 鴨綠江을 건넌을 적에도 아무런 仔細한 記憶은 없으면서 누군가가 지은 鴨綠江의 노래를 부르면서 건넌다고 主張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勿論 解放當時 그의 公報秘書格이던 韓載德氏가 지어낸 이야기였지만 金日成은 그럴듯하게 是認하는 姿勢로 自己 스스로 받아드리고 있다. (註..... 鴨綠江의 노래라는 것은 없는 것이라 함)

金日成의 이러한 記憶力의 歪曲現象을 精神医学에서는 「파라노이드 歪曲」이라 하는데 이런 現象이 甚하면 妄想型의 精神分裂症 (Paranoid schizophrenia)에 걸릴 可能性이 큰 것이다.

그 自身の 履歷에 대해서도 몇차례나 고쳐서 풀이하는 것은 勿論 다른 政治的 目的도 있겠지만 一面 金이 自身の 지난 날의 한 일이 現在 不利한 点으로 作用하는 경우에는 그 옛날의 일에 대한 記憶을 變質시켜서 전혀 달리한 것처럼 記憶하기 때문이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記憶力의 歪曲現象은 自己의 故意에서 이뤄지는 게 아니라 極히 無意識的인 現象이고 이것이 甚하게 되면 前記한 바와 같이 病理的 症狀을 이루고 마는 것이다.

(4) 趣味 (hobby) 및 習慣 (habit)

金日成의 趣味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으나 그가 讀書 運動·골프·音樂등을 즐긴다는 記錄이나 얘기를 들을 수가 없다.

아마도 그는 趣味가 없는 「無趣味의 人間」이 아닌가 생각된다.

極히 어린時節부터 삶을 위해 싸워야 했고 馬賊團이나 其他의 不良少年集團등에 섞여서 여가에서 저리로 避身을 다녀야 했으며 境遇에 따라서는 이쪽이 살기 위해서는 저쪽을 죽여야 하는 切迫하고 悽絶한 事件에서 지나왔던 것이다.

때문에 어느 사이에 趣味를 開發하고 人生을 思索하며 真理와 歷史와 宇宙의 問題를 두고 苦惱를 반추할 수 있는 餘裕가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구태여 趣味라고 할 게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原始的이고 本能的인 衝動을 滿足시키는 一聯의 行爲를 통해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밤이 늦도록 會議를 한답시고 한시, 두시, 세시까지 毒한 蘇聯위스키 및 소주를 마시면서 話題를 独占한 채 떠들어 대는 데서 一種의 口腔的 快樂(Oral Pleasure)을 맛보는 性質이 있다는 것이다. (越南者 吳基完氏: 6.25 때 탕크부대 政治將校, 金一의 秘書였다고 함).

口腔的 欲求의 充足은 이미 言及한 바 있지만 金日成이 개고기를 즐긴다는 것이다. 北韓問題 專門家 沈玄氏와 平和統一問題研究所 研究委員 鄭鎮雄氏의 証言에 의하면 특히 金은 살아서 걸어다니는 개를 그 자리에서 죽여서 直席料理를 해서 먹는데 큰 趣味가 있다는 것으로 伝言하고 있다.

이미 言及한 바와 같이 近者에 와서 後頭部와 頸部の 脂肪質 때문에 개고기와 술마시기를 禁止하고 있는지의 與否는 역시 알

수가 없는 일이다.

金日成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豫想되는 또 하나의 本能的 快樂 追求는 아마도 原始的 性的 行爲가 아닌가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 精神力動的 側面에서 다시 한번 論하기로 하지만 하여간 金日成의 女人과의 性的行脚은 独特하고 奇妙하며 變態적인 것만은 事實인 것 같다.

그러므로 金日成의 女人關係는 그의 趣味에 屬하는 것으로 解釋 할 수 밖에 없는 일이다.

그가 가진 習慣(habit)에 대해서도 本研究者가 充分한 資料를 入手하지 못한 것을 遺憾으로 생각한다.

다만 그의 어릴적과 靑少年時節의 生活로 미루워 보아 밤에는 不眠症으로 잠을 안자고 틈을 보아 낮잠을 자는 습관이 있을 可能性은 있는 것이다.

馬賦生活이나 遊擊隊生活이란 元來 쫓기는 경우가 많아서 낮에는 숲속이나 洞窟에 숨어서 避身을 하고 별이 빛나는 밤이면 말(馬)을 타고 広野를 누벼야 하는 生活을 하기 마련이다.

解放이 되어 馬賦生活은 免했지만 특히 6.25動亂중에는 UN空軍의 爆撃이 심했던 만큼 역시 夜間活動의 傳統을 繼續했던 게 事實이다.

오늘날 北韓에서 金日成은 전 住民에게 밤이 새도록 일을 시키고(셋벌보기 運動) 낮에는 일정시간(午睡時間)(그들은 오후 1시에서 3시까지 2시간동안 중식 및 午睡時間을 마련하고 있음...)

을 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論하기로 하겠다. 이외에도 金은 사냥을 즐겨서 黃海道 등지에 專門 狩獵場이 있다는바 이것은 그의 女子關係를 맺는 心理와도 關係가 있을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5) 対人關係 (Interpersonal relation)

이미 言及한 바 있지만 金日成은 어릴적 부터 “큰 人物이 되라”는 말을 그의 祖母와 어머니 및 朴수의 딸이요 叔母인 玄壤心 등으로부터 들었고 自身에 대한 지나친 評價와 激勵을 받았으며 아버지 金亨稷으로부터 “부자들 때문에 못산다. 원수를 갚아야 한다”는 말들을 듣고 자라났다.

이로 인해 金은 어릴적부터 自身을 必要以上으로 높이 評價했고 우쭐대기를 좋아했으며 남에게 지는 것을 極히 싫어했고 恒常 남의 위에 서기를 좋아했던 것이다.

그들이 主張하는 金日成傳記를 보면……金少年은 어릴적부터 指·導力이 있어 周圍 親旧들로부터 “陸軍判事”란 別名을 듣기도 했다……云云 (白峰著「金日成傳」)

이같이 金日成은 어릴적부터 対人關係에 있어 相對便을 尊重하는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相對便을 支配하느냐”하는데 全神 經을 쓰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金은 모든 人間關係에서 결코 自身の 眞正한 마음을 열거나 開放的이 되질 못했던 것 같다.

実存主義神學者 말틴 부버 (Martin Buber)는 진정한 인간의 관계는 “나와 당신” (I and You)의 관계여야 하며 “나와 그것” (I and It)의 관계여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金日成은 자기만 잘났지, 모든 他人은 오직 利用하는 手段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야말로 金日成의 對人關係는 ① 相처를 支配하고 밝느냐 ② 아니면 相처方의 奴隸가 되느냐 하는 것이다. 金日成은 이 두 가지 人間關係를 사이에 두고 恒常 周邊의 事態를 보아 가면서 ①이나 ②이나를 選擇했던 것이다.

興味있는 事實은 金日成이 滿洲에서 日本人 菊池商會의 小使로 있을 적에도 菊池에게 完全한 奴隸가 된 氣分에서 얼마나 忠誠스럽게 奉仕했는지 모른다. 즉 같은 不良少年이며 同商店에 같이 일하던 崔賢이가 菊池의 愛妾인 少女 (朴順心)을 劫奪하고 逃走하자 菊池는 오히려 愛妾을 내어쫓게 되고 이로 인해 少女는 自殺하게 되었다. 이 事件으로 金日成에 대한 信任도 威脅을 받게 되었다.

이때 죽은 少女의 오빠 (新京大學生)가 金을 만나 菊池에게 復讐할 것을 알리고 그의 居處를 묻게 되자 金日成은 千載一遇의 機會가 왔다고 断定하고 이 事實을 菊池에게 알려서 그 大學生으로 하여금 待機했던 日本人들의 칼에 慘殺을 당하게 만든 것이다.

(李基奉著「金日成과 女人们」参照 pp.159-163)

이 事實은 金日成의 卑屈했던 對人關係의 姿勢를 雄辯적으로 證明해 주고 있다. 最近의 그들 自身이 發刊하는 新聞이나 外信에

있는 写真에 나타나는 그의 態度와 姿勢를 보아도 매우 興味있는 事實을 알 수가 있다.

그가 中共의 毛沢東을 대할 적에는 卑屈할만큼 허리와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비비면서 절절매는 反面 最近에 '어찌다가 平壤에 와서 그의 신세를 진 바 있는 캄보디아의 시아누크를 만날 적에는 (노동신문 75.8.6 参照) 허리와 어깨가 뒤로 넘어서 반쯤 누워있는 狀態에서 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게는 같은 共產主義의 同志에 대해서도 힘이 있는 자와 힘이 없는 자를 대하는 態度가 正反對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例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6) 可能한 精神身体的 症狀 (Psychosomatic Disorder)

精神身体症狀이란 한 人間의 性格이나 精神的 特性 때문에 오는 身体的 病症狀을 말한다. 金日成의 性格과 精神狀態로 보아서 어떤 病症狀이 올 수가 있겠는가?

첫째로 그의 오랜 夜間의 飲酒習慣이 問題가 될 수가 있을 것이다. 卽 習慣性 알콜攝取로 인해 動脈硬化症이나 高血壓이 올 可能性도 있다. 또한 慢性으로 알콜 (Alcohol)을 취할 경우에는 神經細胞의 겉질인 Myeline 氏 鞘 (Myeline Sheath)를 녹여 버리게 됨으로써 末梢에는 神經痛 關節痛이 오며 中枢에는 記憶障礙가 올 수가 있는 것이다.

元來 感情이 循環的이며 때로는 急하고 憤을 참지 못하는 점도

있는 金日成으로서 술을 마신다는 것은 좋은 精神安定 治療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술을 마시므로 해서 어느 期間은 發作的 精神病이 되거나 心臟病(특히 심기항진증)이 될 可能性은 豫防해 준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金日成이 이미 論述한 바와 같이 술을 끊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神經質과 화기나 悲觀 憂鬱症이 늘어날 可能性이 있는 것이다. 卽 部下들을 더욱 들볶을 것이며 그렇치 않아도 強迫的인 性格도 있는 그가(여기 대해서는 後에 다시 論述할 것임) 周辺의 일에서 조금이라도 잘못을 본다면 일일이 憤痛을 터트릴 것이고 당장 사람들을 불러서 호통을 칠 것이며 冊床이 부서지도록 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右手에 外傷을 입을 可能性도 排除할 수는 없을 것이다.

推測되는 두번째 症狀은 역시 憂鬱症(Depression)의 可能性일 것이다. 그는 뒤에서 論述되었지만 勿論 良心이 強한 存在는 아니다. 때문에 무슨 良心의 苛責을 느끼거나 쉽사리 罪惡感(Guilt feeling)을 느낄 爲人은 되지를 못하는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金日成의 나이 64세가 되었고 언제 하느님의 審判(勿論 本人은 否定하겠지만)이나 歷史의 審判을 받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른다.

또한 그의 過去를 自身이 살피 보더라도 無數한 殺人과 強姦, 掠奪 등의 經歷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本人은 “人民을 위해서

너 “共産主義革命을 위해서, 또는 祖國을 위해서”한 것이라고 合理化할지 모른다.

勿論 지난 歲月동안 모든 北韓同胞들에게 事實 그렇게 自己合理化를 해온 게 事實이다.

그러나 이것은 남에게는 可能的 일이지만 自己 自身の 마음마저 속일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닌가?

年齡의 壓力, 죽음의 恐怖, 지난날의 無數한 나쁜 짓들 등은 畢境 人間 金日成으로 하여금 憂鬱症에 빠지게 할 可能性이 크다고 할 것이다.

憂鬱하면 酒精을 찾게 되고 酒精을 繼續 마시면 神經症과 健忘症이 올 수 있는 妙한 惡循環이 일어날 수가 있지 않을까 한다.

6. 金日成의 精神構造

(1) 精神構造에 대한 精神分析學的 概念

프로이드 (Sigmund Freud) 는 人間의 精神의 밑바탕에는 本人이 알수도 없고 意識할 수도 없는 領域 즉 無意識 (Unconscious) 의 領域이 있음을 發見하여 全世界에 波紋을 던졌던 것이다.

프로이드에 의하면 이 無意識의 領域은 人間의 마음에서 特別本能的인 衝動이 자리 잡고 있으며 따라서 無意識의 內容은 通常人間社會에서 容納할 수 없는 反社會的, 衝動的, 非論理的, 原始感情的, 破壞的, 性的, 死亡追求的 衝動으로 담겨져 있다는 것이다.

프로이드 이래 人間의 精神構造는 이제 말한 本能的인 部分인 ID (이드) 와 이 本能的 衝動을 無條件 拒否하고 抑壓하려고 하는 超自我 (Superego) 가 서로 對決하고 있고 이 ID와 超自我 (良心) 사이에서 妥協하고 調整하고 現實的으로 解決하는 要素인 自我 (Ego) 가 있다는 것이다.

이제 말한 ID, 自我 (Ego), 超自我 (Superego) 의 세가지 要素를 精神構造의 三領域이라 하는 것이다.

普通 人間은 가령 殺人衝動이나 強姦衝動이 無意識에서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反社會的인 衝動이기 때문에 이를 抑壓하고 마음속 깊이까지 밀어 넣기 때문에 人間의 意識界까지는 이런 흉칙한 생각이 떠오르지 못하는 것이 事實이다.

이런 精神構造內에서의 抑壓 (Repre-ssion) 作用은 從前에 言及한 超自我 (Superego) 가 말아서 하는 일인데 이 超自我는 주로 人類

發達에서 이룩된 各種 宗教的 要素가 많이 作用한다는 것이다.

즉 基督教나 마호멧드교나 유대교, 仏教 및 儒教 등을 純人間의 本能的 衝動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禁忌事項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筆者의 臨床的 觀察에 依하면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 特히 儒敎的인 가르침은 人間의 本能을 매우 強迫的이고 形式主義的이며 執 하게 抑壓 내지는 묶어왔다고 볼 수가 있다. (政經研究·韓國人の 精神構造, 1976年, 서울)

이 人間의 精神構造인 ID, 自我 (Ego), 超自我 (Superego)는 잘 調和를 이루고 있어야 健康한 精神狀態라 할 수가 있다.

프란츠·알렉산더 (Franz Alexander - 프로이드의 弟子로 美國 시카고 精神分析學會의 創始者)는 ID와 自我와 超自我의 關係를 美國社會에서 國會와 行政府와 大法院의 3府와 같다고 比喩한바 있다. 즉 本能的 衝動처럼 要求하는 ID는 國會에 該當되고 무엇이든지 안된다고 抑制·抑壓하는 超自我는 法院의 機能이고 이 兩者 사이에 調整하는 自我는 政府의 機能에 比喩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과연 人間 金日成의 精神構造는 어떠하며 이 3領域은 서로 어떤 樣態로 存在하는 것인가?

(2) 金日成의 本能的衝動 (ID) 과 그 存在樣態

金日成이 極히 良心的이고 倫理的인 人物이나? 아니면 제마음대로 하기를 좋아하는 本能的 人物이나? 하고 묻는다면 그것은

後者라는 回答이 나오코 만다.

金日成의 本能的 衝動은 어떠한며 그는 이것을 어떻게 處理해 왔던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몇가지로 나누어서 考察해 볼 수가 있다.

㉠ 金日成의 性本能 (Sex) 과 그 充足

이미 言及한바 있지만 金日成의 靑少年時節 滿洲에서의 生活은 그의 性格形成에 決定的인 影響을 주었던 것으로 解釋된다.

특히 陳惠馬賊團의 隊員으로 있을때 20歲 前後해서 그는 東滿洲의 遊廓을 무수히 누볐고 奉天市 十間房 (外國人商埠地)에서 있던 日本人 菊池의 딸 文子 (17歲)를 凌辱했던 것이다.

그후 在滿共匪時節에 中國人 処女 瑞慧를 凌辱하였으며 이로인해 瑞慧를 노리던 다른 中國人 馬賊 頭目은 金日成이 보는 앞에서 온갖 망칙한 方法을 통해서 瑞慧를 괴롭힌 후에 죽인 事實이 있다.

在滿共匪時節 裁縫隊員이라는 이름의 女匪들을 마음대로 凌辱하였고 그들중의 하나는 山中 結婚까지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日警의 討伐作戰에서 生捕되었고 공교롭게도 日本 刑事의 妾이 되었다가 解放後 金을 찾아왔으며 金の 怒笞에 쫓겨간 일도 있다는 것이다.

(以上 李基奉 著「金日成과 女人들」 才一卷中)

蘇聯으로 逃避하여 하바르프스크時節 자주 술집과 매음굴을 徘徊하였고 數百名の 女子罪囚가 收監된 “제알”監獄의 女罪人들과 性戲를 즐겼던 것이다. (前掲書「寒錄 金日成伝」 才2卷 p.29

文東一의 証言)

解放後 帰国하자 1945年 8月 平壤市 鏡齋里 世一館의 美貌의
마담 李惠玉을 拉致 強姦했던 것이다. (金昌順 著「歷史의 証人」
pp.89-90)

1945年 9月 下旬에는 日帝時 「仁丹」의 宣傳 모델 李福花
(당시 22歲 平壤箕林里)를 길거리에서 拉致 強姦致死(前掲書
李基奉 著「実録 金日成伝」才2卷 pp.108-116 文東一의 証言)시켰다.

金日成의 性的行爲는 여기서 그치지 아니했다. 그는 男便을 떠
라 越北한 舞姬 崔承喜와 姦通을 거듭했으며 후에는 崔承喜의 男
便 安漢을 脅迫해서 그들의 딸 安聖姬도 姦通하기에 이르렀다.
(李喆周著 “北의 芸術人” pp.34-39 1966.1 서울 啓蒙社 發行)

1949年 映画俳優 文芸峰을 政致保衛部를 動員해서 拉致하여 強
姦한바 있다. (前掲 李基奉著「実録 金日成伝」才1卷 pp)

1950年 副首相 洪命熹의 딸 洪貴媛을 凌辱하였고 6.25動亂中
에는 洪의 故郷인 忠清道の 수안보 温泉까지 다녀간 事實이 있었
다. (1964年 서울 希望出版社 發行「을·다이제스트」6月号 p.37
韓國戰爭은 누가 逃竄했나 題下 유우엔軍 總司 特殊情報要員 田埃)

1950年代 下半期 內閣 護衛局 女秘書 金聖愛(現在 妻), 內閣
機要員(女秘書) 田玉礼, 首相主任看護員 朴宝順, 首相女秘書 鄭愛蘭 및
崔承喜 舞踊研究所 研究生(処女들)을 차례로 凌辱하였고 凌辱당한
処女들 中에는 現妻 金聖愛를 除外하고는 모두 行方不明이 되었다
는 것이다. (1973年 2月 北韓研究所 發行 尹奇鳳著 日訳版 体験
記「北朝鮮見たまま」才6章 唯一体制下的 暴君 pp.297-304 尹奇鳳
前 咸興師範大學 黨委員會 委員)

이제 例示한 바와 같이 金日成은 아무런 抑圧이나 自制나 良心의 苛責이 없이 그가 性的 衝動을 느끼는 경우에는 極히 一方的인 強壓과 脅迫에 의해서 自身の 性欲을 滿足시켰음을 볼 수가 있다.

이미 言及한 바와 같이 (金日成의 對人關係) 金日成은 모든 人間關係는 自身이 支配를 하느냐 奴隸가 되어 支配를 당하느냐 하는 두가지에서 하나를 選擇하는바 그는 性的인 關係에 있어서도 이런 패턴을 밟게 되며 相對便을 強壓하고 虐待하는데서 滿足하는 새디 證據 要素를 가지고 있다.

即 金日成의 性關係를 精神分析學的으로 살펴보면 相對便 女人에 對한 愛情關係가 아니라 支配關係가 分명한 것이다.

相對便이 反抗하고 拒絶하고 困境에 빠질 수록 金日成은 더욱 支配慾이 發動되는듯 하며 手段 方法을 가리지 않고 目的達成을 하고야 마는 것이다.

金日成이 벌리는 性行爲의 儀式은 이런 支配慾 以外에도 몇가지 더한 本能的인 衝動이 介入된다.

即 性行爲를 통해서 自身の 名譽를 올리려는 意圖도 作用하는 것 같다.

그가 보잘것 없는 生活을 하던 如地에 解放後 歸國하자 當時 이름이 있다는 有名한 女性들 (崔承喜, 文芸峰, 仁丹모텔 李福花 등) 을 強制로 醜行함으로써 自身도 그런 有名한 存在와 同一視시키려는 虛榮도 숨어 있다 하겠다.

이것은 보잘것 없이 馬賊들을 따라 다니던 金聖柱가 獨立鬪士요

民族的 英雄인 金日成과 自身을 同一視시키려고 改名까지 하게 된 것과 類似한 心理가 있는 것이다.

金日成의 女性편력과 性行爲가 가진 세번째 意味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激動하는 攻擊 本能의 滿足이라 할 수가 있다. 即 女性에게 殘忍하게 굴고 심한 경우에는 姦通後 殺害하거나 肅清해 버리므로 해서 더욱 묘한 快感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것은 조금전에도 言及된 세디즘(Sadism)의 形態를 취하는 一種의 變態性欲이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金의 이러한 變態性欲的 衝動을 그의 北韓住民에 對한 統治方法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 即 金日成 主体思想이다. 5戶 担当制다 하여 모든 北韓 住民으로 하여금 꿈쩍 못하는 狀態 即 죽은 狀態가 되고서야 金日成은 奇妙한 快感을 느끼고 있는게 아닌가 한다.

最近에 두드러진 또 하나의 現象은 金日成이 出他時에 어리고 어여쁜 少女들을 周圍에 둘러쌓게 하는 現象을 볼 수가 있다. 그것은 그가 溫和한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보일려고 하는 제스처 처럼도 보일지 모르나 실은 變態性欲의 一種인 少女姦通(Pedophilia)의 한 形態가 아닌가 한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前記한바와 같은 各種 變態的性心理의 經歷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推測도 可能한 것이다.

우리는 여지껏 金日成의 精神構造 속에서 性欲의 存在樣態를 살펴 보았다.

다음으로 그의 마음속에 作動하는 破壞本能과 그 表現에 대해서

살피 보기로 하자.

㉠ 金日成의 破壞本能과 그 充足

精神分析學에 依하면 人間의 本能은 삶의 本能인 EROS 와 죽음의 本能인 THANATOS 로 2大別된다. 破壞의 衝動은 이 죽음의 本能인 THANATOS 의 한 派生物로 보여지고 있다.

金日成이 어렸을적에 3.1 運動이 일어나 피흘리는 群衆을 보았고 父로부터는 “부작놈들 때문에 못산다”는 말을 들어 왔으며 憎惡感이나 復讐心에 불탔던 것이다.

滿洲生活에서도 極度の 배고픔과 極甚한 추위에 시달리면서 그나마 쫓기는 몸이 된채 生活하는 가운데 몇번이고 「죽음」의 問題를 생각했을 可能性이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金日成은 죽지 못해 살았고 같이 있는 同生 哲柱는 饑餓와 추위 때문에 죽음을 당했으며 때로는 自己도 차라리 죽기를 바랐을 瞬間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狀況속에서 金日成은 恒時 죽음의 本能에 대한 衝動을 받았을 것이다.

이러한 죽음의 本能(Thanatos)의 衝動으로 마침내 攻擊本能으로 誘導되었던 바 이 攻擊本能이 곧 他人과 敵을 향해서 無差別하게 發揮되었다고 할 수가 있다.

앞서 指摘한바와 같이 金日成이 어릴적에 삼촌 金亨錄이 머슴으로 있던 尹主事宅에 放火를 했다가 崇実專門學校의 유리창을 모조리 깨어버렸다가 부작집 아이를 大同江에서 물을 먹였던 行爲는 다 이런 破壞 本能 내지는 攻擊衝動의 露呈이라 하겠다.

이와같은 金의 破壞本能은 金이 成長함에 따라 더욱 殘忍한 것으로 形態를 바꾸게 되었던 것인데 滿洲에서 육문中學에 다닐시 級友를 殺害한 것을 위시해서 18歲時 中國人 地主 王亮의 農場에서 일하던터에 그를 殺害했고 그후 馬賊團과 共匪 集團에 加担 후부터는 殺人을 누워서 떡 먹듯 했던 것을 알 수가 있다.

假令 共匪時節 그의 同志의 妻가 不平을 한다고 해서 물로 처 죽인 일도 있었거니와 普天堡事件 때도 그의 옛날 愛人이요 두번째 公式妻까지 된 金靜淑을 拉致, 그의 結婚한 前 男便과 두 子女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린 일등은 다한 例에 불과한 것이다.

金日成의 破壞本能과 殺人衝動은 더욱 規模가 커져서 마침내 六.二五의 民族的 流血劇을 벌리기에 이른 것이다.

六.二五 戰爭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側面에서 考察해 볼 수가 있겠으나 金日成의 퍼-스낼리티 研究의 立場에서 본다면 그것은 分明히 金이 가진 性的이요 變態心理的 破壞本能·攻擊本能·殺人衝動 등이 發作的으로 作用한 結果라해도 될 것이다.

金日成의 破壞本能 내지는 攻擊衝動은 어떤 경우에 發動하는 것인가? 그것은 막말로 말하면 그가 어떤 危機意識을 느꼈을 때라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六.二五의 殺人的 逃竄도 實은 金이 처한 不安定하고 危險스러운 自身の 立場을 打開하기 위한 習慣的이요 反射的인 攻擊行爲가 아닌가 한다.

나중에 仔細히 分析되겠지만 金은 自身에게 주어진 不利한 環境을 克服하기 爲해 強迫神經質的 (Obsessional neurosis) 인 努力

을 傾注하는 性質이 있어 無限히 견디고 忍耐하는 意志도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限度에 이르러 自身이 그것을 더 以上 堪當하기 어렵다고 判斷하게 되면 언제나 奇襲적으로 攻撃을 開始하는 히스테리적 性質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8.15當時는 金日成이 蘇聯軍을 따라 왔지만 當時 北韓에서의 自身の 位置가 너무나 초라했던 점과 朴憲永을 爲始한 傳統的인 共產主義者 허가이와 같은 強力한 蘇聯의 背景을 가진 者, 隣接 中國에서 八路軍의 支援을 받는 武亭將軍과 같이 온 金杜奉 등의 人物들이 우글거리는 가운데 政權을 維持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危機意識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㉔ 劣等 心理複合体와 憎惡感

劣等 콤플렉스 (Inferiority Complex)란 用語는 프로이드의 弟子 A. 아들러 (Alfred Adler) 博士가 만든 用語이다. 그는 이 劣等 콤플렉스가 노이로제의 가장 重要한 原因이 된다고 主張했는데 劣等感을 가진 人間은 이것을 補償하기 위해 繼續 努力하며 權力을 위한 鬪爭 (Striving for power)을 즐기치게 된다는 것이다.

劣等感은 A. 아들러에 의하면 주로 身體機關과 關係가 있다는 것으로 身體一部가 못생겼거나 奇型이거나 病身이 되었을 경우, 卽 器管劣等感 (Organ inferiority)에는 이 劣等感이 깊이 뿌리 박는다는 것이다.

金日成의 경우 劣等感은 어디서 왔겠는가? 첫째는 그의 父

金亨稷으로 부터 심어졌다고 볼 수가 있다. 父는 恒常 不平이 많았고 一定한 生計를 꾸려나갈 힘이 없었고 崇實專門의 小使職도 當時 康良煜을 위시한 基督教 系統에 힘이 있는 妻家에서 마련해 주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金日成의 父 亨稷은 劣等感에 사로잡혀 恒常 “부자들 때문에 못산다”고 反復하고 있었고 이런 父의 姿勢가 金日成에게 挿入 (Introject)되었던 것이다.

金日成은 첫째 가난하다는 것, 부(父)가 보잘것 없는 存在라는 것 등에서 몹시 劣等感을 느꼈을 것이고 거기에는 當時 韓国人이면 누구나 느끼는 日本人에 대한 憎惡感和 劣等意識을 느꼈을 것이 分明하다. 더욱이나 小學校 時節부터 異域땅에서 그나마 大部分이 中國人들 學生에 끼여서 工夫를 했어야 되었고 民族的 劣等意識은 더욱 加重되었을 것이다.

어머니나 叔母 현양심, 祖母등으로 부터는 溺愛를 받는 代身 지나치게 가난했던 점 그리고 當時의 被壓迫 民族이 겪는 現實의 부닥침은 큰 劣等感을 심어 주었음에 틀림없는 것이다.

金日成은 劣等感을 어떻게 處理하는가? 그것은 悲觀이나 自虐 代身に 他人에 대한 憎惡感이나 反抗感을 품게 되는게 特徵이다. 劣等感을 푸는 두번째 方法은 心理學的으로 反動形成 (Reaction formation) 過程을 밟아서 지나친 교만 내지는 自尊心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가 있다.

한 例로 金日成은 美國에 대해서 事實上 內心으로 恐怖를 느끼며 劣等感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即 1974年 8月9日과 8月14日

의 2회에 걸친 日本의 宇都官 徳馬議員과의 秘密會談 時에도 金日成은 美國과 몹시 가까히 하고자 하는 뜻을 率直히 表現하고 있다. 그러면서 表面上으로는 美國을 아주 無視하듯이 “美帝侵略者!” 이라고 非難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即 金日成은 自身の 가진 劣等感을 補償하기 爲해서 ①先制攻撃을 하는 性質이 있으며 ②때로는 必要以上으로 驕慢하게 나오기도 하며 ③오히려 相對便을 깔보고 無視하려는 性質마저 나타낸다고 하겠다.

우리는 이런 劣等意識에 대한 過剩補償行爲를 金日成의 모든 政治行態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金日成이 느끼는 劣等 콤플렉스의 가장 爆發하기 쉬운 焦點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아마도 ①그가 制限된 學校教育和 그나마도 着實하게 工夫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배우지 못했다는 데 대한 劣等感이 큰 것으로 보인다. 金은 自身이 無識하다고 하는 劣等感에서 헤어내기 위해 갖은 몸부림을 치고 있는 듯한데 가령 金日成大學을 세운다든가 이미 說明한바와 같이 金日成思想이란 것을 만들어 놓고 모든 住民들로 하여금 暗誦케 하며 누가 祖國을 解放시켜 주었는가 正確하게 認識하도록 北韓住民에게 強要하고 있다든가 歷史工夫를 더 해야한다고 強要하는 따위나 지난번 歐羅巴 巡訪時 東歐에서 博士學位를 받는 따위는 다 金日成이 自身の 無識劣等 콤플렉스를 補償하려는 안타까운 努力으로 볼 수가 있다. ②金日成이 劣等感을 느끼는 두번째의 焦點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가 滿洲와 蘇聯땅에서 真正으로 우리民族을 爲한 獨立運動을 해본일이 없었고 純全히 不良少年輩에 섞이고 馬賊들의 한패가 되어 나쁜짓이나 하고 돌아다녔으며 抗日은 했으나 中國人을 위해서 했을뿐이라고 하는 自身の 부끄러운 過去에 있는 듯하다.
(徐大肅 前掲書 pp.256 ~ 293)

그 証拠로는 그가 이미 지난날에 滿洲等地에서 돌아다닌 嚴然한 하나의 事實을 가지고 金伝을 쓸적에는 이랬다 저랬다 修正을 가하고 있으며 어떤 境遇에는 "이렇게 했다"고 叙述했다가 그다음 修正때는 "저렇게 했다"고 遁甲을 시키고 있음을 볼수가 있는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金日成은 지난날의 滿洲生活이 부끄럽게 여겨질것이며 劣等減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한다.

우리는 여지껏 金日成의 精神構造속에 있는 ID (本能)가 어떻게 存在하는가를 살펴 보았다. 이것을 要約해 보면 그는 強力하고 견딜수 없는 性的衝動을 느끼며 周辺의 与件이 不利하면 自動적으로 온갖 破壞本能이 發動하게 되며 그러면서 恒時 劣等감에 사로잡혀 있어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 지나친 自尊心, 驕慢, 人爲的인 自己宣傳의 造作등을 反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우리는 다음으로 金日成 精神構造속에 超自我 (Superego) 即良心은 어떤 形態를 취하고 있는가 살펴 보기로 한다.

(3) 金日成의 超自我 (Superego)

超自我 (Superego) 는 精神分析學에서 말하는 用語로서 一種의 內在化된 權威 (Internalized authority) 이며 良心 또는 倫理意識 이라 할 수가 있다.

幼兒가 태어났을 적에는 배고프면 울고 추우면 보채게 되는 一種의 本能的 存在에 不過하다. 점차 成長함에 따라 周圍를 살피게 되고 特別히 父母들의 꾸중이나 叱責을 받을적에 緊張이 생기게 되고 父母의 칭찬을 받을 적에 유쾌한 氣分이 된다.

어린 幼兒는 父母의 칭찬을 받기를 願하며 꾸중이나 叱罰을 받기를 피하는 것을 事實이다.

이런 過程을 통해서 어린이는 마침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닮게 되는데 이와같은 닮은 (同一視 identification) 을 통해서 어린이는 自己의 行動지침을 스스로 定할 수 있게 된다.

이 超自我의 形成은 이제 말한 父母의 禁止를 받을 적에 父母의 모습 (權威) 을 自己속에 받아들이고 (投入 : introjection) 父母를 닮게 되는데서 시작된다.

이런 作用이 가장 重要하게 일어나는 時期는 3~4歲적인데 이 時期에 父母가 어떤 態度를 취하면 어떤 본을 보여주는가 어떤일은 꾸중하고 어떤일에 칭찬했는가 하는 따위가 곧 影響을 미치게 된다.

우리는 金日成의 幼兒期에 있었던 집안내의 父母들의 對人關係에 대해서 아무런 資料를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그가 극히 가난

한 집안의 子孫 또 宗孫으로 태어났다는 것과 祖母와 母의 溺愛를 받았다는 것 어려서부터 남의 알장서기를 좋아했다는 것을 記錄에서 찾아 볼 수가 있다. (白崑著)

父 金亨稷과 母 康盤石의 夫婦關係는 어떠한가? 훗날 滿洲에서 一定한 職業이 없이 彷徨하던 金亨稷은 家族의 生計를 꾸려갈 수가 없었고 夫人 康盤石이 굶다 못해 獨立軍 車千里部隊의 食母 살이를 하면서 흠쳐오는 밥으로 金亨稷, 金墾柱, 哲柱(當時 營養不足으로 死亡) 英柱의 목숨을 잇고 있었던 것이다. (李基奉著 「金日成과 女人们」)

金亨稷은 婦人의 신세를 지면서도 방에서 큰소리 치는 것을 잊지 않은 性質이 있었던 것 같다. 이것은 金日成이 어릴적에 父 亨稷이 崇實學校 少使로 일할적이나 滿洲서 放浪할적이나 變化가 없는 묘한 自尊心이기도 했다.

金亨稷은 보잘것 없는 存在인데도 自己自身은 무슨 憂國志士나 된 것 처럼 “부잣놈들 때문에” 못산다느니 하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들려주었고 滿洲에서는 한때 免許도 없고 資格도 없는 터에 무슨 醫院을 한담시고(撫林醫院을 先生께서 經營하셨다. ……云云) 가짜 醫師의 行勢를 하나가 사람이 죽자 逃亡을 가기도 했던 것이다.

이런 環境에서 金日成의 超自我는 어떻게 構成될 수가 있는가?

한말로 말해서 金日成의 超自我 良心은 어떤 自制하는 良心의 機能을 가지지 못했고 恒時 「부잣놈들」에 對한 憎惡感으로 바뀌어 「外部攻擊的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또한 金亨稷의 態度로

보아 必要하면 거짓말도 해도되고 法도 여기기도 하며 가짜 醫院의 行勢도 해도 된다고 하는 認識을 無意識중에 伝受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때 金日成에게는 超自我 即 良心이 없거나 극히 稀薄하다는 結論이 나온다.

뒤에서 다시 分析되겠지만 金日成이 가진 良心이 있다면 그것은 극히 抽象的인 「이데오르기」적인 觀念일 뿐이다.

그는 입만 벌리면 '人民'이니 '美帝國主義打倒'니 '革命'이니 '民主主義'니 '祖國解放'이니 하는 소리를 하기 때문에 얼핏보면 그가 무슨 우리나라의 將來와 우리民族의 갈길에 대해서 크게 念慮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는 마음속으로 民族을 사랑하고 人民을 위하고 人間을 사랑하는 그런 良心的인 動機가 있는것 같지는 않는 것이다. 여기에 對해서 여러가지로 例示할 수 있으나 오늘날 北韓에서는 共產主義理念보다 金日成偶像化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이는 金의 '脫이데오르기現象'을 보여주는 証據이다.

아무리 最終的인 目標가 良心的인 것이고 倫理的으로 높이 評價될 수 있다하더라도 그 方法이나 手段이 나쁘면 結局 惡이라고 밖에 할수가 없다. 그가 滿洲生活을 제쳐 놓더라도 北韓에서 한 30年 歷史를 보면 ①政敵이나 假想的 敵對行爲者에 對한 가차없는 肅清 ②全人民에 對한 徹底한 彈壓과 勞動力의 搾取 ③수많은 無한 女性들에 對한 凌辱 그리고 그것도 不足해서 ④自己를 神的 存在로 받들기를 強要하고 있는게 現實인 것이다.

따라서 金日成의 하고자 하는 最終的인 政治的目的도 결코 "人
民을 사랑하는" 휴머니즘에 立脚한 良心的인 것은 되지 못하고
오직 自身の 支配欲을 滿足시키고 있다는 結論이 나오는 것이다.

이와같은 「沒超自我」 내지는 「沒良心的」인 金日成이 어째서
남들이 하는 일에는 일일이 介入하며 잘못한다고 나무라고 있는가?

自己는 예사로 사람을 때려 죽여도 되면서 남들은 그것에 1/10
도 안되는 것을 하면 金은 自己의 짓은 덮어둔채 남의 잘못만
가지고 한사코 非難하는 性質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金日成은 北韓의 學生들이 反抗한다고 해 무자비하게 処刑함은
勿論, 1974年初부터는 그의 敎示를 通해서 全体 大學生을 炭鉞,
鐵道敷設, 道路工事 등의 勞動관에서 重勞動을 시키고 있으며 學業은
겨우 밤에만 몇 時間씩 시키고 있는터에 (沈玄氏証言), 그는 언필
칭 "南朝鮮의 學生彈壓 中止하라" "韓國의 宗教人 言論人彈壓을
中止하라"고 외치고 있다.

金日成의 超自我는 이와같이 自己反省이나 自制하는 方向보다는
남들에의 攻撃에 바쁘고, 自己合理化에 급급하게 作用하고 있는 듯
하다.

即 金의 境遇 良心의 機能이 제대로 發揮되지를 앎고 있음은
勿論 오히려 自己를 抑壓하기는 커녕 他人과 社會를 向해서 攻撃
作用을 하고 있는 것이다.

金日成의 超自我의 形成過程에서 또하나의 특기할만한 事項이 있
다. 그것은 金의 어릴적부터의 宿命的인 放浪을 通해서 그가 본
받아야 할 對象이 아버지 한사람이 아니라 여러사람이 있는 것이다.

即 “多父의 映像 (multiple father image) 이 있는것을 보이는데 이는 매우 重要한 意味를 가진다 할 것이다.

前述한바와 같이 金日成은 特히 어릴적만 父母 祖父母의 大家族 制度속에 있었지 철이 들면서부터는 대부분 혼자 滿洲벌판에서 生과 死를 건 彷徨을 했어야만 했다.

그러므로 그가 偶然히 만나게 되고 그에게 다소라도 따뜻하게 대해주고 金日成이 불적에 힘이 있어 보이는 存在는 다 父의 像으로 浮刻되었던 것이고 金日成도 自己 아버지를 대하듯 忠實하게 服從했음을 알 수가 있다. 이점은 뒤에 다시 論述되지만 그의 人格의 特性과 行為의 可變性을 뒷받침한다.

이미 說明한 바와 같이 日人 菊池博에게도 온갖 忠誠을 다하며 돈많고 權勢중은 그의 사위가 되려는 꿈으로 菊池의 딸 文子(후미코)를 征服했던 일도 있다. 그후에 알게 된 馬賊團 小頭目 陳惠에게도 相當히 밀접한 關係를 맺도록 接近하면서 陳惠이 危機에 놓이자 奮勇을 發揮하면서 陳惠을 구해주는 境遇도 있어 그의 信任을 받기도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金日成은 陳惠도 하나의 아버지로서 받아 들였을 可能性이 있는 것이다.

金日成의 또하나의 父像은 그를 蘇聯에서 도와주었고 8.15 解放後에 그를 北韓의 統治者의 地位로 올려 놓는데 役割을 한 로마빙코 少將이나 스탈린이라 할수가 있다. 服從 잘하고 忠直하게 굴었던 金의 態度에 로마빙코는 크게 滿足했던 것이고 當時 蘇聯에는 韓國人으로 骨隨 共產分子들이 많이 있었지만 로마빙코 少將의 강력한 推薦에 依해 베리아와 스탈린의 裁可를 받았던 것이다.

이와 같이 金日成의 精神構造속에 있는 超自我는 그의 生父 金亨稷의 訓育뿐 아니라 菊池, 陳應, 周保中(東北抗日聯軍의 責任者, 中國人), 로마빙코, 스탈린 등의 가르침이나 態度가 자리잡고 있어 그의 行動啓示에 無意識的인 影響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判斷된다.

이것은 金日成의 行動에 어떤 一貫性이 없고 이랬다 저랬다 하며 어떤적에는 馬賊 陳應과 같은 殘忍性을 보여주고 어떤적에는 日商 菊池와 같은 奸巧性을 나타내기도 하며 境遇에 따라서는 周保中과 같은 共產 遊擊隊 根性이 엿보이기도 하며 로마빙코와 스탈린과 같은 陰凶性을 보여주기도 한다는 것이다.

北쪽에서 나오는 金日成伝(白峯著)을 보면 金이 육문중학에 다니며 留吉学生会를 責任지고 있을적에 島山 안창호先生을 攻撃했다는 句節이 나오는데 어쨌든 金이 어릴적부터 어떤 韓國人이나 우리의 民族的指導者를 欽慕하고 同一視했던 것 같지는 않으며 따라서 金에게는 民族主義가 稀薄하다 하겠는데 훗날 金日成이 民族主義를 부르짖는 底意가 거짓되며 하나의 제스처에 지나지 않는다는 事實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4) 金日成의 自我(Ego)

우리는 金日成의 精神構造(mental structure)에서 本能의 部分과 超自我 即 良心의 部分을 살펴 보았다.

本能이 要求를 하면 超自我는 禁止와 抑圧을 통해서 本能을 제지하게 되었다. 이때 自我(Ego)는 本能과 超自我의 中間에 서서 調整役割을 하며 될수 있는 한 本能의 요구를 現實的으로 이룩

할려는 作用을 한다. 따라서 自我 (Ego) 는 現實原則 (reality principle) 에 따라 움직인다.

그런데 이미 여러곳에서 例를 든바 있지만 金日成은 徹頭徹尾 現實主義者로 생각되며 따라서 그에게는 過去 現在 未來의 時制에서 오직 「現在」에 忠實하려고 함을 알수가 있다. 그가 그럴듯한 共產主義革命의 未來像을 내세우고 있지만 實地의 動機는 그의 「現實」의 싸움에서 勝利코자 하는 目的이 強한게 事實이다. 反對로 그가 自身の 過去에 대해서, 「찬란한 鬪爭經歷」을 내세우고 全人民으로 하여금 反復해서 學習토록 強要하지만 이것 역시 金이 過去에 얽매여서 그렇다고만은 解釋할 수가 없을 것이다.

即 그의 오직 關心이 있는 部分은 現實뿐인 것이다.

그렇다면 金日成의 精神構造에서 가장 두드러진 部分이 바로 現實을 重視하는 自我 (Ego) 라는 結論이 나온다. 本能 (ID) 도 強하고 또한 變能的이기까지 한것도 事實이지만 金日成이 自我 (Ego) 는 이들 本能이나 超自我를 능숙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다.

한例를 들면 解放 當時 有名한 舞姬 崔承喜에 대해서 性的衝動을 느꼈을 境遇에는 그의 狡猾한 自我 (Ego) 는 機能을 最大로 發揮하여 ①우선 그의 男便 安漢을 적당한 구실을 붙여 政治保衛部에 불러서 心理적으로 威脅을 가하고 ②崔를 誘引해서 強姦을 하여 性的快樂을 맛보고 ③그와의 SEX를 통해서 自身の 名譽慾과 支配慾도 滿足이 되고 ④崔를 自己의 政治路線에 대한 宣傳을 지키기 위해 歐羅巴에 보내어 巡訪公演을 시켜 利用하고 ⑤이것으로 自身の 政治的理想인 社會主義建設에 動員했다고 우짚대면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기도 하는 것이다.

이런 일련의 행위를 통해서 金은 自己의 精神構造속에 있는 ID 自我超自我의 三者를 全部 滿足시키는 結論이 나온다.

이와같이 한가지의 일을 함으로써 여러가지의 多目的인 滿足을 얻게 되는 現象은 精神分析學에서는 多機能충족의 原則(Principle of multifunction)이라 한다.

金日成은 이미 그의 「知能問題」의 항에서도 지적한바 있지만 自身의 目的이나 野欲을 達成시키기 위해서는 매우 發達된 特殊觸角(Sense)을 가지고 있어 주어진 과제를 短期間에 완수시키는데는 相當한 能力이 있는 것인데 이것도 自我(Ego)의 機能인 것이다.

이와같이 金日成의 自我(Ego)가 가장 두드러지게 發達되고 있어 極히 能率的으로 内外現實을 處理해 내는 몇가지의 例를 들어 보자.

(7) 6.25 挑發의 問題

金은 6.25 動亂을 勃發시키므로 해서 ①自身의 不安한 地位도 確立하는 契機를 얻었고 ②내적인 攻撃衝動이나 殺人強迫, 放火欲求, 破壞本能도 만끽할 수 있었고 ③自身은 當時副首相 洪命羸의 딸 洪貴媛과 溫泉에서 SEX 놀이를 즐길 수 있었으며 ④南勞党派, 延安派, 蘇聯派, 甲山派, 軍事派에 대한 徹底한 掃蕩作業을 할 소자를 마련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때 金은 自己에게 주어진 現實的 与件을 얼마나 徹底하고 多機能的으로 利用하는가 함을 알 수가 있다.

(ㄴ) 땅굴問題

最近 金日成은 땅굴을 팜으로써 国内外에 波紋을 던지고 있다. 왜 그런짓을 했는가? ①첫째 몰래 南侵땅굴을 팜으로써 機會가 오는 奇襲하여 赤化野欲을 滿足시킬려 했고 ②北韓 住民들을 어려운 굴을 파게 만들므로써 혹사시키는데서 오는 새디즘(加虐的 滿足을 취하고 ③그간 "南朝鮮解放"을 시키기 위해서 참고 英雄的으로 일을 하자고 北韓住民을 혹사할대로 혹사해 왔으나 막상 내려오자니 겁이나고 時期도 좋지 않으며 그렇다고 "南으로 아직 못내려간다"고 할 수도 없고…… 그는 그 硬度높은 岩盤을 몇날 몇일이고 파냄으로써 그것이 完成될때까지는 당장 南侵을 안해도 骨鯁軍人이나 好戰派들로부터 재촉을 받지 않는다. ④감감하고 어두운 굴은 金日成에게는 원래 相當한 安堵感을 주는 対象이 된다. (이것은 後에 다시 分析)

이와같이 金日成은 그의 精神構造에서 自我(Ego)의 部分을 가장 有用하게 活用하고 있으며 普通의 良心을 가진 사람이나 宗教나 倫理나 哲學的인 問題를 가지고 苦悶하는 사람, 人間愛에 넘치고 人間을 아끼는 휴머니즘의 사람등은 감히 想像조차 할 수 없는 끔직한 것들도 잘 행하며 常識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들도 그는 現實的 目的을 達成하기 위해서는 예사로 저질르는 것이다.

즉 金의 精神構造에서는 自我와 本能(ID)만이 강하게 作用하고 超自我는 제대로 機能을 發揮 못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우리는 金日成 과의 「對話나 對決」을 함에 있어 金이 가진 多機能原則 (Principle of multifunction) 의 世界를 철저히 把握하여 그가 어떤 점들을 여러가지로 노리고 있는가를 미리 把握하여 有效適切한 대처를 해야 할 것으로 본다.

7. 金日成의 精神力動學的 考察

여지껏 우리는 金日成의 家族歴과 生長史, 社会, 政治的 経歴 그리고 그의 性格的 特徵을 살펴 보았고 그가 가진 精神構造의 解剖圖를 精神分析學的인 입장에서 檢討해 보았다.

우리는 이제 그의 精神構造속에서 ①생각이 어떻게 일어나며 ②어떤 思考를 反復하며 ③思考와 行動간에는 어떤 關係를 맺는가 ④그의 關心의 世界는 무엇이며 ⑤北韓社会를 어디로 이끌고 가고 있는가? ⑥南北關係에 대한 眞正한 의도는 무엇인가? ⑦자신에 대한 偶像化運動의 眞意는 무엇인가? 하는 따위에 대해서 精神力動學的으로 살펴 볼 때가 되었다.

(1) 人格發達 (Personality Development) 과 固着現象 (Fixation)

① 固着的 精神分析學的 概念

우리 俗談에 “세 살 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精神分析學에서도 이와 類似한 概念이 定立되어 있는 것이다.

即, 幼兒는 태어나자 마자 제일 먼저 關心이 集中하는 곳은 本能的으로 ① 입으로 젖을 빨기 (口肛期)에 쏠리고 ② 滿 1年6個月에서 3年6個月까지는 먹는 食物을 배설 (排泄) 하기 (肛門期)에 關心이 集中하는데 이때는 父母들이 오줌과 便을 가리는 訓練을 시키기 시작되고 함부로 새 옷이나 이불에 변을 보지 못하도록 訓練을 하게 된다. K. 아부라함 (Karl Abraham) 博士는 이와같은

父母들의 변가라기의 訓練 (toilet training) 을 통해서 人間の 道德意識이 形成되기 始作한다는 點을 말하고 있다. 그 다음

③ 幼兒의 關心은 自己의 性器 (penis) 에 쏠리게 된다는 것이다. 男根期 (phallic stage) 즉, 男兒는 自己의 男根을 자랑하며, 남들이 보는 앞에서 선 채 小便을 하면서 快感을 느낀다는 것이고 女兒는 男子와 같은 性器가 없는 것을 알고 몹시 부러워하며, 열등감에 빠지는데 이것을 男根선망 (penis Envy) 이라 한다.

그러나 男兒는 偶然히 女兒의 性器를 보게 되고 自己와 같은 男根이 없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되며, "왜 女兒가 그것이 없는지" 窮理하다가 "그것이 斷切되었겠지" 하고 스스로 判定하고 놀란다는 것이다. "혹시 나도 父母—특히 아버지에게 잘못보이면 男根이 잘려지지 않을까?" 하고 恐怖感을 느낀다. 이것을 精神分析學에서는 去勢不安 (Castration Fear) 이라 한다.

男兒는 自己의 性器를 자랑하며 특히 母에 대해서 性的 衝動을 느끼는 것인데 (滿3歲~5歲) 이 現象을 에디프스 콤플렉스 (Oedipus Complex) 라 한다. 이때 女兒는 父에게 愛情的 집착을 느낀다는 것이다.

④ 男兒는 去勢不安 때문에 母에 대한 近親相姦的 性的衝動을 清算하지 않을 수 없고, 할 수 없이 父를 받아드리고 父와 같이 되려고 하고 父를 닮으려 하는 것이다. 이를 精神分析學에서 同一親 (Identification) 現象이라 한다. (滿四, 五, 六歲) ⑤ 이以後에 어린이의 關心은 自身의 身體나 性的快感에 대한 추구를

斷念하고 어느 期間 다른 곳에 神經을 쓰게 된다. (潛在期 Latency) ⑥ 그후 어린이가 점차 자라나면 思春期에 이르고 이때 性에 대한 関心이 蘇生한다. (性器期 Genital Stage)

이와 같이 人間은 誕生時부터 각 發達段階를 거치게 된다. 發達중 어느 段階에 固着(Fixation) 또는 發達中止(Developmental Arrest) 되면, 그가 몸은 成人이고 나이는 많이 먹어도 心理學的인 行動이나 態度는 그 段階에 머물게 되어 유치한 짓을 反復한다는 것이다.

㉠ 金日成의 男根期(Phallic Phase)의 固着症狀

金日成은 어떤 發達段階에 固着되었는가? 그것을 斷定하기 위해서는 좀더 자세한 幼時生活의 資料가 必要하다. 그러나 그의 훗날의 行動이나 政治的 態度 및 對人關係 따위를 잘 살펴보면 그가 어디에 固着되었으며, 어떤 特徵的인 行動을 反復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다.

結論的으로 말해 본다면 그는 주로 男根期(Phallic Stage)에 固着이 되어 있고 그 다음 段階인 肛門期(Anal Stage)에도 얼마간 固着된 特徵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男根期에 固着되면 ① 자신의 性器를 자랑하며, 自己中心主義에 빠져 있고 ② 演劇的 要素가 있고 ③ 自身の 한 行動에 責任을 지지 않는 無責任性이 있고 ④ 때로는 目的을 위해 手段을 가리지 않으며, 虛言도 예사로 하는 것이다.

金日成의 過去의 行蹟을 살펴볼 때 그의 思考나 態度를 決定하

는 特徵은 이제 말한 바 男根期的인 現象을 보이는 것이 事實이다. 그 實例를 살펴보자.

① 女性편력과 性器의 자랑하기.....이미 論述한 바와 같이 (精神構造 参照) 金日成은 極히 本能的 衝動을 못참는 性質이 있었던 바, 그는 手段과 方法을 가리지 않고 女性들을 性的으로 寵絡했던 것이다. 이것은 精神力動學的으로 볼 때 「自身の 性器 (Penis)를 남들에게 자랑하고자 하는 心理」가 있는 것이다.

한 女性에게만 性的關係를 맺으면, 그 優秀性(?)이 잘 알려지지 않을 可能性이 있다. 따라서 金日成은 無數한 女性들에게 自身の 性器의 優秀함을 證明코져 하는 것이다.

(例省略)

이와 같은 「性器자랑」의 男根期的 特徵은 그의 政治行態에서도 여러가지로 볼 수가 있는 바 가령 數十萬弗을 뿌리면서 世界各國의 有名紙에 自己宣傳의 全面廣告를 내고 있는데 이런 金의 自己宣傳은 다른 政治的 目的도 배세우겠지만 기실 마음속으로 自己存在를 자랑해야만 될 無意識的 動機가 숨어 있는 것이다.

그가 莫大한 外債와 감당키 어려운 國民經濟를 外面한채 무슨 赤軍派나 南美 아랍地域의 援助를 한답시고 떠벌리고 있는 政治的 체스추어도 畢竟 자신을 世界에 널리 알리고 자랑코져 하는 心理에서 오는 것이다. 끝으로 平壤에 있는 會議場마다 超巨大의 金日成寫眞이 걸려 있어 그것이 내려다보는 데서 會議를 進行시키는 現象도 金이 얼마나 자랑코져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② 演劇性………金의 特徴的인 政治形態로서 우리는 그의 發達된 「演劇性」을 들 수가 있는 바, 이것도 男根期的性格의 特徵인 것이다.

對內的으로는 온갖 戰爭準備를 다 하고 있으면서도 對外的으로는 가장 平和를 사랑하는 「平和의 使徒」처럼 演劇을 꾸미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前記했지만 日本衆議員의 宇都宮議員과의 對談內容을 보아도 그가 가장 民族을 걱정하고 있고 平和를 위하여, 南北對話에도 진실한 자세로 임했던 양 行동을 취함으로써 상대를 確信토록 誘導하고 있다.

金の 지난날 8.15 前의 行脚을 보더라도 그가 菊池나 陳惠, 王德泰, 周保中, 로마빙코, 스티코프, 스탈린, 毛沢東等을 대할적에도 가장 忠實한 心腹部下처럼 行動을 했고 이로인해 그들의 신임도 받고 出世도 하게 되었지만 이것 역시 金이 가진 巧妙한 演劇性的의 發揮가 奏効된 점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金日成은 이런 自身の 演劇性的의 能力에 자신(自信)을 가지고 있는 듯 하며 이런 手法을 심지어는 美國이나 其他의 自由友邦國家에도 使用해 보려고 하는 듯 하다.

그가 수차에 걸쳐 自身이 지난날의 經歷까지 계속 날조 變更할 수 있는 점도 金日成이 가진 演劇性的의 性格에서 오는 斷된다.

㉔ 金日成의 肛門期 (Anal Phase) 의 固着症狀

우리는 다음으로 金日成의 性格發達에서 固着된 또 하나의 側面인 肛門期現象을 살펴보자.

肛門期的 特徵은 ① 계속 疑心을 하고, 事物을 再確認하며 ② 反復적으로 같은 行動을 하고 ③ 무슨 일을 계속 修正하여 完全한 것을 만들려는 完全主義 (Perfectionism) 가 있고 ④ 貧慾이 많으며, 独占力이 강한 게 그 特徵인 것으로 되어 있다.

金日成의 性格的 패턴을 보면 이런 肛門期的인 것도 混在되어 있는 바 그것을 살펴보자

① 金日成의 反復強迫 및 完全主義

金日成의 肛門期固着의 特徵으로 그의 強迫性 (Obsession) 과 完全主義 (Perfectionism) 를 찾을 수가 있다.

그는 해방후 오늘날까지 4次에 걸쳐 金日成伝을 修正하였고 金日成選集 역시 修正에 修正을 加하고 있는 것이다. (조재관 「金日成選集의 修正過程分析」, 國土統一院)

大體로 그의 演說文 (勞動新聞, 金日成選集, 民主朝鮮等 全般) 을 보아도 한가지 事實을 強調코자 할 적에는 그것을 여러번이나 되풀이 해서 反復적으로 說明 強調하고 있다.

그의 演說文은 내용은 별로 없으면서 길다란 녀두리와 說明과 強調의 反復을 통해서 不必要하게 길게 나가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리고 金日成 唯一思想運動後에는 더욱 두드러진 현상이지만 金日成은 자신의 이름석자 앞에 不必要하고 지루할 程度로 많은

修飾語를 부치게 하고 있는데 가령 「革命的 偉대한 旗手요, 歴戰 歴勝의 卓越한 軍事戰略家이며, 朝鮮民族의 英雄的 指導者며,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의 首領이신 金日成同志……云云」하는 투의 문장을 곳곳에서 反復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이것은 金日成이 그저 「金日成首相」이라면 不安하며 自身の 同一性 (Self Identity)에 威脅을 받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 그의 無意識世界에서 念慮되기 때문에 反復적으로 修飾語를 부치게 하는 것으로 分析되는 것이다.

6.25 事變後 北韓社会에서 住民들에게 強要하고 있는 各種 「운동」 (셋벌보기 運動, 千里馬 運動……)도 따지고 보면 金日成의 強迫的 思考에 緣由하는 것이다.

즉, 住民들을 가만히 앉아 있게 하면 무슨 짓을 하지 않을까 하는 不安과 疑心때문에 이런 自身の 不安을 解消시키기 위해 「反復적인 運動」을 強要한다는 結論이 나오는 것이다.

金日成의 男根期的 固着과 肛門期的 固着症狀의 混合形態도 볼 수가 있는데 그 좋은 例가 「肅清의 殘忍性」이라 할 수가 있다.

② 肅清 및 殘忍性

金의 殘忍性은 그의 性格形成過程에서 생긴 것은 사실이다. 워낙 反社会的 本能的 衝動이 많은데다가 그것을 正常的인 家庭教育과 学校教育을 통해서 醇化 發展시키는 過程—즉 社会化過程 (Socialization Process)을 밟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殘忍性은 金日成이 가진 強迫性 (肛門期)과 히스테

리성(男根期)이 혼합해서 同時에 일어나는 現象으로 分析된다.

그는 어릴적부터 오늘날까지 온갖 殘忍한 行動과 政治的 肅清을 反復해 왔던 것이 事實이다.

이미 例示한 바와 같이 1926年 14歲時 彰德普通學校에 다닐적에 級友를 물에 처넣은 것을 위시해서 옷 잘입고 공부 잘하는 級友들에게 싸움을 걸어 옷을 찢고 얼굴에 상처를 남겼으며, 尹氏宅에 放火를 했고 崇實專門의 유리창을 깨었다. (196年 北韓 發行小冊子 「우리 首相님의 어린시절」(1974年 서울發行, 李基奉 著 實錄 金日成 第1卷中 金日成의 小學동창 文東一의 証言)

19세기 만주서 權永壁과 王亮을 殺害, 그후 陳應의 馬賊團서 만주인 馬賊 張富春과 秦力真을 頭領에게 誣告하여 直接 자기 손으로 靑龍刀로 목을 쳐 죽였고 그 피를 빨은 사실이 있었다. (그外 無數) (上揭書, 文東一의 証言)

1935年 12月 共匪時節 // 그날밤 우리는 金日成원수의 直接的인 指揮아래 百倍의 힘을 내어 長白峯 13道溝 부락에서 반동주 구배들(移住同胞)에게 무리 죽음을 안기고 수많은 食糧을 擄奪(掠奪)하였다..... // (1966年 北韓發行「빨치산 參加者 回想記」中 p.12. (백학림의 回想)

(1936年 6月 재만시절 우리는 延吉지방에서.....깨진 돌과 유리조각을 섞어 爆彈을 만들어 부락의 惡質分子(移住同胞)들을 쏘아 눕히고 많은 糧穀과 必要한 物資들을 獲得하였다)(빨치산 參加者 回想記 p.54-60 朴연순의 回想).....以下 省略

해방후 그가 北韓의 權力을 잡은 후에 南勞派, 延安派, 蘇聯派, 군사파, 甲山派등을 모조리 肅清하였고, 그것도 殘忍한 方法으로 억울하게 罪를 씌워서 除去한 사실은 다 殘忍性和 그가 가진 肛門期的 強迫性이 합친 兇事라 할 수가 있다. 즉 敵은 徹底히 없애야 한다. 反復 確認해야 한다는 強迫性和 自己中心的으로 演劇性마저 發揮하면서 除去해 버리는 히스테리성이 합쳐 있는 것이다.

우리는 金日成의 人格이 그 발달의 男根期와 一部の 肛門期에 固着되었다는 사실과 이로인해 여타가지 未熟한 性格的 側面(演劇性, 女人癖, 自己誇示, 自己中心主義, 反復的 強迫性, 殘忍性, 肅清 콤플렉스.....)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2) 自己愛 (Narcissism) 과 誇大妄想

金日成의 精神構造속에서 그의 思考와 行動을 強力하게 支配하는 또 하나의 側面은 나르시시즘(自己愛)이라 할 수가 있다.

지독하게 가난한 가운데 자라면서 "큰 人物이 되고" "父母의 원수를 갚아 달라"고 부탁받으며 "陸軍判事(北쪽주장)라는 별명을 들었고" 집안에서는 "長孫" "宗孫"으로 추대를 받았던 그는 마침내 "自己가 第一이다"라고 하는 나르시시즘을 형성하고 말았다.

그는 무엇이나 自己와 關係되는 일은 다 훌륭하고, 위대하며, 絶對的이라 믿는 性質이 있는 것 같이 보인다.

해방후 北極에서는 모든 獨立闘士나 民族指導者(安昌浩, 金九,

李承晩, 尹奉吉, 金佐鎭, 李範奭……) 들을 다 「테로분자」 「保守主義者」 등의烙印을 찍고 비난하고 있는데 妙한 것은 安重根만은 비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金日成이 国民學校 在學時 學校 演劇을 했는데 金이 마침 安重根의 役割을 맡은 일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金日成의 思考方式이나 判斷基準은 共產主義理論도 아니고 그렇다고 合理主義도 아니며 오직 「나르시시즘」인 自己中心主義인 것이다.

여러가지 例를 들 必要없이 北韓社會를 보면 金日成 偶像化 運動을 狂的으로 벌리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金의 나르시시즘 雄辯的으로 證明하고 있다.

이 나르시시즘은 더욱 病的으로 擴大 表現되어 마침내 誇大妄想 (Grandiose Delusion) 을 이룰 지경이 되고 있다. (白尙昌, 北韓社會의 偏執狂的症狀—國際問題)

金日成을 描寫하는 말에 「祖國解放의 歴史的 勝利는 百戰百勝의 鋼鐵의 靈長하신 金日成同志의 偉대한 政治的 領導와 天才的 軍事 藝術, 主体思想의 빛나는 勝利! 라는 얘기를 군데군데서 말하고 있는데 이는 전술한 強迫性的 表現인 同時에 金日成이 가진 나르시시즘의 단적인 例인 것이다.

1974年 12月中 北韓放送 「팔치산 參加者 回想記」 連續朗誦의 內容을 보면 ① 元首님 (金日成) 은 神通力, 透視力을 지내셨기 때문에 땅속이나 물속은 勿論 사람의 마음속까지 꿰뚫어 본다. ②

원수님은 縮地法을 써서 하루밤에도 몇 백리를 달리셨다.

(빨치산시절) ③ 원수님이 日本軍 討伐隊에 神通力을 행사하면 日本軍은 별별 꺾면서 武器와 軍糧을 갖다 바쳤다. ……云云

1969年 7月 北韓發行(日本雄山閣번역판) 白峰著 金日成伝을 보면 // 1920年 1945年 8月 15日까지 抗日人民遊擊隊를 指揮하여 日本軍과 싸워 한번도 敗해 본적 없고 日本軍 45萬名을 殲滅 …… (pp. 326-344)

1975年 7月 4日 北韓放送에는 ……元首任이 타신 비행기가 히말리야山脈을 지날 때 바람도 숨을 죽이고 萬古의 白雪에 뒤덮힌 히말라야 靈峰들도 한결같이 머리 숙여 世紀의 大英雄이신 원수님을 歡迎했다. ……云云

金日成의 나르시시즘(自己愛)은 그 範圍를 擴大해서 자기의 祖上이나 父母는 勿論 子息인 金正一等에게도 適用시키고 있는 것이다. 가령 그의 曾祖父 金膺禹는 一字無識꾼인 자를 오늘날 北韓은 李朝末葉; 美國軍艦 제너럴 셔만호가 大同江에 왔을 적에 앞장서서 싸웠고 住民들을 지도했다고 捏造하고 있다.

不平分子요 社会適応이 어려워 만주별관을 彷徨했던 金의 父 金亨稷도 오늘날 北韓에서는 祖国의 解放을 위해 앞장서서 鬪爭했다고 捏造하고 있다. 無識한대다가 对人關係가 나빴기 때문에 UNG실 학교 小使(小使)직도 유지할 수 없었던 金亨稷을 北韓에서는

// 1917年 3月 23日 反日地下組織인 朝鮮國民會를 組織했다 // 고 주장

하고 있다. 또한 金亨稷은 만주에서 無免許 医療行為로 만주인을 죽게 하였고 鎭山에서 強盜짓을 했다가 國境을 넘어와서 숨어 살다가 日警에게 피체되어 만주에서 監獄살이를 하다가 페스트에 걸려 病保釈後 死亡했는데 오늘날 北韓은 「만주에다 獨立軍에게 軍資金을 供給했으며, 大韓獨立軍(白山武士團)의 軍醫로 勤務했다」는 등 至極히 훌륭한 사람으로 造作해 내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金日成은 自身の 銅像은 勿論 父 金亨稷의 동상도 세우고 곳곳에 自己와 關聯된 名所를 만들어 놓고 北韓住民으로 하여금 巡禮토록 만들고 있다. 또한 근자에 와서는 「代를 이어서 忠誠하자!」는 口號아래 대대로 金日成을 받들자는 뜻과 金日成뜻과 金日成에의 忠誠을 그 다음 代 「金正一同志」에게도 보내자는 두가지 뜻을 巧妙히 內包시키고 있다.

이제 말한 모든 現象은 金日成이 一般的인 共產主義者(스탈린, 毛沢東……)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들로서 金日成의 나르시시즘의 特徵的 現象이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3) 偏執狂現象(Paranoia Phenomena)

金日成은 主로 性格發達の 男根期 및 肛門期에 固着되어 있어 自己中心的이고 自己 宣傳的이며 演劇的인 데다가 남을 잘 믿지 못할 것이며 어떤 생각이고 行動을 反復的이고 強迫的으로 행하며 조금이라도 疑心되는 人物은 徹底히 肅清해 버리는 性質의 所有者임을 살피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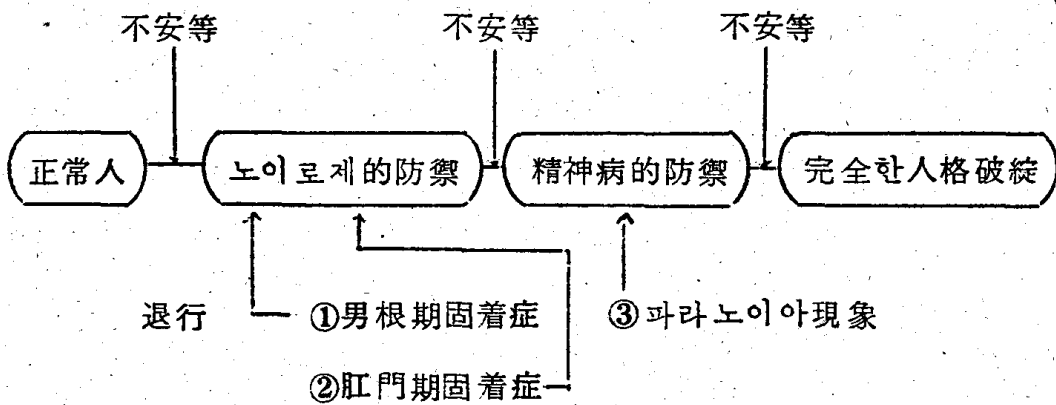
이러한 自己中心主義(男根期)와 強迫期(肛門期)은 그나마 金日成의 精神的 防禦機制(Defence Mechanism)로서 이 두가지 要因이 합쳐서 金日成의 精神的 패턴을 形成하고 있는 것이다. 이 두가지 (男根期的 및 肛門期的)特徵은 金日成의 未熟한 性格的 패턴을 이루고 있지만 反面에 이 自体가 그의 精神的 安定을 維持해주는 一種의 「防禦機制」로도 使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金日成의 ① 나이가 64세의 高齡을 向해 가고있고 右側後頭部와 頸部の 혹은 점차 자라고 있으며 ② 여러차례의 肅清을 통해서 反對勢力의 除去作業을 했지만 아직도 눈에 보이지 않는 敵對勢力이 있음에 틀림없고 항시 이것을 위해 神經을 消耗해야만 하고 ③ 對南浸透를 劃策해 보았으나 뜻대로 되지는 않으며, 南北對話를 해도 그가 노리던 南쪽(대한민국)의 煽動, 混亂造成이 되질 않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④ 現在의 北韓社會는 完全히 偏執狂的 社會(白尙昌……北韓社會의 偏執症狀 國際問題7月号 서울)를 이룩하고 있어 자칫 잘못하면 社會崩壞가 올 수도 있는 極限狀況에 와 있는 듯 하고 ⑤ 특히 無定見한 經濟的 浪費와 重工業에의 無理한 投資 때문에 北韓의 經濟가 많은 外債를 지고 있어 이를 償當할 수 없는 狀態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金日成은 여지껏은 「노이로제」的 (히스테리+強迫神經症的)인 行動과 思考를 가지고 北韓社會를 統治해 왔다고 할 수가 있으나 이제 이것으로도 不足하게 된 것이다.

(註……마치 6.25 動亂 때 우리가 漢江에서 敵을 못막으면 錦江에서 막았고, 그래도 안되었을 경우 洛東江까지 後退해서 그곳에서 막았듯이 人間의 精神現象도 마찬가지임. 즉 不安이 심하고 挫折感, 罪惡感이 들면 노이로제 症狀이 오는데 노이로제의 症狀으로 우선 防禦를 하다가 不安등이 더욱 심해지면 人格이 더욱 退行해서 이번에는 精神病的인 症狀을 나타내어서 防禦를 하게 된다.



金日成의 昨今の 行態를 볼적에 (그래도 1964年前까지는 비록 괴팍스럽고 殘忍하고 自己中心的이었지만 그런대로 人格的安定을 維持할 수 있었음) 그의 精神狀態는 더욱 病的으로 後退되고 있어 人格이 崩壞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証拠가 여러가지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 証拠란 곧 오늘날 北韓에서 일어나고 있는 ① 지나치고 常識의 程度를 넘는 偶像化運動 ② 金日成 過去를 지나치게 虛構적으로 美化조작하는 現象 ③ 北韓住民들로 하여금 지나치게 憎惡感

에 휘말려 넣고 있으며 무슨 "南朝鮮人民을 구해야 한다"는 모
한 狂的 使命意識을 造作 注入시키고 있으며 또한 "남쪽과 美帝
가 侵攻해 을 것이라는 假想的인 被害意識을 심어 주고 있으며"
④ 아무도 못 믿게 되자 金日成은 共產主義史上 유례가 없이 親子
金正一을 後繼者로 삼는 作業을 進行하면서 "대(代)를 이어서
忠誠하자!"고 떠벌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들을 勘案해 본다면 金日成은 근자에 와서는 偏執狂
(Paranoia)의 病症狀을 나타내기 始作하지 않았는지 疑心스러운
것이다.

(註: 파라노이아 (Paranoia) ……精神病의 一種으로 남을 根本
的으로 不信하고 冷酷하며, 自信은 特殊한 하나님이나 宇宙의 使命을
받고 태어난 存材라고 착각하기도 하며 이런 생각이 지나쳐 妄想을
形成하기도 하며 現實的 狀況을 있는 그대로 客觀的으로 볼 수가
없고 항상 現實을 歪曲해서 잘한 것은 자기가 했다고 하고 잘못
된 일은 相對便에게 뒤집어 씌우는(投射) 現象을 볼 수가 있다)

(4) 関心の 領域 (Sphere of Interest)

金日成의 精神構造는 어떤 成分으로 構成되어 있으며 精神內
的力動學 (Psychodynamics)이 어떤지를 살펴보았다.

즉 ① 金日成은 人格發達의 한 단계(男根期 및 肛門期의 一部)
에 固着되어 있어 成人이 된 오늘날에도 一定한 未熟한 行動과

思考를 되풀이 하고 있다는 것 ② 그는 남달리 自己를 사랑하는 나르시시즘에 陶醉되어 있다는 것 ③ 근자에 와서는 神經衰弱이 더욱 進行되어서 癡癡(파라노리아) 症狀을 이룩하는 證據가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우리는 그의 精神力動學的의 또 하나의 特徵으로 그의 關心의 世界 (Sphere of Interest) 를 살펴보자.

(7) 過去, 現在, 未來의 問題

이미 言及한 바 있지만 金日成의 思考方式을 지배하고 있는 時相은 過去도 아니고 未來도 아니며 現在와 극히 制限된 닥쳐 울 未來之事란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미 言及한 바와같이 그의 살벌했던 少年時節과 馬賊生活時節등을 통해서 金日成은 오직 「어떻게 하면 現實에 살아 남느냐!」 하는 일에 가장 큰 關心을 쏟았던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볼때 그의 過去之事에 대한 現實의 統治作用을 위해서 별리는 것이며 무슨 共產主義의 革命的 理想的 모델이나 「南朝鮮 解放될 때까지」 를 내세우지만 이것 역시 現在時의 政治的인 支配를 위한 脚本인 것을 알 수가 있다.

그에게는 ① 옛날의 恩惠도 ② 보다 나은 社會를 위한 이데오로기도 ③ 여지껏 友好關係나 敵對關係 따위도…… 다 問題가 되지 않으며 오직 現實의 「冷酷한 利害關係」 만이 그의 關心인 것이다. 따라서 金日成과의 約束은 狀況이 變化되면 自動적으로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金日成의 行態는 항상 可變的인 모습과 姿勢를 보인것

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ㄴ) 太陽恐怖症 (Sun-phobia Syndrome)

北쪽의 주장에 의하면 "同志들은 하나의 별이 되라고 金一星이라 지었다가 훗날 차라리 太陽처럼 되라고 해서 金日成으로 고쳤다"고 憶說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그의 行態를 자세히 觀察해 보면 金日成은 太陽을 그리 좋아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太陽에 대한 恐怖症 (Sun-phobia Syndrome) 이 있는 것같이 보인다.

前 北傀駐在 폴란드大使館의 武官으로 있던 모나코 大佐의 진술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다.

“…… 6.25 戰爭 3年間 金日成首相은 거의 地下室 (방공호) 에서起居했고 重大會議는 반드시 子正이 지난 한밤중에 召集하여 部下들을 골탕먹게 했다. ……그리고 그 (金日成) 는 대체로 快晴한 날씨보다 구름이 끼고 눈이 내리거나 비가 오는 날만 밖으로 나돌았다. 그것은 비행기 爆擊에 겁을 먹어서인것 보다는 그의 오랜 習慣 (遊擊隊 狀況에서 비롯된) 때문인 것 같았다.

(「볼 다이제스트」 1964年 9月号 p.56, “韓國戰爭”題下の 번역手記)

이와같은 主張은 6.25 당시 金日成 大學生으로 서울侵攻의 탱크부대 政治將校였던 吳基完氏의 証言과도 일치되는 現象이다.

昨속에 문제된 땅굴만 하더라도 여러가지 政治, 軍事的 意味가 있겠지만 (이미 言及한 바와같이) 心理的으로 보면 金日成이

“어두운” 굴을 좋아 한다는 証拠이기도 하다.

오늘날 北韓의 모든 군수공장 뿐만아니라 중요한 회의장등이 다 地下로 들어 갔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잠수함기지등도 다 산 밑의 굴을 파서 사용하고 있는바, 이것도 空襲에의 對備과 더불어 金日成의 太陽恐怖症의 결과라고 할 수도 있다.

따라서 金日成은 항상 太陽이 없는 어두운 곳에서 머물다가 잠시 밖으로 나와서 攻撃을 가하고는 다시 어두움 속으로 도망쳐 버리는 (Hit & Run) 一連의 生理現象을 類推解釋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金日成은 ① 밝은것 보다는 어두운 곳 ② 明朗하고 快活한 것 보다는 陰 하고 排判的인 것 ③ 露出되고 높은 솟는 것 보다는 은폐하고 地下로 들어 가는 것 ④ 여름보다는 겨울을 ⑤ 人生의 正道보다는 裏面의 길을 ⑥ 言語化되고 表現된 것 보다는 潛在되고 숨은 부분을 더욱 치중하며 ⑦ 人間의 友好的인 면보다는 敵對的인 곳에 더 敏感하고 있는 것으로 解釋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

8. 金日成의 精神狀態에 대한

精神醫學的 診斷 (Diagnosis)

여지껏 우리는 金日成의 不遇했던 過去와 이 속에서 오직 살아 남기 위해 鬪爭하는 동안에 形成된 男根期的 및 一部 肛門期的 性格의 形成을 살펴 보았다.

精神構造에는 주로 反社会的이고 精神病質的인 破壞本能과 支配欲 등이 판을 치고 (ID) 있으며 自我 (Ego) 는 오직 本能的 衝動이나 欲求를 滿足시키는 데만 급급하고 作用하고 있어 多機能의 原則 (principle of Multifunction) 을 이루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원래 「多父的映像」이 形成된 金日成은 自身을 必要에 따라 金聖柱로도 金一星으로도 金日成으로도 偽裝하면서도 아무런 良心의 苛責을 받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의 男根期的 演劇性, 自己中心性, 偽裝性, 顯示性과 肛門期的인 執拗性, 反復性, 疑心, 徹底性 (完全主義) 등을 妙하게 구사하여 北韓社會를 掌握하였고 30年間 은갖 "소"를 동원하면서 自身の 位置를 確立해 왔던 것이다.

나이가 들어서 氣骨이 衰弱해지고 後頭部의 혹 (脂肪肉腫)이 增大하며 徹底하게 北韓社會를 閉鎖했던 것이 점차로 世界의 潮流가 들어감에 따라 金日成主義의 虛構性이 드러나게 됨에 따라 오늘날의 金日成은 점차 發惡的 段階로 退行하고 있는 듯한 徵候가 나타나고 있다.

즉 그의 人格的 統合体(Personal Integrity)는 와해 및 崩壞하기 시작하였고 따라서 그의 内部에 깊이 감추어졌던 無意識的, 集團無意識的 原始的 思考가 점차 露出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몇 가지만 例를 들어 살펴 보자.

(1) 金日成의 샤마니즘의 精神의 露出

北韓에서 찍은 映画를 보면 金日成이가 나타나면 모든 群衆들이 熱狂的이 되고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치고 하는 光景이 나온다.

그 光景을 가만히 觀察해 보면 마치 天上이나 樂園에서 救世主를 대하듯이 金日成을 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北韓住民들이 金日成을 대하는 것은 흡사 原始宗教에서 祭祀長을 대하는 듯 하며, 우리나라의 檀君王儉을 대하는 듯 하기도 하다.

이것은 오늘날 北韓에서 金日成의 独裁体制가 얼마나 極에 達했는가 하는 것도 나타내고 있다.

이런 独裁体制 속에서 民衆의 病理的心理에 대해서는 에릭치·프롬(Erich From)이 잘 설명해 주고 있다. (Escape From Freedom Man for Himself. Dogma of Christ 参照要)

그러나 現在 北韓社会에서 일어나고 있는 現象은 이런 要因만 가지고는 그 意味를 충분히 다 설명할 수는 없는 듯 하다.

그간 金日成의 政治行態를 뒤돌아 볼 때 몇가지 段階를 걸어왔다고 하겠다.

즉 金日成은 北韓住民을 統治하는 方法으로 ① 처음에는 愛國 투사 金日成將軍을 偽裝했고 ② 蘇聯의 武力의 背景을 利用과 ③ 殘忍한 肅清方法과 恐怖雰圍氣造成 및 ④ 北韓人民을 숨길 사 이없이 ‘運動’을 시켜서 思惟의 余地를 없애기 등을 活用해 왔 다고 할 수가 있다.

오늘날 金日成의 精神的統合에는 점차로 挑戰과 崩壞現象이 일어 나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깊이 있던 샤머니즘(Shamanism)的 要因더저 等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이 要因이 露出되고 있 는 듯 하다.

“그이는 宿地法을 써서 왜놈들을 殲滅했다. 云云……” “그이 가 히말라야를 지나갈 적에 萬古의 靈峰인 히말라야도 고개를 숙 였다. ……云云” 하는 式의 發表(그나마 北傀中央放送局)는 단순한 金日成偶像化 運動으로서만으로 볼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金日成의 深層心理속에 있는 原始的 思考가 露呈되는 証拠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現在의 金日成에게는 共產主義革命의 理想보다도 子孫萬代를 위한 祖国의 平和的統一의 비존(Vision)보다도 오 히려 自己의 마음속으로부터 올라오는 原始的 願望인 巫堂神(Sha man)이 되고자 하는 欲望이 가장 앞서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金日成의 退行的 原始的 思考가 露呈됨에 따라 몇몇 北 韓의 極烈的 追從分子들이 「神話作成」에 바빴던 것이고 따라서 金을 대하는 北韓住民의 態度가 病的, 宗教的, 歡喜마저 보인 結果

를 가져 왔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2) 金日成의 유교主義思考의 露呈

本 研究者는 앞서 모든 韓國人의 精神構造속에 있는 宗教的 要因에 대해서 言及한 바 있었다. 즉 本研究者가 約 2千名의 韓國人(国会議員, 家庭法院, 犯罪少年, 神科大学生, 仏教승려, 成均館大学生, 国立精神病院의 만성 精神分裂症 환자들등)을 대상으로 調査를 해 보았던바 모든 韓國人의 마음속 깊이에는 샤마니즘的 要因, 다음에 仏教的 思考, 그 위에 儒教的 要素, 맨 위에 西洋의 合理主義的, 基督教的 要因이 潛在되어 있음을 証明한바 있었다. (이 研究는 現在도 進行中임)

金氏 家門의 “長孫” 또는 “宗孫”으로 태어났던 金日成은 지금은 비록 共產主義者가 되어서 있지만 마음속 깊이에는 共產主義와는 거리가 먼 儒教主義, 家系主義, 血統主義 등이 자리잡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金日成의 深層心理속에 있는 儒教主義的 要素는 원래 “윗사람”을 섬긴다는 생각이다.

그가 前記한바와 같이 건강상 이유로 1970년에 담배와 술을 끊게 되었는데, 1970年初 特別敎示를 통해서 26세 이하의 全人民 軍병사에게 禁煙을 지시한바 있다.

“젊은 사람도 이 담배를 피우면 못쓴다 - 云云” 이것은 金日成이 가진 韓國古來의 儒教主義의 精神이 노정된 証拠로 判斷된다.

金日成은 누구나 다 아는 바와 같이 자기의 曾祖父를 美國함대를 몰아치는데 앞장섰다고 主張하고 父를 偉대한 抗日鬪士로 만들었으며 滿洲서 食母살이 하던 母를 가장 理想的인 母像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자신의 偶像化는 勿論이고 이제와서는 그의 망나니 아들 金正一까지 내세워서 "代를 이어 忠誠토록" 強要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偶然한 일이 아니다. 또한 같은 共產主義者지만 스탈린이나 毛沢東등에서는 결코 볼 수가 없는 奇怪한 現象인 것이다.

本 研究者의 觀察에 의하면 이것은 金日成이 샤마니즘의 要因과 같이 마음속 깊이 숨어있는 儒敎主義的 家系主義가 露呈되는 現象으로 判斷된다.

이것은 勿論 金日成의 증래의 精神的 統合機能인 人格이 점차 崩壞하고 退行現象(Regression)을 이룸으로써 나타나는 病的症狀으로 해석된다.

이런 金속에 깊이 숨었던 家系主義가 無意識領域에 과몰려 있다가 오늘날 서서히 나타나고 있음은 金의 精神病이 惡化됨을 말한다. (精神病이 惡化되면 無意識이 意識化)

(3) 原始的 精神防禦機制(Defence Mechanism)의 露出

人間은 本적으로는 極히 動物的인 存在이지만 成長함에 따라 漸次 高尚한 人格을 形成하게 되고 점점아지고 洗練되며 慈悲로와

지는 段階로 發達하게 된다.

그러나 사람이 精神病이 생기면 짐작은 짐, 人格的인 面이 없어지고 原始的 感情과 原始的 防禦機制를 採択하게 된다.

金日成은 원래 짐작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巧妙히 偽裝하며 統治를 해 왔었는데 오늘날에 와서 점차 原始的 防禦機制인 投射와 合理化 (Projection and Rationlization)의 메카니즘이 動員되고 있다는 점이다.

박명화 (前 人民學校教師 鉄原集團農場員 1969.8.15 帰順) 氏의 証言 따르면 그가 사리원 工高. 在学中 "반동분자" (주로 宗教人) 를 索出하여 살해하는데 動員된바 있는데 北傀는, 여기서 죽인 시체의 머리털, 손톱, 등을 모아서 觀覽者에게는 「美帝와 南半部 軍인이 죽었다」고 造作한다는 것인바 - 이것은 金日成이 가진 投射 및 合理化의 倍察機構의 좋은 예가 된다.

또한 오늘날 北傀는 "어린이 保養法" 이란 미명아래 全兒童 (1-3. 保育園 4-5 幼稚園) 을 집단수용 하면서 父母의 면회마저 月一回 따위로 制限하면서 "北韓女性을 어린이 기르는 고통에서 해방시키기 위한것" 이라고 주장한다.

이것 또한 金日成의 論理的 自己合理化의 心理를 나타내고 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이미 「파라노이아」 現象으로서 說明한 바 있어 仔細한 것은 省略하겠다.

그러나 오늘날 金日成은 對南煽動이나 北韓社會의 政治方法에 있어 萬事를 投射+合理化 시키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이것은 金日成의 精神狀態가 이미 非正常的의 段階로 崩壞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例라고 할 것이다.

우리는 여것 金日成이가 나타내는 常識밖의 言行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그것이 現在의 그의 精神狀態를 診斷함에 있어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結論적으로 그의 精神狀態의 症狀를 다음과 같이 診斷할 수가 있다.

(4) 金日成의 診斷

㉠ 性格의 特徵

男根期 및 肛門期固着症狀이 있고 그런 性格的 特徵을 나타내고 있음 (前述)

㉡ 人格統合의 威脅과 退行의 程度

근자의 北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나친 偶像化現象, 神話造作現象등을 볼때 金日成의 精神狀態는 精神病의 入口에 들어설 程度로 後退되고 있는 것으로 判斷됨.

㉢ 金日成이 自身の 精神安定을 圖謀하는 方法

金日成은 漸次 精神에너지의 病的消耗로 인해 精神安定에 威脅을 받고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克服하기 위해 (一) 現實에서의 後退 즉 키·포인트만 本人이 쥐고 그외의 相當한 業務를 맡을 수 있는 사람에게 移讓하려 들 가능성이 있다.

(ㄴ) 神經質 부리기의 可能性……즉 不安과 強迫症을 解消할 길이 없고 가만히 있으면 더욱 不安하기 때문에 金日成이 周辺에 대해 甚한 神經質을 부릴 可能性이 있음. (ㄷ) 精神身体症状의 併發可能性……즉 神經性 高血壓, 神經性 糖尿病(Diabetes Melitus) 및 腰痛, 關節痛等 各種神經痛(Neuralgia) 症状을 나타낼 수가 있어 이렇게 되면 高温의 沐浴(Sauna) 이나 按摩, 맛사지등에 耽溺할 可能性이 있다.

(ㄹ) 大大的인 自己宣傳이 可能性……그는 지난날 自己가 造作한 自己의 虛構想에 대한 不安 때문에 繼續 自己를 宣傳하고 世界를 向해서 자랑할 可能性이 있음. 共產世界는 自身の 軀體(本体)을 잘 모르니 만큼 이런 自己宣傳의 方向은 美, 仏, 英, 日, 西獨 등의 自由世界를 向해서 莫大한 予算을 쓰면서 執 하게 進行시키면서 自己를 자랑함으로써 精神健康을 凶謀할 可能性이 있다. (그의 精神病을 予防하기 위함)

㉔ 金日成의 精神症状의 診斷

파라노이아症(Paranoia 妄想症, 偏執狂)

金日成은 원래 反社会的性格과 病的인 症状의 性格을 가진 사람이었으나 最近 數年内 그의 人格은 漸次 崩壞되어 가고 있어 偏執狂(Paranoia)의 症状을 나타내고 있다.

9. 結 論

本 研究者는 어릴적에는 지나친 自尊心과 反抗意識과 “理想化된 自我像”(Idealized Self Image)을 가지고 자란 金日成이가 滿洲별관에서 生과 死를 건 冒險의 生活을 하면서 形成하게 된 性格的 特徵을 살펴보았다.

① 祖上傳來의 貧困과 ② 日帝의 彈壓政策에의 憎惡 ③ 少年時 中國에서의 異民族의 蔑視와 劣等意識 ④ 馬賊生活의 殘忍한 屬性 ⑤ 各種 本能的 行爲의 露出 ⑥ 中國共產黨 및 蘇聯(하바로프스 크 軍事情報學校)의 金日成에 대한 利用과 金日成의 共產主義理論의 武裝등은 金日成의 性格에 2次的 屬性을 이룩해준 要因이 되었던 것이다.

이런 온갖 試練과 逆境속에서 金은 「多父的映像」을 經驗했고 그나마 男根期的 性格과 肛門期的 特徵을 巧妙히 混合시킨 채 北韓의 權力을 維持하여 왔던 것이다.

現在 人格的 統合性의 威脅을 받고 있는 金日成에게는 上記한바와 같이 온갖 無意識的 要素들(샤머니즘 및 儒敎主義的 要素)이 表面化, 意識化되고 있어 그야말로 精神病의 症勢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같은 狀態에 있는 金日成은 果然 事物을 어떻게 대하며 周邊의 人物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北韓社會의 內的 挑戰과 國際社會의 外的인 挑戰을 金은 어떻게 處理할 것인가 하는 問題가 남는다.

(1) 金日成의 精神病的 防禦機制와 北韓社会

金日成은 그간 男根期的 및 肛門期的 特徵을 가지고 北韓社会를 統治해 왔다. 그러나 近者에 와서 金日成의 精神的統合은 더욱 威脅을 받게 되고 더욱 精神病的 防禦인 사마니즘의 (偶像化運動 및 唯一思想体系) 儒敎主義的 (家族들의 崇尚 및 金正一後繼者 擁立運動) 인 形態로 나타나고 있다.

닥쳐올 北韓社会의 危機는 ① 閉鎖社会에서 開放社会로 移行하는 데서 올 住民들의 覺醒과 反撓 ② 金日成의 病的 自己宣傳과 被害妄想的 戰爭準備 때문에 莫大한 外資를 浪費함으로써 오는 經濟的 危機 ③ 唯一思想은 畢竟 金日成偶像化만을 위한 것이며, 共產主義理念과는 이레오르기上的 混亂을 招來하기 때문에 指導理念의 混線이 온다는 것으로 予想된다.

精神健康을 威脅하고 있는 金日成은 어떻게 対応할 것인가?

① 馬賊團 陳惠時代의 殘忍性和 少年時節의 放火(尹氏宅) 하던 原始的 習性이 더욱 露呈될 것으로 보이며 開放政策에 參與하던 사람들에 대한 大大的인 肅清運動의 展開가 予想된다. ② 北韓住民의 爆發地點에 놓인 憎惡感和 反抗意識을 投射+合理化 메카니즘에 의해서 "南朝鮮傀儡徒黨" "美帝國主義者" "日本資本主義者 및 走狗들" 등에 보다 激烈하고 行動的인 非難과 挑發을 強化할 것이다. ③ 金日成의 偏執狂은 더욱 甚하게 되며 他人에 대한 極度の 不信이 增大될 것으로 보이며 家系主義, 血統主義, 族閥主義 (自己自身에 限해서) 등이 強化될 것이며 過去의 同志나 함께

일했던 오랜 同志들을 大量 移動, 交替시킬 可能性이 클 것으로 判斷된다.

(2) 多父的映像 (Multi-father Image) 과 蘇·中共指導者와의 關係
金의 多父的 映像에 대해서는 이미 說明했던 바와 같다.
그는 힘이 있고 自己를 支配할 만하고 最小의 父情을 던져주면 된다. ' 아버지 ' 로서 同一視 했던 것이다.

自身이 힘을 길러 어느程度 独立的인 位置를 確立함에 따라 소련 指導者나 中共指導者에 대해서는 속으로는 輕蔑할 可能性이 있는 것으로 解釈된다. (解放後 8.15 當時는 金은 스탈린을 ' 絶對的指導者 ' 로 表現했으나 후에 修正)

다만 毛沢東에게는 尙今도 尊敬하며 본받아야 될 對象으로 보는 것 같다.

金日成은 어릴적부터 中国人小學校, 中国人中學校 3年을 나왔고 中国人의 東北抗日聯軍에서 일했고 生涯의 相当部分을 中国땅 滿洲에서 보냈으며 自身이 ' 朝鮮사람 ' 이라기 보다는 ' 中国사람 ' 과 같은 錯覺을 할 수도 있을 程度로 中国에 同一視된 정이 많다.
(이점 徐大肅氏도 強調하는 바 있음)

그러나 現今의 誇大妄想的인 金日成은 심지어는 自己를 毛沢東보다 偉大하다고 自己誇張的 思考를 가질 可能性이 있으며 結果으로 ' 北朝鮮 ' 이란 배 (船) 를 中共등의 影響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끌고 갈 可能性이 있음.

(3) 演劇性, 自己顯示性 등의 男根期固着症狀과 誇大妄想的思考로 因한 無謀性 등으로 인해서 自由友邦世界에의 接近
어릴적부터 오늘날까지 自己中心主義와 閉鎖性속에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아 온 金日成은 自由世界에 대한 好奇心과 (?)이 클 것으로 보인다.

그는 美國, 日本, 佛蘭西, 西獨, 英國 등을 위시한 自由世界를 向해서 自身이 “얼마나 民族을 위하는 훌륭한 指導者인가” 하는 거대한 虛像을 보여주기 위해 온갖 힘을 다할 것이다.

莫大한 外貨를 浪費하면서, 뉴욕 타임즈 등의 新聞에 自身의 全面廣告를 낸다든가 기타 莫大한 宣傳物을 뿌리는 따위는 좋은 例라고 하겠다.

그의 宇都宮등과의 對話를 보더라도 金의 無意識의 動機는 “어떻게 하면 日本人에게 잘 보여서 稱讚을 받을까” 하는 原始的 自己中心的 關心에 사로잡혀 있는 듯 하다. (어릴적 박수의 딸이며 叙母인 玄壤心으로부터 繼續 稱讚을 받고 우쭐했던 그런 未熟性이 있다) 특히 美國에 대해 秋波를 던지는 것은 지나치게 誇大한 自信感에 사로잡힌 金日成이 美國도 自己 뜻대로 다룰 수 있다고 있다는 証拠인 듯이다.

(4) 發惡症狀으로의 對南關係

演劇의 名手(世界的權威?)인 金日成은 近者에 와서 '民族問題'나 '人民'이니 '南朝鮮의 良心的 指導者'나 하면서 一面 對南秋波를 던지고 있으며 一面 은갖 脅力, 恐喝, 實際 挑發등을 일삼고 있다.

南에 대한 이와같은 二重的인 接近(脅迫과 宣傳攻勢)은 그의 複雜하고 多重的性格 構造에 基因할 것으로 判斷된다.

그는 朴大統領閣下를 中心으로 鐵槌같이 뭉쳐 있어 繁榮一路에 있는 大韓民國을 一面 羨望하면서 바라보고 一面 破壞해 버리고저 하는 敵對意識 및 破壞本能으로 노리고 있는 것이다.

南을 對象으로 그는 은갖 多重的 人格的인 側面에서 發惡的 行動을 할 것이다. 즉 ① 于先 '傀儡'나 '走狗'나 하며 非難攻擊 함으로써 우선 攻擊本能도 滿足시키면서 北韓住民의 敵對意識도 '投射'할 수 있다. ② '平和'나 '民族'이니 하면서 自身을 마치 民族的指導者인양 宣傳함으로써 自身의 病的誇大妄想을 滿足시킬 수가 있고 不安感, 罪惡感, 劣等感等에서 解放되어 精神衛生을 (病的方法이나마) 圖謀할 수 있을 것이다. ③ 生涯의 大部分을 「敵對環境」속에서 살아 온 그의 經歷에 따라 金日成은 大韓民國을 恒時 敵對視하므로 해서 一種의 妙한 "살맛"을 찾고 있는 듯하며, 원래 獨自的인 人生觀이나 宇宙觀이나 깊은 哲學이 없는 金日成은 每事를 敵과의 鬭爭關係를 놓고 自身의 進路를 찾으려 하는 傾向도 있다.

즉 그는 아무리 '主体'나 '唯一'이니 하지만 結局 多父的
映像과 多重的人格, 退行的症状등 때문에 何等의 主体性은 없는 存
在이다. 따라서 自身の 進路, 삶 의 態度 北韓의 統治方法등에 이
르기까지 항상 '敵이 이렇게 나오니 우리는 이렇게 한다' 하는
식으로 対応할 것이다.

金日成 및 周邊人物들의
言動과 對南挑發

研究執筆責任：調査研究室(1976)

目 次

1. 金日成 및 主要人物의 言動	401
2. 主要人物의 对南關係 言動錄	413
3. 主要对南 挑発事件	471
4. 北傀의 主要 内部變革事件	511

— 附 錄 —

金日成에 關한 周辺人物들의 言動錄	535
--------------------------	-----

1. 金日成 및 主要人物의 言動과 對南挑發

分期別	國內事情 (大韓民國年表)	北 韓 動 向 (北 韓年表)	金日成 및 主要人物 言動	對 南 挑 發 事 件	韓半島와 國際動向
1945 ~ 19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憲法 議院 開院 (1946) ○ 安在鴻 民政長官 (1947) ○ UN 決議에 따라 總選實施 (1948.5.10) ○ 大韓民國政府 樹立 (1948.8.15) ○ UN, 韓國承認 (1948.12.12) ○ 金九 先生 暗殺事件 (1949.6.26) ○ 美軍 撤収 (1949.6) ○ 南韓 共產黨 總責 (金三竜·李舟河) 逮捕 (1950.3.28) ○ 第2代 國會議員 選舉 (1950.5.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金日成, 權力 掌握, (1945.10) ○ 共產化 改革 實施 (土地改革) (1946.3.5) ○ 人民軍 創設 (1948.2.8) ○ 人民共和 政權 樹立 (1949.9.9) ○ UN 加入 要請書 提出 (1949.2) ○ 蘇軍 撤収 (1948.12.25) ○ 南北의 共產勢力 單一化 (1949.6) ○ 祖國 保護 後援會 結成 (1949.7) ○ 金日成, 「모스크바」訪問 (1949.3.5) (1949.3) ○ 蘇聯과 經濟文化 協定 (1949.3.17) ○ 中共의 韓人部隊 入北 (1949.10) ○ 人民軍 增強 (1948-1950) △ 主要 改革 事件 ○ 肅 清 安俊赫 (國內派 巨物) (1945.9.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金日成, 11 個 當面 課業 發表 (1946.2) ○ 「모스크바」三 相 決定에 따른 人民共和國 樹立」 ○ 金日成, 人民軍 創建 閱兵式에서 演說 (1948.2.8) 「우리가 오늘 人民軍 隊를 가지게 되는 것은 우리 祖國의 民主主義와 完全 自主獨立을 一層 促進시키기 위하여서이다」 朴憲永, 對UN 抗議書 (1949.9.10) 「朝鮮統一에 대한 UN干涉 排除」 ○ 金日成, 祖統 中央委 演說 (1950.6.7) 「8.5 ~ 8 最高立法機關 設定을 위한 總選 實施. 6.15 ~ 17 海州, 開城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韓 共產黨 鬭爭 支援 — 美·蘇 共同委 支持 聲援 — 10.1 撤南 暴動 (1946.10.1) — 3.22 總罷業 (1947.3.22) — 2.7 救國鬭爭 (1948.2.7) — 4.3 濟州島 「軍閥 反對」 暴動 (1948.4.3) ○ 經濟 攪亂 — 朝鮮 糟販社 偽造 紙幣 印刷 (1946.5.15) — 朝鮮 銀行 券 密送 (1947) — 送電 中斷 (1948.5.14) — 通水 拒否 (1948) (延白 平野) ○ 北勞黨 政治 勢力 扶植 — 成炬伯 浸透 (1947) ○ 南北 協商 (1948.4.19) ○ 南勞黨系 暴力 鬭爭 支援 — 麗 順 軍 反亂 (1948.1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平和 機關 設 UN 創設 ○ 5 個 年 信託會 內容으로 하는 「모스크바」 三 相 會議 決定 (1945.12.28) ○ 東西 冷戰으로 轉換 ○ 韓國 問題 UN 上程 (1947.9.17) ○ 蘇聯 原子彈 實驗 ○ 中共 政府 樹立 (1949.10.1)

区分 時期別	国内事情 (大韓民國年表)	北 韓 動 向 (北韓年表)	金日成 및 主要人物 普動	对 南 挑 釁 事 件	韓半島의 國際情 國際動向
1950 ~ 19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政府를 釜山으로 移動 (1950.8.18) ○ UN 軍, 反擊開始 (1950.9.15) ○ 李承晚大統領, 平壤에서 演說 (1950.10) ○ 休戰反對 (1952 ~ 1953) ○ 共匪討伐 (195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批 判 吳瑛愛 (国内派三物) (1956) ○ 北朝鮮 共產黨과 新民黨 合黨 (1946.8.28) ○ 北勞黨이 南勞黨을 吸收 (1949.6月末頃) 	<ul style="list-style-type: none"> 金日成 및 主要人物 普動 南北 政黨·社會團體代表 會議 開催] ○ 平壤放送 (1950.6.16) 「曹晚植과 在韓捕虜 金三範 李舟河와의 交換提議」 ○ 最高人民會議 常任委 提議 (1950.6.19) 「北韓最高人民會議과 大韓民國 國會를 統合, 單一立法機關構成」 	<ul style="list-style-type: none"> 一 遊擊戰區 形成 (1948) 一 江東政治學院 設置 (1947.10 ~ 1950.3) 一 遊擊隊南派 (10次) (1948.11 ~ 1950.3) 一 1949年 9月攻勢 一 38線에서의 軍事挑釁頻繁 ○ 偽裝平和統一 宣傳攻勢 一 組織結成 宣言文 (1949.6.末) 一 南北總選提議 (1950.6.17) 一 組織呼訴文 携帶南派 (1950.6.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 決議에 따라 UN 軍派遣 (1950.7.26) (16個國參戰) 。 ○ 中共을 侵略者로 規定 (1951.1.31) ○ UN 軍, 38線突破, 北進 (1950.10.4) ○ 休戰會議 (1953.7.27) ○ 中共軍參戰 (1950.1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軍事委員會 組織 (1950.6.20) ○ 戰時動員體制宣布 ○ UN 軍에 協助한 者를 処罰 △ 主要變革事件 ○ 姜健 (總參謀長) 戰死 (1951) ○ 金策 (軍事委員) 戰死 (1951.1.31) ○ 批 判 林春秋 (江原道黨費) 金烈 (人民文化副司令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金日成·6.25 放送演說 (1950.6.26) 「오래전부터 北進을 準備해 오다가 6.25 새벽 38線以北 地域에 全面的進攻을 해왔 기 때문에 人民軍은 이에 맞서 反攻戰으로 넘어 갔다」 解放戰爭의 勝利를 위해 南北 韓 人民들은 總躍起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武力赤化 試圖 一 6.25 全面南侵 (1950.6.25) 一 強占地域에서 共產化政策 政治工作隊南派 共產政權 樹立 黨 再建 土地改革 第2戰線 形成 		

区分 时期別	国内事情 (大韓民國年表)	北 韓 動 向 (北韓年表)	金日成 및 主要人物言動	对 南 挑 戰 事 件	韓半島의 國際動向
1953 ~ 19 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韓·美 防衛條約 締結 (1953.10 調印) ○「제네바」 國際會議에 出席 派遣 (1954.5.22) ○第3代民議員 總選 (1954.5.20) ○4倍5入 改憲波動 (1954.11.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戰後復旧 3 個年計劃 (1954 ~ 56) (1954.4.20) (蘇·中共의 援助) ○ 農業集團化 着手 (1954 ~) ○ 重工業 優先政策 ○ 金日成 體制 構築 ○ 3 次黨大會 (1956.4.23) ○ 金日成, 東歐·蘇聯訪問 (1956.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金日成, 党中央委 3 次會議演說 (1950.12.21) 「6.25는 美帝들이 李承晚을 使誘하여 同族相爭의 內亂을 挑發한 것임. 軍隊規律을 強化하고 再整備 하서 戰爭勝利를 期必코……」 ○ 金日成, 党中央委 5 次會議演說 「黨의 組織事業을 強化하여 戰爭을 勝利로 이끌자」 ○ 金日成, 新年祝賀文 (1953.1.1) 「새로운 勝利의 成果를 保障 할 것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韓地域에서 遊擊戰爭 — 地區黨 組織 — 金江政治學院 設置 (1951.12경) — 遊擊隊 南派 — 政治工作隊 南派 — 巨濟島 共產捕虜暴動 (1952.5.7) ○ 休戰支持 ※ 間諜 檢査 653 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탈린” 死亡 (1953.3.5) ○ 蘇聯工業政策으로 轉換 ○ 「제네바」 國際會議에서 韓國 問題討議 ○ 蘇聯 “푸르시 초프” 執權 ○ “한마솔드” UN 事務總長에 就任 (1953.4.10) ○ 蘇聯 “베리아” 副首相등 7 名

區分 時期別	國內事情 (大韓民國年表)	北 傀 動 向 (北傀年表)	金日成 吳 主要人物言動	對 南 挑 發 事 件	韓 半 島 外 國 際 動 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金昌龍 暗殺事件 (1956.1.30) ○ 三代-正·副統領選舉 (1956.5.15) ○ 進步黨 曹奉岩 死刑 (1959.7.31) ○ 4代國會 總選 (1958.8.7) ○ 3.15 不正選舉 (1960.3.15) ○ 李承晚大統領 下野 (1960.4.26) ○ 許政燮總理政府 (1960.4.28) ○ 第2共和國 誕生 (1960.8.19) ○ 美·아·大統領 訪韓 (1960.6.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反金日成 運動挫折 (1956.8) ○ 1次5年計劃 實施 (1957 ~ 1960) ○ 豐業集團化 및 個人留工業制 廢止 (1958.8) ○ 中共軍 撤收 (1958.10.26) ○ 勞農赤衛隊 組織 (1959.1.14) ○ 中央黨 集團指揮 (1958 ~ 1960) ○ 千里馬運動展開 (1958.3.3) ○ 在日僑胞 北送開始 (1959.12.14) ○ 4.19 斗 悶騷, 平和統一委員會 組織, 各道에 共產黨 創設 △ 主要暴動事件 ○ 康 浩 (1954.3.21) ○ 朴一禹 (延安派·內務相) 	<ul style="list-style-type: none"> 「外務 干渉」는 總選實施」 ○ 金日成, 3次黨大會 (1956.4.23) 「南韓在 民主主義權利爭 取, 統一戰線結成, 反帝, 反封建民主主義 革命進行을 切야한 總選에 依한 統一政府樹立, 南北韓 接觸과 協同實施」 ○ 南日 (外相), 最高人民會議 第2期 6次會議 (1959.10.26) 「南北의 代表로 常設委設置」 ○ 金日成, 人民軍 324 軍部隊演 說 (1958.2) 「人民軍隊 戰鬥力 強化」 ○ 金日成, 8.15 演說 (1960.8.15) 「外國干渉」는 民主主義的 自由總選舉에 依한 統一政府 樹立, 兩政府 代表로 構成乳 是 最高民族委員會 組織」 	<ul style="list-style-type: none"> 一 平和統一方案 不斷提議 ○ 地下黨 再建 一 進步黨 事件 (1958.10.25) 一 金正濟 事件 (1958.6.15) 一 統一大學 (工作員 養成所) 設置 ○ 對南工作積極化 一 革新黨 結成 一 民族日報 停 言論界浸透 一 学園浸透 ○ 平和統一 宣傳強化 一 赫那制 統一案 提唱 (1960.8.14) ○ 武力挑發 一 KAL 機 拉北 (1958.2.16) 一 西海上 空軍機 被拉 (1956.11.7) 一 非武裝地帶 挑發 一 休戰協定 違反 地上: 1,203 件 海上: 19 件 	<ul style="list-style-type: none"> 築設 (1953.12.23) ○ 蘇聯, 第20次 黨大會 (1956.2) 一 平和共存路線採取 ○ 「모스크바」 64 國團 共產黨 首腦者 會議 (1957.11.16) ○ 蘇聯 最初 人工衛星 “스프 트니크” 1호 發射 (1957.10.4) ○ 「모스크바」 共產黨會議 (1960.12.6)

分期 時期別	國內事情 (大韓民國年表)	北 傀 動 向 (北傀年表)	金日成 및 主要人物 言論	對 南 挑 發 事 件	韓 半 島 外 關 聯 動 向 國際動向
1966 ~ 19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大統領 (1967.5.3) · 國會議員 (1967.6.8) 選舉 ○ 第2次5個年計劃 (1967 ~ 71) ○ 大統領, 三選改憲通過 (1969.9.14) ○ 鄉土予備軍創設 (1968.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黨代表者會議 開催 (1966.10.5) ○ 7 個年計劃 3 年延長 ○ 4 大軍路線 完結主張 ○ 自主路線宣布 (1966.8.12) ○ 4 期 最高人民會議 構成 (1967.12.14) △ 主要變革事件 ○ 金日成 偶像化 強化 ○ 黨僚派 肅清 金昌滿 (黨副委員長) (1966. 초) 朴金喆 (黨秘書) (1967.3) 李孝淳 (對南工作秘書) (1967.3) ○ 對南工作 與 右派主義 批判 高 赫 (副首相) (19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金日成, 黨代表者會議 演說 (1966.10.5) 「革命主力軍 結成, 反美軍事 統一戰線 結成」 ○ 金日成, 最高人民會議 第4期 1次會議 演說 (1967.12.14) 「南朝鮮 人民革命支援을 要求할때, 언제든지 勳員되도록 態勢準備」 ○ 吳振宇, 人民軍創建 19周年 紀念式 (1967.2.8) 「南半部를 解放시켜 祖國을 解放하자」 ○ 金日成, 人民軍創建 20周年 大會 (1968.2.8) 「全面戰爭은 全面戰爭으로 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革命主力軍 強化工作 — 工作員 養成所 인 69.5 軍 部隊은 擴張 — 南朝鮮 解放戰略 事件 — 人民革命黨事件 (1964.8.14) — 國會議員 金圭南 事件 (1969.5.14) — 統一革命黨事件 (1968.8.26) ○ “레러” 暴力工作 — 283 部隊 小組南派 (1967) (密地地 指導工作) — 124 特攻隊 浸透 (1968) — 1.21 曹瓦台襲擊 (1968.121) 三陟 · 蔚珍地區 浸透 (1968.1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 · 蘇 國境紛爭까지 擴大 ○ 世界 · 共產黨大會 分裂 ○ 中共文化革命 (1967) ○ 劉少奇, 親蘇派 肅清 ○ 越南 侵 協高始作 ○ 美大統領 選舉 (1968.11.5)

区分 時期別	国内事情 (大韓民國年表)	北 傀 動 向 (北傀年表)	金日成 및 主要人物 言 動	对 南 挑 発 事 件	韓半島의 國際動向
1964 ~ 19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韓・日会谈反对学生리모激化 (1964.3 ~6) ○ 丁一權 内閣構成 (1964.5.9) ○ 朴大祐領, 西独訪問 (1964.12.6 ~15) ○ 越南戰에 派兵決定 (1964.10.31) ○ 韓・日会谈 妥結 (1965.6.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党 中央委 第4期 8次會議 (1964.2.25 ~ 27) ○ 7 個年計劃遂行에 墜跌 ○ 4 大軍事情路總實踐 本格化 ○ 反蘇・親中共에 서 蘇聯과 關係 改善 (1965.2.11) (蘇聯「코쉬킨」, 平壤訪問) ○ 住民登錄을 통한 住民審査着手 ○ 社会主义 農村問題 綱領採択 (1964.2) ○ 農業 勤勞者同盟組織 (196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金日成, 党 4 期 8 次中央委 報告 (1964.2.25~27) 「南朝鮮 革命路線 提議」 ○ 金日成「인도네시아」 「알리 아르한」 社会科学院 演說 (1965.4.14) 「南朝鮮 革命을 위해 革命的 党을 建設하여 主 力軍을 꾸밀것, 南朝鮮의 革命鬭爭支援 및 3 大革命 力量強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地下党組織擴大 (主力軍結成) — 对南工作機構擴大強化 (1965) — 工作員 集團訓練所 設置 — 「小組」南派, 地区党 構築 — 統一革命党 地下網 扶植 ○ 栗伯林, 朝鮮聯을 拠点으로 한 工作強化 ○ 「테러」 및 暴力工作 (要人暗殺) — 處成 事件 (1965.7.18) — 武裝間諜小組浸透 (1966.5.27) ○ 武力挑発 — 休戰協定違反 地上 : 1,201 件 海上 : 5 件 空中 : 1 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蘇紛爭 激化 ○ 越南戰 擴大 ○ “푸르시 초프” 失脚 (1964.10.15) “브레즈네프” “코쉬킨” 露場 ○ 「인도네시아」 “쿠데타” (1965.9.30) 로 “스카르노” 失脚

区分 時期別	国内事情 (大韓民国年表)	北 韓 動 向 (北韓年表)	金日成 及 主要人物言動	对 南 挑 战 事 件	韓 半 島 對 國 際 聯 社 國 際 動 向
1961~ 19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16 軍事革命 (1961.5.16) ○ 1次 5 個年計劃 發表 (1962.1.1) ○ 民間人의 政治活動再開 (1963.1) ○ 大統領選舉 (1963.10.15) ○ 第 6 代国会總選 (1963.11.26) ○ 第 3 共和國誕生 (1963.12.17) ○ 第 6 代国会開院 (1963.12.17) 	<p>北 韓 動 向 (北韓年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李權武 (總參謀長) (1957) 崔鍾學 (政治局長) (1957) 張平山 (4 軍團長) (1957) 方虎山 (軍團長) (1957) 趙秉昂 (1958. 下半年) 嚴延燮 () <p>軍 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 個年計劃着手 (1961-1967) ○ 中・蘇斗 軍事協定締結 (1961.7.6~11) ○ 4 次党大会 (1961.9.11~18) ○ 蘇聯으로 부터 援助中斷 ○ 中・蘇 紛争에서 中立→中共 傾倒政策 ○ 國防力 強化決定 (1962.12) ○ 4 代 軍事路線實現 着手 (1963) <p>△ 主要變革事件</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 次党大会에서 金日成 體制로 完全構築 (1961.9.11~18) ○ 齊 濟 韓雪野 (1962) 	<p>金日成, 4 次党大会 演說 (1961.9.11)</p> <p>「맑스・레닌」主義를 指針으로 한 勞・農의 革命的 党建設」</p> <p>○ 金昌奉 (總參謀長), 人民軍 創建 14 周年 記念報告 (1962.2.7)</p> <p>「南韓同胞들을 救出」</p> <p>○ 金日成, 金日成軍事大學卒業式辭 (1963.10.5)</p> <p>「간라친 國土를 統一하고 南半部 勞動者・農民을 救出」</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對南工作機構統合 (一元化) ○ 地下党組織을 強化 — 東伯林 拠点 工作強化 (1967.7.8) — 言論界間諜團 事件 (1962.7.6) — 軍部浸透工作試圖 (1962.7.6) — 黃秦成 事件 (1961.10.20) ○ 韓日会谈反對宣傳工作強化 ○ 武力挑発 — 非武装地帶挑発 — 美軍機 被擊事件 (1961.4.21) — 休戰協定違反 地上: 3,604 件 海上: 10 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蘇理念紛争放化 ○ 中・印 國境紛争 (1962.10.20) ○ 「哥里」事件 (1962.10.22) ○ 越南事態惡化

区分 時期別	国内事情 (大韓民國年表)	北 韓 動 向 (北 韓 年 報)	金 日 成 吳 主 要 人 物 言 動	对 南 挑 战 事 件	如 半 島 社 会 主 義 國 際 動 向
		金 科 奉 (延 安 派, 常 任 委 員 長) (1958.3.3) 崔 昌 益 (延 安 派, 副 首 相) (1957) 徐 輝 (延 安 派, 職 總 副 委 員 長) (1959) 이 원 근 (延 安 派, 建 設 副 相) (1956.9) 尹 公 敏 (延 安 派, 商 業 相) (1956) 許 哥 而 (蘇 聯 派, 副 首 相) (1953.8.5) 朴 昌 玉 (蘇 聯 派, 副 首 相) (1956.8) 金 承 化 (蘇 聯 派, 建 設 相) (1956) 朴 義 堯 (蘇 聯 派, 副 首 相) (1958) 張 時 雨 (国 内 派, 人 民 軍 總 局 長) (1954)		空 中 : 84 件 ※ 間 諜 檢 査 : 1,302 名 ※ 漁 船 拉 北 : 107 隻, 718 名	

区分 时期别	国内事情 (大韩民国年表)	北 傀 動 向 (北傀年表)	金日成 및 主要人物 言 動	对 南 挑 発 事 件	韓半島의 國際化 國際動向
197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15 宣言 (1970.8.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金道滿 (党宣伝部長) (1967.) ○ 軍部肅清 金昌奉 (民保相) (1969.) 崔 光 (參謀總長) (1969.) 許鳳學 (對南工作費) (1969) 金正泰 (民保省副相) (19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答하시다.」 ○ 韓益朱, 人民軍創建 22 周年 (1970.2.7) 「戰爭을 이르킨다면 한반도 남김없이 消滅하고 말 것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京元 (1967.9.5), 京義 (1967.9.13) 線 爆破事件 - KAD 棧拉北 (1969.12) - 頭忠門 爆破企圖 (1970.6) ○ 武力挑發 - “포에블로” 号 拉致 (1968.1.23) - B O-121 機 被擊 (1967.4.15) - 東海 56 艦被擊 (1967.1.8) - 依戰艇에 挑發 頻繁 - 依戰艇定違反 地上: 2,631 件 海上: 33 件 空中: 4 件 ※ 間諜拷問: 1,044 名 ※ 漁 船拉北: 154 隻 1,276 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共, UN 加入 (1971.10.25)
19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朴大統領 三選 (1971.4.27) ○ 3 次 5 個年計劃 (1971~19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 次党大會開催 (1970.11.2) (6 個年計劃 實施 1971~1976) ○ 親中共指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金日成, 党幹部·地方党代表에 演說 (1970.11.2) 「南朝鮮 人民들의 革命鬭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統一革命党 実体化 工作 - 各種大會에 統革党代表 參席 發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共, 批林批孔運動 ○ “니스”, 中共訪問

区分 時期別	国内事情 (大韓民国年表)	北 傀 動 向 (北傀年表)	金日成 및 主要人物 言動	对 南 挑 発 事 件	韓半島와 關聯한 國際動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 4 南北共同聲明 (1972. 7. 4) ○ 10 月維新發表 (1972. 10. 17) ○ 6. 23 宣言 (1973. 6. 23) ○ 金大中 事件 (1973. 8. 8) ○ 8. 15 大統領夫人被擊事件 (1974. 8. 15) ○ 平和統一 3 大原則宣言 (1974. 8. 15) ○ 「인근크」 解体 (1973. 11. 28) ○ 朝鮮總 省 基 團 母 國 訪 問 實 現 (1975. 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 4 南北共同聲明發表 (1974. 7. 4) — 調 節 委 構 成 — ○ 社 會 主 義 憲 法 採 択 (1972. 12. 28) ○ 5 期 最 高 人 民 會 議 構 成 (1972. 12. 25) — 金日成權力集中 — ○ 6. 23 宣言 (1973. 6. 23) ○ 8. 28 金英柱聲明 (1973. 8. 28) ○ 對 美 平 和 協 定 提 議 (1974. 3) ○ UN 代 表 部 設 置 (1973. 6. 25) ○ 金日成, 中 共 「알케리」 「루마니아」 「유고」 를 訪 問 (1975. 4-5. 10) ○ 6 個 年 計 劃 早 期 實 現 發 表 (1975. 8) ○ 非 同 盟 國 家 群 에 加 入 (1975. 8. 24) △ 主 要 變 化 事 件 ○ 金日成 偶 像 化 絶 頂 ○ 肅 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을 旗 幟 支 援 한 責 任 이 있 다 .] ○ 金日成, 金仲麟과 吳振宇에 對 한 指 示 (1971. 9. 25) 「 速 戰 速 決 戰 法 을 導 入 하 여 奇 襲 攻 擊 準 備 할 것 」 ○ 金日成, 黨 第 5 期 8 次 會 議 (1974. 2) 「 오 른 體 制 을 戰 時 體 制 로 輕 便 하 여 徹 底 히 準 備 할 것 」 ○ 金仲麟, DMZ 地 下 防 護 工 事 現 場 에 서 指 示 (1974. 6) 「 時 間 當 2 ~ 3 萬 名 을 通 過 시 키 迅 速 히 서 울 로 侵 透 케 하 라 」 ○ 金日成, 中 共 黨 幹 部 에 對 於 「 南 朝 鮮 革 命 이 일 어 나 면 보 고 단 有 效 할 수 없 다 . 일 을 是 實 是 軍 事 分 界 線 이 고 언 語 는 祖 國 統 一 인 것 이 다 」 (1975. 4.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統 革 黨 風 속 리 放 送 (1970. 6. 1) — 日 本 內 閣 統 革 黨 連 帶 性 委 員 會 組 織 ○ 革 命 主 力 軍 構 成 工 作 — 一 울 龍 도 間 諜 團 事 件 (1974. 3. 15) — 在 日 本 現 點 間 諜 團 事 件 (1974. 11. 5) — 學 院 院 透 間 諜 團 事 件 (1971. 4.) — 在 日 僑 胞 留 學 生 間 諜 透 事 件 — 釜 山 地 區 侵 透 間 諜 事 件 (1974. 7. 28) ○ “리더”, 暴 力 工 作 — 一 워 울 에 · 소 속 신 도 · 김 포 군 · 제 주 도 · 우 도 · 안 도 · 추 자 도 · 거 제 도, 송 도, 어 청 도 등 武 裝 間 諜 事 件 — 8. 15 狙 擊 事 件 (1974. 8. 15) ○ 對 日 迂 迴 侵 透 工 作 置 重 議 提 案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72. 2. 21) ○ 田 中, 中 共 訪 問 (1972. 9. 25) ○ 美 “포드” 大 統 領 就 任 (1974. 8. 9) ○ 中 東 戰 爭 勃 發 (1973. 10. 6) ○ 東 · 西 德 UN 加 入 (1973. 9. 18) ○ 世 界 “오 일” 소 크 ○ 「월 남」 「라 오 스」 「크 예 르」 共 産 化 ○ “리 마” 非 同 盟 外 相 會 議 에 서 北 傀 加 入 (1975. 8. 24) ○ “포 드” 中 共 會 訪 問 (1975. 11.) ○ UN 에 서 共 産 側 및 自 由 友 邦 側 決 議 案 可 決 (30 次 總 會) ○ 「앙 골 라」 에 美 · 蘇 軍 事 支 援 (1975. 12) ○ “카 신 처” 4 者 會 議 提 案

区分 时期别	国内事情 (大韓民国年表)	北 傀 動 向 (北傀年表)	金日成 및 主要人物言動	对 南 挑 発 事 件	朝 世 局 勢 的 變 化 及 其 意 義
		金光俠 (副首相) (1970.11) 石 山 (副首相) (1970.) 朴正愛 (1970.11.) ○ 金日成 族閥体制構築 一 金正一會 後繼者로 指目 (1974.2.) ○ 对南工作責任者 및 実務者批判 (1975.9.頃) 一 金仲麟, 柳章權, 朝総務幹部等	○ 金日成, 党創建 30周年記念報告 (1975.10.9) 「共產主義者와 民族主義者와 提携하여 民族統一戰線을 形成하자」 ○ 金日成, 人民最高司令官 第4号 命令發表 (1975.11.18) 「情勢가 極度로 緊張되고 있다 戰鬪訓練에 万全을 期할것」 ○ 金日成, 新年辭 (1976.1.1) 「緊張된 動員態勢準備」, 「모든 힘을 다하여 南韓人民의 愛國鬪爭을 支持, 聲援」	○ 軍事挑発 一 西海 5 個島嶼와 領海 領空侵入事件 (1975.3.24) 一 海警 863 号 挑發 (1974.6.2) 一 양굴構梁 (1974.11.15) 一 休戰協定違反 地上: 14,971 件 海上: 14 件 空中: 7 件 ※ 間諜檢査 337 名 ※ 漁船拉北 一 水原号 (1974.2.15) 等 35 隻, 555 名	



2. 主要人物의 對南關係言動錄

1949.9.10 朴憲永, UN總會『메논』議長과 『리』事務總長에게 보낸 抗議書

- 朝鮮의 統一은 UN의 어떠한 機構도 干涉해서는 안된다.
- 朝鮮의 統一은 祖国統一民主主義戰線의 統一原則(1949.6.28)을 實現함으로써만이 達成할 수 있다.
-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政府는 加하지 않은데서 通過한 朝鮮問題에 關한 決定은 一切無効임을 宣言한다.

1950.6.7 祖統中央委呼訴文, 祖統中央委擴大會議

- 統一的 最高立法 機關을 設定하기 위하여 8月5일부터 8日 사이에 總選舉를 實施할것.
- 8.15解放 第5周年 紀念日을 統一된 祖国에서 맞이하기 爲하여 이 選舉에 依하여 選出된 最高立法機關의 會議을 8月15日에 서울에서 召集할것.
- 平和統一의 모든 必要한 條件과 手續을 討議決定하기 爲하여 南北朝鮮의 全政黨, 社會團體 代表者 協議會를 38線 沿線의 海州市 또는 開城市의 어느 한 都市에서 6月15일부터 17日에 걸쳐 召集할것.
- 李承晚, 李範奭, 金性洙, 申性模, 趙炳玉, 蔡秉德, 白性郁, 尹致暎

申興雨 등 民族反逆者는 協議對象에서 除外할것.

- 韓國側의 政党 및 社会团体中에 大韓国民党과 民主国民党의 두 政党은 協議의 對象에서 除外한다.

1950.12.21-23 金日成, 慈江道 滿浦 別牛里에서 (党中央委
第3次會議)

- 美帝國主義者들은, 6月25日 李承晚을 사주하여 同族相殘의 內亂을 挑發시켰음.

1951.1952 方虎山(北傀軍 6軍團長 二重英雄) 北傀軍 6軍團
部隊 將校들

- 抗日 빨지산鬪爭 經驗이 있다는 軍事 指揮官들이 왜그모양인지 모르겠음.....
- 正規戰과 遊規戰도 區別하지 못한 주제에 누구를 믿고 허풍만 떠는지 도모지 알수 없단 말이야.....
- 最高 司令官同志는 八路軍 出身을 따들리고 있으니 한심한 일 이야

1951.3 許哥而(黨副委員長), 中央黨舍

- 北勞黨 出身보다 南勞黨 出身이 훨씬 党性이 強하다. 北勞黨 員 10名이 南勞黨 員 1名을 當해낼 수 없다.
- 北半部에서 平安無事히 黨員이된 者들보다 南半部에서 단 하루라도 苦痛스러운 地下鬪爭을 겪어본 者가 黨員資格이 있을 것임.
(金昌順著 『北韓 15年史』)

1951.11.3 許哥而(党副委員長), 自宅

- 金日成이 党組織事業이라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無識쟁이 주제에 괜히 사람 잡을라고 있으니 조심해야 함.
 - 朴憲永, 李承燁이 같은 똑똑한 동무들도 金日成의 사람잡이 手法에 말려들면 별수없이
 - 우리도 精神차리지 않으면 그들에게 봉변을 당할 것이고, 나도 벌써 된서리를 맞고 있어
- (許哥而 罪狀을 폭로한 朴昌玉의 發言)

1953.8.5 金日成, 党中央 第6次全員會議時 演說

- 이번 全員會議는 停戰協定の 調認과 關聯하여 새로운 情勢下에서 召集된 것임.
- 停戰은 커다란 勝利이며 비록 完全한 平和는 못되나 祖国의 統一問題를 平和的으로 解決할 수 있는 可能性을 얻은 것임.
- 덜레스는 리승만과 더불어 남조선에 美国軍隊를 영원히 駐屯시킬 것과 必要時 停戰協定을 破壞할 것을 目的으로 韓美相互防衛 條約을 締結하였음.

1954.10.3 金日成, 中央党民保省偵察局幹部

- 『日時的인 승패 또는 성과가 시급히 나지 않는다해서 失望하던가 조금해 하지 말고 長期的인 타산밑에 耐心하여야 하고 一步, 一步 前進하는 態度로서 事業하여야 한다.

1954.10.3 金日成, 中央党民保省偵察幹部

- 지금 사단을 잘 利用하여 敵軍內 組織事業을 잘해서 유사시에 큰힘을 發揮하도록 해야 한다. 대담하고 용감하게 事業을 推進하여야 한다.

1955.7.12 南 日(外相) 北傀外務省의 對 UN 聲明

- 朝鮮代表가 參席하지 않은 그리고 朝鮮人民의 意思에 背馳되는 決議를 否認함.
- 停戰狀態를 鞏固한 平和狀態로 轉換시킬 措置를 早速히 取해야 함.
- 外勢干涉없는 總選舉의 實施를 主張.
- UNCURK의 活動을 反對함.
- 祖国의 統一을 實現시키기 위하여 有関國家의 會議를 召集하자

1956.6.2 南 日(外相), 對南統一問題에 関한 聲明

- 朝鮮全土로 부터 모든 外國軍隊를 撤去시킬것.
- 朝鮮의 平和的 統一問題를 審議하기 위하여 關係國家會議를 召集할것.

1958.2.8 金日成

- 北傀軍 324 軍部隊에서
- 北傀軍 324 軍部隊 將兵들에
- 內 容
『黨과 政府가 平和的統一의 口號를 높이들면 들수록 우라』

人民軍隊는 自己의 戰鬥力을 더욱 強化하며 사상적 준비를 더욱
튼튼히 하여야 한다.

만약 人民軍隊의 戰鬥力이 弱화되면 平和的 단판은 생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며 적들은 우리를 먹자고 할 것이다.

우리가 강해야만 멈벼들지 못할 것이며 平和的 統一도 이루어질
수 없다. 또 설사 놈들이 달려든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눅힐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平和統一을 주장한다고 하여 우
리가 戰鬥訓練을 弱化시킬 아무런 근거도 없다.....

이것은 銘心해야 한다.』

1959.11.20 金日成, 中央黨連絡部, 連絡部幹部

『괴뢰군(國軍)에 대한 分析을 明確히 할 必要가 있다. 괴뢰
군 상층을 그가 地主출신인가 전달꾼인가를 分析해야 한다.

一般的으로 地主나 부농출신은 買収가 不可能하며, 그가 전달꾼
이면 可能하다.』

1961.2.18 金日成, 365軍部隊訪問時, 軍幹部

『南朝鮮革命을 하자면 늘 兵士大衆을 틀어쥐어야지 “인테리”나
좀 쥐어가지고는 안된다. 問題는 敵軍兵士들속에 組織을 擴大
하여 그들이 大衆的 口號를 들고 나오도록 하는데 있다.』

1961.2.18 金日成, 365軍部隊訪問時, 軍幹部

『對南事業에서는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괴뢰군(國軍)에

대한 사업이 매우 중요하다. 돈(工作金)을 콕 집어주든가, 민족의식을 불어 넣어주면 획 돌아설 수 있다. 똑똑한 사람 한 명만 잡아도 한개 中隊쯤 義拳시키는 것은 문제가 아닐 것이다』

1961. 9.11 金日成, 党第4次大会 中央委報告, 黨員

① 祖国의 平和的 統一을 為하여

- 反革命勢力이 군사테로의 모험적 수단을 통하여 막다른 골목에 이른 처지에서 빠져 나갈 길을 찾으려고 마지막 발악을 함.
- 鬪争의 예봉은 점차 美帝國主義에로 돌려지기 시작.
- 남조선의 청년 학생들이 南北會談과 交流를 提議하고 나섬.
- 맑스-레닌主義를 지침으로 한 勞動者 農民등의 革命的 政党이 없음. 따라서 權力을 탈취하지 못하였음.

1962. 2. 7.

- 人民軍創建 14주년 기념보고대회시
- 平壤市民 노동적위대 人民軍將兵에게
- (總參謀長) 金昌奉
- 內 容

『우리가 이제 候略者들을 몰아내고 하루속히 祖国을 統一시키며 南半部 同胞들을 구원하여야 할 숭고한 革命事業이 남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北半部 人民들은 南半部同胞들을 생각하면서 안일을 결정적으로 배격하고 검박하게 생활하고 있다. ……조선인민은 미래의 침략책등과 天人共怒할 야수적 만행을 자자손손

내려 가면서 저주할 것이다……조선인민은 우리 강토에서 미
제를 몰아내고 南朝鮮軍事統治배들을 쓸어버리며 祖國을 統一하기
위한 범人民的 抗爭에 더욱 勇敢히 奮기해야 한다.』

1963. 9. 8 崔庸健(最高會議 常任委 委員長) 北韓創建 15周年
紀念大會

- 南北協商과 南北合作을 推進
- 美軍을 撤退시킨 後 不可侵條約을 締結, 10萬以下로 減軍
- 自主的·平和的·民主的 基礎 위에서 自由로운 南北總選舉를
實施.

1965. 10. 5.

- 金日成 軍事大學第7期卒業式
- 軍事大學卒業生
- 金日成
- 內 容

『우리는 軍事力을 계속 強化하여야 한다. 우리黨은 나라의
統一이 될수록 평화적 方法으로 이룩하려고 한다. 그러나 만약
적들이 무력으로 革命運動의 전진을 방해할 때에는 勿論 우리
도 무력으로 祖國統一을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얻은
승리를 보위하며 앞으로 革命을 전진시키기 위해서는 軍事力을
強化해야 한다.』

1963.10.30 金日成, 中央党, 对南工作部門要員

- 조국통일문제는 반드시 우리 世代에 해결해야 한다. 통일문제를 後代에 넘길 수는 없다. 조국통일을 우리 世代에 해결하지 못하면 後代에 가서는 이에 대한 관심이 稀薄하여 질 수 밖에 없다.

1963.10.30 金日成, 中央党, 对南工作部門要員

-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는 平和的 方法和 非平和的 方法이 있는데 우리는 平和的 方法을 내세우면서 非平和的 方法을 동시에 준비하는 方向에서 해야 한다.

1964. 4.17 金日成, 中央党會議室, 对南工作部門要員

- 南半部를 해방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防禦만 하겠다는 생각은 당장 뜯어 고쳐야 한다. 이것은 保守的이고 被動的이며 革命事業에 대한 積極性이 不足한데서 나온 것이다.

1964. 4.17 金日成, 中央党會議室, 对南工作部門要員

- 戰爭이 일어나면 먼저 敵들의 뒤통수를 때릴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1964. 4.17 金日成, 中央党會議室, 对南工作部門要員

- 우리는 戰爭에 대처하여 南半部の 軍人으로 위장하거나 別動隊를 만들어서 南에 파견할 준비를 해야 한다. 또 남반부 각 지역에서 빨치산을 組織하여 鬪爭을 전개할 준비를 해야 한다.

1964. 8.8 김일성, 中央党, 대남공작지도간부

- 우리의 方針은 남조선에서 地下党 조직사업을 잘하는 군중을 革命化하여 “로시아”의 10月革命때 처럼 일시에 해버리자는 것이다. 越南과 같이 長期遊拳戰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戰爭의 方法으로 革命을 하자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敵들이 戰爭을 도발하면 그때는 방어가 아니라 侵攻해야 한다.

1964. 8. 8 김일성, 中央党, 대남공작지도간부

- 남조선의 지하당 조직사업은 우리가 直接해야 한다. 자연발생적으로 “맑스 레닌주의” 革命組織이 발생하는 것을 기다려서도 안되고 그걸 믿어서는 안된다.

1964. 8. 8 김일성, 中央党, 대남공작지도간부

- 남반부에서의 유격전은 얼마든지 할 조건이 있다. 南海에다 근거지를 두고 또 全南, 全北에다가도 根拠地를 들 수 있음니다. 이러하여 우리는 앞뒤에서 狹攻해야 한다.

1965. 2.22 김일성, 人民武力部, 敵工局要員

- 앞으로 敵工局에서는 적지에 뛰어들어 일할 생각을 해야 한다. 범의 굴에 들어가야 범새끼를 잡지 않겠는가: 남조선 사람들에게 革命에 대한 각성을 높여야 한다. 針을 조금씩이라도 맞으면 어느때든지 적당한 시기에 가서 다 作用을 한다.

1965. 2.25 김일성, 中央党, 대남공작지도간부

- 금년 여름에는 小組를 조직하여 敵地에 浸透시켜 根拠地를 만들어 보자. 場所는 江原道와 海岸 沿岸이 좋다. 이들 지역에는 南韓出身과 越南者家族이 많기 때문이다.

1965. 2.25 김일성, 中央党, 대남공작지도간부

- 남조선 革命事業에는 戰術을 잘 써야 한다. 規律, 秩序, 戰術, 이것이 對南事業에 必要하다. 남조선 實情도 모르고서 戰術을 作成하니 現實에 맞지 않는다.

1965. 2.25 김일성, 中央党, 대남공작지도간부

- 남조선의 學生들은 鬪爭하는데 勞動者, 農民은 鬪爭하려고 않는다. 그래서 根本的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문제는 農民을 장악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

1965. 2.25 김일성, 中央党, 대남공작지도간부

- 資本主義國家에 보내는 것은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앞으로 불란서 “파리” 같은데를 利用하는 것을 研究해 보라. 側面 迂廻는 좀 멀리 하는 것이 좋다.

1965. 4.14 김일성 「인도네시아」 “알리·아르함” 사회과학원

- 『현 단계 남조선 革命의 基本方針은 적들의 탄압으로부터 革命 력을 保存하고 그것을 꾸준히 축적, 성장시켜 다가오는 革命的 대사변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있다.』

- 『남조선에 革命정당을 튼튼히 꾸리며 革命의 주력군을 꾸리는 것이 중요하다.』
- 『우리당의 임무는 모든 힘을 다하여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을 빨리 양성시켜 남조선인민들의 革命鬭爭을 돕는 것이다.』
- 『조국의 통일, 朝鮮革命의 전국적승리는 결국 3대혁명력량 (북반부혁명기지강화, 남조선혁명력량강화, 국제적혁명역량과의 단결강화)의 준비에 달려 있다.』

1965.10. 李孝淳(黨政治委 對南工作秘書), 黨中央委連絡部室

- ……首相同志는 對南事業이 왜 活潑하지 못하느냐고 책망하지만 보내는 쪽쪽 철폐되거나 變節하고 마는데 해 먹을 재간이 있어야지…………
- 너무 알보고 덤벼들라고 하나 옛날 抗日鬭爭時期처럼 호락호락 거물에 걸려들지 않는데 재간이 있어야지…………
- 甲山工作員들처럼 억울한 죽음만 당하게 할 수는 없지 않는가.
- 對南事業을 根本的으로 檢討해야 한다.

1966. 1.20 김일성, 連絡部庁舍, 對南工作部門간부

- 만일 戰爭이 일어났을 때 戰爭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남조선사람들이 잘해야 한다. 남조선의 軍과 民이 우리편을 든다면 쉽게 남조선을 해방할 수 있다.

1966. 1.20 김일성, 連絡部庁舎, 対南工作部門幹部

- 앞으로 남조선의 학생들이 鬪爭을 일으키면 총을 얼마간 보급해 주는 방도도 생각해 보자.

1966. 2. 7

- 人民軍創設 18 周年記念大会
- 平壤市民, 노동적위대, 人民軍將兵
- (総参謀長) 崔 光
- 内 容

『 祖国의 自由와 獨立과 自主的 統一을 위한 우리의 鬪爭偉業을 가로 막을 힘은 없다. 이 제국주의자들은 이 모든 엄연한 현실을 똑바로 보고 함부로 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戰爭을 원하지 않지만 결코 鬪爭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준비되어 있다. 원수들이 우리에게 덤벼 든다면 우리는 勇敢히 맞받아 나아가 싸울 것이며 침략자들에게 섬멸적 打撃을 加할 것이다. 萬一 미제와 그 추종자들이 우리의 심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감히 우리 人民을 反對하는 새로운 침략戰爭을 도발한다면 우리도 놈들을 우리 강토에서 完全히 소탕하여 버릴 것이다.』

1966. 3. 9 김일성, 対南工作要員

- 앞으로 武装小組活動은 美国式武装을 갖추고 남조선사람으로 裝하고 다녀야 한다. 만일 미국식 武装에서 무기가 부족하면

越南에서 가져 오거나 生産해도 된다. 武装小组活動에서 都市테러를 하는 것도 좋다. 壳国奴를 처단하고 반역자들을 총살해야 남조선사람들이 恐怖를 느끼게 될 것이다.

1966. 3. 9 金日成, 中央党連絡部, 대남공작지도간부

○ 우리는 革命力量을 축적하면서 待機狀態에 있어야 한다. 그러다가 時期가 오면 들고 일어나야 한다. 남조선의 군사기지 주변에 있는 独立家屋들을 하나씩 장악하여 組織해둘 必要가 있다. 그렇게 하면 경찰하는데도 유리할 것이고 有事時에 쓸 수도 있다.

1965. 10. 5

○ 労働党代表者會議

○ 労働党幹部, 地方党代表

○ 金日成

○ 內 容

『미제와 日本軍国主義는 우리와 直接 맞서고 있는 가장 危險한 침략세력이며 우리의 주된 투쟁대상이다. 우리 노동자들 속에서 미제와 日本軍国主義에 대한 적개심을 더욱 높이며 그들로 하여금 美·日제국주의와 反對하여 언제나 坚决히 싸울 수 있도록 사상적으로 준비시켜야 하겠다. 우리는 아직도 民族解放革命을 全国的으로 完遂하지 못하였으며 労働的人民들은 의연히 미제와 그 주구들의 抑压 밑에서 신음하고 있다. 南半部를 解放하고 祖国을 統一

하는 것은 全体 조선인민의 민족적 의무이다. 우리도 北半部 근로자들을 남조선에서의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反對하고 日本 帝國時代의 殘虐을 反對하며 朝鮮革命을 끝까지 수행하기 위하여 鬪爭하도록 革命的으로 교양하여야 한다. 우리의 全体 근로자들이 언제나 南半部人民들의 처지와 祖國統一의 任務를 잊지 않도록 하며 南半部人民들을 더 積極的으로 支援하려는 숭고한 정신에서 出發하여 모든 革命鬪爭과 建設사업에 헌신하도록 하여야 한다.』

1967. 2. 7

- 人民軍創建 19 周年記念大會
- 平壤市民, 노동적위대 人民軍將兵
- 民族保衛相 吳振宇
- 內 容

『人民軍將兵들은 미제와 그주구들의 전쟁책동을 경각성있게 주시하고 있으며 다만 수명동지의 命命만 있으면 언제든지 미제 침략자들을 격파하고 祖國統一을 위한 鬪爭에 나설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榮光스런 革命전통과 鬪爭력사를 가지고 있으며 미제의 무력침공을 打破하고 침략자들을 굴복시킬 經驗이 있으며 승리에 대한 信念과 불굴의 革命精神을 가지고 있으며 現代的軍事科學知識과 軍事技術을 充分히 習得한 人民軍隊의 힘은 必勝不敗이다. 人民軍隊와 함께 全体 人民이 무기를 잡고

침략자들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社會主義 祖國을 보위하며 革命偉業을 끝까지 完遂하려는 우리 人民과 人民軍將兵들의 비상한 결심과 충천하는 革命的기세를 꺾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미제와 그 추종자들은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춘 우리의 힘을 똑바로 보아야 하며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 적들의 발악은 오직 그들의 滅亡을 促進시킬 따름이다.

우리는 戰爭을 원하지 않으나 결코 戰爭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원수들이 덤벼들 때에는 단호히 일어서서 그를 소탕하여 버릴 것입니다. 만약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이 앞뒤를 가리지 않고 우리 人民을 反對하는 무모한 침략전쟁을 도발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우리 조국강토에서 종국적으로 쓸어버리고 祖國의 南半部를 解放하며 祖國統一의 위업을 실현하고자 할 것이다.』

1967. 4. 25.

- 抗日유격대 創建 35 周年 平壤市경축대회
- 平壤市民, 노동적위대
- 인민군 총정치국장 오진우
- 내 용

『美帝의 南朝鮮強占과 殖民地統治는 남역땅 겨레들에게 해아릴 수 없는 고통과 不幸을 強要하고 있으며 4천만 조선인민에게 20 余年間이나 國土兩斷과 民族分裂의 비극을 들쳐우고 있다. 공산주의자들과 人民들은 民族의 이 비극을 절대로 더 以上

참을 수 없다. 南半部를 解放하고 祖国을 統一하기 위하여서
 는 미제를 몰아내고 朴正熙도당을 쫓아버려야 한다. 박피뢰도당
 은 日本帝國主義의 침략자들에게 충실히 복무한 그의 주구였으
 며 해방후에는 새로운 침략자 미제의 압잡이로 된 극악한 매
 국노이며 민족반역자이다. 지금 박도당은 옛상전인 日本軍國主
 義者들까지 또다시 끌어들이 남조선人民을 미제와 日帝의 二重的
 식민지 노예로 팔아먹고 있다. 革命선열들의 위대한 뜻을 이
 땅 위에 실현하기 위하여 鬪爭하고 있는 우리는 우리 세대에
 반드시 미제를 몰아내고 南朝鮮解放과 祖国統一을 이룩하여 우리
 후대들에게 統一하고 융성발전하는 훌륭한 祖国을 넘겨주어야
 한다. 』

1967.12.15

- 最高人民會議 期1次會議
- 最高人民會議 代議員
- 金日成의 政綱
- 內 容

『共和國 政府는 人工的으로 國土의 兩斷과 민족의 分열로 인한
 現在와 같은 우리人民의 不幸을 하루빨리 없애고 南朝鮮人民들
 을 解放하며 祖国統一을 實現하기 위하여 北半部人民들은 항상
 남조선人民들의 성스러운 반미구국鬪爭을 지원하며 革命的 大
 變을 주동적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精神的으로 物質的으로 培

튼히 준비시킬 것이다.

共和國 北半部 全体人民들에게는 南朝鮮人民들의 昂揚되고 있는 鬪爭기세에 발맞추어 그들의 鬪爭을 積極支援하여 남조선 革命을 完遂하여야 한다.

공화국 北半部人民들은 남역형제들을 한시도 잊지 않고 그들을 반드시 해방하여야 하겠다고 革命的 각오를 가져야 하며 남조선에서 人民들의 鬪爭이 고조되고 혁명정세가 성숙되어 우리의 지원을 요구할 때에는 언제나 남조선 人民들과 힘을 합하여 祖国統一위업을 성취할 결정적 鬪爭에 동원될 수 있도록 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1968. 1. 18 崔 賢 朝鮮中央放送

- 全体人民들과 黨員들은 한時도 平和的 氣分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하며 원수들의 侵略策動과 있을 수 있는 전쟁도발에 대하여 항상 경각성을 높이고, 만일 원수들이 덤벼든다면 철저히 소탕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함.
- 원하지 않지만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戰爭을 두려워 함은 부르조아적 평화주의적 표현이며 수정주의적 思想임.

1968. 2. 7.

- 人民軍創建 20주년 기념보고대회
- 平壤市民, 노동적위대 人民軍將兵
- 民族保衛副相 金昌奉

○ 内 容

『오늘 우리나라에서의 정세발전을 전적으로 미제국주의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달려있다. 우리는 必要한 모든 준비를 갖추고 미제국주의자들의 새 전쟁도발 策動을 걸음마다 경각성 있게 주시하고 있다. 만일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인민과 전세계 平和애호인민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구실을 붙여가지요 끝끝내 전쟁의 길로 나간다면 그들은 自身이 일으킨 戰爭의 불길 속에서 영영 타죽고 말 것이다…… 우리도 전쟁을 두려워 하는 부르조와 평화주의적이며 수정주의적인 思想潮流들을 단호히 배격하며 이러한 사상적 폭로가 우리대열내에서 생겨나거나 外部로부터 들어오지 못하도록 嚴格히 경계해야 한다.』

1968. 2. 10. 金日成, 人民軍創建 20 周大會

- 우리는 戰爭을 바라고 있지는 않지만 결코 두려워하지는 않음.
- 우리는 <보복>에는 보복으로, 全面戰爭에는 全面戰爭으로 대답할 것입니다.
- 帝國主義者들이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내 戰爭의 길로 나간다면 큰 참패를 당하리라 각오해야 할 것임.
- 최근 모든 사태는 美帝에 의하여 우리의 任意의 時刻에 戰爭이 다시 터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무장간첩선「푸에블로」호는, 날강도적 해적행위이며 전쟁을 일으키려는 策動임.

1968. 3. 金昌奉(副首相), 非公式席上에서 北傀 將領들

- 나는 “金日成 將軍의 노래”만 들으면 꼭 승냥이 우는 소리 같아서 氣分이 나쁘다.
- 革命傳統을 계승하자고 한데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 滿州벌판을 헤매이던 時期처럼 現代戰을 하려고 하니 기막히는 일이 아닌가? ………
- “푸에블로”호는 왜 건드려 놓고 골치를 앓고 있는지 모르겠다. ………

1968. 7. 2 김일성, 人民軍總政治局, 朝鮮人民軍政治일꾼會議

- 南朝鮮 革命에는 暴力, 非暴力, 合法, 非合法等。여러 가지 鬭爭方法이 있으나 남조선政權을 쫓 때에는 두가지 方法 즉, 유격전을 하여 政權을 쥐던지, 그렇지 않으면 革命勢力을 長成시켜 暴力의 方法으로 政權을 쥐던지 結局 暴力의 方法 밖에 없다.

1968. 7. 2 김일성, 人民軍總政治局, 朝鮮人民軍政治일꾼會議

- 武裝鬭爭을 하자면 群衆基盤이 튼튼해야 한다. 그리고 遊擊鬭爭이라는 것은 나왔다 들어갔다 숨었다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條件이 있어야 한다.

1968. 7. 2 김일성, 人民軍總政治局, 朝鮮人民政治일꾼會議

- 武裝宣傳隊는 “○○同盟”이란 명의를 가지고 강령의 宣講

책등을 만들어서 배라나 小冊子를 내고 宣傳하면서 活動하는 것이 좋다.

1969. 2. 7

- 人民軍創建 21주년기념보고대회
- 平壤市民, 노동적위대, 人民軍將兵
- 總參謀長 吳振宇
- 內 容

『우리는 아직도 민족해방 革命을 종국적으로 完遂하지 못하였으며 南朝鮮人民들은 의연히 美帝와 그 앞잡이들의 가혹한 파쇼테로 統治 밑에서 참을 수 없는 재난과 고통을 겪고 있다.

모든 人民軍將兵들은 미제의 밑에 허덕이고 있는 남역땅 兄弟들을 한시도 잊지 말며 우리세대에 기여코 南朝鮮革命을 完遂하고 祖國을 統一함에 대한 굳은 革命的 결의를 가지도록 하여야 하겠다.』

1969. 3. 1 김일성 中央党庁舎 (69. 2월 南浦海上案内所소속 案内組長 “전재봉”이 工作船으로 浸透中 韓國軍 92艦과 조우되었으나 逃避하지 않고 82% 發射管으로 92艦의 司令塔을 공격, 帰還, 金日成이 이들을 接見 英雄称号를 주면서 한말)

『용감하고 대담하게 싸웠기 때문에 승리하고 돌아왔다. 党和 人民을 위하여 자기를 犠牲하겠다는 각오가 서있었기에 승리한 것이다. 앞으로는 敵과 싸우면서 浸透工作을 해야 한다.』

1969. 3. 1 " " "

『당시 1發밖에 쏘지 못했다고 하는데 使用法에 숙련되지 못해서 그런 것 같다. 發射管은 왜 1門만 가지고 다니는가? 앞으로는 여러個 싣고 다녀라』

1969. 3. 1 " " "

『이번 戰鬪經驗을 各連絡所 戰鬪員(武装案内員)들에게 알려 주라』

1969. 5. 6 김일성, 萬壽台議事堂, 民保省總政治局소속 및 기타 要員會合

『前沿工作組는 敵의 兵士들과 만나서 事業하는 것이 第一有利하다. 前沿과 中心에서 敵의 兵士들을 秘密리에 만나서 瓦解 事業을 해야 한다』

1969. 5. 6 " " "

『對南工作에서 敵軍瓦解工作이 重要的 比重을 占한다. 모든 對南活動이 이 工作을 못하면 해결할 수 없으며 이 活動을 積極的으로 추진하라…… 이 일을 하는데 必要하다면 어떤 여건도 뒷받침해 줄테니 拘碍받지 마라』

(※ 이에 따라 敵工部를 民保省總政治局 산하에 두고 563軍部隊라 名稱. 敵工部長에는 人民軍黨 政治委員이며 少將인 崔元益을 任命)

1969.11.2. 김일성, 中央党, 对南事業機關指導者연석회의
『소련과 中共에서 大國主義(內政干涉)를 하려하나 그것은 옳지
않다. 소련이나 中共이 없으면 美國과 싸울수 없는 것같이 생
각하는 傾向을 버려야 한다』

1969.11.2
『남조선에서 遊擊鬪爭을 안한다고 비난하고 越南과 같은 鬪爭을
하라고 내려먹이고 있는데 이는 大國主義다.』
『우리나라는 越南과는 條件이 다르니까 꼭 越南式으로 遊擊鬪爭
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1969.12.26 김일성, 親書形式, 敵工局要員 및 对南工作
指導員
『남조선혁명은 남조선人民들이 들고 일어나야 된다는 인식을 주
라. 그래서 남조선사람들을 될수록 많이 데려다가 教育을 주어
내보내라』

1969.12.30 김일성, 中央党會議室, 模範戰鬥員(武装案内員
400名)會議
(背景: 新年(70年)을 맞이하면서 戰鬥員(案内員)들의 士氣振作
으로 記念品으로 各者 時計(소製 "라켓타") 1개씩 提供)
『이효순과 허봉학은 海上案内만 치중하고 陸上案內를 경시했기
때문에 对南工作을 失敗했다.』

『每年 对南浸透가 늘어나는데 이것은 많을 수록 좋다. 더 많은 대남공작원을 양성하여 남반부에 보내고 또 남조선에 있는 革命家를 데려다가 교양하여 내보내야 조국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

1970. 1. 石山(社会安全相), 自宅, 社会安全省幹部

○ 가까운 놈들 다 죽어난다(註: 金昌奉, 許鳳學 등)

金昌奉 같은 軍事幹部하나 얻기도 여간 힘들지 않는데 結局 黨을 위해서는 큰 損失이야.....

○ 이번에 목잘린 놈들이 모두 나하고 함께 抗日 武裝鬪爭했지만 人間이 좀 교만하고 고집이 강해서 그렇지 머리가 좋고 活動力은 있다 말이야.....

○ 그러고 보면 머리 좋은 놈은 이땅에서 배겨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군 바보처럼 구는 것이 上策이야 잘난채 하지 말아야 해.

1970. 1. 金光狹(民保衛相政治委員 副首相), 自宅, 心復部下

○ 이게 首相同志도 살만치 살아서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疑門이다. 後繼者問題를 서둘러야 한다.

○ 한사람이 모두 오래 確力을 쥐고 있으면 副作用이 생기니, 首相同志도 진작 後繼者에 자리를 양보하고 平安히 지날 생각을 해야만 옳겠다.

1970. 2. 7

- 人民軍創建 22 주년 기념대회
- 平壤市民, 노동적위대, 人民軍將兵
- 民族保衛副相 韓益洙
- 内容

『美帝도 그어떤 口実과 계변으로서도 조선에서 情勢를 극도로 긴장시킴으로써 초래될 엄청난 결과에 대한 責任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오늘 조선에서의 평화는 오직 우리의 참을성있는 努力과 완강한 鬪爭에 의해서만 유지되고 있다. 우리는 시종일관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鬪爭하지만 결코 戰爭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을 유린하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그어떤 침략행위에 대하여서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萬一 美帝國主義者들이 우리의 거듭되는 엄숙한 경고를 무시하고 끝끝내 침략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우리人民과 人民軍將兵들은 결연히 일어서서 단호히 원수들에게 징벌을 가할 것이며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한놈도 남김없이 소멸하여 버릴 것이다.』

1970. 2. 14. 金日成, 中央党舍, 对南工作員 林和와 對話

- 내가 동무들을 만나고자 한 것은 동무들이 南朝鮮農村에 다녀왔기 때문에 그곳 형편을 直接 들어 보자고 한 것임.
- 農民이 革命하게 되는 것은 地主의 压迫이나 착취가 심하든지

民族的인 不滿이 심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며, 地主들의 橫暴가 심할수록 革命이 일어나는 것인데

- 지금 남조선 農村에서는 기만적인 것이기는 하나 農地改革이라는 것을 하면서 小規模일지라도 自己 땅에서 農事를 짓고 있으니 農民들이 거기에 希望을 걸고 食糧不足에 죽을 썩 먹으면서도 참고 견디고 있소.
- 南朝鮮革命은 南朝鮮사람 自身이 하는 것이지 결코 北朝鮮 사람이 해주는 것은 아니다.
- 南朝鮮革命은 南朝鮮에 革命核心을 養成하며 그들이 先鋒에서서 革命事業을 主動的으로 수행해야 함.
- 對南工作員들의 任務는 核心들을 養成하는데 있는 것이지 自身이 直接 先鋒에 나서는 것은 아니다.
- 투철한 革命思想이 確立된 質的으로 준비된 核心分者 幾百名만 있으면 능히 성공시킬 수 있다.
- 南勞黨이 南朝鮮革命力量을 망쳐 놓았기 때문에 그 影響으로 革命与件·喪失 및 退潮가 오늘날 農村革命力量 構築上 最大의 難点으로 대두하고 있음.
- 現在의 환경으로 보아 南朝鮮農村을 革命化함에 있어서 敎員 및 醫師들을 革命的 核心候補要員으로 選定함이 좋을 것임.
- 革命을 하자면 階級意識이 強하다든가 民族意識이 強하다든가 두가지中 하나는 갖추어야 함. 따라서 勞動者와 農民뿐 아니라 南朝鮮 知識人들中 民族意識이 強한 사람들을 포섭하여

教養하며 훌륭한 指導者及 要員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함.

1970. 3. 8. 金仲麟, 中央党舍, 对南工作指導員

- 現在까지 專門的으로 訓練된 暗殺, 테러를 위한 工作組가 없어 失敗했음. 앞으로 專門工作組를 訓練시켜 反動要素를 除去해야 하겠음.
- 对南工作員들의 暴力訓練을 重点的으로 強化하기 위하여 T.N.T. 爆破訓練, 工作員 分隊戰鬪 指導訓練을 비롯한 여러가지 訓練을 教科目에 包含시켜 가리켜라.
- 最近에 와서 日本政府의 予防活動의 強化로 地下網이 多数 破壞되고, 日本社会의 지나친 發展으로 工作員들이 日本에 浸透한 후 離脱하는 例가 많아 이를 防止하기 위해서도 香港에 새로이 拠点을 마련하고 있음.
- 70年 4月初 訪問한 周恩来 中国首相과의 合意에 依해 中国 地下組織의 積極的인 支援도 받을 수 있음.
- 國際共產主義運動의 勝利를 위해서 印·파·라오스등을 비롯한 여러나라 共産党에서 과견된 地下活動要員들을 引受하여 訓練을 시켜주고 있음. (自首間諜 高榮浩의 証言)

1970. 11. 2 金日成, 5次党大会場, 党代表者들과 한 对談

- 이번 党大会에서는 勞動階級을 비롯한 農民과 現場에서 오랫동안 단련된 일꾼들로서 党 中央委員會를 幹部들로만 구려 놓으니 現場實情을 잘 모릅니다.

- 實際 일하는 勞動階級과 함께 國事를 論議하기 위하여 이번 黨大會부터 準候補委員制를 實施하려고 함.
- 市·郡黨과 道黨에서도 準候補委員制를 實施하는 것이 좋습니
다.
- 中央黨에서는 準候補委員은 100 余名으로 하려 함.
- 여기에는 農民들과 함께 對南事業을 하고 있는 工作員들과
戰鬪員들도 包含시키도록 하시오.
- 이번 黨大會에서 準候補委員으로 選舉할 사람들의 名單을 미리
만들어서 가져오도록 하시오. 工作員들과 戰鬪員들에 대한 名單
은 내가 直接 檢討하겠음. (柳大潤의 証言)

1970.11. 2.

- 勞動黨第 5 次大會
- 勞動黨幹部, 지방당대표
- 김일성
- 內 容

『우리는 우리국가 사회제도의 本質로부터 출발하여 始終一貫 平
和라 主張하며 平和를 유지공고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그 누구도 平和를 固守하려는 우리의 指向과 영
원 그리고 참을성있고 努力을 나약성의 表現으로 오산하지 말아
야 한다. 우리人民은 누구를 먼저 다치려 하지 않지만 그 누
가 우리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것을 절대로 許用하지 않는다.

우리도 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쟁하면서도 결코 戰爭을 두려워 하지 않으며 제국주의자들이 무력으로 덤벼들 때에는 침략자들이 다시는 살아서 돌아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소탕할 것이다.

『남반부 인민들은 자기의 혁명투쟁에서 외롭지 않으며 北半部に 위력한 혁명기지를 가지고 있다. 남조선 혁명은 어디까지나 南朝鮮人民들 자신이 주동이 되어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北半部人民들의 혁명투쟁을 積極 지원할 의무와 責任이 있다.』

1970. 11. 第5次党大会 規約 .

○ 朝鮮勞動党은.....

地主 買辦資本家 反官僚輩들의 政權을 打倒하고 政權을 争取하려는 南韓人民들의 反美 反傀儡鬭爭을 積極支持 声援하여 南朝鮮革命의 完成을 爲하여 鬭爭한다.

1970. 11. 12 김상문(江原道党代表) 5次党大会時發言(萬壽台 議事堂)

- 勞農赤衛隊와 붉은青年近衛隊의 隊列의 整備와 軍事訓練을 強化하여 百發百中의 名射手로 튼튼히 準備시켜야 할 것임.
- 前線과 後方地區住民들을 有事時 戰鬭員으로 準備시키고 予備物

資를 備蓄함으로써 튼튼한 後方基地로 造成해야 할 것임.

1971. 2. 7

- 人民軍創建 23주년기념보고대회
- 平壤市民 노동적위대에 人民軍將兵
- 民族보위부상 韓益洙
- 內 容

『南朝鮮人民은 美帝侵略者들과 그 앞자비들의 민족적 계급적 抑壓과 착취에서 벗어나기 위한 南朝鮮人民들의 自身の 투쟁이며 따라서 南朝鮮 혁명의 主動이 되어 鬪爭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 北半部人民들은 다같은 민족으로서 南朝鮮革命을 支援하여야 할 신성한 의무와 責任이 있다. 공화국 北半部 全体人民들은 피흘려 싸우는 南朝鮮人民들을 한시도 잊지 말고 모든 힘을 다해서 그들의 鬪爭을 지원해야 한다.』

1971. 3 金日成, 中央党會議, 對南工作員會議參席者들

- 앞으로 武裝小組活動은 美國製武裝으로 하고 南朝鮮 사람으로 假裝하여 遂行하는 것이 좋겠음.
- 美國製武器가 不足하면 越盟에서 가져오면 될 것임.
- 앞으로 資本主義國家를 拠点으로 하는 迂廻浸透工作에 留意해야 할 것임.
- 仏의 巴里를 利用하는 研究를 해보는 것이 좋겠음. 巴里에서는 越盟同志들이 保護해 주겠다고 함. 幹部問題와 外貨問題등을 비롯한 必要한 活動條件等은 다 解決해 주겠음.

○ 南派된 工作員들이 체포되어 正体が 暴露될 경우 偽裝陳述을 하여 가벼운 刑을 받도록 하시오.

死刑만 되지 않으면 우리의 勝利를 꼭 보게 될 것임.

○ 武裝小組는 都市테러를 하는 것이 좋겠음.

○ 兇國奴와 反逆者는 銃殺勿斷하고 申告者들에게 報復하면 겁을 집어먹고 申告하는 사람이 줄어들 것임. (崔達求의 証言)

1971.4.13 最高人民會議呼訴文, 政黨 및 社會團體 및 人民

○ 強力한 大衆的鬭爭으로 朴政權을 뒤집어 엎고 愛國的 民主主義 政權을 樹立하라.

1971.6.24 金日成, 人民文化宮前, 社勞靑 6次大會

『靑年들은 祖國이 統一되고 革命이 승리한 다음에도 共產主義가 完成될 때까지 革命을 계속해야 한다.』

『국방력 강화에 힘쓰고 언제나 동원될 태세를 견지하라.』

『平和的기분에 사로잡히지 말고 특히 戰爭을 두려워하는 修正主義的 思想을 배격해야 한다.』

『人民軍隊와 人民警備隊靑年들은 戰鬪政治訓練에 더욱 열중하고 전투력과 戰鬪준비 강화에 힘쓰라.』

1971.6.24 金日成, 社勞靑 第6次大會時平壤, 社勞靑要員

○ 祖國 保衛哨所에 있는 人民軍隊와 警備隊의 靑年들은 祖國의 防衛線을 鐵壁으로 다지며 戰鬪政治 訓練에 더욱 參加하여 部隊의 戰鬪力과 戰爭準備을 百方으로 強化해야 함.

- 社勞靑員들과 靑年들은 美帝와 그 앞잡이들을 反對하여 鬪爭하는 南韓靑年·學生들을 積極支援해야 함.

1971.8.6 金日成, 「시하누크」환영 平壤市 群衆大會

- 우리人民은 南朝鮮 革命을 完遂하기 위해 繼續 완강히 鬪爭할 것임.

1971.9.25 金日成, 對南事業担当秘書金仲麟과 吳振宇

(귀순자 김부성 친술 - 1974.9.5)

- 南韓을 早速히 解放하기 위한 速戰速決 戰法을 도입하여 기습 공격을 감행할 수 있게 하라.

※ 本言動(所謂敎示)에 依拠, 7.4 共同聲明 2個月前부터 당글 閣下개시.

1971.12.10 金万金, 聯盟第5次大會時, 聯盟員들에게

- 全体 動勞者들은 平和的 氣分에 사로잡히지 말고 修正主義를 排擊하여 恆常 戰時動員體制를 堅持할것.

1972. 1. 1 金日成, 新年辭

- 만일 美帝와 日本軍國主義者들이 끝내 侵略戰爭을 挑發한다면 南北朝鮮 全体 人民들은 원수들과 판가리 싸움을 할 것이며 侵略者를 完全히 소탕해 버리고 갈라진 祖國을 統一할 것임.

1972. 2.5 金日成, 中央黨會議室, 黨, 社會安全 및 人民蓄備

隊연석회의

『軍事的面에서는 戰爭準備가 상당한 정도로 되어 있으나 아직 社会安全部門에서는 戰爭準備를 잘 못하고 있다. 社会安全部門에서의 戰爭準備는 우리 隊列안에 숨어 있거나 밖에서 들어오는 間諜暗害分子들을 모조리 잡아내며 國家秘密과 軍事秘密을 敵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며 일단유사시 敵들이 우리 内部에서 蚕動하지 못하도록 미리 防止하는데 있다.』

1972.2.5 金日成, 金日成敎示를 住民에 理解를 強化할때 대하여 (귀순자 공탁호 진술)

- 1972.3 末까지 政治保衛部는 有事時 北韓 支持者와 變節者를 事前에 把握, 측정코져 住民動態를 監視, 現在까지도 進行中

1972. 2. 8

- 人民軍創建 24 주년기념대회
- 平壤市民, 노동적위대, 육·해·공군, 경비대 25 명
- 人民軍 政治局 局長 李勇武
- 內 容

『남조선 피뢰도당이 진정한 朝鮮사람의 立場으로 돌아서지 않고 계속 민족반역의 길로 나선다면 천주에 용서못한 매국노의 죄악을 영원히 씻지 못한채 人民들의 존엄한 심판에 의하여 종국적으로 滅亡하고야 말것이다. 南北朝鮮 人民이 하나로 굳게뭉쳐 견결히 일어서 싸운다면 미래와 日本体系主義의 침략세력을 능히 물리칠수 있다. — 미제와 日本軍国主義者들이 현실을 똑바로 보지 않고 우리 人民을 反對하는 침략전쟁을 이르킨다면 南北朝鮮

全体人民은 一致團結하여 원수들과 판가리 싸움에 나설 것이며
侵略者들을 철저히 소탕하고 말 것이다.』

1972.2.18 金日成, 連絡部會議室, 戰鬪組長會議

『大事變이 일어나면 동무들은(武装案内員)人民軍隊보다 더 중
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1972.2.18 金日成, 連絡部會議室, 戰鬪組長會議

『인민군대에서 航路를 잘 아는 戰鬪員(案内員)들을 몇명 달
라고 하는데 보내 주어야겠다. 동무들이 人民軍隊로 가면 戰鬪
組長(案内組長)은 少將까지 될 수 있다.』

1972.2.18 金日成, 連絡部會議室, 戰鬪組長會議

『앞으로 戰鬪船舶(工作船)의 武装裝備를 改善해야겠다. 4身
高射機関銃은 너무 무겁다. 雙身機関銃은 우리가 만드니 얼마든지
設置할 수 있고 가벼워서 4身機関銃보다 좋다.』

1972.2.18 金日成, 連絡部會議室, 戰鬪組長會議

『배에서 파도때문에 照準하기 힘들면 배가 기울어도 高射銃은
平衡을 유지하도록 水平器를 달도록 하라』

1972.2.18 金日成, 連絡部會議室, 戰鬪組長會議

『바다에서 飛行機가 제일 문제라고 하는데 그다지 빠르지 않
은 비행기는 얼마든지 쏘아마칠 수 있는 “스트렐리”라고 하는
携帶用미사일을 소련에서 사다주겠다. 이 미사일은 450~600

km/표로 달리는 비행기는 命中시키기 좋다.』

1972.2.18 金日成, 連絡部會議室, 戰鬥組長會議

『남반부에서 현재 高速快速艇을 미국으로부터 도입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빠른 45노트以上 나가는 戰鬥船舶을 준비하라.』

1972.4.24

- 朝鮮人民 革命軍倉建 40주년 기념대회
- 平壤市民, 노농적위대, 육·해·공군사병
- 人民軍 政治局長 韓益洙
- 內 容

『南朝鮮 위정자들이 現事態를 똑바로 보려하지 않고 무모한 불장난을 일으키다면 오직 자기滅亡을 促進하게 될 것이다. 美帝南朝鮮反動들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不拘하고 계속 정세로 격화시켜 전쟁을 도발한다면 우리는 놈들에게 즉시 섬멸적인 보복타격을 가할 것이며 침략자들이 살아서 돌아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소탕할 것이다…… 우리당과 공화국정부가 祖國統一問題를 戰爭의 方法으로가 아니라 平和的인 方法으로 풀어나가자고 一致하게 主張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 누구도 조국을 평화적으로 統一하려는 우리의 誠意있는 努力을 나약성의 표현으로 오산하지 말아야 한다. 전체 인민과 人民軍將兵들은 우리를 침략하려고 달려드는 그 어떤 적들도 능히 때려눕힐수 있고 반격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누

구를 먼저 치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를 반대하며 무력을 사용한 때에만 무력으로 대답할 것이다.』

1972.8 金英柱, 中央党舍會議室 道内, 郡党幹部

○ 南朝鮮會議代表들이 平壤에 왔을때 人民들이 그들을 대할때 다음과 같은 點을 留意하도록 教養할것.

①南朝鮮代表가 時計등 貴重品을 주면서 對話를 試圖하면 “우리도 그런 物件있다.” 면서 거절할것.

②各 公共機關의 名稱을 質問하면 엉뚱한 生活工場 또는 企業所라고 回答할것.

③住民生活 형편을 質問하면 “金日成首領님의 配慮”로 잘 산다고 答변할 것.

④南朝鮮 代表들이 通過할때는 無關心한 태도를 취하며 만약 對話를 要請하면 “바쁘다” “모른다”는 式으로 회피할것.

⑤깨끗한 服裝을 着用하고 용모를 단정히 할것 (孔卓虎의 証言)

1972.9.15 . 金一, 人民文化궁전, 蘇副首相 “마즈로프” 환영연회석상

『만일 전쟁이 발발된다면 우리는 소련의 軍事援助를 기대한다. 그러나 그들의 同調如何에 不拘하고 統一을 위한 우리의 計劃을 武力으로 추진할 것이다.』

1972.末, 金日成, 平壤, 트랙터운전사大會時 (귀순자 金富成陳述)

○ 소련이나 中共이 어떻게 나오던지 우리는 自衛的 軍事路線에

따라 美國놈과 싸워서 祖國을 統一시켜야 함.

- 1973年 2月7日
- 人民軍創建 25주년 기념대회
- 平壤市民 육·해·공군, 경비대 장병
- 總參謀長 오진우
- 內 容

『남조선 당국자들은 우리의 폭넓은 민족적 아량과 성실한 平和統一努力을 그어떤 나약성의 表現으로 오인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南朝鮮側이 민족적 大團結을 위한 우리의 참을성있고 努力을 外面하고 계속 무력을 증강하고 전쟁을 준비한다면 우리는 그에 대처하여 응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들이 끝끝내 계급전쟁을 강요한다면 우리도 그것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南朝鮮 當局者들은 저들의 행동이 빚어 내게될 후과에 대하여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며 진실로 平和統一을 바란다고 하면 의세에 依存하여 대결과 분렬의 길로 나갈것이 아니라 民族과 運命을 같이하고 團結과 統一의 길로 나가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 人民과 우리 人民軍 장병들은 美帝國主義者들의 침략과 전쟁도발策動에 대처하여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놈들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에 대하여 높은 혁명적 경각심을 가지고 날카롭게 주시하고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현실을 똑바로 보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하며 모든 침략무력을 거두어 가지고 남조선에서 당장 물러가야 한다. 萬一 미제국주의자들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不拘하고 조선의 統一을 계속 反對하며 南朝鮮의 好戰分子들을 사주하여 새 전쟁을 도발한다면 전체 조선인민과 人民軍隊는 놈들을 단번에 쳐부시고 한놈도 살아서 돌아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1973.6 金日成, 全軍官 및 下戰士들에게 指示 (귀순자 유대운
진술)

○ 우리가 앞으로 戰爭을 하면 美國놈과 日本놈들이 달려들 수 있다. 때문에 軍隊의 모든 成員들은 戰爭마당에서 必要한 美·日語를 몇마디씩 배우라.

○ 1973年 7月 27日

○ 6.25 20주년 기념보고대회

○ 平壤市民은 陸·海·空軍 경비대 將兵

○ 人民 政治局長 韓益洙

○ 內 容

『미제와 南朝鮮当局者들이 祖國을 自主的으로 平和的으로 統一하기 위한 우리의 참을성있는 努力을 그어면 나약성의 표현으로 오산하고 계속 우리 人民을 反對하는 범죄행위를 감행하여도 無事하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우리 人民과 人民軍隊는 원수들의 움직임을 높은 革命的 경각성을 가지고 살피고 있으며 놈들의 침략책동을 어느때까지나 그대로 앉아서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협정을 표명한

바와 같이 우리는 나라의 영구분열을 피하는 미제국주의자들의
 犯罪的 策동을 반대하여 끝까지 鬪爭할 것이며 우리人民을 反對
 하는 侵略戰爭에 對하여서는 언제나 革命戰爭으로 對答할 것이다.
 朝鮮人民은 빈말하기를 좋아하지 않으며 그누가 우리는 건드리
 는 것을 결코 許用하지 않는다. 美帝 원수들이 우리에게 감히 제
 급전쟁을 강요한다면 우리도 어느때든지 그것을 사양하지 않는
 는 것을 다시한번 엄숙히 천명한다. 美제와 南朝鮮當局者들이
 우리人民과 世界平和愛護 人民들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不拘하고
 계속 두개 조선을 만들려고 책동하면서 끝끝내 조선에서 새전쟁
 을 일으킨다면 그때에는 20年前에 참패보다 몇곱절더 큰 징벌을
 받고 중국적으로 滅亡하고야 만다는 것을 그들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우리人民은 앞으로도 우리나라를 영원히 두개로 갈라 놓
 으려는 원수들의 침략적이며 매국배족적인 책동을 반대하여 견결
 히 鬪爭할 것이며 祖國의 自主的平和統一을 이룩하기 위하여 모
 든 힘을 다할 것이다.』

1973.8.1 金日成, 朝總聯 祖國訪問團환영 演說

○ 우리가 美·日帝國主義를 滅亡시키려면 長期間의 鬪爭이 必要하
 며 革命의 終局的 勝利를 이룩할때까지 代를 이어 革命을 계속
 하는 問題가 重要함.

1973.9 金日成, 平壤에서 朝總聯 副議長 정재필에게

(※ 74.7. 課報)

- 中·蘇의 支援없이 獨自的으로 戰勝할 수 있는 力量蓄積 및 싸울 수 있는 모든 準備가 完了되어 있음.
- 戰爭의 形態는 不時에 武力으로 가장 빠른 方法으로 即 하룻밤 사이에 武力으로 爭取할 수 밖에 없음.
- 統一의 時機는 目前에 迫頭했음.

1973.10.11 金日成 人民軍中隊長, 中隊政治指留員大會에서
人民軍들에게.....

- 革命鬪爭에 대한 國際的 連帶性이 強化되고 있는 現情勢에서 人民들은 革命的 終局的 勝利를 이룩하기 위해 단반의 準備를 갖추어야 함.
- 戰爭에서 勝利하려면 政治思想的 準備·肉體的 準備·軍事의 技術을 튼튼히 準備해야 함.
- 모든 軍人들이 백발백중의 사격술을 가지며 體育訓練·수영훈련 行군훈련·耐寒훈련·사격訓練에 徹底를 기해야 함.

1973.10.20. 吳振守, 軍指揮官 및 政治일꾼會議, 平壤인민군
指揮官

- 美帝와 그 압잡이들이 無謀한 불장난을 敢行한다면 영영 쓸어 버리고 祖國統一偉業을 이룩하고자 말 것임.

1973.10.28 金日成, 불가리아 『취포보』환영演說 平壤市 群衆大會

- 우리는 오직 鬪爭을 통해서만 나라의 平和統一을 이룩할 수 있게 되며 分裂主義者들과는 어떠한 妥協도 할 수 없음.

○ 南韓人民鬭爭을 完全히 責任을 같이지는 立場에서 積極 支援할 것임.

1973.11.30 金日成, 連絡部會議室, 對南工作指導者연석회의

『남조선의 學生 인테리들을 煽動하여 暴力革命으로의 橋梁의 役割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南朝鮮革命의 領導的 役割은 어디까지나 勞動階級이 해야 하나 現南朝鮮狀況下에서는 學生인테리가 爆発의 起爆作用을 담당해야 한다.』

1973.11.30 金日成, 連絡部會議室, 對南工作指導者연석회의

『南朝鮮革命은 南朝鮮사람들의 손에 의한 暴力鬭爭에 依拠해야 하지만 그 力量이 不足하면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 3個師團 規模의 正規軍을 南조선 괴뢰군(國軍)으로 偽裝시켜 投入, 大都市를 點領하고, 그 偽裝軍이 우리에게(北傀) 公式的인 支援을 要請하는 형식을 취한다면 우리의 武力南侵을 合法化할 수 있다.』

1973.11.30 金日成, 連絡部會議室, 對南工作指導者연석회의

『南北對話는 남조선人民들을 分裂시키고 對北敵對意識을 弱화시키려는데 目的을 두고 있기 때문에 對南工作을 담당한 동무들은 南北會議에 아무런 期待도 갖지말고 鬭爭에만 열중하라.』

1974.1.1 金日成, 新年辭

○ 人民軍隊와 경비대 장병들은 戰鬭訓練을 정력적으로 하여 部隊의 戰鬭力을 百方으로 強化하여 언제나 動員된 態勢를 堅持해야 함.

- 勞農赤衛隊와 붉은 青年近衛隊는 戰鬥·政治訓練을 強化하여 人民軍隊의 후비대, 예비대로 되어야 함.

1974.4.1 金日成, 中央党庁舎, 對南工作指導者

『몇년전부터 朴○○목 따오라고 그랬는데 왜 아직도 못따오고 있는가? 나보고 따오라고 하면 당장 따오겠다.』

1974.4.1 金日成, 中央党庁舎, 對南工作指導者

『朴○○의 목을 따오는데 종전같은 方法(1.21사태)으로 하지 않고 남조선内部에 浸透해 있는 工作員에게 그 임무를 부여하거나 또는 일본을 통한 남조선 浸透가 용의하므로 그쪽을 扼하도록 하라.』

1974.4.1 金日成, 中央党庁舎, 對南工作지도자

『朴○○의 목을 따지않고서는 統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對話도 안된다. 앞으로 동무들에게도 이 暗殺任務가 떨어지면 決死的으로 해야 한다.』

○ 1974年 2月7日

○ 인민군창건 26주년기념대회

○ 平壤市民 人民軍將校 노동적위대간부

○ 人民軍總政治局長 李勇武

○ 內 容

『오늘 미제와 박도당의 군사도발 策動이 끊임없이 감행되는 조건에서도 조선에서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시종일관한 노력과 참을성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참을성에도 한도가 있는 것이며 우리는 언제까지나 적들의 발광적인 도발책동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수 없다.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자기의 입장을 천명한 바와같이 우리人民은 누구도 먼저 다치려 하지 않지만 그 누가 우리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것을 절대로 許用하지 않는다.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 원수들이 무력으로 덤벼들 때에는 침략자들이 다시는 살아서 돌아가지 못하게 철저히 소탕할 것이다. 지금 우리 人民軍장병들과 우리 人民은 원수들의 무모한 전쟁책동에 대하여 치솟는 격분을 가지고 경각성 있게 지켜보고 있으며 놈들의 어떠한 침공도 일격에 쳐부실 만만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萬一 美國反動들과 박도당이 우리 人民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세를 계속 긴장시키며 끝끝내 전쟁의 길로 나간다면 그때에는 천백배의 보복타격을 받고 제놈들이 지금 불길속에서 영영 타죽고야 말 것이다.』

1974.4 金日成, 5期8次 全員會議時 軍團司令官級以上 軍事幹部 및 黨幹部에서 (귀순자 유대운 진술)

○ 싸움준비를 빨리 끝내라 戰爭을 먼 장래의 일이 아니니 지시만 하면 모든 體制를 戰時體制로 전환하게끔 철저히 準備하라.

1974.2.8 金日成, 人民軍들에게 (귀순자 金富成 陳述)

※ 74.6 人民軍 出版社 小冊字에 収録된 內容中

○ 우리가 지금 밀고 나가지 못하는 것은 힘이 약해서나 準備가 못되어서가 아님. 보다 철저한 機會를 노리고 있는 것임.
戰爭은 連戰 連決로 끝내어야 함.

1974.3.4 김일성, 부메디엔 환영 평양시 군중대회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은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애국투쟁이며 정의의 투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어느때나 모든힘을 다하여 積極 지원할 것이다.』

『남조선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지원하는 것은 결코 내정간섭이 아니라 민족 내부문제를 자체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남조선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지원하는 것은 자기의 응당한 의무라고 인정한다.』

1974.3.13 金日成, 中央党會議室, 戰鬪組長會議

『大事變이 일어나면 案内員도 遊擊戰을 수행해야 한다. 海上에서는 海軍을 案内해 가야 하며 海上遊擊戰도 해야 한다. 또 陸上에서도 유격전을 할 수 있다. 이와같이 戰鬪員(案内員)들이 자기임무를 수행하면서 遊擊戰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1974.3.13 金日成, 中央党會議室, 戰鬪組長會議

『75년 10월 10일(당창건 30돌)까지 모든 戰爭준비를 完了하고 大事變을 맞이해야겠으니 당의 기대에 보답토록 하라.』

1974.3.13 金日成, 中央党會議室, 戰鬥組長會議

『越南에 遊擊戰 研究次 보냈더니 教條的으로 越南式만 배우고 와서 우리나라에서는 稀소한 密林, 山岳地帶가 없어서 困難하다는 意見이 있다. 人民大衆의 支持는 密林이나 山岳條件보다 더 중요하다. 民心을 混亂시켜 活動地域이 造成되면 그것이 곧 遊擊根拠地로 될 수 있다. 太白山, 智異山등 稀악한 山도 있고 島嶼도 있다. 못할게 뭐냐? 동시에 여러곳에서 공격하면 敵이 정신을 못차릴 것이다. 그때에 치면 된다.』

1974.3.13 金日成, 中央党會議室, 戰鬥組長會議

『國軍은 남조선 정부가 依存하고 있는 牙城이다. 國軍을 정치 사상적으로 瓦解混亂시키는 동시에 미군과 남조선 정부의 影響으로부터 離脱케 해서 革命으로 引入해야 한다.』

1974.3.18 金日成, 中央党會議室, 戰鬥組長會議

『國軍을 공산주의적으로 잘 교양해 두면 美軍이 철수할때 政權을 장악하는 문제도 용이하다. 暴動이 야기되었을때 國軍內에 우리 조직망이 있으면 武裝鬪과의 配合이 万能하며 交戰時에도 피를 덜 흘리게 된다.』

1974.3.10-1 金日成, 平壤中央党會議室에서 案内員組長會議時

(귀순자 金富成 陳述)

- 現在의 案内任務도 重要하지만 大事變이 일어나면 陸上遊導戰 海上遊擊戰을 해야 함. 黨創建 30周年 紀念日까지 모든 準備를

完了하라.

1974.3 最高人民會議 第5期3次會議時 教育內容中

(귀순자 공탁호 진술)

- 언제 어느때든지 한번은 戰爭이 꼭 일어난다. 戰爭에 對해 공포증을 갖지 말고 이에 관한 金日成敎示를 잘 學習하라.
- 73年 28次 UN總會時와 같이 南北韓이 UN同時加入論이 대두, 決議되면 南北分斷이 永遠히 계속되기 때문에 武力統一은 不可避함.

1974.3 吳振宇, 平壤 室内體育館에서 人民軍 大隊長級以上

政治指導員大會 (歸順者 朴福順 陳述)

- 戰爭準備完了를 報告, 이와 함께 精神武裝의 強化에 對한 討論을 實施

1974.3.13 金仲麟, 中央黨에서 戰鬪 組長會議時

(歸順者 金富成 陳述)

- 南北會談은 破綻된 것임으로 今年부터 對南事業을 積極해야함.

1974.3.14 金仲麟, 中央黨會議室에서 案内組長들에게

- 現在의 案内任務도 重要하지만 大事變이 일어나면 海上에서는 海上遊擊戰 陸上에서는 陸上遊擊戰을 해야함.
- 黨創建 30周年까지 모든 準備들 完了하고, 大事變을 맞이해야 하겠으니 案内組長들은 黨의 기대에 보답할 것으로 믿는다.
(金富成 証言)

※ 會議가 끝난후 案内組長들은 『75年末 冬季에는 戰爭이 일어난다』고 느꼈다고 함.

1974.4.17 平 放, 金日成軍事大學 第7期 卒業式 (1963.10.5)
金日成演說을 발췌, 報導 (※ 諜報에서)

- 人民軍隊의 任務는 첫째, 社會主義祖國을 保衛하는 것이며 둘째, 南半部를 解放하는 革命課業을 遂行하는 것임.
- 우리의 革命運動의 前進을 妨害할때는 우리의 武力으로 統一해야 함.

1974.6 金仲麟, DMZ 地下동굴공사 現場督察時, 兵士들에게 言動
(金富成 陳述)

- 同 工事는 戰略的 意義가 크기 때문에 黨創建 30周年까지 完遂하라 그렇게 되면 時間當 2~3万名을 통과시켜 신속히 서울로 浸透케 하는 한편 特殊8軍團은 落下傘으로 서울以南에 浸透海岸으로는 海上經步兵이 上陸하면 3日內 戰爭을 끝낼 수 있음.

1974.6.10 金仲麟, 땅굴工事現場視察時 땅굴작업군관들에게
『당창건 30돌 (75.10.10)까지 모든 땅굴工事를 完了하라.
이 工事가 끝나는 날이 革命的 大事變의 時期가 될 것이다.』
(金富成 진술)

1974.6.10 金仲麟, 땅굴工事現場視察時 땅굴작업군관들에게
『이 工事가 完了되면 時間當 輕步兵人員 3万名이 通過하여 前方地域에 있는 國軍을 포위하는 한편, 後方을 차단하여 신속히 輕步兵이 서울로 浸透하는 동시에 8軍團을 落下傘으로 縱深地域 (서

을以南內陸)에 낙하하고 海岸으로는 海上輕步兵이 上陸하면 3日以內에 戰爭을 끝낼 수 있다. 미군이 朝鮮戰爭에 武力介入을 하더라도 最少限 戰爭발발 3日以後가 될 것이다.

1974.6.23

- 김일성 6.23 연설 1주년기념보고회
- 平壤市民, 党, 政 권기관 사회단체 간부
- 政務員副總理 鄭準基
- 內 容

『南朝鮮人民들의 反政府鬭爭은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고 祖国을 統一하기 위한 애국적투쟁이며 온 민족의 社會적 利益에 直接 관련되는 정의의 鬭爭이다. 우리는 이 기회에 남조선 人民들의 정의의 救國투쟁에 강력한 지지와 성원을 보내며 아울러 그들의 투쟁에 대하여 언제나 責任을 같이하는 입장에서 모든 힘을 다하여 積極 支援할 것이라는 것을 엄숙히 確認한다.』

1974. 1.24

- 6.25平壤市 群衆大會
- 平壤市民, 党, 政 기관 간부 人民軍將校
- 人民軍上將 李勇武
- 內 容

『지금 우리 人民들과 人民軍軍人들은 만일 침략자들과 박○○ 괴뢰도당 외분별없는 침략과 전쟁도발 策동을 치솟는 분노와 적

개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으며 원수의 도발에 언제나 맞설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나도 전체 조선人民과 人民軍 당의 이름으로 미제와 日本帝國主義 그리고 박XX 괴뢰도당에게 현실을 똑바로 보고 함부로 날뛰지 말것을 다시한번 경고한다. 우리는 피흘려 싸우는 南朝鮮 人民들과 革命家들을 한시도 잊지 말고 그들의 革命鬪爭을 모든 힘을 다해서 積極지지 성원하여야 하겠다.』

1974. 7. 4

- 남북공동성명공고 하기 위한 평양시 군중대회
- 平壤市民 당, 정부기관, 사회단체간부, 출판, 모든 과학, 문화 예술간부
- 黨政治委員 양협섭
- 內 容

『우리는 민족의 太陽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을 흠모하고 존경하면서 그가 밝힌 祖國統一 3大原則과 5大綱領의 기치따라 나가는 남조선 人民들의 正義의 애국투쟁을 積極 지지하며 그들의 성스러운 투쟁에 대하여 完全히 責任을 같이하는 입장에서 언제나 모든 힘을 다하여 確固히 지지 성원할 것이다.』

1974. 7. 24 金仲麟, 平壤 모란봉부근 小영빈관에서 공작원들에

(※ 諜報에서)

- 共產主義者의 戰爭은 正義의 戰爭이므로 武力南侵이 正義의 戰

争으로 認定받을 수 있는 어떠한 口実과 契機만 있으면 戰爭을
通한 南北統一을 결행할 것임.

1974.9.29 金日成, 「시리아」大統領환영연설(平壤)

- 우리는 外軍이 어떠한 形態로든지 南韓에 駐在하는 것을 絶
对 不容할 것이며 完全撤収時까지 계속 非妥協的으로 鬭爭할 것임.

1974.11.8 許談, 조국통일민주주의戰線 第63次 扩大會議
平壤에서

- 現實은 南韓当局者들이 民族分裂을 高唱하는 条件에서는 그들과
의 協商을 通해 統一問題를 解決한다는 것은 事實上 不可能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음.

1975.1.1 金日成, 新年辭에서

- 우리는 올해에는 四大軍事路線을 철저히 貫철하여 防衛力을 특
특히 다질 것이며……………
- 싸우는 南韓人民鬭爭을 모든 힘을 다해 支援할 것임.

1975.1.15 金日成, 平壤, 全国農業者大会 開幕演說

- 우리는 원수들의 어떠한 侵攻에도 対処할 수 있도록 철저히
戰爭準備를 해야 함.
- 戰爭에 對備하여 75年内에 800万t의 알곡고지를 占領하고
燃油를 절약하여 戰時 生産体制를 갖추어야 함.

1975.2.8 金日成, 365軍部隊視察時 (軍高位幹部帶同), 365軍
部隊指揮官

「戰爭을 질질 끌면 損失을 많이 보는 것은 우리 조선사람들이다. 6.25 때의 교훈을 살려서 速戰速決해야 한다.」

1975.2.8 金日成, 365軍部隊視察時, 軍高位幹部, 365軍部隊指揮官

「새로운 戰術도 개발되고 우박砲등 新武器도 大量 개발되었다. 미국놈만 大量介入못한다면 短時日內에 승리할 수 있다. 모든 條件이 성숙되어 있으니 萬반의 준비를 갖추라.」

1975.2.8 吳振宇(總參謀長)

「敵을 단 一때에 쳐부실 戰爭準備를 完了하였으니 何時라도 命令만 내리십시오」(김일성에게)

- 1975年 2月8日
- 인민군창건 27주년 보고
- 平壤市民 人民軍將校 노동적위대
- 總參謀長 吳振宇
- 內 容

「남조선 당국은 그 무엇으로서도 민족分裂영구화 策動을 정당화할 수 없고 저들이 저지른 천추에 씻지 못할 美帝 배족적 行爲에 대한 責任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오늘과 같이 反動의 길로 민족반역의 길로 계속 나아간다면 人民들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지금 우리 人民軍 장병들과 전체人民은 美帝국주의들과 그 앞잡이 박○○ 괴뢰도당의 전쟁策動과 分裂策動을 커다

란 분격을 가지고 날카롭게 지켜보고 있으며 놈들이 어떠한 책동에도 대처할 수 있고 만반의 준비태세로 갖추고 있다. 만일 원수들이 이러한 거듭되는 경고에도 不拘하고 나라의 統一을 한사코 가로막으며 조선에서 끝끝내 침략전쟁의 불길을 저지른다면 우리 人民軍隊와 人民은 원수들을 맞아 나아가 한놈도 남김없이 철저히 소탕할 것이며 祖國統一의 歷史的 위업을 성취하고야 말 것이다.

1975.2.11.17 金日成, 党第5期10次會議時 中央委員會室에서
한 討議中

- 人民軍隊의 指揮官들의 戰鬥能力을 한층 더 높이고 모든 軍人들이 現代的 軍事科學과 軍事技術을 充分히 所有하여 最新무기와 戰鬥技術機材들을 能熟하게 다루도록 해야 함.

1975.2.17 党中央委口号, 党創建 30 돌

- 人民軍隊 및 將兵들이여! 金日成이가 指示한 강인한 革命精神, 영활한 戰術, 무쇠같은 体力, 百발백중의 사격술, 강철같은 規律 (金日成 5大課業)을 貫철하여 一当百의 革命軍隊로 準備하라.
- 南韓人民들이여! 모든 愛國的 民主力量은 軍事獨裁政權을 쓸어버리고 「民主聯合政府」를 세워라.

1975.2.28 許貞淑, 3.1節 36周年紀念式 報告

- 全体勤勞者들은 緊張성과 動員된 態勢를 견지하며 원수들이 감히 侵略戰爭의 불을 지른다면 철저히 소탕해 버려야 함.

1975.3.1 洪기문, 西海事件과 關練 平壤市 群衆大會에서

- 그 어떠한 不意의 侵攻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 黨의 軍事路線을 철저히 貫徹하여 戰爭準備를 빈틈없이 다그치자.

1975.3.5 金日成, 全國工業 열성者大會時

- 앞으로 戰爭이 일어나던지 南韓에서 革命이 일어나던지 그것을 모두 우리 革命에 유리하게 이용하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해야 함.

1975.3.7 金聖愛, 3.8 國際婦女節 紀念報告 (平壤)

- 女性들은 앞으로 戰爭이 일어나면 銃을 들고 敵들과 싸울 각오를 가지고 軍事를 성실히 배우는 한편 節約鬪爭을 強化하여 한그람의 쌀 한올의 실이라도 소중한 다루어 戰爭物資予備를 넉넉히 마련해야 함.

1975.3.29 金仲麟, 平壤, 金仲麟의 專用초대소 (귀순자 朴福順의 陳術)

- 南韓出身 幹部를 核心으로 秘傳教育을 長期間 시키고 活動케 해야 革命에 용이함.

1975.4.8 金경련 (財政部長), 5期5次最高人民會議時 報告

- 北傀는 어떤 不意의 侵攻도 물리치고 祖國을 保衛하기 위해 올해 국가예산 16.4% 國防費로 들릴 것임.

○ 1975年 4月17日

- 中共北京
- 中共黨 및 政府기관, 中共軍간부
- 김일성
- 內 容

『이제 남조선 統治輩들이 남조선 사회 밑바닥에 깔린 人民들의 不 과 을분을 더이상 총칼로 때려누른다면 그것은 보대한 혁명적 폭발을 가져올 것이다. 남조선에서 혁명이 일어나면 우리는 하나의 민족으로서 그것을 보고만 있을수 없을 것이며 南朝鮮人民들을 積極 지원할 것이다. 만일 적들이 무모하게 전쟁을 일으키다면 우리는 전쟁으로 단호히 대답할 것이며 침략자들을 철저히 소멸할 것이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잃을 것은 군사분계선이고 얻을 것은 祖國의 統一인 것이다.』

1975.4.19 李勇武, 平壤市 群衆大會 (越盟의 프놈펜 입성환영)

- 우리는 美帝에 언제나 경각성을 높이면서 戰爭이 터지면서 革命이 일어나던지 닥아오는 革命的 大事變을 勝利로 맞이하기 위해 튼튼히 準備하고 있을 것임.

1975.5.初 金正一, 各部隊에 『싸움準備 指標』를 提示한 內容
中에서 (귀순자 유대운 진술)

- 75年은 兵士를 싸움꾼으로 準備하는 해다.
- ※本指示를 받고 各部隊에서는 75.3.까지 各兵士들 만능 싸움꾼으로 完成한다는 名標下에 訓練, 人民武力部에서는 74年 11月

말경 兵士指標別 訓練計劃을 下達.

1975.5.9 金日成, 訪中時(75.4) 中共軍 副參謀長 양성모에게
(75.5.9. 관동 조사국 조사)

※ 南侵作戰計劃에 關한 브리핑을 했음.

1975.5.29 金日成, 알제리 政府기관지 <엘 무지히드> 신문기자회견

○ 敵들의 侵略戰爭에는 革命戰爭으로 對答하고 적들의 기만적
평화술책에는 革命的 原則으로 對하는 것이 우리의 立場임.

1975.5.31 金日成, 『모리타니아』의 『뉴악선트』에서 AFP 통신
記者『미케탕』과의 會見에서

○ 우리는 美帝가 괴뢰들을 시켜 戰爭을 挑發한다면 그에 對처할
단반의 準備가 되어 있음.

1975.6.3-7.29 池철(北傀中央黨所屬 在日 關東지구 工作指導員
日本 東京都 台車區에서

○ 1976年9月경 美大統領 選舉가 점차 高潮되면 局地戰 挑發
段階로 백령도와 其他 地域을 공격할 것인데 그 目的은 美·日
의 反應測定과 韓國軍事力 테스트가 될 것임.

1975.6.23

- 6.23 發表 2주년 平壤市보고회
- 당, 정권, 사회단체 과학 教育·文化·예술·출판보도 부분간부
- 政務院副總理 鄭準基

○ 內 容

『우리도 적들의 침략전쟁에는 혁명전쟁으로 대답하며 적들이
기만적인 평화술책에는 혁명적인 原則으로 대답할 것이다.
美帝가 大勢에 逆行하여 끝끝내 조선에서 새로운 침략전쟁을 일으
키다면 전체조선 人民은 단호한 반격으로 대답할 것이며 놈들을
철저히 섬멸할 것이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잃을 것은 군사분계
선이며 얻을 것은 조국의 統一뿐이다…… 미제와 南朝鮮괴뢰들은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不拘하고 계속 침략과 매국 배족을 일
삼으며 민족의 영구분렬을 피한다면 그들은 결코 歷史와 人民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1975.6.25-7.27 朴成哲, 『이집트』訪問時 外相 Ismail

Fahmy 에게 言動 (※ 75.8.6.駐이집트
公報館提報)

○ 美帝國主義者를 축출하기 위한 戰爭準備가 完了되어 있음.

小規模의 것이라도 南韓人民이 봉기했을 때에는 우리는 그의 支
援을 위해 南으로 내려갈 것임.

1975. 6.25

○ 6.25 平壤市 群衆大會

○ 平壤市民, 人民軍將兵, 당, 政權기관장부

○ 당비서 柳章植

○ 內 容

『美帝와 朴××도당은 朝鮮에서 平和를 유지하고 平和統一을 실현하기 위하여 전개하고 있는 우리의 참을성을 파탄시키지 말아야 하며 분별있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 人民은 날로 악랄해지고 있는 미제와 朴××도당의 전쟁 도발 책동을 치솟는 격분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으며 적들의 침략전쟁에도 언제나 혁명전쟁으로 대담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萬一 미제와 朴도당이 우리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고 朴도당이 흐름에 역행하면서 조선에서 끝끝내 새로운 전쟁을 일으킨다면 전체 조선人民은 단호한 반격으로 대담할 것이며 침략자들은 한놈도 남김없이 철저히 소멸할 것이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잃을 것은 군사분계선이고 얻는 것은 祖國統一일 것이다…… 미제는 현실을 똑바로 보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하며 산송장이나 다름없는 남조선 괴뢰들에게 입김을 불어 넣는 것과 같은 부질없는 것을 그만 두어야 하며 더 늦기前에 모든 침략무력을 걸어가지고 남조선에서 물러가라. 萬一 美帝國主義者들이 우리 人民의 거둬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괴뢰들을 부추기며 침략과 전쟁책동을 계속한다면 놈들은 인도차이나에서 당할 것보다 더 큰 참패를 면치 못할 것이다.』

1975.8.15 金東奎, 8.15 30주년기념 청진시 群衆大會

○ 우리인민은 南韓人民들의 革命鬪爭을 積極 支持하여 全体人民이 金日成을 받들고 살아갈 날을 앞당기기 위해 모든힘을 다할 것임.

1975.9.8 金東奎, 北傀創建 27 周記念報告

- 南韓人民은 지난 30年間 체험을 통해 오직 決定的 鬪爭을 통해서만 植民統治制度를 뒤집어 엎고 民主民權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음.
- 南韓人民들은 金日成思想으로 튼튼히 武装, 여러가지 鬪爭形態와 鬪爭方法을 옹기 배합하여 革命鬪爭을 積極 벌려야 함.

1975.10.10 金日成, 党創建 30 周紀念연회에서 北傀高位層에서 한 發言

- 우리는 南韓人民들을 한시도 잊지 말고 積極支援해야 하며, 이 鬪爭에서는 어떠한 困難과 犧牲도 각오해야 함.

1975.11.18 吳振宇, 金日成政治大學 및 강진綜合軍官學校 創立 30 週 記念報告

- 美帝國主義者와 그 앞잡이들이 侵略戰爭의 불을 지른다면 人民軍隊는 원수들을 철저히 쳐부시고 南半部 人民들을 解放하고 祖國을 統一하여야 할 것임.

1975.11.24 北傀外交部의 聲明

- 우리는 『포드』의 南韓行脚을 契機로 그들의 어떠한 戰爭挑發策動도 제때에 쳐부실 만반의 態勢를 갖출 것임.

1975.11.18 金日成, 人民軍最高司令官 命令 第 4 号發表

- 美帝와 南韓의 새 戰爭挑發策動으로 情勢가 極度로 緊張되고

있는 환경속에서 우리는 高度의 경각성을 가지고 敵들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주시해야 할 것이며 戰鬪訓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3. 主要對南挑發事件

45.10.20 朝鮮精版社 偽造紙幣事件

- 朝鮮精版社 社長인 朴洛鎭, 서무과장, 財務課長, 技術課長 등이 비밀리에 會合, 偽造紙幣를 印刷하여 共産党에 提供할 것을 決議
- 1억 2천만원을 偽造發行하여 同党 中央委員會 財務課長에 이를 提供, 共産党 資金으로 使用케 함으로써 南韓 經濟를 攪亂 시도.

46.10.1 嶺南 暴動事件

- 朝鮮勞動黨의 左翼三黨(共産党, 人民党, 新民党等) 統合에 依한 南勞黨 創黨을 앞두고 自黨內的 宗派 분규를 은폐하고 朴憲永과 의 獨自的 処事에 반기를 든 세칭 대회파를 暴力으로 抑壓하는 同時에 美軍政을 反對하여 共産党 勢力을 擴大하려는 政治的 目的과 기도로 소위 「南朝鮮勞動者 9月總과업」 指令으로 9.23 鐵道종업원 과업단행, 9.24 大邱地區鐵道從業員들이 과업에 돌입,
- 當時 大邱에는 共産党 指令下에 9月 宗과업을 위해 朝鮮共産党 大邱市 委員長을 비롯, 左翼系 主動人物들의 주도하에 소위 「大邱市鬭爭委員會」를 組織, 組織的이며 計劃的인 과업지도와 民심선동 투쟁전개
- 10.1 大邱地方에서 발단하여 嶺南一帶에 비화확대할 同소란사건으로 말미암아 慶北地方의 人命被害는 警察官死亡 39명 부상

31명, 民間人死亡 44명 부상자 다수를 내었으며 當時 竝가
여역만원 상당의 國庫財産損失

1947.8.4 서울放送局 赤化工作事件

○ 電波를 利用, 赤化宣傳을 펴하려던 南勞党的 工作이 탄로

(47.1 南勞党이 放送局 赤化를 爲해 내린 指令內容 要旨)

- ① 放送局 全職員 南勞党 세포에 加入
- ② 放送을 通해 共產主義 思想을 一般청취자에 注入
- ③ 우翼의 政治放送은 加급적 放送을 회피하도록 하고 放送을
할 때 기계고장 구실로 암암리에 放送을 방해하여 일반청취
자가 청취하기 곤란하게 할것.
- ④ 가사등을 증작, 청취자에 共產主義 思想 注入
- ⑤ 職場을 通해 知得한 秘密을 報告
- ⑥ 美國人의 言動을 일일히 報告

48.2.7, 2.7 暴動事件

- 南勞党 指令하에 全地域에서 单独선거반대 파업 暴動
- 南韓의 民心을 煽動하여 暴動을 유발함으로써 混雜을 擴大,
전국적 범위내에서 5.10선거 準備放害

48.4.3 4.3 제주도 사건

- 5.10 석거를 反對할 目的으로 道民을 煽動하여 한라산에서
共匪가 主動이 되어 暴動을 야기

48.5.14 對南送電中斷事件

- 5.14 正午를 期해 送電을 完全 中斷함으로써 南韓의 社会,經

濟界에 커다란 타격을 가하였음. (電力策動으로 인한 社会的 不安
경제과탄 유발策動)

48.10.19 麗順反乱事件

- 4.3 제주도에서 발발한 暴動 鎮戍任務에 임할 軍의 内部 工作
責 李在福의 指令에 따라 舍智會, 洪淳錫 中尉가 반란을 일
으킴.

1950.4 女間諜 金壽任事件

- 搜查機關의 최고고문으로 있는 美国高官과 同棲하면서 国家 機
密 蒐集

1950.6 ~ 52.5 地下党 再建工作

- 제 1 지구당 (서울 경기)
- 제 2 지구당 (강원)
- 제 3 지구당 (충남, 충북)
- 제 4 지구당 (경북, 경남 일부)
- 제 5 지구당 (전남, 전북 경남 일부)

52.5.7 거제도 포로폭동

(※ 52.10.28 재폭동)

53.10 간첩 金正濟 事件

- 政界要人 包涉工作, 고유인사 50 여명과 接線, (前 內務部
治安局 警務課長)

54.8.1 非武装地帶内에서 北傀軍襲擊(挑発)

- 美軍 2명 被殺
- 56.8.1 海上 挑発
- 翁津近海에서 北傀軍, 아축 어선에 발포.
- 56.11.7 항공기 피습
- 서해상공에서 北傀空軍에 의해 아축비행기 2대 피습
- 57.5.16 어선납치
- 연평도 近海에서 北傀선박, 아축어선 납치.
- 58.2.16 KNA 機 납치
- 28명의 승객, 1명의미군장교, 3명의 승무원이 탑승한 대
한항공사 소속 창랑호여객기 拉北
- 58.3.6 승객, 승무원 24명 送還
- 58.4.24 어선 납치.
- 서해 연평도 부근에서 조업중인 아축어선 1척 납북
- 58.5.8 武装間諜出現
- 서해안에 武装間諜과 사격전 (3명사살 1명도주)
- 58.6.16 한국함정, 북괴함정과 포격전
- 동해안 猪準里해상에서 북괴함정과 포격전
- 58.9.8 무장간첩 출현
- 2명사살 4명생포 (出現場所 不祥)
- 58.9.15 무장간첩 출현
- 강화도에 무장간첩 6명출현

58.10.6 武装間諜船擧捕

- 인헌해상에서 무장간첩선 나포
(간첩 金相九外 4명생포)

58.11.7 어선 납치

- 서해바다에서 어선 2척 어부 11명 拉北

58.11.18 韓國경비정, 간첩선과 사격전

- 京畿 濟扶島에서 間諜船과 사격전
(我側 張鳳俊警衛被拉)

58.11.25 간첩선 나포

- 東海上에서 간첩선 나포

58.12.6 어선, 어부 拉北

- 東海上에서 어선 7척, 어부 42名 拉北

59.1.27 北傀記者 歸順

- 소련 "푸라우다"지 李東濬記者 판문점에서 남한으로 脱出

59.7.27 武装間諜船出現

- 北傀 무장간첩선 출현
(간첩선 격침, 5명사살, 2명생포)

59.8.19 북괴함정 월선

- 서해 해상에서 북괴함정 不法越線

59.9.5 무장간첩 출현

- 휴전선 부근에 무장간첩선 출현 (나무꾼 林相俊 殺害)

59.11.26 무장간첩선출현

- 서해 해상에 북괴무장간첩선 격침
(간첩선 격침, 공작원 4명 생포)

1960.5.4 무장간첩선출현

- 동해안에 무장간첩 4명 침투(2명사살, 2명생포)

1960.5.4 해상도발

- 북괴함정 3척 휴전선 남방 2마일 해상에서 아축 경비정 포위 공격

1960.7.30 북괴경비정 월선

- 東海上에 북괴 어뢰정 월선, 동해경비중인 아축함정이 侵入한 북괴 어뢰정을 격침, 북괴수병 3명 체포

60.12.15 海上도발

- 목포해상에서 경주호 남북미수

61.4.7 어선 남북

- 東海上에서 아축어선 6척拉北

61.4.21 항공기 도발

- 群山 近方에서 我側航空機(세이버)가 北傀미그機 3대로부터 被襲

61.4.22 난동사건

- UN軍과 北傀軍사이 판문점에서 주먹싸움

61.8.25 총격도발

- 金化부근 비무장지대에서 北傀軍이 軍事分界線 南方 200m 地點의 韓國軍 초소를 奇襲
(1名戰死, 4명 중상)

51.10.20 간첩 黃泰成 事件

- 관련자. 黃泰成外 3名
- 평화통일선전과 南北協商 任務를 띄고 南派
〈工作任務〉
 - ① 南韓의 革命政府高位家族 抱撰
 - ② 고위지도층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 당의 지시받아라.
 - ③ 大邱市를 中心으로 당적 기반구축 신분의 합법성을 爭取하라
 - ④ 革命적후의 사회적 混亂을 利用, 政治, 社会的 混亂을 造成
 - ⑤ 4.19의 再版과 같은 混亂을 造成하여 革命의 계기를 만들어라.
 - ⑥ 平和統一 제창토록 공세를 취하고, 軍에 對한 厭戰思想과 反美思想을 고취하라.

(62.12.14 사형집행)

62.7.6 勞動党 連絡局 3人組間

- 검거장소 : 경기도 강단군 진동면 아곡동
- 관련자 : 3명 (1명복상)

○ 기본임무

- ① 1個月內 工作任務遂行 完遂하고 복귀
- ② 軍事情報, 수사기관 活動 사항수집
- ③ 주민들의 生活狀態, 成分別 統計, 직종별 통계探知

62.7.7 무장간첩선 출현

- 동해해상에 무장간첩선 출현, 아측에 의해 격침.

62.7.29 비무장지대에서 도발

-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巡察中인 美軍에 피습

62.11.20 비무장지대에서 도발

- 서부전선 침투한 북괴군 미군 초소 습격 (1명 전사 1명 중상)

62.11.23 비무장지대에서 도발

- 서부전선 비무장지대내에서 미군 2명 사상

62.12.23 해상도발

- 연평도 근해에서 北傀 패속정 2척이아측 초계정에 발포

63.5.17 미군 "헬리콥터"기, 휴전선상에서 북괴피격에 추락

(조종사 "스터츠와 볼트"대위는 만 1년만에 抑留後 64.5.

16 送還)

63.7.29 무장도발

- 휴전선 남방에서 북괴군 공격으로 UN軍 3명사상

63.8.4 무장도발

○ 休戰線上에서 북괴군 공격 (쌍방교전)

63.11.13 무장도발

○ 華川地方 비무장지대내 군사분계선 포식관을 점검중이던 UN軍
側 감시초소 人員에게 북괴측이 기총사격
(我軍 1名 戰死, 1명중상)

64.1.14 美軍機 추락

○ 訓練中이던 F 86D 1대가 판문점부근 상공에서 訓練中 북괴포
화에 추락

64.1.25 觀光客 拉致

○ 板門店 觀光客 崔珍榮 拉北

64.1.25 어선, 어부 拉北

○ 백령도 부근에서 어선 2척 어부 26名 납치

64.10.29 어선, 어부 拉北

○ 연평도 근해에서 어선 (제 6대영호) 拉北

65.4.27 공중도발

○ 동해상에서 북괴 미그기가 미군기에 발포

65.5.18 한국군 정찰기 추락

○ 한국육군 항공대 소속 I-19기, 비무장지대 상공에서 북괴
포화로 추락 (조종사 사망)

(조종사 林承相 中尉는 3日 오후 시체로 판문점에서 送還)

65.6.13 무장공비출현

江原道 三陟郡 遠德面 杞谷리에 海兵隊복장의 무장공비 2名이
出現하여 民間人대동일복을 기도하다가 申告에 의해 生捕

65.7.18 송추무장간첩출현

- 무장간첩 盧成 집外 2名이 政界要人の 暗殺을 目的으로 다이나
마이토, 기관단총, 권총, 수류탄, 무전기, 망원경, 카메
라, 나침반등의 상당한 장비를 가지고 송추에 浸透하였다가
피살, 도주.

65.9.19 萊草캐던 3명의 民間人 被殺事件

- 京畿道 抱川郡二東面場岩리에 무장간첩 2명이 出現, 口望峰山
중턱에서 약초와 숲을 구우러 간 印鉉喆(61) 金景九(21)
宋永會(35) 등 3명을 落下산 줄로 묶고 양손을 뒤로 묶고
칼로 피살하고 도주

65.10.18 國軍兵士습격사건

- 강원도 철원군 갈말면 갈말리 고대산 부근에 무장공비 3名이
出現하여 國軍士兵 2명을 살해하고 도주

65.10.11 美第2師團 襲擊事件

- 경기도 미 2사단 23연대 2대대에 무장공비 4名이 출현하여
수류탄을 던져 디젤油 10드람을 파괴하고 도주

65.10.24 金中領一家族 被殺事件

- 江原道 楊口郡 方山面 長坪리에 사는 金斗杓中領집에 무장공비
6명이 侵入, 잠자고 있던 家族을 칼로 찌르고 권총을 난사,

金中領과 長女美京(6), 次女美惠(4) 와 妻兄 徐在順(44) 를 살해
하고 夫人 徐貞順에 중상을 입히고 도주

65.10.29 어부 拉北

○ 강화도 해상에서 북괴함정 포격으로 어부 109명 납북

66.1.22 中共 무장 어선, 한국어선 납치

○ 중공무장어선, 서해格列비열도 근해에서 어선 吉龍号, 어부
14名 拉致

66.7.29 해상도발

○ 북괴 무장선 9척이 東海안에서 한국어선단을 습격

66.1.26 東明号 永豊号 拉北事件

○ 東海 休戰線, 南方 東草 앞바다에서 東明号, 永豊号等 韓國
民間 漁船 5隻이 漁撈作業中 北傀魚雷艇(P.T) 2隻과 快速擊
(M.S.F) 3隻이 나타나 船長 金龍沢을 殺害하고, 3名의
船員에게 中상을 입힌후 東明号와 永豊号를 強制로 拉北.

66.10.15 國軍士兵拉致 事件

○ 북괴 무장 순찰대가 中東部 戰線南方에 出現 一等兵 이상현을
拉致한 뒤 10.19 까지 5日間 9次에 걸쳐 韓國軍을 습격

66.10.21 食事運搬트럭 습격사건

○ 西部戰線, 非武裝地帶 南方 500 ㄹ地点에서 食事運搬中이던 트
럭이 北傀軍에 의해 습격을 받고 韓國軍 兵士 2명이 死殺되
고 2名 負傷.

66.10.25 漁夫 拉致

- 西海岸 咸朴島에서 北傀 경비정이 한국민간어부 大量拉致

66.11.2 UN軍에 대한 奇襲殺傷事件

- 重武裝을 한 北傀軍들이 비무장지대 南方 400 m 地点에 侵入,
경비중이던 UN軍側에 奇襲攻擊을 加하고 7名을 慘殺

66.11.22 포격사건

- 北傀 지상포대에서 東海休戰線 南方의 명대잡이 漁船團에 포격.

66.11.29 福成号 拉北事件

- 北傀海軍함정들이 東海岸 高城海上에서 漁撈作業中인 韓國 漁船
團을 습격, 福成号를 拉北

66.12.13 漁船拉致 事件

- 東海 漁撈 저지선 南方에서 명대잡이 漁船 拉北

66.12.17 총격사건

- 北傀軍 관문점 南方 UN 軍 초소에 총격

67.1.19 56 艦 被擊事件

- 北傀는 東海 休戰線 近海에서 漁撈作業을 保護中인 56 艦을
地上砲火로 공격, 沈沒케 하고 40 余名을 殺傷

67.2.3 中部戰線 203 초소 습격사건

- 分隊規模의 北傀軍이 軍事分界線 南方 800 m 地点인 中部戰線
203 초소를 습격

67.3.5 北傀軍 軍事分界線내 侵入.

- 北傀軍 數名이 판문점 부근의 軍事分界線 南方 900 m 地點에 있는 UN 측 초소에 侵入.

67.4.5 총격사건

- 板門點 附近에서 雙方 大規模 총격전 (人命被害不詳)

67.4.10 怪漢出現

- 中部戰線에서 北傀軍이 出現 (北傀軍 3名 사살)
- 中東部戰線에서 北傀軍 2名이 侵入 (1名 사살, 1名 도주)

67.4.13 怪漢出現

- 華川北方에 北傀軍 約 90名이 侵入, 2時間 交戰 끝에 3名 사살.

67.4.14 怪漢出現

- 西部戰線 美軍哨所에 北傀軍出現, 수류탄 공격.

67.4.16 간첩선 出現

- 순위도 근해에 간첩선 침투, (공비중 9명사살, 6名도주)

67.4.18 怪漢出現

- 西部戰線 美軍哨所에 北傀軍 出現, (수류탄공격)

67.4.28 怪漢出現

- 西部戰線 美軍哨所에 北傀軍 出現 (수류탄 투척)

67.4.28 間諜線출현

- 西海 海上 북괴무장간첩선 出現, 我軍側이 간첩선을 격침.
(間諜 5名 生捕)

67.5.6 東白林을 거점으로 한 對南亦化 工作團事件

- 北傀, 對南工作團 林錫薰外 一黨 25名 동사건 관련자 41名
- 同간첩단 사건으로 拘束된 者の 數는 107名
이들과 接線하여 拘獲된 学界, 言論界 人士는 194名

67.7.5 怪漢出現

- 東部戰線에 北傀軍 20余名 出現, 我軍側에 총격
(我軍 7名 戰死, 11名 負傷)

67.7.16 怪漢出現

- 西部戰線에 北傀軍 出現, 美軍에 총격 (美軍 3名 戰死)

67.8.10 기습사건

- 西部戰線 비무장지대 (관문점출입통로상)에 北傀軍이 미근트력을
기습 (3명 전사, 17명 중경상)

67.3.10 무장피한 출현

- 北傀側 무장병력 3차례 걸쳐 軍事分界線 南方에 出現

67.3.12 총격사건

- 60~70명의 北傀兵力, UN軍 순찰병에 총격

67.8.28 板門店 後方 幕舍 襲擊

- 一團의 北傀兵이 西部休戰線 2~3 km 후방의 美軍工兵部隊
士兵食堂을 襲擊, 美軍 2名 카추샤 1名이 사망하고 20여
명이 負傷

67.9.5 京元線 暴破事件

- 北傀 테러分子들이 京畿道 拘川郡 青山面 哨城里 南方地点을 지나던 서울發 新灘里行 열차를 暴破

67.9.8 亂動事件

- 板門店에서 北傀경비병, UN軍에게 集團暴行

67.9.13 京畿線 暴破事件

- 북괴테러 分子는 水色發 汶山行 1181列車을 雲井 간이驛 南方 600 地点에서 미리 다이ना마이트를 埋設해서 暴破.

67.9.20 무장도발

- 東海 休戰線 근해의 북괴 포대에서 我側 어선에 發砲.

67.10.6 臨津江邊에서 美警備艇 피습

- 북괴는 軍事分界線 南方 300 m 地点 臨津江邊에서 수심척도 (水深測度) 作業을 하고 있던 美軍 경비정에 무차별난사.
(被害內容 不詳)

67.11.3 北傀東海休戰線 南方에서 我側漁船團을 북괴해군함정들이

東海岸 休戰線 南方에서 漁撈作業中인 228 隻의 漁船團에 .

무차별 포격을 감행, 12 隻의 漁船과 漁夫를 拉致.

67.12.5 海上도발

- 東海上에서 북괴 총격으로 我側漁夫 6名 사망 8名 중상

67.12.6 漁船, 漁夫 拉致

- 北傀艦 3 隻은 동해안 巨津앞바다에서 明太잡이를 하던 新光号,

大光号등 漁船 7隻과 船員 41名을 拉致

68.1.11 漁船, 漁夫 拉致

- 北傀艦艇, 我側漁船 200隻을 포위습격하여 大韓号를 沈沒시키고 辛德号와 船員 6名을 拉致.

68.1.21 北傀 南派 무장공비 靑瓦蒂 爆破 企圖

- 北傀軍 124軍 部隊所屬 무장공비 31名이 靑瓦蒂를 爆破할 目的으로 서울에 潛入中 군경에 발각되어 전원 사살됨.

68.1.21 崔圭植 鍾路警察署長 殉職

- 鍾路 警察署長, 洗劍洞에서 무장공비 일당에 급습받고 순직

68.1.21 무장공비, 민간버스에 수류탄 투적

- 무장공비 31명 일당, 세검등 고갯길에서 民間버스 4대에 수류탄을 던져 민간인 5명을 殺傷

68.1.21 무장공비 민가에 侵入, 民間人 학살

- 무장공비 1명, 民家에 侵入하여 民間人 李容선을 학살

68.1.23 北傀, 美艦 “프에블로”号 拉北

- 北傀는 哨戒艇 4隻과 미그(MIG)기 2대를 動員, 公海上의 美海軍情報蒐集補助艦 “프에블로”호와 승무원 83名 拉北

68.1.24 무장공비 토벌작전중 李益洙 聯大長 戰死

- 경기도 波州郡 老姑山에서 15聯隊 李益洙 大領과 다른 將兵 9名이 共匪(1.21서울 침투한 무장공비 잔당) 토벌에서 戰死

68.1.25 北傀무장 병력, 美2師團前面에 出現

○ 北傀武装軍 10여명, 西部戰線 美2師團 前面에 侵入,

카츄샤 3名 美軍 11名 殺傷

68.1.26 北傀 "프에블로"호의 승무원 재판회부 示唆

○ 北傀 「勞動新聞」은 "프에블로"호의 승무원들을 他國의 主權을 侵害하고 도발행동을 저지른 범죄자들로 判定, 승무원 全員을 재판에 回附하겠다고 云云.

68.1.26~1.27 北傀軍 4次도발

○ UN軍 代弁人은 北傀軍이 26~27양일에 4차례에 걸쳐 도발하였음. 이에 UN軍측이 交戰끝에 격퇴하였다고 發表

68.2.4 총격사건

○ 西部戰線에 北傀軍 20여명 侵入, 아군과 총격전

68.4.14 怪漢, 美軍車輛1帶 襲撃

○ 美2師團 地域에서 怪漢 5名이 出現하여 보조교대차 미군 및 카츄샤 7名이 승차한 3/4톤차량 1대를 기습하고 도주

○ 이 사건으로 美軍 2名, 카츄샤 2名이 戰死

68.4.17 怪漢出現

○ 北傀軍, 서부전선 비무장지대내에 出現, 아군진지 기습 (5名 사상 1名 失蹤)

68.4.21 北傀軍, 韓國軍에 기습

○ 步兵 第25師團 71연대 搜索中隊 兵力 11名이 정찰중 埋伏한 北傀軍으로부터 기관단총 기습을 받아 我軍 4名 戰死

하고 3名 부상 (同事件에서 敵3名 死殺)

68.4.29 武装挑発

○ 北傀軍 東部戰線에서 武装挑發 감행

68.6.17 漁夫拉致

○ 연평도 근해에서 어선 5척, 어부 44명 拉北

68.7.8 對民支援中인 國軍 2名 被襲

○ 경기도 파주군 월용면 98전투단 지역에 98전투단 兵力이 모내기 對民支援作業을 하던 중 怪漢 3名을 발견, 사격을 가하자 敵은 応射하면서 도주, 이 사건으로 我軍 2名이 부상

68.7.20 美巡察將校 1名 被殺

○ 경기도 連川郡 白鶴面 伴種里 美2師團 管内에서 순찰중인 美軍이 潛伏中이던 수 미상의 怪漢으로 부터 奇襲을 받아 美軍將校 1名이 戰死

68.8.26 統一革命黨 간첩 단사건

○ 주모자: 金鍾泰 ※ 平壤 4차례 往來

○ 關聯者: 158名

○ 基本任務 및 指令

① 지하당 기본조직

② 出版物에 依한 大衆的인 思想亦化工作

③ 서울대를 中心으로 한 黨指導部 양성

④ 革命精神을 가장한 知識人, 學生, 青年서클의 黨小組化로 전
위대 조직

⑤ 革命기운조성

⑥ 무장투쟁을 위한 특수전술 연구 유격전략 기타 確保

⑦ 「朝鮮民族解放統一戰線」 형성

68.8.17 美軍 “헬리콥터”機 추락

68.9.4 怪漢出現

○ 江原道 양구군 第28師團地域에 28師團兵力이 초소勤務중 怪
漢 5名으로부터 기습을 받아 我軍士兵 2名이 戰死, 2名이
負傷.

68.9.4 移動中인 韓國軍 車輛 1台 破壞

○ 江原道 高城郡 第12師團地域內 37연대 8中隊 兵力이
320 GP 로 부터 聯隊本部로 移動中 怪漢 5名으로 부터 기습
을 받고 我軍 4名이 戰死, 1名이 負傷, 車輛 1台
破壞.

68.9.7 怪漢 出現 (美兵士 襲擊)

○ 경기도 파주군 미 2사단지역內 美3여단 31보병 1대대 병
력 순찰도중 數 미상의 괴한이 出現, 교전끝에 괴한들은 북상
도주 (美軍 2名 戰死)

68.9.29 作業中인 美軍兵士 殺害後 도주

○ 경기도 파주군 臨津面 美2師團前方 DMZ지역내에서 1대대

兵力이 射界清掃次 出動하여 作業중 數未詳의 적을 發見
소총사격등의 交戦으로 적을 격퇴 시켰음. (미군 2名 전사)

68.10.14 共匪死殺

○ 서부전선에서 무장공비 5명 사살

68.10.19. 共匪死殺

○ 중동부 전선에서 공비 5명사살

68.10.23 순찰중인 한국군 3명 살해후 도주

○ 경기도 양주군 28사단 DMZ에 28사단병력이 순찰도중 수미
상의 적으로 기습을 받고 交戦이 벌어지자 적은 北上도주
(同 작전에서 我軍 3名戰死)

68.10.30 (11.1. 11.2) 124軍部隊 出身共匪 120名 以上
三陟, 蔚珍地区에 浸透

○ 124軍部隊에서 유격대로 養成된 精銳分子 15名 1個組로
8개조가 10.30 11.1 11.2 연속 3회에 걸쳐 南派되어
거의 同一地点에 上陸, 上陸한 各組는 相異한 目的地로 浸透
하여 活動.

○ 이와같은 多數組의 連續的인 同一地点(姑浦) 上陸은 近来에 없
었음.

69.2.25 怪船舶 1隻이 92艦을 공격후 北上도주

○ 경기도 부천군 덕적도 근해에서 서해를 초계중이던 我側 607艦
이 덕적도 서북방 25Mile에서 부상중이던 怪船舶 1隻을 發見

고 추격, 92艦은 계속 추적하여 海上分界線 南方인 연평도 西北方 海上에서 怪船舶의 北上進路를 正面으로 차단하려 하자 先制공격을 가하므로 이에 応戰 交전하였으나 休戰線 근거리 關係로 怪船舶은 北上도주

- 이 作戰에서 我軍側은 전사 2명, 부상 8명, 92艦 안테나 線 일부 破壞.

69.3.15 中央分界線標示板 修理中인 美軍을 射擊

- 京畿道 파주군 지역내 美 2師團 4여단 兵力 19名이 中央分界線 標示板 수리작업을 通報하고 現場에 出勤하자 同地点으로부터 西方 200m지점에 위치한 北傀초소에서 수 미상의 自動火器 사격을 가해 와 作業중이던 美軍 1名이 전사, 3명이 부상.
- 한편 부상자를 후송하기 위해 現場에 출동한 헬리콥터 1대가 승무원 4명과 부상자 3명을 실은채 歸路에 氣流關係로 추락하여 搭乘員 全원이 死亡, 기체도 대파.

69.3.16 무장공비

- 江原 주문진에 무장공비 출현. 3.18 해상도주하던 공비, 9명 전원사살

69.4.15 비행중인 EC-121型 美정찰기 추락

- 미 해군소속 4발 EC-121型 정찰기 1台(기장: "제임스 H 오버스트리트" 少領)가 31名の 승무원을 태운채 東海 空海上에서 北傀戰鬪機의 기습공격을 받아 추락, 실종되었는데

승무원 全員이 死亡

(1969.4.16 북괴지역인 청진동 南方 160 km 공해상에서 同정찰
기의 殘해로 推測되는 派片을 발견하고, 1969.4.17 同機의
승무원 2명의 시체를 引揚

69.5.25 怪漢 출현

○ 서부전선지역間 북괴파한 침입 (3 名사살)

69.6.12 무장간첩선 출현

○ 서해 흑산도 앞바다에서 무장간첩선 나포

69.8.17 訓練비행중인 美軍헬機 被擊

○ 美軍 59 航空中隊 (議政府) 所屬 OH-23 型 289 号 “ 헬리콥터 ”
1 臺가 訓練비행중 북괴의 對空사격을 받고 북괴지역에 추락,
同헬리콥터 승무원 3 名 死亡
(1969.12.3 사망자 유해 送還)

69.9.17 怪船舶, 航海中인 民間船舶에 총격

○ 全南 완도군 신지도와 靑山島間 海上에서 완도경찰서 소속
경비정 603 호가 초계 순찰중 怪船舶과 接戰.

○ 同事件으로 603 경비정 1 隻 침몰 경찰관 2 名 사환 1 名
실종, 南陽号 선원 2 名 死亡, 2 名 負傷 2 名 실종

69.9.20 간첩선 出現

○ 群山앞 오지도에서 무장간첩선 1 隻 나포
(공비 4 名사살)

69.9.23 임자島近海, 怪船舶 出現.

○ 全南 신안군 임자島 15 마일, 흑산도 西方 20 마일 해상에
해군 93 함(부산함)은 怪船舶과 接戰, 4 時間의 추격 끝에
간첩선을 격침시키고, 同船에 搭乘한 15 명의 간첩전원을
섬멸

○ 同作戰에서 간첩의 포화로 我海軍兵士 6 명이 重輕傷.

※ 同간첩선 세원.

— 톤수: 50 톤

— 최고속력: 35 노트

— 장비: 82 mm 무반동포 1 문 14.5 mm 로켓트발사관 2 개
14.5 mm 고사기관포 1 문,
7.62 mm 기관총 1 문, 레이더.

69.10.13 小黒山島近海 怪船舶 出現 (我海軍艦정을 공격)

○ 全南 신안군 小黒山島北方해상에서 海軍 91 함이 怪船舶을 發
見, 추격하자 시속 32 노트로 도주하였으나 출격한 我側の 海
空軍의 合同作戰으로 怪船舶 침몰

69.12.11 KAL機 납북

○ KAL 소속 YS-11기 납북(1970年 2.14 51 명의 승무원
승객중 39 명이 관문점에서 歸還)

70.4.3 格烈비열도 근해에 怪船舶 出現

○ 西海를 초戒中이던 海軍 1003 艦은 怪船舶 1 隻이 格烈비열도

西南方으로 航海하는 것을 発見, 72.93艦과 協동하여 退路
를 차단하면서 추격하여 무장간첩선을 격침.

70.4.8 괴한출현

○ 서부전선을 침투하던 공비 3명 사살

70.6.5 北傀경비정, 我海軍함정 납북

○ 北傀漁船에 對한 心理戰 任務를 수행중이던 I-2정은 北傀
경비정 (DGN) 2隻으로 부터 공격을 받고 接戰하였으나 북
괴 경비정에 계류됨과 同時에 通信이 두절되면서 납북 (休戰
線 北方 2000 YD)

70.6.22 要人暗殺을 企圖하여 顯忠門에 時限폭탄 장치

○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 현충문에 종류미상의 폭발물을 장치하던
간첩 1명 폭사.

(간첩장비, 공작금품 다량노획)

70.6.29 北傀 怪船舶 경기도 부천군에 出現

○ 경기도 부천군 영흥면 北方 500 YD 海上에서 怪船舶 1隻이
별망리 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発見, 我軍의 海·空軍 合同作
戰으로 退路를 차단, 추격끝에 이를 拿捕.

○ 軍醫, 예비군이 合同 수색작업을 展開하여 영흥도 국사봉에서
간첩 6名을 交戰끝에 射殺

70.7.9 漁船 漁夫 납북

○ 백령도 부근 해상에서 漁船 5隻, 漁夫 29名 납북

70.7.27 北傀 무장간첩선 慶北 영덕군 近海에 浸透

- 慶北 영덕 東北方 11 Mile 東海海上에서 무장간첩선 1隻이 浸透中임을 陸軍해안경비소에서 發見, 即時 사격을 가하자 간첩선은 기관포로 난사하며 北上도주를 기도하였으나 海·空軍의 合同作戰으로 (50톤급 무장간첩선) 격침.

70.10.10 무장간첩선 격침

- 東海 거진 海上에서 重武装 간첩선 1隻 격침
(공비 10名 射殺)

70.10.12 板門店에서 亂動事件

- 板門店에서 北傀 警備兵과 勞務者들이 UN側 경비병에 集 暴行
(我側 8名 負傷)

70.12.5 파주군내 피한 3명 出現

- 京畿道 파주군 탄현면 97 戰團 3大隊 9中隊 前方지역에 怪漢 3명이 出現, 敵의 GP와 合勢하여 총격전을 展開, 同 事件에서 我軍, 1名 부상

70.12.5 총격사건

- 北傀軍, 임진강 南안에 기관총 난사로 300여명의 住民 대피 소동.

71.1.6 대한 항공소속 항공기납치 미수

- 東草彘 서울行 KAL 소속 F-27 쌍발기 납치미수
(범인 金相泰 機內에서 被殺)

71.3 해운대 浸透간첩 池大賢, 金京珍 事件

- 검거장소 : 부산 동래구 해운대
- 소속 : 북괴 노동당 연락부 소속
- 기본임무
부두 철도노동자 포섭

② 地下黨組織 및 대동일북

71.3.4 간첩 高榮浩 事件

- 검거장소 : 김포공항
- 소속 : 북괴노동당연락부
- 기본임무

① 軍事쿠데타로 現政權 전복

② 陸·海·空軍 및 예비군내 地下組織 構築

71.4.30 총격사건

- 西部戰線 海兵第 5 여단 전방지역에 北傀軍이 SMG 200여발을
남사. (아군도 LMG 600여발로 응사)

71.5.14 江原道 墨号近海 간첩선 浸透

○ 江原道 墨号 東方

1.7 마일 海上에서 我海軍 65함이 針路 0도, 속도 24 노트
로 北上中인 北傀 간첩선 1隻(17名승선)을 捕捉, 海·空軍
合同作戰 끝에 休戰線 北方 2 마일 海上에서 격침.

71.6.1 小黒山島近海 간첩선 出現

- 小黒山島 西南方 75 Mile 海上에서 我海軍이 간첩선 (70 톤급,
승선인원 15名)을 発見, 긴급 항공기 요청으로 出動한 我

空軍의 사격을 받고 沈沒.

- 同事件으로 我空軍 C-46機 1台와 장병 8名이 실종

71.6.16 공비 출현

- 경기도 連川郡 20사단지역에 공비 4명이 出現, 1名사살
3名 도주

71.8.16 공비 출현

- 12師團 지역내에 공비 5명 출현, 5名 전원 사살

71.9.17 간첩 출현

- 金浦郡 금단면 학운리에 간첩 4名 출현, 3名사살 1명도주

71.10.25 공비출현

- 한국군 「사단」 지역내에 무장공비 5명출현, 2명사살, 3명 도주.

71.11.15 간첩 朴昌述사건

- 1960.8 하순 1次로 화순을 거쳐 서울과 대구에 침투한 것을 비롯 71.10 하순까지 5차에 걸쳐 대구로 침투하여 경북 도당 및 월북연고자 포섭등 活動을 하다가 대구에서 被

- 1960~71年까지 간첩으로 침투 活動하면서 在南고정간첩 6명을 포섭 (72.1 전원체포)

72.1.12 DMZ 内에서의 도발사건

- 美第2師團 GP要員이 夜間勤務中 GP南方 15m지점에서 怪漢 6名이 들맹이 7~8개를 던지고 도주함을 觀測, M-16소총 10발을 발사하자 怪漢들은 北方으로 도주.

72.1.15 DMZ 内에 괴한출현사건

- ○師團地域 DMZ 中央 分界線 南方에서 UN軍 第○檢問所에 서 근무하던 士兵이 초소 서쪽 300m 들판에 黒衣를 差用한 怪漢 2名이 出現한 것을 發見하였으나 暫時後 도주

72.2.4 漁船남북

- 西海 격렬비열도 西南方 40마일해상에서 35,36 안영호가 조 업중 同日 12시 30분경 北傀 경비정 3隻中 2隻이 추격하 여 기관총 사격등 위협을 받고 남북.

72.6.23 DMZ 内 총격 사건

- ○師團 ○연대 GP에 北傀側이 54발의 기관총 사격을 가해 왔음.
- 이 사건으로 GP유엔기에 4발 관통 취사반에 4발 맞았음.

72.2.4 漁船남북

- 大靑島 西쪽 해상에서 北傀 함정이 我側어선 1隻을 격침시키 고 5隻을 남북.

72.12.19 간첩 崔三萬 事件.

- 남북歸還漁夫인 崔三萬은 체북중 세뇌教育을 받고 歸還한 후 北傀 指令에 의해 간첩활동을 하다가 12.19 피체
- 공작임무 및 指令
 - ① 월북했던 사실 수사기관에 申告하지 말것.
 - ② 북괴 우월성 선전.

- ③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면 部落民을 선동, 지서습격
(1960年 5月 拉北된者)

73.1.26 朝總聯 간첩 洪祐榮 事件

- 65.11. 밀항도일 하였다가 68.1 말 歸國한 者로 三滯日時 조총련계에 되어 간첩교육을 받고 歸國後 그들의 指令대로 암약
중 73.1.26 被捷
- 공작임무 및 指令
 - ① 지하세력을 조직하여 同調者 포섭
 - ② 군사정보 수집
 - ③ 전설상황 探知
 - ④ 각종 유언비어 날조 유포
 - ⑤ 결정적 시기에 직장조직을 동원, 선명파업토록 할 것.
 - ⑥ 불가피할 경우 사전연락하고 密港토록 할 것.

73.1.28 在南조총련 간첩 金炯植, 金春植 事件

- 검거장소: 경기도 가평군 양평면
- 군사기밀 사항을 서신으로 일본에 居住하는 金正植(조총련 간부)에 提報, 國內 침투한 조총련계 공작원을 接線하는등 간첩으로 암약하다가 검거된 者임.

73.3.4 제주도, 우도간첩단 사건

- 출현: 73.3.4 00:40분경
-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면 삼양동(우도)에 30세 가량의 간첩 2명이 출현, 1명 사살 1명 부상(동사건과 관련 그 배후

에서 암약해 온 간첩망 9명이 부산, 진해 제주 등지에서 검거)

73.3.6 日本우회간첩 沢本三次, 西部綾子사건

- 검거장소: 김포공항
- 活動內容: 공작금 30 만불을 합한 40 만불을 영일식품(강원도 春川市)에 투자하고 合法으로 토대를 구축 72.8~73.3간 정계 군부를 接觸 국가기밀 探知등 계속 암약하다가 73.3.6 국회의원 당선자 명단을 은닉, 소지하고 출국하려다 73.3.6 검거

74.4.17 무장공비 休戰線 침투사건

- 4.17 23:20 분경 연천군 중면 적동산리 제 28 사단 82 연대 2 대대 164 GP 東南方 약 700m 지점에 무장공비 3 명이 출현, 3 명중 2 명 사살, 1 명 도주
(노획품: 기관단총 3 정 등 24 점)

73.4.22 무장공비 休戰線 침투사건

- 한국군 제 25 사단 70 연대 철색선 북방 300 m 지점에 공비 2 명이 침투하였다가 북상도주

73.5.5 완도군 금당도 무장간첩 출현

- 北傀 무장간첩 2 명이 同日밤 1 時頃 전남 완도군 동쪽 33 km 떨어진 金塘島에 침투, 住民의 申告로 出動한 현지 경찰과 예비군에 依해 1 명은 사살, 1 명 도주
(노획품: 복피제 권총 1 정, 위조 外国人登錄証 실탄 24 발, 무전기, 라디오, 암호문건, 우아독소, 한화 5 만원)

73.11.19 복피포함 1 隻 월선

- 복피포함 1 隻 백령도 동쪽 아축 영해 침범
침범회수: 11.28:3 척 11.30:3 척 12.1:2 척 12.7~18:18 척

74.2.3 울릉도 거점 간첩단 사건

- 검거일자 : 2. 3
- 관련자 : 金容得外 11名
- 工作任務 및 指令
 - ① 勞働者, 農民을 포섭하여 決定的 時期에 봉기
 - ② 南派간첩, 업호, 거점구축, 지하당역 축적
 - ③ 社会混乱조성, 청년, 학생 포섭
 - ④ 북괴 우월성 선전, 革命事業 積極 협조
 - ⑤ 空軍基地 施設정보 수집 報告
 - ⑥ 장래성 역량 있는자 대동 월북
 - ⑦ 부산부두노조 철도 노조 침투 동조세력 규합

74.2.15 漁船 격침 및 납치 사건

- 74.2.15 10:00 백련도 서북방 30마일 공해상에서 수원 32, 33호 어선이 어로 작업중 北傀 경비정 1隻으로 부터 기습 포격을 받아 수원 32호는 침몰되어 선원은 생사 불명, 수원 33호는 被拉

74.2.15 在日거점 간첩 李佐永 간첩단 사건

- 검거장소 : 전주시 남노소동
- 관련자 : 李聖熙(全北大教授)外 8名
- 간첩 李聖熙外 8名은 北傀對南工作 在日 거점책 李佐榮을 中心으로 日本을 往來하면서 서울, 全北 지방을 무대로 암약 하던 者들임.

공작임무 및 指令

- ① 平和統一을 爲하여 동창 친지 계조직을 通해 포섭공작하라
- ② 학생 데모 유발, 결정적 時期 對備하라.

74.2.24 労働党 여간첩 蔡洙貞一党事件

- 검거장소: 대전시 선화동
- 관련자: 채수정外 15명
- 채수정은 断線網 연계 공작지령을 받고 암약하다가 검거된 자임.
- 공작임무 및 指令
 - ① 断線組織網, 검열지도 및 地下党 組織
 - ② 各種 情報蒐集
 - ③ 地下党 組織, 決定的 時期 봉기

74.3.24 盈徳해안 간첩 침투 사건

- 慶北 盈徳郡 盈徳面 대부동에 무장간첩 2명이 出現, 공작임무 차질로 침투지점으로 부터 즉시 北上 도주

74.4.2 파주군에 무장공비 출현

- 4.2 02:00 경기도 파주군 진동면 용강리에 피한 3名 出現

74.4.13 용류도에 무장간첩 침투

- 4.13 23:00 경기도 응진군 竜遊島에 무장피란 2명 출현

74.4.27 日本우회 간첩 崔哲教一党事件

- 검거장소: 서울도큐호텔
- 관련자: 崔哲教外 3名

<기본임무>

- ① 国内연고자 포섭
- ② 軍事, 政治 경제등 각종 정보 수집
- 68.11~72.8까지 5차례 걸쳐 入国하여 實際 崔明教, 崔台教

를 포섭하여 유사시 “미사일”기지폭파, 지하당 조직포섭등의 지령을 했음.

74.5.3 中部戰線 砲擊, 放火事件

- 中部 戰線에서 北傀가 발사한 포탄 2발중 1발은 불발, 1발은 폭파하여 DMZ內 매설된 상당수의 지뢰가 폭발, 이로 인해 대화재(大火災)가 發生

74.5.9 美 “헬리콥터” 격추사건

- 75.5.9 17:34분경 파주군 단현면 망우리(임진강 하류)에서 미군 헬리콥터 2대가 저공 정찰 비행중 敵 지역으로 부터 9발의 총격을 받아 소속대에 지원 요청하면서 귀대하고 이미 출동한 무장 헬리콥터 1대가 現地에 도착하자 北傀로 부터 26발의 재 사격을 받아 1발이 명중, 관산도 동방 3km지점에 불시착 했다가 다시 이륙하자 100여발의 적의 공격을 받고 아축 52포병 대대에 불시착

74.5.15 무장간첩 출현

- 5.15 경기도 용진군 龍遊島에 무장피한이 출현(출현수 미상)

74.5.20 추자도 무장간첩침투사건

- 5.20 21:40 제주도 북제주군 추자도면 대저리에 무장간첩 3名 출현 그중 1명 사살 2명 도주.(3名中 1명 6.25 당시 월북자)
- 同 사건으로 아축 4名 戰死

74.5.26 거제도 해안 간첩 침투사건

- 5.26 21:00경 경남 거제군 사등명 성포리에 무장 간첩 3명 출현 공작선을 이용 도주 (3명중 1명은 6.25 당시 월북자)

74.6.28 해경 863艦 被沈사건

- 6.28 08:50 동해 거진 동방 30마일 해상 (어르 한계선 남방 2마일에서 어선 보호임무를 띄고 초계중이던 我側 해양경찰대소속 863호가 북괴 함정 3척에 의해 被침

74.7.2 釜山 松島해안 무장 간첩침투사건

- 7.2 20:05경 부산 송도 해안 500m해상에서 북괴 간첩선 출현 아축해군함정 (AB-9정)에 의해 격침

74.7.18 KAL 보잉 707 여객기 포격사건

- 7.18 22:50경 경기 김포군 하성면 조강리 상공에서 아축의 KAL 여객기가 비행중 북괴 관산포에서, 남방 4km지점에 있는 고사포대에서 30여발의 포격을 가한 사건 발생

74.7.18 (7.18~28) 釜山지역을 거점으로 한 간첩 姜甲榮一党 사건

- 관련자 : 姜甲榮外 5名

<기본임무>

- ① 労働党 경남당 지도부건설 및 경남 부산 일원에 지하당 조직
- ② 국가 기밀 정보 수집
- ③ 유망한자 대동 월북

(姜甲榮은 73.4.27 원산에서 공작선으로 침투하여 A-3 방송등으로 대북 보고하면서 검거시까지 간첩 활동을 한 자임)

○ 姜甲榮外 5名은 姜甲榮에 포섭된 자들임.

○ 姜甲榮은 2차 임복한 자임.

74.7.19 어청도 무장간첩 침투사건

○ 群山앞바다 어청도 近海에 북괴 무장간첩선 출현, 我側 해군 함정의 추격으로 무장간첩선 격침 (공작원 7명 사살)

74.8.3 무장공비 침투

○ 8.3 23:45경 20사단 60연대 방책선 북방 400m 지점에 북괴군 5集團軍 경비병 여단 1개分隊로 추정되는 9명이 軍事 정찰 및 密路 개척을 위해 침투했다가 도주

74.8.15 8.15 大統領閣下 狙擊사건

○ 8.15 10:23 서울 장충동 소재 國立劇場에서 북괴의 指令을 받고 온 조총련계의 凶漢 文世光이 大統領을 암살기도

74.9.30 ~ 10.2 일본을 거점으로한 간첩 陳斗鉉一黨 事件

○ 관련자 : 陳斗鉉外 7名

○ 陳斗鉉은 63.8 이래 모국 방문을 위장 9회에 걸쳐 입국하여 朴基來, 金培烈을 포섭, 서울, 광주등지에 工作지점을 구축케 하 거고 勞働者 農民을 對象으로 한 地下黨을 조직 확장, 각종 국가기밀은 勿論 적화통일을 위한 先行사업으로 現政府를 전복코저 軍部에 浸透, 軍의 봉기를 획책하고 學生데모를 선동하여 온 在日 工作員임.

○ 관련자 7명은 陳斗鉉에 포섭된 자들임.

<공작임무 및 지령>

- ① 民團에 침투 정치적 기반 구축후 한국 국회 침투
- ② 동조세력포섭, 유사시 봉기
- ③ 한국 유학생 포섭 지하당 구축
- ④ 유능한자 포섭, 일본 경유 입북

74.11.15 DMZ内 南侵 터널 구축사건

- 11.15 아축 25사단 71연대 1대대 125 GP 북방 700m 지점에서 지하동굴 발견

75.2.5 학원 정계 침투 金達南一黨사건(日本 우회간첩)

- 검거장소: 서울 중구 인현동
- 관련자: 金達南外 3名

<임무 및 지령>

- ① 데모배후조종
 - ② 좌경인물 포섭 입북
 - ③ 데모로 사회 混亂 조성
 - ④ 학생 간부 포섭
 - ⑤ 학생 간부 및 記者 씨클 포섭
 - ⑥ 反政府 선동, 현 정부 타도
 - ⑦ 北傀 우월성 선전 뼈라 살포
- 김달남外 3명은 포섭된 자들임.

75.2.15 東海岸, 간첩선 격침

- 2.15 13:00

동해안 거진 동방 2.5 mile 해상 (한계선 남방 3 마일) 에 북
괴 무장간첩선 출현. 我 陸, 海, 空軍의 合同 作戰으로
16:25 한계선 南方 2.5 mile 해상에서 격침
(동작전에서 적 1명 生捕, 기관총등 다수 노획)

75.2.26 북괴 船團월선

- 2.26 17:30 분경 서해 소청도 서남방 27 마일 해상에서 我
해군 82함이 피선박 2척을 발견, 정선 명령을 하였으나 도
주하여 근처에 있던 8척의 다른 북괴선단과 合流, 我側함정
의 추적을 피하고자 혼란을 빚다가 그중 1隻이 我海軍 함정
과 충돌하여 침몰
다른 선박들은 北上 도주

75.2.26 (26~27) 북괴전투기 공중 침범

- 北傀 선단 10척의 월선 침범시 백령도 북방 아군 작전
해역 상공을 침범 하였다가 北上도주 (延 18台)

75.3.24 北傀 전투기 공중 침범

- 09:08~09:46 1회 1대, 11:11~14:29 19회 38대

출현

11:06 백령도 상공 2회 선회

11:28~11:46 2대, 백령도 南方 60 mile 해상까지 남하
하였다가 北上 도주

75.4.11 부산 출현 무장 간첩 박복순, 김득영 사건

- 4.11 23:00 양산 기장면 관개마을 해안으로 침투한 간첩

일당 2명이 부산 동래구 석대동 동사무소 뒷산 3km 지점
속칭 강당골 산중턱에 굴절한 비트에 은신중 인근주민의 신고
로 2명 모두 생포

75.5.1 북괴 잠수정서 해안에 출현

- o 5.1 18:20~20:20 충남 보령군 오천면 의면도 동방 5마일
해상에 출현했다가 다시 잠수하여 약 20분 정도 달리다가
20:00경 의연도 서남방 약 15마일 해상에 부상하여 방황하
다가 행방 불명.

75.5.3 박복순 일당 사건

- o 검거장소 : 서울 우이동 부산등지
- o 관련자 : 박복순외 5명 (임무)
 - ① 지하당 구축 지하당망 검열
 - ② 학원망 구축
 - ③ 노동자 포섭, 동조 세력 구축
 - ④ 동조자 포섭
 - ⑤ 북괴 간첩 활동 적극 협조
 - ⑥ 북괴 우월성 선전
 - ⑦ 정보 수집
 - ⑧ 포섭 공작

75.6.13 경북 울진해안에 간첩선 출현

- o 6.13 21:03 경북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 (흑초동) 앞 해상에
괴선박 출현

75.6.15 경북 포항 해안 간첩선 출현

- 6.15 16:46 포항 동북방 35마일 해상에 피선박 1척 출현

75.6.18 간첩선 출현

- 6.18 12:10 남제주군 안덕면 화순리 항만포 구내에 소형 피선박 침투, 형제도 방면으로 도주

75.6.19 한강 하류에 간첩 출현 사건

- 한강 및 임진강 하류에서 간첩이 수중 침투중 유실한 것으로 판단되는 공작 장비를 다수 습득함으로써 간첩의 수영에 의한 침투로 확인

75.6.21 북괴 전투기 공중침범사건

- 6.21 21:20 북괴 전투기 1대가 백령도 근해 상공까지 접근하였다가 순위도 방향으로 도주

75.6.28 전남 광주 무장공비 출현

- 6.28 8:20경 전남 광주시 서구 동운동 죽림 부락 뒷산에 간첩 2명 출현, 아군에 의해 2명 모두 사살

75.6.29 전남 승주군 별교, 무장 간첩 시체 발견

- 전남 승주군 별양면 구룡리앞 해안에서 무장 간첩의 익사체 1구 발견

75.11.22 (11.22 보도일자) 학원 침투 간첩단 사건

- 검거장소 : 서울, 부산
- 관련자 : 白光玉 (일본 오사카 청년회의소 홍보위원) 외 20명

<공작임무 및 지령>

- ① 청년학생 지식인 종교인 언론인등에 반정부 데모 선동
- ② 역량 있는 청년 학생 종교인을 민주화 투쟁 구호 아래 반정부 통일 전선운동에 끌어 들일것.
- ③ 4.19와 같은 혼란사태를 조성하다가 결정적 시기에 봉기, 복귀의 지원 요청
- ④ 학원내 통일혁명당 지도부를 구성, 지하망 조직
(관련자 21명중 14명은 간첩, 3명은 간첩 방조자, 4명은 반공법 위반자)

4. 北傀의 主要內部變革事件

가. 肅清關係

年 度	肅清當時職位	姓 名	理 由	派 閥
1945	共産党 平南道 党責	玄 俊 赫	被 殺	国 内
1946.2	天道教育友党 中央委員長	朴 允 吉		
1947	朝鮮民主党 委員長 以北 5道行政委員長	曹 晚 植	死 亡	
1948	北勞党 副委員長	朱 寧 河	党에서 追放	朴憲永 事件 關 聯
1949	北朝鮮民主党, 南朝鮮特 別委員長	韓 武		
1950.12	当 中央委員	金 三 龍	死 刑	
1951	祖国統一民主主義戰線 中央委員	姜 舜		
1951.1	戰線司令官	金 策	戰 死	
1951.1	北韓軍 2軍團長 平壤 防衛 司令官	武 亭	逃 亡	延 安
1952.	越北作曲家	金 順 南	反動芸術人罪	
1952.10	人民軍 航空後方司令官	金 彩 龍		
1953	党 連絡副部長	朴 勝 源	間諜, 쿠데타로 처형	南勞党
1953	党 連絡副部長	尹 淳 達		

年 度	肅清當時職位	姓 名	理 由	派 閔
1953	文化宣傳省 副相	趙一鳴	間諜, 쿠데타로 처형	南勞黨
1953	朝鮮文化協會 副委員長	林 和	"	"
1953	中央黨宣傳煽動副委員長	李源明	"	"
1953	南朝鮮 解放遊擊隊 10支隊長	孟鍾鎬	"	"
1953	北傀軍 最高司令部 總 政治局員	薛貞植	間諜, 쿠데타罪 로 처형	"
1953	貿易省 一般製品 輸入 商社長	李康國	"	"
1953	內務省 機關員	白亨福	"	"
1953	內閣人民檢閱委員會上級 檢閱員	趙容福	"	"
1953	內務相	朴一禹	反金罪	延 安
1953	黨中央宣傳煽動部副部長	李源朝	南勞黨關聯懲役10年	南勞黨
1953	駐中共 大使	權五穆	南勞黨 關聯	
1953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 副議長	崔璟德		國 內
1953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	劉英俊		南勞黨
1953	黨副委員長	許가而	南勞黨 非行默認 罪 自殺	蘇 聯

年 度	肅清當時職位	姓 名	理 由	派 閔
1953	內閣 副首相 黨副委員 長	朴 憲 永	死 刑	南勞黨
1953	國家檢閱相 黨秘書	李 承 燁	間 諜 , 쿠 데 타 로 처 형	'
1953	黨 連絡部長	裴 哲	間 諜 , 쿠 데 타 罪 로 처 형	'
1953	商業省 副相	金 点 權	南勞黨 關聯	
1953	朝鮮大學芸總同盟書記長	金 南 天	李 泰 俊 과 함께 反 動 作 家	
1954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	具 在 洙		
1954	朝鮮軍事休戰委, 朝中 代表	池 石 文		
1954	北韓軍後方總局長	張 時 雨	朴 憲 永 關聯 除 去	蘇 聯
1955	中央委 常任委員	姜 文 錫		
1955	化學 工業省副相	鄭 元 模	除 去	
1956.8	文化宣傳省副相	金 剛	朴 昌 玉 事 件 關聯	
1956	內閣副首相, 黨政治委員	崔 昌 益	處 刑	延 安
1956	'	朴 昌 王	行 方 不 明	蘇 聯
1956	商業相	尹 公 欽	중공도망 崔昌益 事 件 關 聯	延 安

年 度	肅清當時職位	姓 名	理 由	派 閔
1956	建設相	金承化	崔昌益事件과 關聯 蘇聯亡命	蘇 聯
1956	前 內務省副相	李弼圭	亡 命	延 安
1956	文化宣傳省 副相	奇石福		蘇 聯
1956	国立図書館長	李 早		延 安
1956	文化宣傳 副相	鄭 律		蘇 聯
1956	收買糧政相	吳琪燮	延安派 肅清과 關聯, 강능, 투옥	国 内
1956	駐 蘇聯大使	李相朝	崔昌益事件關聯	
1956	平壤建設旅團長	朴土賢		蘇 聯
1956	党中央候補委員, 民主朝 鮮社 主筆	李文一	亡 命	
1957	內閣 事務局長	楊 界	金日成 전북 음모罪	延 安
1957	民主朝鮮 主筆 党中央 委宣傳煽動部長	張河一	崔昌益 關聯	蘇 聯
1957	中央党 檢査委員	李舜根		国 内
1957	北傀軍 總參謀長	李權武		延 安
1957	民族保衛省 副相	金 雄		
1957	總政治局長	崔鍾学		蘇 聯

年 度	肅清當時職位	姓 名	理 由	派 別
1957	民族保衛省 副相, 陸大 總長	金乙奎		延 安
1957	石炭工業相	柳丑遲	崔昌益 동조罪	
1957	朝鮮赤十字會 副委員長	유기춘	崔昌益의 동조 罪로 비판	
1957	北傀軍 軍團長	張平山		延 安
1957	" "	方虎山	反党分子罪, 中 共逃亡,	"
1957	中央黨 檢査委員	黃世煥		
1958	對外文化 連絡協會委員	李東建	休 職	
1958. 3	黨 中央委員長	金科奉	辭任, 肅清	延 安
1958.	勞動相	金元鳳	辭任, 肅清	"
1958	石炭工業相	許成沢		南 勞
1958	水産省 副相	玄正民		国 内
1958	内閣副相 鐵道相	朴義琬		蘇 聯
1958	文化宣傳省 副省	安 漢	反党分子	延 安
1958	中央女盟副委員長	安信好		
1958	通信相	金昌治		
1958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	成周宴		

年 度	肅清當時職位	姓 名	理 由	派 閥
1958.12	朝鮮中央通信社 社長	徐泰植	休職 과천	
1958	江原道人民委員長	文泰和	休 職	
1958	聯總委員長	玄 勳		
1958	科学院 副教授	李如星	蘇聯 亡命	
1958	부수상	박 완		
1958	中央女盟 副委員長	丁七星		南 勞
1958	收買權政省副相	鄭然彪	金料奉과 함께 肅清	
1958	'	崔仁錫		
1958	無任所相	金達鉉 (天道教 徒)	조국전선음모 처형	
1958	中央党 學校長	許翼(益)		蘇 聯
1958	兩江道 黨委員長	趙 英	病 弱	延安(女)
1958	江原道 黨委員長	金원봉		国 内
1958	最高人民會議 法制委員	李維民	崔昌益事件 関 聯 罪	延 安
1958	消費組合 中央委員長	趙弘熙		国 内
1958	農業副相	趙 勳		
1958	'	崔鳳世		

年 度	肅清當時職位	姓 名	理 由	派 閔
1959.8	商業相	陣班秀	亡 命	
1959	農業相	韓典鍾		
1959	保健相	李炳南		南勞党
1959	内務省 副相	朴勳一	崔昌益事件關聯	
1959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 副委員長	玄七鍾		国 内
1959	聯總中央委員長	徐 輝	崔昌益事件 關聯	
'	플란드駐在 北傀大使	許 彬	亡 命	蘇 聯
'	中央党 宣傳部長	崔哲煥	休 職	延 安
'	映畫演劇大學講座長	李曙卿		
'	無任所 相	洪 斗		
'	祖統 中央委員	韓志成	反党分子	
'	人民經濟大學長	金沃周	肅 清	
'	金日成綜合大學總長	俞聖勳	亡 命	
'	黃濟道 人民委員長	金德永		
'	國家計劃委 副委員長	尹行中	反党分子罪	
'	對外文化連絡委 副委員 長	洪金哲		
'	勞動出版社 部長	金 錫		

年 度	肅 清 当 時 職 位	姓 名	理 由	派 閔
1959	新朝鮮社 副主筆	尹 登 雨	反国家行為罪	
1960	最高裁判所 所長	金 夏 雲	亡 命	
1960	清 祖 警備司令官	姜 太 武		
1961	政治保衛局長	金 春 三		
1961	貿易省 副相	黃 泰 成	間諜南派	
1961	赤十字協會中央委員長	金 応 基		
1962	文芸總委員長	韓 雪 野	出版成分關係呈 肅清	国 内
1962	輕工業委員長	文 萬 郁		
1962	在日朝鮮人迎接委員	金 榮 秀	休 職	
1962	農業相	林 海	亡 命	
1962.10	北僞軍航空司令官	王 靈		
1962	朝鮮民主青年同盟委員長	洪 尙 權	追 放	
1964	社会安全副相	千 基 雄		
1966.9	保健相	崔 昌 錫	追 放	
1966	党 副委員長	金 昌 滿	反党罪	延 安
1966.12	連絡部 副局長	河 仰 天		

年 度	肅清當時職位	姓 名	理 由	派 閔
1966	貿易相	李一卿	自 殺	国 内
"	檢察總長	李松雪	行放不明	"
1967	平北人民委員会 委員長	金白龍		
"	貿易省 副局長	朴 英		
"	文化相	朴雄傑	行放不明	
"	党政治委員・秘書局 秘書	朴金喆	軍派閔罪	金日成 直系
1967	科学院經濟研究委員長	金鳳漢	朴金喆事件關聯 罪	金日成 直 系
"	党政治委員 秘書局 秘書	李孝全	軍派閔罪	"
"	副首相	高 赫	行放不明	"
"	中央党 科学教育部長	許錫宜	"	"
"	党中央 秘書局秘書	金道滿	軍派閔罪	"
"	党政治委 候補委員	朴容国	" 追放	"
1968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	林春秋	" 追放	"
"	" 予算委員	李錫信		
"	祖統議長	鄭聖彦		
1969	中央通信社 社長	裴基俊	行放不明	"
	民族保衛相	金昌奉	軍派閔罪	"

年 度	肅 清 当 時 職 位	姓 名	理 由	派 閔
1969	北傀軍總參謀長	崔 光		直 系
"	北傀總政治局長	許鳳学	軍派閔罪	"
"	对南工作秘書			"
"	軍 局 長	金正泰		"
"	軍 上 將	金昌德		"
"	海軍司令官	유창건		"
"	集團軍 司令官	정병갑		"
"	北傀軍(司令官級)	崔민철		"
"	" (司令官級)	池炳学		"
"	" "	양병춘		"
1970	來 詳	金光翊	軍派閔罪	
"	副首相・民族保衛省副相	石 山	經濟国防併進策 反对罪	
"		朴正愛	修正主義經濟失敗	
"		吳基天		
"	最高人民會議 常任委 副委員長	李英鎬		
"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	李国鎮		
"	最高裁判所 所長	金翊善		
1970.11.9	檢察總長	尹泰洪	軍派閔罪	
1970.6	資材供給委員長	韓相斗	經濟国防 併進 反对罪	
1971	建材工業相	金炳植		

나. 反金日成 事件

1946.3.1 金日成 저격 사건

- 1946.3.1 평양역 광장 3.1 운동 기념식장에서 金日成에게 수류탄을 투척한 사건

1947.7.22 金日成 特別列車전복계획사건

- 西北青年會 滿浦秘密지부의 지부장 金啓元을 中心으로 한 13名이 金日成의 特別列車를 전복할 것을 모의 하였으나 사전에 발각되어 체포됨

1948 韓國統一奉仕團 사건

- 1948年頃 平壤牧丹峰 지하극장에서 金日成을 암살하려던 비밀團 團體의 事件

- 1949.3.22 北傀政治보위부에 의해 주모자 60여명이 체포됨.

1955. 金日成 內閣庁舍侵入망극 사건

- 反金人物들이 金日成 사무실로 侵入하기 위하여 庁舍 맨홀에서 망극을 파고 들어가려다 발각된 사건

1956 金日成 暗殺計劃事件

- 金日成의 暴政과 失政에 항거하여 反金人物들이 金日成을 제거 하려한 計劃
- 主動人物 ①쿠데타行動 總指揮官: 副首相 朴 玉 (소련계) 과 황해남도 당위원장 高奉基, 「人民軍」 第4集團 軍司令官 張平山大將이 맡고 ②行動隊 指揮: 黃海道社會安全局長 李奎南 과 副局長 全國租 (政治部長) 이 맡이 細部計劃을 作成

③呼応人物은 副首相 崔昌益, 社会安全相, 朴一禹, 保健省 副相 金雄大将, 공군사령관 王利 上将

○ 거사경위

① 거사단계

제1 단계는 1956.6.10에 黄海道 松林市 황해제철소 労働者 1천여명이 기아 해방 暴動을 일으키고, 제2 단계는 인근 하성 재령 운을 응진등의 鉸山에서도 呼応 시위, 제3 단계로 道.市.郡.社会 安全部員이 민중 烽起를 선동, 타도로 擴張

② 거사방식

상기 3 단계에서 金日成大学을 거점으로 學生들로 구성된 시위대가 反政府 口號를 외치면서 中央広場으로 들어오면 各級 學生들이 呼応, 만약 상기 거사자 未敗될 때에는 張平山 大将의 指揮아래 황해도에 주둔한 21 26 여단이 出動, 政權을 탈취하려한 것임

○ 매마침 金日成이 訪蘇한 후에 6月8日에 평양에 帰還하려할때 空軍司令官 王淵이 元山에서 고사포를 平壤으로 移動, 金日成의 비행기를 격추시키려 하다가 失敗

○ 本事件은 사전에 누설되고 金日成은 예정일을 앞당겨 6月6日 밤中에 비밀리에 돌아옴

○ 이로써 關聯者들 大量, 被逮 속칭

1959 金日成 초상화 피괴사건

- 김일성 위상화를 위한 초상화에 대해 주민들이 암암리에 얼굴을 파기 운동자에 바늘뽑기등을 한 사베가 있었음

1959 軍部 쿠데타 음모事件

- 海軍司令官 李乙奎, 공군부사령관 玉龍中將등이 軍部 쿠데타를 조직하려다 失敗

1965.12 金日成 저격 사건

- 1965.12 평양 보통강에서 北傀軍官 1人이 金日成의 통과를 기다려 저격하려다 失敗한 사건

1966 金日成 暗殺企圖事件

- 1966.1日頃 金日成이 괴한으로 부터 저격을 받았으나 살아 남고 수행원 1名이 即死한 事件

1967 金日成 暗殺企圖事件

- 6.25 당시 国軍에 협조한 사실이 발각되어 협동농장으로 追放된 보위성 소속 특수요원이 金日成관저의 下水口를 통해 侵入 金을 살해하려다 체포된 사건
- 甲山派 총수로서 金日成下에서 党中央委員長을 하던 朴金喆이 党中央委 副委員長 李孝淳과 合作하며 反金전복사건을 꾸미다 발각되어 失敗한 사건

1968 金昌奉 反金사건

- 民族保衛相이며, 金日成直系였던 金昌奉大將이 總參謀長 崔光大將과 對南總局長 許凡鶴大將과 합세하여 反金軍事 쿠데타를 組織하다가 발각 失敗

다. 反體制 事件

1945.8.22 新義州反共青年會 事件

- 反共青年 金聖淳, 趙동, 白猶哲 등은 反共青年團을 조직, 기관지 "우리청년"을 발간, 민주주의 사상 고취와 共産黨의 不法行爲를 규탄
- 本사건이후 反共비라 살포, 1명 被殺, 2名 不具 13名 시베리아 流刑 기타 100여명 被殺

1945. 定州青年 同盟과 朝鮮 民主黨 整備隊事件

- 1945.11.25 自衛限을 조직, 共産暴力과 맞섬, 주로 青年同盟이 活躍, 同團體는 朝民黨의 保護下에서 地下조직을 강화하다가 金日成의 強壓下에 解体 및 朝鮮民主青年 同盟으로 編入됨.

1945 曹晩植先生 反託運動事件

- 1945.8.17 平南建準委 構成 反託운동전개, 소련군의 박해 始作
- 1946.1.5 曹晩植 소련군정과의 회담결렬, 曹晩植先生은 고려 호텔에 감금
- 1945.11.18 平北 용암포에서 學生自衛隊 代表에 의해 <人民委員會 支持大會>가 공산당 규탄대회로 化함.
공산당이 關聯學生들을 처설하려 하자 신의주 학생들이 反蘇 反金日成 시위를 전개
- 피살학생 23名, 중경상자 700여명 투옥 2,000여명

1945.1.11 平康反託投爭委員會 사건

- 新年 記念式場에서 反託 쫓기대회 및 示威도발기 연차적으로 反

共反蘇로 擴大 의거인사 20여명 被逮

- 1949.1.18 황해도 反共 青年团体 靑史会和 信反金, 正義추격대가 합동으로 1) 해주 형무소파괴, 2) 공산당 황해도 당사를 放火하려는 사건
- 同사건은 사전에 비밀이 누설되어 金鎮永外 3名이 死刑, 李運준外 11명 투옥

1946.3.1 松木三一同志会 사건

- 金太陽外 31名의 동지가 反共团体를 조직
 - 1) 大韓民國에 忠誠할것
 - 2) 자유사상 고취
 - 3) 軍票 위조
 - 4) 군비밀 탐지

○ 1948.9.30 名건원 피살

1946.5 黃濯은 崔錫周와 함께 평양공설운동장에서 민회, 모의

- 1) 조민식을 救出
- 2) 暴動 및 월남

○ 1946.12.2 肅보안대원의 습격으로 被逮

1946.4.8 厚昌滅共구국회사건

- 馬化龍을 中心으로 淸宮구국회가 조직, 보안대를 습격한 모의 慈城陳坪의 보안대원 피살사건으로 1945.5.1월남

1946.3 國民會議 함경북도 지하조직사건

- 李斗杓가 中心이 되어 反共地下團인 「朱乙」악단을 조직, 反共 工作을 수행중 발각됨

30 여명이 투옥 1,000 여명은 시베리아로 流刑

1947 西北青年決死隊 사건

- 平南江西에서 朴英哲 康日善 등이 反共青年 地下 결사대를 조직
1947.8.15 기념식장에서 봉기할 것을 준비, 서울의 서북청년회와
連絡차 上京中 韓基河가 被逮, 朴英哲과 金昌臣을 除外한 全員이
被逮

1947.5, 5.23 정주五山學生사건

- 共産黨이 白燮明, 林相欽 兩教師를 과면한데 不滿, 同校 學生들
이 學院의 自由와 체포된 學生 석방 등 반공시위를 감행

1947.7 홍남 反共救國青年隊事件

- 金福源을 團長으로 反共同志들이 糾合, 主要都市에 地下工作隊를
배치, 南韓에 밀사를 과전, 人士의 接觸
- 1947.7 現在 地方別 團員數는 5,500 余名
- 1950.7.24 團長 金福源以下 重要幹部가 逮捕됨

1947.7.25 文川선거 방해사건의 5 건

- 1947.7.25 里人民委員會 선거時 (주장 : 趙錫浩) 등은 白函을
과과
- 학살 2명 투옥 17명
- 공산독재 정치 反對, 自由民主主義에 立脚한 統一念願

1947. 大韓義血團 사건

- 1947 安邊에서 反共투사들이 糾합, 大韓義血團을 조직, 6.25 당
시 瑞谷面 龍坪里와 上票里의 境界에서 敵 10 여명을 射殺

○ 12.20 安邊保安署를 奪還

1947.7.19 三水 7.19 事件과 覆蓋峰 이인수 사건

○ 7.19 천도교 三水郡이 核心이 되어 建國保成委員團을 結成,
南部의 자유민주주의 路線 支持, 反金日成運動을 전개, 反共統一
促進中 金大京의 밀고로 7.19 일 발각

1947.6 淸津長方 學生 事件

○ 1947.6 이인수가 淸津에 上陸, 이인수의 밀사 朴양옥의 被逮로
淸津의 學生반공조직이 누설, 學生 70 余名이 투옥됨,

1948.8 瑞川 白虎團 事件

○ 1948 年度 瑞川에서 李柱淡(行動隊長), 金一龜(선동대장)
外 反共靑年들이 白虛團을 組織 항의 하다가 失敗한 사건

1948 천도교 3.1 再顯運動 事件

○ 1948 頃 天徒教들이 中心이 되어 北韓 各處에서 3.1 運動을
再顯하는 시위를 計劃하고 自主統一政府 수립을 추진하였으나
共產政權의 탄압으로 失敗, 一部 북한 지역에서는 散發적으로 示
威를 감행, 50 余名이 犧牲된 事件

1948.10 熙川 反共團 사건

○ 1948.10 金亨一을 總責으로 한 20 名 정도의 反共秘密結사대가
조직(南韓으로부터는 무기를 비축, 지방청년에게 반공사상을 고
취하려함)
○ 1949.2.28 政治 保衛部의 기습으로 4 名을 除外한 모든 단
원이 체포됨

1948.2 朔州 天道教 사건

- 天道教 中央本部 崔麟의 지령에 따라 北韓軍政樹立反對投爭
거사계획
- 1948.2.27 朔州에서 張大吉 등이 체포됨
- 散発的인 시위로 中斷

1948 清津學生사건

- 1948年 청진 고급중학교 3학년학생 趙石根을 主謀로 日軍이
· 버리고간 무기를 確保하고 要人 暗移을 企圖
- 1948.10 發覺되어 全員被逮「시베리아」로 流刑

1948.8.25 清津城 清津地方民主黨사건

- 1948.8.25 清津西水羅 民主黨員 黃海龍을 中心으로 10名이
反蘇反共사건을 일으킴
- 城津市 民主黨조직부장 金善一은 反共모의 罪로 死刑
- 1946 西清밀사 朴鍾源이 咸北에 밀과되어 各學校에 反共조직을
종용 일남

1949.1.28 平壤本拠 金鍾夏事件

- 1949.1.28 平壤에서 金鍾夏를 中心으로한 北韓公文 原本搬出
및 北韓 전복공작을 推進中 公文원본 반출직전 북한 기관원에
의해 18명이 被逮

1949 ~ 1950 흥남排共 清算團 事件

- 咸鏡南北 全城과 江原道 一帶地域 및 함경북도 一部地域을
무대로한 反共鬪爭 事件

○ 무력으로 民主大韓 憲法下에서 国土를 統一하는 計劃을 進行 시킴

○ 1949-50 사이 排共青年團員 12,000 여명 犧生됨

1949 嚴雪黨 事件

○ 清津高級中學校 2年生들이 嚴雪黨을 組織, 車炳旭을 黨수로 金泰鎬를 副黨首로 하고 政治 保衛部要人 暗殺을 계획중 발각, 전원 被檢

1950.10.13 黃海道 反共義拳 事件

○ 1950.10.13 재령과 信川을 中心으로 반공봉기를 단행, 검찰청, 내무성, 정치보위부등 각종 기관점령, 무기 수송차를 급습

○ 戰利品: 자동차 18 대, 야포 1,217 대, 탱크포 37門, 소총 4,446 정등, 犧生者 524 명

1950.12 ~ 1953 九月山 유격대 사건

○ 1950.12-53 九月山 일대를 中心으로 自律적인 유격대가 결성, 北傀軍 20 여단을 섬멸, 2개사단의 兵力을 全제 (一名 連豐部隊)

1950.11 平山 反共決死隊 事件

○ 1950.11 申文을 中心으로 금강산 부대 (180 명)를 결성 치안확보 및 反共 유격전을 전개

○ 적 318 명, 살상 마발총 수십정, 수류탄 100여개 노획

○ 아군 11 명 (전사 24 명, 5 명중경상)

1953 反共무장 暴動 事件

- 6.25 이후 북한 전역에서 반공무장 暴動 事件이 발생
- 特히 黄海道에서 靑友党和 民主党이 조종한 反共青年들의 反徵 集身檢으로 발달된 反共대폭등 사건은 反共 青年 曹奎星外 200 여명은 중무장을 하고 九月山 및 信川 재령 安岳郡 일대를 거점으로한 유격활동을 展開

1956 삐라 살포 사건

- 평양모란봉주변과 개성市内 住宅街에 謄写物로된 삐라와 고무도장으로 찍은 삐라를 살포
- 삐라 内容은 ①김일성 독재정권 반대 ②공산당 행패 타도
- 同事件의 主動人物과 行動組織이 현재까지 미 확인

1957 權仲集 事件

- 黄海南道 白川郡 白川邑에서 北傀의 協同農場에 反對한 住民 權仲集外 30 여명이 社会 安全相 方学世의 지령에 따라 公開 처형된 사건

1959 개성무기 다량매몰사건

- 開城 선화리 反共青年 5 명이 한국군의 北進時 힘 입어 行動 하려고 長銃數정, 수류탄 1가마를 과수원에 埋没한것이 發覺, 被檢된 事件

1960.2.8, 9.13 부대 서해 支隊長 임금동 失蹤사건

- 当時 人民軍 경찰국 경찰과장인 「임금동」이 신의주 학생사건

의 주모자 혐의로 思想檢討를 받던중 도주하여 사회안전성과 민족보위성의 공동 명의로 지령문을 下達, 수색 작업을 꺾으나 잡지 못하고 76日후에 大同江에서 自殺시체로 發見됨

1962 韓雪野 反金 事件

- 김일성의 어용작가로 출세한 韓雪野가 金日成의 偶像화에 협조 중이 생겨 反金日成事件을 計劃하다가 發覺, 失敗

1962.7 낙연鉞山爆破 事件

- 所謂 地主, 資本家, 宗教人, 越南者家族, 北送僑胞 등 出身性分 不良者 800 余名이 酷使當하고 있던 黃海道 장연군 낙연鉞山에서 坑口 2 個를 爆破하여 指導員 作業組長등 30 余名이 死亡하였음.
- 黃海道 社會安全局에서 主謀者를 찾기 위해서 全勞務者들에 모진 "고문"으로 "박근태"의 15 名이 集團脫出, 송화, 응진, 장연, 신천군등지에서 安全部 습격, 郡黨委員長, 軍民위원장 및 數 많은 安全員 殺害事件 등 遊擊活動을 展開하다 逮捕되어 処刑 되었음.

1963-65 救国同志会 事件

- 江原道 副川郡一帶에 居住하는 19 歲 - 34 歲까지의 宗教人家族 및 子弟 21 名이 救国同志会라는 反共團體를 만들어 每月一回의 會合을 가지고 南韓과의 接線을 試圖하다가 密告로 処罰 되었음

1963.7 "유엔" 復光團事件

- 黃海道 農林局長이었던 "윤경섭"이라는 者가 中央黨集中指導에 걸려 海州水産事業所 無煙炭 "달구지" 를 끄는 勞働者로 전략 하자 金日成集團에 不滿을 품은 勞働者 52名을 包摂하여 "유엔復光團"이라는 地下團體를 組織하여 南韓放送을 聽取하고 罷業煽動등을 하다가 63.7 黃海道 社會安局 放火事件搜色途中 摘 發되어 "윤경섭"의 10余名の 靑年들이 處刑되었음.

1964 世界平和會 事件

- 江原道 文川郡 자운鉞山一帶에 居住하는 金日成一黨에 怨心을 품은 住民 30余名이 糾合하여 地下反共團體인 "世界平和會" 를 組織하고 武力反抗運動을 展開하려다가 計劃自體의 無理로 成功하지 못하고 文川郡 社會安全部 및 反偵探部의 1年間に 걸친 搜查로 34名 全員이 逮捕되어 處刑되었음

1967 滅共團事件

- 남포港 대의부두 職場勞働者 約5~6名이 滅共團이라는 秘密團 體를 組織하여 남포水産事業所 所屬 武裝魚船을 奪取하여 越南 할것을 企圖하였다가 組織員의 背信으로 全員이 逮捕處刑되었음

1967 無記名投書 事件

- 1967年初에 北傀 勞働黨 中央委員會에 金日成一黨의 獨裁政治 를 露骨的으로 非難하고 人民生活의 參相을 赤裸시하게 批判하 면서 北韓爲政者의 反省을 促求하는 多量의 投書가 接愛되어

社会安全省에서 犯人索出에 나섰으나 結局 미궁에 빠지고 말았
음

1968.12 회창鉸山労働者示威 事件

- 회창鉸山에서 作業하던 勤勞者들(人民軍에서 服務하다 除隊後
取役한 者)이 鉸山当局의 나쁜待偶와 過度한 作業量에 不滿을
품고 他職場으로의 轉職을 要求하며 集團示威를 버리다 數十名
의 労働者가 殺害되었음

1970.6 남포 유리工場 労働者 越南未遂 事件

- 남포 유리工場에 勤務하던 2名의 労働者가 北傀의 独裁政治와
極甚한 勞力搾取에 不滿을 품고 남포 高等水産學校의 小型船舶
을 奪取하여 南下하려다가 失敗하여 市民公開裡에 銃殺되었음



附 錄

金日成에 關한 周邇人物들의 言動錄



金日成에 關한 周邊人物들의 言動錄

1945.8.27 李宗鉉(平南人民政治委員會 委員), 平壤(8.15前

「다마야」料理店에서 平南人民政治委 創立披露宴),

金日成

○ 「우리는 벌써 10余年前에 金日成將軍이 世上을 떠났다는 말을 듣고 몇몇 同志끼리 몰래 모여서 追 祭祀까지 지냈는데 이제 살아 돌아온 金將軍을 눈앞에 보게 되니 그때 올렸던 祭酒는 이 자리에서 도루 찾아야겠습니다」 (韓載德著「金日成을 告發한다」p.58)

1945.10.14 金日成, 平壤「金日成將軍 歡迎大會」, 北韓住民

○ 「民主主義 國家의 建設을 위하여 勞力있는 사람은 勞力으로, 知識있는 사람은 知識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힘을 합하여 解放된 祖國再建에 總進軍하자!」

(金日成의 公開的인 第1聲, 同上書 p.67)

1945.11.25 金日成, 新義州東中學校(新義州反共義學 뒷 수습),

學生代表

○ 「新義州事件은 가슴 아프고 유감된 일입니다. 이것은 蘇聯軍의 解放者的 援助者的 役割에 대한 誤解와 또 共産黨의 使命과 政策에 대한 認識錯誤에서 온것이 分明합니다. 그러나 學生들은 利用을 당한데 不過한 것이고, 事實은 親日派, 民族反逆者, 反動分子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책동의 결과임은 틀림은 없습니다」

(同上書 p.207)

「나에 대하여 말한다면 共產主義者라기 보다 民族主義者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며 自身도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當時 新義州 東中教員이었던 金鳳九의 証書)

1945.9 初 玄俊赫 (1945.9.28 金日成派에 의해 暗殺됨 前 平南 人民政治委副委員長), 平壤

平南人民政治 委員會 共產側 委員들

○ 「民族의 傳統과 文化를 살려가면서 民族主義者들과의 聯合戰線을 形成하고 資本階級性 民主主義 革命을 수행해야만 한다」

(内外問題研究 北傀의 派閥鬪爭史 p.9)

1946.9 初 吳琪燮 (前 朝鮮共產黨 北朝鮮分局 第2 秘書

48.3 肅清後 復權되었다가 56.10 完全肅清),

「로동신문」紙上, 金日成派

○ 「職業同盟은 勞動者의 唯一組織體이기 때문에 끝까지 勞動者의 利益을 代辯하는 機關이어야만 한다. 지금 北朝鮮에서는 經濟, 産業機關들이 國有化되었지만 그 機關에서 일하는 勞動者들의 利益은 역시 職業同盟에 의하여 保護되어야 한다.

國有化된 經濟産業機關이라는 觀念에 사로잡혀 勞動者들의 利益을 無視하거나 侵害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런일이 있다면 職業同盟을 그와같은 職場과 鬪爭하여서 勞動者의 權益을 옹호하여야 한다」 (同上書 p.52 ~ 53)

1948.5 金昌滿, 內閣事務局, 楊界 (當時內閣事務局長)

○ 「最高人民會議 代議員 選擧를 위한 金日成의 立候補者 略歷
紹介文은 내가 몸소 썼네. 이것은 日成의 歷史를 그자의 비위에
맞도록 내가 偽造한것일세 나도 미친 자식이 지 日成을 것처럼 偶
像하기에 애쓸 必要가 어디에 있었담. 글세 그 자식이 일찍이 少
年時節부터 20 余年을 오직 祖國의 獨立과 民族의 解放을 위하여
流血的인 鬪爭을 계속하여온 偉大한 指導者라고 했으니 그 자식이
解放되는해 불과 34 세인데 그러면 13, 세때부터 革命鬪爭을 했다는
말이 아닌가 」

(當時 蘇聯留學生이었던 現金日成大學總長 黃壯燁의 証言)

1950.9 武亭(前 北傀軍 2軍團長 1950.12. 숙청), 平壤,
일부 延安派

○ 「비겁한 金日成놈이 내게 平壤防衛司令官이라는 감투를 씌워놓고 자기는 鴨綠江까지 도망가서 부화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이래라저래라 命숨을 하고 있으니 可笑로운 일이다.....」

(50.12.4. 別千里 會議에서의 批判)

1945.11 武亭(前 北傀軍 2軍團長 1950.12. 숙청), 自宅,
金昌順

○ 「日成이 새끼가 나를 꼭 없애야 하기는 할터인데..... 그러나 이 武亭이 아무리 못났기로 日成이 같은 어린애 앞에서 굴복할수는 없지 않는가. 나는 職業的 革命家로서의 革命歷史에 있어서나 또는 個人 武亭을 놓고 볼때 나야말로 百戰連勝의 自地가 共認하는 勇將이거든..... 내가 日成이 새끼만 못하다는 것은 語不成說이야 日成새끼는 자기의 歷史를 거짓으로 꾸며서까지 내세우면서 武亭이 내 歷史는 어째서 있는 그대로나마 내세우지 못하게 하는거야, 이런 빌어먹을 새끼가 어디 있겠오」

(金昌順著 「歷史의 証言」 p.155)

1950.11 金烈(前. 黃海道黨 委員長 56.5 숙청), 北傀軍 後方
總局, 部下들

○ 「最高司令官이 도망 치는데 後方總局長이 敵後에 남아서 누구에게

供給事業을 하란 말인가.....

무식쟁이들(註 金日成派指称) 罪를 뒤집어 씌우는 데도 그럴듯하게 해야지 무턱대고 責任을 전가시킨다고 누가 굴복할줄알고...」
(50.12. 党會議에서 비판된 内容)

1951.3 許가이(前 北傀勞動党 副委員長 51.11 숙청 53.3 自殺)
中央党會 蘇聯派

○「北勞党 出身보다 南勞党 出身이 훨씬 党性이 強하다. 危急에 對해서 北勞黨員 10名이 南勞黨員 1名을 당해낼 수 없을 것이다」
「北半部에서 平安 無事히 黨員이 된 者들보다 南半部에서 단 하루라도 苦痛스러운 地下鬪爭을 겪어본 者가 黨員資格이 있을 것이다」(以上 金昌順著 「北韓 15年史」 p.133)

1951.11~1953.3 許가이(前 北傀勞動党 副委員長 51.11 숙청 53.3 自殺), 自宅, 金承化, 奇石福 등 蘇聯派
○「金日成이 党組織事業이라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쟁이 주제에 괜히 사람잡을라고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朴憲永, 李承燁이 같은 똑똑한 동무들도 金日成의 사람잡이 手法에 말여들면 별수 없어.....」 「우리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들에게 봉변을 당할 것이고, 나도 벌써 된서리를 맞고 있어.....」
(許가이 罪相을 폭로한 朴昌玉의 發言)

1951~52 方虎山(北傀軍 6軍團長 「二重英雄」 53年 숙청)
北傀軍 6軍團 部下將校

「抗日 빨찌산 鬪爭 經驗이 있다는 軍事指揮官들이 왜 그 모양
인지 모르겠단 말이야.....」

正規戰과 遊擊戰도 區別하지 못한 주제에 누구를 믿고 허풍담 떠
는지 도모지 알수 없단 말이야.....」

最高司令官同志는 八路軍 出身을 따돌리고 있으니 寒心한 일이야.....
(南勞黨 肅清時 方을 關聯시켜 批判한 內容)

1952.5 林 和 (南勞黨系 詩人 53.8. 処刑됨) 作家同盟 事務室
南韓出身 作家들

「.....北朝鮮 애새끼들 (註 作家指稱)- 일간이 하나 (註 金日成
指稱) 믿고 까부려대는 꼴이란 두눈 뜨고 보지 못하겠어.....
이놈의 世上 과 뒤집어 놓고 金人百동무의 (金日成人間白丁의 略
稱) 돌골이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봤으면 余恨이 없겠어.....
우리 南半部出身도 어깨를 쳐고 다니는 날이 있을게야.....
그때 멋지게 한번 본때를 보여 주어야 한다 말이야.....」
(숙청될 당시 폭로된 內容)

1953.7 朴憲永 敎化所 看守들에

「金日成이 나를 죽이려 하지만 그의 南侵罪相과 南侵前에 極秘
로 謀議한 事實을 꼭 폭로하고야 말겠다. 南勞黨 幹部들에 대한
天人共怒할 虛偽罪狀은 造作된 것이고 歷史는 반드시 이것을 밝혀
고야 말 것이다」

(内外問題研究所 「北傀派鬪爭史」 p.33)

「나는 죽지만 金日成 배늬도 반드시 人民의 손에 처단될 것이
다」 (死刑執行直前 發言)

1954.6 金烈, 黃海道黨 委員長室, 部下

○「누가 계집 싫어하는 놈있어? 金동무(註 金日成)는 나보다 수십배 많은 계집들을 건드리면서 내가 좀 재미를 보기로서니 그것이 문제될게 뭐야……………」

(金烈이 부화방탕하다고 숙청할때 비판된 內容)

1955.4 金科奉(北傀 「最高人民會議」常任委 委員長 68.1 숙청)
自宅, 延安派 幹部

○「요즘 金日成이 하는 짓이 미친놈같애………… 階級敎養이다 무어라 하면서 생사람 마구 잡으려 하고 있는데 注意해야 해………… 蘇聯에서 온 친구들(註 朴昌玉, 朴의완등 指稱) 秋風落葉의 身勢가 되겠더군……………」

日成이 手法은 항상 교활하니까 그 余波가 우리에게 미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해………… 그자가 또 우리에게 무슨 트집을 걸어 올지 모르니 몸조심 말조심……………」

(58.1 次黨代表者會議에서 批判된 內容)

1955.11 崔昌益, 平北定川部, 郡人民委員

○「首相동무는 不可能한 것을 알면서 내게 收買糧穀 責任을 맡기는 것은 사람을 잡기 위한 것이 아닌가……………」

現地에 나와보니 알곡 한토레 꼬려 모을것이 없이 다 收買해가도 計劃量이 훨씬 未達될 형편인데 農民들은 무엇을 먹고 살란 말인가? 이것이 人民을 위한 政治이나?……………」

(56年 8月 全員會議에서 崔에 대한 批判內容)

56.3 宋君昌(前金日成大学 맑스·레닌主義講座長 56.10 숙청)

金大教授室, 同僚教授

○ 「……스탈린의 個人崇拜를 비판하는 것은 共產主義理論에 부합되는 前進運動이다. 群衆의 역할을 무시하는 共產主義는 있을 수 없다. ……」

우리나라에서도 옹당히 個人崇拜 風潮를 뿌리 뽑아야 한다. 都大體 한個人만이 社会發展의 原動的인 것처럼 선전하는 것은 言語道斷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에 眞正한 맑스·레닌主義가 實踐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教室마다 걸여있는 肖像面부터 떼어버리고 꼭 肖像面를 걸 必要가 있다면 맑스나 레닌의 것을 걸어야 하지 않겠는가…… 제가(金日成指稱) 무엇 잘났기에 中学3年中退 理論水準으로 마치 위대한 共產主義, 理論家처럼 뽐낼 必要가 어디에 있겠는가? 맑스·레닌主義의 創造的 適用이라는 美名下에 제멋대로 歪曲 修正하는 것은 容納될 수 없다. ……」

(숙청시 金日成大学 党會議에서 폭로된)

56.8.29 尹公欽, 中央党會議室, 8月全員會議參席者

○ 「蘇聯共産党 20次大会에서는 個人崇拜思想의 後禍에 대한 批判과 이에 따른 人民生活의 向上에 대한 再檢討가 긴급한 命題로 제기되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重大한 問題이며 全世界共産主義國家에서도 이에 대한 批判熱이 高潮에 達하고 있는 이때, 우리만이 지금까지 잠잠하게 있는 現象들은 政治的으로 너무 無關心하고 独裁主義의 余波가 너무나 至大하므로 一般人民들이 全部 말문을 닫

고 있기 때문입니다. 現實問題를 嚴格히 分析 批判해 봅시다. 우리나라에서는 個人崇拜思想이 濃厚하며, 그의 後禍가 너무나 큰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結果 一般人民들은 中世記의 奴隸처럼 不平만 품은채 감히 批判을 加하려 하지 않고 盲目的인 追從만을 일삼고 있습니다. 특히 無原則한 重工業의 優先政策으로 말미암아 輕工業과 農村經理는 余地없이 落後되어 人民生活은 極度の 貧困에서 呻吟하고 있는 現實情에서 우리 黨은 個人崇拜思想을 철저히 규탄 撲로하고 그 後禍를 短時日內에 払拭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回復하지 못할 큰 禍根을 초래케 될 것입니다.]

(内外問題研究所「北傀의 派閥鬭爭史」 pp.91-92)

56.9 金元鳳 (前 北傀 勞動相「人民共和國」委員長 58.11 숙청), 「勞動省」, 「人民共和國」幹部

○「………… 그자들은 (註 金日成派 指稱) 獨立運動을 혼자 한것처럼 떠 버리면서 같은 共產主義者인 崔昌益, 金杻奉 등의 “獨立同盟”도 인정하지 않는 판국에 우리들이 中國에서 “義烈團”을 結成해서 活動한 것을 인정할리가 없다………… 인정은 안한다 하더라도 마치 國際間諜活動이나 한것처럼 이상한 눈초리를 보기 시작하고 있으니 특별히 注意해야 한다.」

(趙素昂, 嚴恆燮등을 숙청할때 金元鳳派의 關係를 주장한 資料로 引用됨.)

56.11 許 甲 (前 北傀 中央黨學校 「黨鬭爭史講座長」 56.11.自殺) 自宅 遺書

○「………… 黨에 忠實하려고 나는 있는 힘을 다하여 노력하여 왔다 …………… 그러나 歷史學徒로서의 나는 朝鮮近世 및 最近世史 部分에서

어느 한 個人과 派閥을 위해 大幅 修正되어 가는것을 苦痛스럽게
 여겨왔다. 특히 1925年の 共産黨을 黙殺하고 “獨立同盟”에 의
 한 抗日鬪爭마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黨鬪爭史를 個人的 誇張
 된 活動史로 轉落시키고 말아 더욱 슬펐다. 獨立運動은 한 두
 사람이 할 수도 없거니와 3.1運動에서 보여준 바와같이 汎民族
 的 運動으로 展開되어야 하고 우리나라의 歷史도 바로 그러하였다.
 그러나 黨은 (註 金日成 指稱)이 当然한 史實을 다르게 分析하
 지 않는다고 하여 나에게 責任을 추증하였다.

나는 黨이 내게 왜 압박을 加하는가를 잘 알고 있다. 나는
 派閥鬪爭의 犠牲物(註 延安派 속칭)이 된 것이다.....」

57.11 安 漢(前 北傀文化宣傳省副相 崔承喜의 男便 58. 國際間諜
 으로 몰려 속칭), 自宅, 徐萬一等 以南出身作家

○「..... 文化宣傳省副相 자리는 地獄行列車를 타는 자리인지 괜히
 트집을 잡을라는자가 많아..... (註 南勞黨系 속칭시 趙一鳴이 副相
 이었다) 아내가 外國公演갔다 돌아올때 선물을 사가져와도 가지고
 다니지도 못할 형편이니 副相이니 무어니하는 감투가 무슨 소용이
 있어..... 그자들은(金日成派 指稱)왜 시기심이 그렇게 많고 4촌
 이 눈을사도 배아파한다는 웅졸한 인간인지 모를 일이야..... 우물
 안 개구리처럼 外部世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사람만 잡
 을라고 하니 한심한 일이야.....」 (속칭될때 비판된 罪相의 일부)

1956-58 黃壯燁(前 金日成大學講座長 現 最高人民會議議員長兼
 金日成大學總長 ※金日成의 姻戚) 金大講座室 同僚
 教授

○「..... 正一란 놈이 맹랑하단 말이야..... 反抗期에 있는 年令타
 도 있지만 집에서 어머니라는 말을 한번도 使用하는 일이 없고

事事件件 어머니에게 反抗적으로 나오니 首相同志도 여간 걱정하지 않는 모양이야, 하루는 正一에게 「너는 왜 어머니에게 대드니 어디서 배운 버릇이기에 어머니라고 한번 부르지도 않니?」하고 首相同志가 꾸짖더니, 「아버지! 내게는 어머니가 하나 있지 둘이 있을수 없어요」하고 正一이가 대들더라고 말하지 않겠니……

그런데 正一이란놈 맹랑한데가 있단 말이야 어머니한테는 反抗하면서도 동생들(異腹同生)에게는 그렇게 잘할수가 없어 首相同志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게 真理야……” 하면서 기뻐하시던준…… 이제 나이가 16, 7세되니 正一이란놈의 個性이 점차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데 大胆하고 過激하리만치 情熱적이고 原則성이 強해(註 無慈悲하다는 뜻) 學級에서 단언 노릇을 한다는데 正一에게 한번 밋게 보였다하면 얻어맞고 봉대를 감아야 한다고하니 首相同志도 그같은 性格을 좋아하면서도 은근히 걱정되시는 모양이야 하루는 내게 「性格을 고치는 가장 效果的인 方法이 무엇이나」고 質問하신적도 있어……

그애 개를 여간 좋아하지 않는데 그러나 한번 슷틀리면 몽둥이를 휘둘러 뿌지려놓고 마니 그 어머니가 怯을 집어먹고 감히 나무라지도 못하고, 조금 꾸지람을 하면 제방에 들어가 닥치는대로 두들겨 뿌수는 바람에 두손 바작 든다지 않아…… 공부는 통하지 않고 個別指導敎員의 애들 먹이는데 그래도 成績은 좋은 편이어서 머리가 좋은 모양이야. 學科目別로 보면 物理, 化學, 生物등 自然科學 系統에 興味를 가지고 있는 希望은 一流航空操從士가 된다는 거야……」(崔光石의 証言)

58.3 許貞淑(前 北傀文化 宣傳相 現最高人民會議常設會議副議長 故許憲의 딸 崔昌益의 前妻), 自宅, 女盟幹部들

○ 「…… 그 새끼들(註:延安派) 청소한 것은 속이 후련한 일인데 “回想記”에 나오는 人物들중에는 엉뚱한 생각을 가진자가 없는지 두고 봐야 할거야…… 사람의 허물을 찾자면 한정이 없는 것이어서 누구나 달고 치면 먼지가 나기 마련인데 구태여 8月 宗派다 무어다 하는 이름을 붙여 골로 보낼거야 없다고 생각해…… 南半部出身이다. 北半部出身이다 하면서 地域的으로 色眼鏡을 끼고 서로 대하는 버릇을 고쳐야 하는데 빨치산 出身들은 마음이 넓지가 못해 탈이란 말이야……」

(이 發言으로 相에서 区域圖書館長으로 降等

59.10 俞成勳(前 金日成大學總長 61 숙청) 金日成大學總長室
일부學部長

「…… 일부 黨指導幹部들은(金日成派 指稱) 學者들을 輕視하는 傾向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어…… 市, 郡黨 委員長을 養成하는 데는 3個月만 政治教育만 시키면 똑똑한 사람은 可能한데, 大學教授 한사람 養成하자면 적어도 30年은 걸려야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함부로 다루고 있으니 寒心한 일이 아닐수 없다…… 우리 大學을 卒業하자마자 中央黨指導員 즉 市, 郡黨委員長級이 1年에도 수십명씩 輩出하는데 그들을 가르친 스승은 市, 郡黨의 幹部도 아닌 指導員에게 밤낮 불러다니면서 심부름이나 해야하니 이게 될 말이요…… 社會가 發展할수록 高度의 科學知識을 所有한 專門家와 高級技術者가 大量으로 요구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조금만 頭角을 나타내려는 專門家は 剪枝가위로 잘리듯이 學問研究의 길에서 잘나내고마니 앞날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야……」 (숙청시에 비판된 內容의 일부)

1961.3 崔承喜 (前 人民俳優 1962. 숙청) 自宅, 舞踊家들

○ 「……軍服차림으로만 舞踊을 하라고 하니 몸이 제대로 움직이어야 말이지 (註: 抗日武裝鬪爭만 素材로 하라는데 대한 不滿) 원래 춤이란 치마를 입고 다리를 살짝 들면서 눈길을 깊은 곳으로 모우기도해야 신이나고 律動의 美도 살릴수 있는데 이거야 밤낮 洋服바지나 입고 뭐라고 하니 人體의 曲線美까지 살릴수 없으니 舞踊이 될게 무어야…… 首相同志도 내 曲線美에 대해서는 무척 호뭇해 했는데 이제 늙었고 거기에 軍服차림으로서야 어디 그이의 關心을 끌 수 있어야지……」 (숙청될 때 비관된 內容의 일부)

1961.4 韓雪野, 「文芸總」事務室, 일부作家

○ 「黨宣傳煽動部에서는 抗日遊擊鬪爭에 關한 素材만 가지고 小說도 쓰고 藝術作品을 내놓아라고 성화인데, 무슨 근덕찌가 있어야 作品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밤낮 革命傳統이다 무어다고 하면 文學作品이 되는줄 아는데 都大體 文學, 藝術의 초보적인 常識도 없는 자들이 위에 앉아서 호령만 하고 있으니 寒心하다……」 (韓 숙청시 비관된 內容)

1962.1 金宇培 (詩人 「作家同盟」詩分科別副委員長 63.12 鐵道自殺), 「文芸總」, 詩人同僚

○ 「……都大體 黨이 作家藝術人들에 해준게 뭐야……기껏해야 個人崇拜의 造作劇이나 꾸미게 하고 詩아닌 口號나 외치게 한것이 고작이 아닌가? 순수한 文學과 藝術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寫實主義 原則이라도 제대로 준수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革命傳統이니 무이니 떠들고 있지만 이것은 진정한 文學, 藝術에 대한 抹殺政策이다」

(63. 초 韓雪野 등 作家, 藝術人 대항 숙청시에 비판된 內容)

1962.12 金 一 內閣庁舎 部下職員

○「首相同志가 腎臟手術을 하셨다는데 우리들에게도 알려지 않고 英柱동무만 立會시켜 어려운 수술을 하였다고 하니 참 씁쓸한 일 이로군…… 首相同志는 우리들이 정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겠지만 이거야 너무 하시지 않느냐……」(當時 參席者의 証言)

1965.10 李孝淳(前 北傀政治委員 對南工作總責 1967.4 숙청)

中央黨, 連絡部要員

○「……首相同志는 對南事業이 왜 활발하지 못하느냐고 책망하지만 보내는 쪽쪽 철폐되거나 變節하고 마는데 해덕을 재간이 있어야지……너무 알보고 엄버들라고 하나 옛날 抗日鬪爭時期처럼 호락호락 거물에 걸려들지 않는데 재간이 있어야지…… 甲山工作員들처럼 억울한 죽음만 당하게 할수는 없지 않는가. 對南事業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숙청시 黨命을 어겼다고 폭로된 內容)

1967.4 朴金喆, 中央黨會議, 黨中央委員

○「보천보 전투는 실은 金日成遊擊隊가 食糧을 약탈하기 위해 불과 몇명의 경관밖에 없는 駐在所를 습격한 보잘것 없는 事件에 지나지 않는다……」(67.4 秘密會議에서 朴에 대한 批判內容)

「어디 두고 보자! 正議는 반드시 勝利할 것이다.」(朴의 숙

청이 결정된 67.4月 會議時 會議場 2層에서 投身自殺하려다 未遂
에 그쳤는데 이때 남긴 말)

1967.8 朴金喆(北傀黨副委員會 政治委員 67.3 숙청), 自宅,
甲山派

○「抗日武裝鬪爭史에는 造作된 것이 많다. 특히 소위 抗日 빨찌
산 參加者들의 回想記에는 엉터리 없는 것이 많다…… 왜 甲山
工作員들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言及이 없는가?

革命鬪爭을 했다는 者들의 大多數는 滿洲一帶에서 빈들빈들 남의
등을 치먹고 지낸 者들이다.」(朴 숙청후 63年3月頃 罪想暴露
講演에서의 犯罪事實內容)

1968.3 金昌奉(北傀 民保相 副首相 69.1 숙청) 非公式席上,
傀軍將領들

○「나는 “金日成將軍의 노래”만 들으면 꼭 승냥이 우는 소리같
아서 氣分이 나쁘다…… 革命傳統을 계승하고자 하는데 무엇을 어
떻게 하자는 것인가?…… 滿洲벌판을 헤메이던 時期처럼 現代戰을
하려고 하니 기막히는 일이 아닌가?…… “프에블로”는 왜 건드
려 놓고 골치들 앓고 있는지 모르겠다……」(69.1 人民軍黨 4期
4次會議에서의 排判內容)

1969.12 朴正愛(前北傀黨副委員長 政治委員 金容範의 妻 70.11
以後行方不明) 自宅 「女盟」幹部

「……抗日武裝鬪爭을 했다는 者들 왜 그모양인지 모르겠어(金昌

奉. 許鳳學등 軍事派속칭을 뜻)…… 黨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단 말이야. 首領同志以外는 한놈도 믿을수 없으니 말이야 金一이나 崔庸健이도 壽命을 다 살지 疑問이야…… 姓을 金으로 고치는 것이 가장 좋은 方法인데 甞때문에 그럴수도 없고…… 하기가 내 男便 容範동무처럼 金家姓을 가졌고 할만치 일도 했는데 그 많은 銅像중에 하나도 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으니 별것은 아니더라도 너무해……」(金富成의 証言)

1970.1 石山(前北傀社会安全相 70.11 속칭), 自宅, 社会安全省 幹部

○「……아까운 놈들 다 죽어난다. (註 金昌奉, 許鳳學등 軍事派指稱) 金昌奉이 같은 軍事幹部하나 얻기도 여간 힘들지 않는데 결국 黨을 위해서는 큰 損失이야……, 이번에 목찰린놈들이 모두 나하고 함께 抗日武装鬪争했지만 人間이 좀 교만하고 고집이 強해서 그렇지 머리도 좋고 活動力은 있단 말이야…… 그리고 보면 머리가 좋은놈은 이땅에서 배겨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군 바보처럼 구는 것이 上策이야 잘난체하지 말아야 해……」

(속칭시 反党的 傾向으로 批判된 内容)

1970.1 金光俠(前 北傀「民保相」政治委員 副首相), 自宅, 心腹部下

○「이제 首相同志도 살만치 살아서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疑問이다. 後繼者 問題를 서둘러야 한다. 한 사람이 너무 오래 權力을 쥐고 있으면 副作用이 생기게 마련인데, 首相同志도 진작 後繼者에 자리를

양보하고 平安히 지낼생각을 해야만 옳았다.」(金의 숙청시에 비
판된 内容中 일부)

1970.2.14 金日成 中央党 对南工作員 林과의 對話

○ 「...내가 동무들을 만나고자 한것은 동무들이 南朝鮮 農村에 다
녀왔기 때문에 그곳 형편을 직접들어보려고 보는 것이요.....(1問
1答계속) 農民이 革命하게 되는 것은 地主의 압박이나 착취가
심하든지 民族的인 不滿이 심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다. 地主들의
橫暴가 심할수록 革命이 일어나는 것인데.....지금 南朝鮮農村에서는
기만적인것이기는 하나 農村改革이라는 것을 하면서 小規模일지라도
自己땅에서 農事를 짓고 있으니 農民들이 거기에 希望을 걸고 食
糧不足에 죽을 썬먹으면서도 참고 견디고 있오.....南朝鮮革命은 南
朝鮮사람 自身이 하는 것이지 결코 北朝鮮사람이 해주는 것은 아
니다. 南朝鮮革命은 南朝鮮에 革命核心을 養成하며 그들의 先鋒에
서서 革命事業을 主導的으로 수행해야 한다. 对南工作員들의 任務
는 核心들을 養成하는데 있는 것이지 自身이 직접 先鋒에 나서는
것은 아니다.투철한 革命思想이 확립된 質的으로 준비된 核心
分者 幾百名만 있으면 능히 成功시킬수 있다. ...南勞党이 南朝鮮
革命力量을 망쳐놓았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革命与件상실 및 退潮
가 오늘날 農村革命力量 構築上 최대의 難点으로 대두되고 있다.
..... 現在의 환경으로 보아 南朝鮮農村을 革命化함에 있어서 教員
및 醫師들을 革命的 核心候補要員으로 選定함이 좋을 것이다.
革命을 하려면 階級意識이 強하다든가 民族意識이 強하다든가 두가지

중 하나는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노동자와 농민뿐 아니라 南朝鮮 知識人들중 民族意識이 강한 사람들을 포섭하여 교양하며 훌륭한 지도자급 要員이 된다는 것을 잊지말아야 한다. ……」(66年, 68年, 70年, 3回南派되었다가 체포된 間諜 林의 진술내용중)

1970.3 ~ 8月 金仲麟, 中央党事務室, 對南工作指導要員

○ 「…現在까지 專門적으로 訓練된 暗殺, 테러를 위한 工作組가 없어 失敗하였다. ……앞으로 專門工作組를 訓練시켜 反動要素를 除去해야 하겠다. …… 對南工作員들의 暴力訓練을 重點적으로 強代하기 위하여 T.N.T 爆破訓練, 工作員分隊戰鬪 指揮訓練을 비롯한 여러訓練을 教科目에 포함시켜 가르켜라…… 최근에 와서 日本政府의 予防活動의 強化로 地下網이 多數 파괴되고, 日本社會의 지나친 發展으로 工作員들이 日本에 침투한 후 離脱하는 例가 많아 이를 防止하기 위해서도 香港에 새로운 拠点을 마련하고 있다.

70年4月初 訪問한 周恩来、中國首相과의 合意에 의하여 中國地下組織의 積極적인 支援도 받을 수 있다. ……」

國際共產主義運動의 勝利를 위해서 印度, 파키스탄, 라오스 등을 비롯한 여러나라 共產黨에서 파견된 地下活動 要員들을 引受하여 訓練을 시켜주고 있다. ……」(71.3 自首한 間諜 高榮浩의 証言)

1970.11 金正一 5次党大会場, 中央委員

○ 「…党生活에 관한 党規約을 變更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党生活 總和를 1個月에 一回式하니 나타나는 결함들이 제때에 是正되지 못하고 결함들이 계속 쌓여서 問題가 제기된 다음에야 批判, 是正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함이 제때에 是正되지 못하고 오랜 期間 否定的인 作用을 하게 됨으로 黨員들의 党生活總和는 사소한 결함이라도 나타나는 즉시로 是正할 수 있게끔 2日에 1회式 하는 것이 가장 合理的이라고 생각하며 芸術人들 속에서 먼저 그 示範을 創造하려고 합니다. ……」 (柳大濶의 証言)

1970.11 金日成, 5次党大会場, 中央委員大会参加者

○ 「…이번 党大会에서는 勞動階級을 비롯한 農民과 現場에서 오랫동안 단련된 일꾼들로서 党中央委員會 候補委員制를 構成하려 합니다. 党中央委員會를 幹部들로만 꾸려놓으니 現場實情을 잘모릅니다.

實際일하는 勞動階級과 함께 國事를 論議하기 위하여 이번 党大会부터 準候補委員制를 實施하려고 합니다. …

市·郡党和 道党에서도 準候補委員制를 實施하는 것이 좋습니다. 中央党에서는 準候補委員制를 100余名으로 하려 합니다. 여기에서 農民들과 함께 對南事業을 하고 있는 工作員들과 戰鬪員들도 包含시키도록 하십시오.

이번 党大会에서 準候補委員으로 選舉할 사람들의 名單을 미리 만들어 가져오도록 하십시오. 工作員들과 戰鬪員들에 대한 名單은 내가 直接 檢討하겠습니다.」

(前 北傀軍 12師 30步兵聯隊 1大隊 3中隊 2小隊長 柳大潤
(1946年生. 1975.3 歸順)의 証言)

1970.11 鄭準沢(前 北傀副首相 國家企劃委員會 委員長 73.1
死亡), 自宅에서 部下幹部들에게

○ 「...5次黨大會에서 確定된 6個年計劃이 매우 어려운 課業이다.
그것은 資材·資金 技術問題등 여러 難關을 突破해야 하지만 보다
어려운 難關은 勤勞者들의 生産意欲이다. ...

지금까지 千里馬運動은 10余年 繼續해오는 동안에 社會主義競爭
熱意가 식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

왜그러한가? 勤勞者들에게 物質的 關心을 높이도록 한데 대한
黨의 指示가 잘 관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功名主義者들이
問題의 本質을 잘 把握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金富成의 証言)

1971.3 金日成, 中央黨會議, 對南工作 實務者會議參席者

○ 「...앞으로 武裝小組活動은 美國製武裝으로 하고 南朝鮮사람으로
假裝하여 遂行하는 것이 좋습니다. 美國製武器가 不足하면 越盟에
서 가져오면 됩니다. ...

앞으로 資本主義國家를 拠点으로 하는 迂廻侵透工作에 留意해야
합니다.

1. 南西 巴里를 利用하는 研究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巴里
에서는 越盟同志들이 保護해 주겠다고 합니다. 幹部問題와 外貨問
題등을 비롯한 必要한 活動條件은 다 解決해 주겠습니다. ...

南派된 工作員들이 逮捕되어 正体が 暴露될 경우 偽裝陳述을 하
여 가벼운 刑을 받도록 하십시오. 死刑만 되지 않으면 우리의
勝利를 꼭 보게 될것입니다.

武裝小組는 都市 테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売国奴와 反逆者
는 銃殺処斷하고 申告者에게 報復하면 집을 집어 먹고 申告하는
사람이 줄어들 것입니다. …」

(1971.7 自首한 間 崔達求의 証言)

1971.11 鄭一龍 (前 北傀党政治委員 金屬工業相 및 副首相
1973.12 肅清), 自宅, 部下幹部

○ 「…金屬工業部門의 不振狀態의 基本原因이 어디에 있는가? 党的
1次的인 関心이 들여지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제대로 지적되지 않
는것은 이 部門幹部들과 勤勞者들의 事業에도 결함이 있지만 根本
的인 問題는 더 깊은 곳에 있다고 생각해…

生産施設과 技術者 不足등도 그 原因의 하나이지만 보다큰 原因
은 党指導部에 技術問題 專門家가 거의 없단 말이야. 몇명 있기
는 하나 제대로 發言하나 못하는 판국에 技術的인 問題가 올바르게
解決될 수 없지 않는나, 한심한 일이야…」

(肅清될때 党的思想体系가 弱하다는 根拠로 引用됨)

1972.6 金炳植 (前 朝總聯副議長, 現在 金日成高級党学校 在学中)
日本 東京, 自派幹部

○ 「…平壤의 指導者들은 対日政策에 있어서 너무 小心하고 고집불
통이며 더우기 韓議長에게만 依存하려는 편파성 때문에 그릇치고

있어...

日本 財界 巨物들 중에 나를 더 믿지 韓議長을 믿는 사람이 어디에 있던 말인가. 그런데 平壤에서는 내가 큰 잘못이나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보는 모양인데 이번에 平壤에 가면 한번 談判을 지어볼 決心이요. 그런데 그이와 (註 金日成) 韓議長과의 關係가 무엇으로 連結되고 있는가에 따라 내 運命이 左右될거야. 그러나 「窮하면 通하겠지...」 (柳大潤의 証言)

1972.8 金英柱, 中央党會議室, 道·市·郡党 幹部

○ 「南朝鮮 會談代表들이 平壤에 왔을때 人民들이 그들을 처함에 있어서 다음 点들에 留意하도록 教養할 것이나, ①南半部 代表가 時計등 實重點을 주면서 對話를 試圖하면 “우리도 그런 物件있다” 면서 거절할 것, ②各 公共機關의 名稱을 質問하면 엉뚱한 生産工場 또는 企業所라고 對答하라, ③住民生活 形편을 質問하면 金日成 首領님의 配慮로 잘 산다고 答변할 것, ④南朝鮮 代表들이 통과할 때는 無關心한 태도를 취하며 만약 對話를 요청하면 “바쁘다”, “모른다”는 式으로 회피할 것, ⑤깨끗한 服裝을 着用하고 용모를 단정히 할 것...」 (孔卓虎의 証言)

1972.10 金聖愛(金日成의 後妻 「女盟」中央委員長), 南山高等中學校 職員室 教員들

○ 「...우리 平一이(註: 자기 所生, 金正一의 異腹동생) 學校生活이 어 떤지 여러 동무들께서 기탄없이 말해주면 家庭教育에서 參考가

되겠습니다. ... 집에서 하는 言動은 首領同志를 꼭 닮아서 하나에서 열까지 틀림없이 그대로 애요, 심지어 목소리와 몸집까지 닮았지 않았습니까 이 點에 있어서 兄(注:正一)과는 매우 對照的인 것 같은데 여러 동무들의 意見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孔卓虎의 証言)

1972.11 李鍾玉(前 北傀党 政治委員 副首相兼 重工業相 73年

숙청 ※하루빈工大 出身), 自宅, 部下幹部

○「...技術幹部들의 役割을 높여야 해... 6個年計劃은 元來 5個年計劃으로 作成한 것이지만 6個年에도 지금 상태로는 어려울것 같아, 그 原因은 技術問題야, 党에서 技術革命을 다그치라고 強調하고 있는 意圖도 바로 여기에 있는게야... 앞으로 새로운 生産施設도 많이 들어오겠지만 問題는 技術幹部 問題야. 지금까지 우리 党은 적지않게 이 問題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量的으로는 어느 정도 확보되었지만 質的으로는 형편없는 実情이다. 技術系 大學이 수많이 있지만 엄밀히 따져서 日帝時期 実業中等学校 水準밖에 되지 않을거야. 그 原因이 어디 있느냐? 가르치는 사람의 水準問題나... 工科系統 大學教員中에 蘇聯이나 東歐 兄弟国家에 留学하고 돌아온 동무들이 몇명있단 말이야, 1956年의 “헝그리아” 事態 이후 留學生들을 모조리 소환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사태는 좀 달라졌을 것이다. 그리고 技術者에 대한 党的信任을 높이고 설사 약간 잘못이 있었더라도 寬大하게 대해서야 했을 터인데 손톱밑 곰기는 것만 크게 걱정한 셈이야...」(숙청당시 비판된 內容의 일부)

1973.2.15 金日成, 中央党, 社会安全員 및 政治保衛部 幹部들
○ 「…社会安全部는 政治保衛部に 설대 복종해야 한다. 政治保衛部
는 오직 党 組職部에서만 檢閱할 수 있다. 즉 내가 党조직을
발동하여 검열하라고 할 때만 할수있다…」

1973.7.9 金日成, 中央党, 社会安全員 및 政治保衛部 幹部들
○ 「…經濟犯과 태만분자들은 지나치게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
政治犯만해도 술한 사람을 원수로 만들고 있는데 經濟犯들까지 원
수로 만들면 곤란하게 된다. 思想事業을 잘못하니까 基本群衆들도
나빠지고 있다. 이는 反動들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고
敵은 偵察活動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
다. 그들은 地主의 아들 딸들에 붙는다. 그러나 事業을 地主의
아들, 딸들을 배세워 하는 것이 아니라, 동무들이 疑心하지 않는
사람을 배세워서 하는 것이다. 申告한 사람에게 주는 선물은 비밀
리에 주어야 하나 꼭 몇사람의 立會下에서 주라, 한 사람에게 말
기면 안줄수도 있기 때문이다. 精神病者에게도 注意를 돌려야 한
다. 지금 그들이 여기 저기 돌아다니고 있는데 수상하다.」

(孔卓虎의 証言)

1973.9 金一 中央党會議室 5期7次全員會議參加者

○ 「蘇聯은 스탈린과 比等한 後繼者가 없어 死亡後 指導体制에 混
亂을 가져왔고 결국 修正主義로 転落하고 말았다. 中国에서도
毛沢東의 後繼者가 決定못돼 權力鬭爭의 一環으로 文化革命이 發生

하였고 最近에는 批林批孔運動으로 混亂狀態가 繼續되고 있다. ...

金正一동무는 金日成 同志의 思想으로 武装되어 있고 젊고 霸氣가 있어 識見과 芸術部門을 通한 党業績, 그리고 人品이 総秘書 同志 못지않다. 또한 金日成同志의 主体思想으로 完全히 武装되어 있고, 指導와 事業方法도 完全히 体得하고 있기 때문에 金正一동무를 後繼者로 추천하는 것이 適當하다고 생각한다.」

(前 南城市「国家政治保衛部」指導員 孔卓虎의 証言, 그는 政治保衛部員들의 學習會에서 上記事實을 傳達받았다고 한다.)

1974.1) 金炳夏(北傀政治保衛部長), 政治保衛部會議室, 政治保衛部 道·市·郡部長

○ 「...요안 “9番事件(注, 金日成 誹謗罪)”과 5番事件(金日成 冒瀆罪)”가 늘어나고 있는 理由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는 代를 忠誠토록 하자는 党的 方針에 대하여 일종의 挑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背後 主動者가 누구인가를 가려내는 것은 現時期 우리 国家政治部가 수행해야 할 가장 核心的인 任務이다. 나는 이 背後人物중에 반드시 党的 高位幹部級의 暗害分子가 介在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首領同志께서도 敎示하신 바와 같이 우리 唯一體制의 가장 허술한 곳은 党内部이다. 黨員들이라고 하면 無條件 믿고 특히 党幹部라고 하면 모든 言動이 革命的이고 党性이 강한 것으로 믿어왔기 때문에 過去 數 많은 反革命分子들이 党高位幹部들 속에서 나왔다는 事實을 忘却해서는 안된다. ...

앞으로 国家政治保衛部는 党幹部들의 一挙一動을 銳意 注視할 必要가 있다.」 (孔卓虎의 証言)

1974.2 金国泰(北傀党 中央委宣傳煽動部長 金策의 長男), 中央
党會議室, 道·市·党宣傳部長

○ 「... 2月19日은 金正一 秘書同志의 誕生 33 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날에 全国 各 機關과 企業所들에서는 일체히 秘書同志의 誕生 33
들 祝電을 보내야 합니다. 그 內容은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 尊敬하는 指導者이신 党中央委員會 金正一 秘書同志의 탄생 33 周
年을 맞이하여 祖国統一과 南朝鮮革命의 前哨線에 선 우리들은 首領
님의 革命思想을 實現하며 祖国統一을 앞당기기 위한 鬪爭에서 敬愛
하는 首領님과 尊敬하는 指導者이신 党中央委員會 金正一 秘書同志께
끝없이 忠誠한 近衛隊와 決死隊가 될 것을 맹서합니다. 尊敬하는
党中央委員會 金正一 秘書同志의 만수무강을 삼가 祝願합니다. ” ...
또한 이날을 기하여 党團體들이 主動이 되어 秘書同志에게 보내는
膳物을 조작하도록 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孔卓虎의 証言)

1974.2 金正一, 中央党會議室, 党組織担当 幹部들

○ 「党 및 行政機關 幹部들의 世代交替에 있어서 다음 原則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郡級 指導員 以上은 1960年度 以後 大學
卒業者로서 40세 未滿, 革命思想으로 武装된 幹部로 交替할 것

- ② 現 幹部中 咸南·北과 平北 및 江原出身이 8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幹部登用은 平南道 出身에서 主로 選擧할 것
- ③ 60年度 以前 大學卒業者와 40세 以上은 늙은 幹部로 看做하
고 現 職 以上으로 登用하지 말 것」 (孔卓虎 証言)

1974.6.10 金仲議, 第2南侵 땅굴現場, 工事要員

○ 「땅굴工事は 党創建 30 돌 前까지 完了해야 한다. ... 工事が 完
了되면 時間當 輕步兵 人員 3萬名이 통과하며, 前方地域에 있는 國
軍을 包圍하는 한편 後方을 차단하여 신속히 輕步兵이 서울로 侵透
하는 同時에, 特殊8軍團을 落下傘으로 中心地域 즉 서울江南 內陸에
落下시키고 海岸으로는 海上輕步兵이 上陸하면 3日以内に 戰爭을 끝
낼수 있다. 美軍이 介入하더라도 最少한 3日은 所要된다. 」

(金富成 証言)

1974.3.14 金仲麟, 中央党會議室, 案内組長會議參加者

○ 「現在의 案内任務도 重要하지만 大事變이 일어나면 海上에서는
海上遊擊戰, 陸上에서는 陸上遊擊戰을 해야 한다. 党創建 30周年
까지 모든 準備를 完了하고 大事變을 맞이해야 하겠으니 案内組長
들은 党的 기대에 보답할 것으로 믿는다. ...」 (金富成의 証言)

※ 會議가 끝난후 案内組長들은 「75年末 冬季에는 戰爭이 일어난
다」고 느꼈다고 함.